셜록 홈즈의 귀환

The Return of Sherlock Holmes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90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10-09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The Return of Sherlock Holmes" (The Strand Magazine 1903–04)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10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10-09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집의 모험

1894년 봄, 런던 전체가 들썩였다. 매우 이례적이고 설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로널드 어데어 경이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상류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중은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의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실이 은폐되었다. 검찰 측의 증거가 워낙 압도적이라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는 그 놀라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완성할 빠진 고리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사건 자체로도 흥미로웠으나, 그 뒤에 이어진 믿기 힘든 전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일은 내 모험적인 삶을 통틀어 가장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긴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전율이 일고, 당시 내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기쁨과 경악, 그리고 믿기지 않는 감정들이 다시금 밀려온다.

그동안 내가 아주 특별한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간간이 전했을 때 관심을 보여준 대중에게 미리 말해두고 싶다. 내가 그동안 모든 지식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 말기를 바란다. 만약 그가 직접 내게 엄중히 금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최우선 의무로 여겼을 것이다. 그 금지는 지난달 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풀렸다.

셜록 홈즈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나는 범죄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홈즈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대중에게 알려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갔다. 때로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홈즈의 수사 방식을 직접 적용해 보기도 했으나,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로널드 어데어의 비극만큼 내 흥미를 끈 사건은 없었다.

검시 결과가 미상의 인물 혹은 인물들에 의한 고의적 살인으로 결론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셜록 홈즈의 죽음으로 사회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깨달았다. 이 기묘한 사건에는 분명 홈즈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을 법한 지점들이 있었다. 유럽 최고의 범죄 수사 전문가인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기민한 두뇌가 있었다면, 경찰의 수사는 보완되었거나, 아마도 훨씬 앞서 해결되었을 것이다.

진료를 위해 돌아다니는 내내 나는 머릿속으로 이 사건을 되짚어 보았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야기를 다시 꺼내는 실례를 무릅쓰고, 검시가 끝난 후 대중에게 공개된 사실들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로널드 어데어 경은 당시 호주 식민지의 총독을 맡고 있던 메이누스 백작의 차남이었다. 어데어의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호주에서 돌아온 상태였으며, 그녀는 아들 로널드, 그리고 딸 힐다와 함께 파크 레인 427번지에 함께 살고 있었다. 이 청년은 상류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했으며, 알려진 바로는 원수도, 특별한 악습도 없었다. 그는 카스태어스의 에디스 우들리 양과 약혼한 적이 있었으나, 몇 달 전 양측의 합의로 파혼했다. 파혼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기색도 없었다. 그 외에 그의 삶은 좁고 관습적인 틀 안에서 흘러갔다. 성격이 차분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평온한 젊은 귀족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1894년 3월 30일 밤 10시에서 11시 20분 사이, 죽음은 매우 기이하고도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를 덮쳤다.

로널드 어데어는 카드 게임을 즐겼다. 끊임없이 게임을 하곤 했지만, 결코 형편이 어려워질 정도의 큰 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볼드윈, 캐번디시, 그리고 바가텔 카드 클럽의 회원이었다. 조사 결과, 그가 사망한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바가텔 클럽에서 휘스트 게임을 한 한 판의 러버(rubber)가 확인되었다. 그날 오후에도 그는 그곳에서 게임을 했다. 머레이 씨와 존 하디 경, 그리고 모런 대령 등 그와 함께 게임을 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게임 종목은 휘스트였으며 카드 배분은 꽤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어데어가 5파운드 정도를 잃었을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상당한 자산가였기에 그 정도의 손실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그는 거의 매일 어느

클럽에서든 게임을 즐겼지만, 신중한 플레이어였기에 대개는 돈을 따고 돌아오곤 했다. 검시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몇 주 전 모런 대령과 파트너를 맺고 고드프리 밀너와 발모럴 경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무려 420파운드나 따기도 했다. 검시를 통해 드러난 그의 최근 행적은 이 정도였다.

범행 당일 저녁, 그는 정확히 10시에 클럽에서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친척과 저녁 시간을 보내러 외출 중이었다. 하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그가 2층에 있는 앞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방은 평소 그의 거실로 쓰이는 곳이었다. 하인은 그곳에 불을 지폈으나 연기가 나자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했다.

그 후 메이누스 부인과 그녀의 딸이 돌아온 11시 20분이 될 때까지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인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의 방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쳐 불러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결국 도움을 요청해 문을 강제로 열었다.

불행한 청년은 탁자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팽창하는 권총 탄환에 머리가 처참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방 안 어디에서도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10파운드권 지폐 두 장과 은화 및 금화로 된 17파운드 10실링이 놓여 있었는데, 돈은 액수별로 작은 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종이 한 장에는 몇몇 숫자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클럽 친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죽기 전 카드 게임에서 잃거나 딴 돈을 계산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황을 면밀히 조사할수록 사건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다. 우선, 그 젊은이가 왜 안에서 문을 잠갔는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살인범이 문을 잠근 뒤 창문으로 탈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떨어지는 높이는 최소 20피트에 달했고, 그 바로 아래에는 크로커스가 만개해 있었다. 꽃이나 흙 어디에도 누군가 지나간 흔적은 없었으며, 집과 도로 사이의 좁은 잔디밭에도 아무런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젊은이 본인이 직접 문을 잠근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창문까지 기어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설령 누군가 창문을 통해 총을 쐈다고 가정해 보자. 리볼버로 그토록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면, 그자는 분명 놀라운 사격 실력을 갖춘 명사수일 것이다. 게다가 파크 레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길목이며, 집에서 100야드 이내에는 마차 대기소까지 있다. 그런데도 총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죽은 남자가 있었고, 그 곁에는 리볼버 탄환이 놓여 있었다. 탄환은 연성 탄두 특유의 모양으로 뭉개져 있었는데, 이는 즉사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음을 의미했다. 이것이 바로 파크 레인 미스터리의 정황이었다. 게다가 범행 동기조차 전혀 알 수 없어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앞서 말했듯 젊은 어데어에게는 원한을 살 만한 적이 없었으며, 방 안에 있던 돈이나 귀중품을 훔치려 한 흔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나는 이 사실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어낼 이론을 찾아내려 애썼고, 내 불행한 친구가 모든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던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찾아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저녁 무렵, 나는 공원을 가로질러 산책을 하다가 여섯 시쯤 파크 레인의 옥스퍼드 스트리트 쪽 입구에 다다랐다. 보도에 모여 선 한 무리의 부랑자들이 특정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내가 찾아가려던 집을 금방 알아낼 수 있었다. 색안경을 쓴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자기 나름의 이론을 떠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위해 주변으로 몰려들어 있었다. 나는 그가 사복 형사일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며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하지만 그가 늘어놓는 말들이 너무나 터무니없게 느껴져, 나는 실망감을 안고 다시 뒤로 물러났다.

그때 내 뒤에 서 있던 등이 굽은 노인과 부딪혔고, 그가 들고 있던 책 몇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책을 주워 올리던 나는 그중 한 권의 제목이 《수목 숭배의 기원》인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노인이 희귀한 서적을 수집하는, 직업이든 취미든 책을 무척 사랑하는 불쌍한 애서가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실수에 대해 사과하려 했으나, 내가 부주의하게 다룬 그 책들이 주인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노인은 경멸 섞인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몸을 돌려 떠나버렸고, 나는 그의 굽은 등과 하얀 구레나룻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파크 레인 427번지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택은 낮은 담장과 난간으로 도로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높이가 채 5피트도 되지 않았다. 덕분에 누구나 정원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주 쉬워 보였다. 하지만 창문만큼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다. 아무리 몸놀림이 날랜 사람이라 해도 타고 올라갈 만한 배수관이나 발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욱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다시 켄싱턴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재에 들어온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녀가 들어와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고 전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그 기묘한 고서 수집가가 서 있었다. 백발에 둘러싸인 그의 날카롭고 쭈글쭈글한 얼굴이 보였고, 그의 오른쪽 팔 아래에는 귀한 책들이 적어도 열두 권은 족히 되어 보였다.

"저를 보고 놀라셨군요, 선생님." 그가 쇳소리가 섞인 기묘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절뚝거리며 당신 뒤를 따라오다 우연히 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친절한 신사분을 찾아가서, 아까는 말투가 좀 거칠었지만 결코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제 책을 주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유난을 떠시는군요." 내가 말했다. "그런데 실례지만,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근처 이웃입니다. 처치 가 모퉁이에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손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혹시 책을 좀 모으시는지요? 여기 《영국 조류》와 《카툴루스》,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전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것들이지요. 이 다섯 권이면 저기 두 번째 선반의 빈 공간을 딱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보시기에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뒤편에 있는 찬장을 바라보았다. 다시 몸을 돌렸을 때, 셜록 홈즈가 내 서재 책상 맞은편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초 동안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분명 눈앞에 회색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듯하더니, 안개가 걷히자 깃이 풀린 옷차림과 입술에 남은 브랜디의 알싸한 뒷맛이 느껴졌다. 홈즈는 내 의자 쪽으로 몸을 굽힌 채, 손에 플라스크를 들고 있었다.

"이보게, 왓슨."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가 말했다. "정말 미안하네. 자네가 이토록 마음을 쓸 줄은 미처 몰랐어."

나는 그의 양팔을 꽉 움켜쥐었다.

"홈즈!" 내가 외쳤다. "정말 당신인가요? 정말 살아 있었던 겁니까? 그 끔찍한 심연을 뚫고 기어 올라오는 데 성공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게." 그가 말했다. "자네, 정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불필요할 정도로 극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바람에 자네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군."

"난 괜찮네. 하지만 홈즈, 정말이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세상에! 자네가, 하필 자네가 내 서재에 서 있다니!"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소매를 움켜쥐었다. 옷감 너머로 가늘고 강인한 팔의 근육이 느껴졌다. "그래도 유령은 아니군." 내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를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네. 일단 좀 앉게나. 그 끔찍한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건지 어서 말해주게."

그는 내 맞은편에 앉더니, 예전처럼 무심한 태도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책 장수들이나 입을 법한 낡고 해진 프록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옷차림을 한 사람의 나머지 모습은 테이블 위에 쌓인 흰 머리카락과 오래된 책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홈즈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날카로워 보였으나, 매부리코를 가진 그의 얼굴에는 창백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그가 최근까지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해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몸을 좀 움직이니 좋군, 왓슨." 홈즈가 말했다. "키 큰 사람이 몇 시간 동안이나 몸을 굽히고 있어야 한다는 건 결코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자, 여보게,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자네의 협조가 좀 필요

하네. 앞으로 아주 힘들고 위험한 밤샘 작업이 기다리고 있거든. 차라리 그 일을 다 끝낸 뒤에 전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군요. 지금 바로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가겠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정말이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군. 출발하기 전까지 저녁을 한 입이라도 먹을 여유는 있겠어. 자, 그럼 그 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나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네.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지. 애초에 나는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 왓슨. 난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네. 자네에게 남긴 쪽지는 정말로 진심이었어. 안전한 길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끝에, 이미 세상을 떠난 모리아티 교수의 불길한 모습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생애가 끝났음을 직감했네. 그의 회색 눈동자에는 거스를 수 없는 살의가 서려 있었지. 그래서 나는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고, 자네가 나중에 받게 될 짧은 쪽지를 써도 좋다는 정중한 허락을 받았네. 나는 쪽지를 담배 상자, 지팡이와 함께 남겨두고 통로를 따라 걸었네. 모리아티는 여전히 내 뒤를 바짝 쫓고 있었지.

통로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네. 그는 무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달려들어 긴 팔로 나를 껴안았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달은 그는, 오로지 나에게 복수하고 싶어 할 뿐이었네. 우리는 벼랑 끝에서 함께 비틀거렸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바리츠, 즉 일본식 레슬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기술은 전에도 여러 번 내게 큰 도움이 되었네. 나는 그의 움켜쥔 손아귀를 빠져나갔네. 그러자 그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몇 초 동안 미친 듯이 발버둥 쳤고, 양손으로 허공을 할퀴었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심을 잡지 못했고, 결국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네. 벼랑 끝에 얼굴을 내밀고 보니, 그가 아주 먼 거리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였네. 그러다 그는 바위에 부딪혀 튀어 올랐고, 이내 물속으로 첨벙하며 빠져들었네."

홈즈는 담배를 한 모금씩 빨아들일 때마다 그 설명을 이어갔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발자국이 있습니다!" 내가 외쳤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두 명의 발자국이 길을 따라 내려갔지만, 돌아온 발자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정은 이랬다네. 교수가 사라진 그 순간, 운명이 내 앞에 놓아준 이 기막히게도 엄청난 행운이 무엇인지 깨달았지. 나를 죽이겠다고 맹세한 자가 모리아티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네. 적어도 세 명은 더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죽으면 나를 향한 복

수심이 더욱 불타오를 자들이었지. 하나같이 매우 위험한 자들이었기에, 그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이 분명했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확신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네. 그놈들은 방심하게 될 것이고, 곧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 머지않아 내가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겠지. 그때가 바로 내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세상에 알릴 적기일 거야. 내 두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네. 아마 모리아티 교수가 라이헨바흐 폭포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나는 이미 이 모든 계획을 머릿속으로 끝마쳤을 걸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편의 암벽을 살펴보았네. 몇 달 후 내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자네의 그 그림 같은 기록에서는, 그 벽이 깎아지른 수직 절벽이었다고 단언했더군.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과 조금 달랐네. 발을 디딜 만한 작은 틈새가 몇 군데 보였고,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도 있는 듯했지. 절벽이 워낙 높아서 그 전체를 기어오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네. 그렇다고 젖은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 또한 불가능했지.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랬듯 장화를 앞뒤 거꾸로 신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 방향으로 세 세트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면 분명 누군가 속이려 한다는 인상을 주었을 거야.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암벽을 타는 것이 최선이었네.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어, 왓슨. 발밑에서는 낭떠러지의 포효가 들려왔지. 내가 공상에 잘 빠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맹세컨대 저 심연 속에서 모리아티가 나를 향해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

았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으니까. 손에 잡은 풀뭉치가 통째로 뽑혀 나가거나 젖은 바위 틈에서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나는 몇 번이고 죽음을 직감했네. 하지만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간 끝에 마침내 폭이 몇 피트나 되는 바위 선반에 도달할 수 있었지. 그곳은 부드러운 초록빛 이끼로 덮여 있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었네. 내가 그곳에 몸을 뉘이고 있을 때, 나의 친애하는 왓슨, 자네와 자네의 일행은 나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을 더없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영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었지.

"결국 자네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호텔로 떠나버렸을 때, 나는 홀로 남겨졌네. 나는 내 모험이 여기서 끝난 줄로만 알았지.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직 나를 기다리는 놀라운 일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

거대한 바위 하나가 위에서 떨어지며 굉음을 내며 내 곁을 스쳐 지나갔네. 바위는 길을 강타하더니 그대로 협곡 아래로 튀어 내려갔지. 순간 나는 그저 사고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잠시 후 고개를 들어보니, 어둑해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머리가 보였고, 곧이어 또 다른 돌 하나가 내가 누워 있던 바로 그 절벽 끝을, 내 머리에서 불과 1피트 떨어진 곳에 내리꽂혔네.

물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했네. 모리아티는 혼자가 아니었어. 교수가 나를 공격하는 동안 그의 공범이 망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 그 짧은 찰나의 눈길만으로도, 나는 그 공범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 수 있었네. 그는 내가 보지 못하는 먼 곳에서 친구의 죽음과

나의 탈출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네. 그러고는 기다렸다가 절벽 꼭대기로 빙 돌아 올라가, 동료가 실패한 일을 완수하려 했던 것이라네."

"생각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네, 왓슨. 그 험상궂은 얼굴이 절벽 너머를 살피는 것을 다시 보았을 때, 곧 돌이 또 날아오리라는 걸 직감했지. 나는 곧장 길을 향해 아래로 기어 내려갔네. 냉정하게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올라가는 것보다 백 배는 더 힘들었지. 하지만 위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네. 절벽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또 다른 돌 하나가 내 곁을 쌩 하고 스쳐 지나갔거든. 내려가던 도중 발을 헛디디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상태로 길 위에 내려앉을 수 있었네. 나는 곧장 도망쳤지. 어둠 속에서 산을 넘어 10마일을 달렸고, 일주일 뒤에는 피렌체에 도착해 있었네.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거라는 확신을 품은 채 말일세."

"내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형인 마이크로프트뿐이었네. 미안하네, 왓슨. 하지만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 자네가 내 비극적인 최후를 그토록 설득력 있게 기록한 것도, 자네 스스로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임이 분명하니까. 지난 3년 동안 자네에게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네. 하지만 자네가 나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혹여나 실수라도 해서 내 비밀을 누설하게 될까 봐 늘 두려웠다네. 오늘 저녁, 자네가 내 책들을 어지럽혔을 때 내가 외면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네. 당시 나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자네가 놀라거나 감정을 드러냈다면 내 정체가 탄로 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르니까.

마이크로프트에게는 자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의지해야 했네. 런던의 상황은 내 기대만큼 좋지 않았어. 모리아티 일당의 재판 결과, 가장 위험한 조직원 두 명이 풀려났는데, 그들은 나에게 가장 집요한 원수들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2년 동안 티베트를 여행했네. 라싸를 방문하고 라마 성자와 며칠간 시간을 보내며 유흥을 즐겼지. 자네는 시거슨이라는 노르웨이인의 놀라운 탐험 기록을 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소식이 바로 친구인 나의 소식이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을 걸세. 그 후 페르시아를 거쳐 메카를 들렀고, 카르툼의 칼리파를 짧지만 흥미롭게 방문했네. 그 결과는 외무성에 보고해 두었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남부 몽펠리에의 실험실에서 몇 달 동안 콜타르 유도체 연구에 몰두했지. 연구를 만족스럽게 마치고 런던에 남은 원수가 이제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네. 그러다 이 아주 기묘한 파크 레인 미스터리 사건 소식을 듣고 서둘러 움직이게 되었지. 이 사건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웠지만, 내게 아주 특별한 개인적 기회를 제공해 줄 것 같았거든.

나는 즉시 런던으로 날아와 베이커가에 직접 들렀네. 허드슨 부인을 발작할 정도로 놀라게 만들었지. 마이크로프트가 내 방과 서류들을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해 두었더군. 그래서 말인데, 왓슨, 오늘 오후 2시에 나는 나의 오래된 방, 그 익숙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네. 그저 자네가 늘 앉아 있던 옆 의자에 나의 오랜 친구 왓슨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네."

그 4월의 어느 저녁,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만약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그 키 크고 마른 체구와 날카롭고 열정적인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어떤 경로로든 내가 겪은 슬픈 상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위로는 말보다는 태도를 통해 전해졌다.

"슬픔을 달래는 데는 일이 가장 좋은 해독제라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오늘 밤 우리 둘이 함께할 일이 하나 있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지."

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충분히 듣고 보게 될 걸세." 홈즈가 대답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지난 3년간의 이야기가 아주 많으니까. 9시 반에 시작될 '빈집의 기묘한 모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이 정도로 해 두세."

그 시간, 나는 그와 함께 한섬 마차에 올라앉아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리볼버가 들어 있었고, 심장은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고동쳤다. 정말이지 옛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홈즈는 차갑고 엄숙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엄격한 얼굴 위로 번뜩일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미간을 찌푸린 모습과 굳게 다문 얇은 입술이 보였다.

우리가 범죄로 가득한 런던이라는 어두운 정글 속에서 어떤 맹수를 뒤쫓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련한 사냥꾼의 태도를 보건대, 이번 모험이 매우 중대한 사건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의 금욕적인 음울함 사이로 이따금 비치는 냉소적인 미소는, 우리가 쫓는 대상에게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베이커가로 향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홈즈는 캐번디시 광장 모퉁이에서 마차를 세웠다. 홈즈는 마차에서 내리며 좌우를 아주 세밀하게 살폈다. 그 뒤로도 길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미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느라 무척 애를 썼다.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 예사로운 경로가 아니었다. 홈즈는 런던의 뒷골목을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구간과 외양간들이 얽힌 미로 같은 길을 아주 빠르고 거침없이 통과해 나갔다.

마침내 우리는 낡고 음침한 집들이 늘어선 작은 길로 나왔다. 그 길을 따라 맨체스터가를 지나 블랜드퍼드 가에 다다랐다. 홈즈는 좁은 통로로 재빨리 꺾어 들어가더니, 나무 대문을 지나 인적이 끊긴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열쇠로 어느 집의 뒷문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홈즈는 우리 뒤로 문을 닫았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곳이 빈집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맨바닥의 나무 판자 위를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을 뻗어 더듬자 벽지가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리는 벽이 만져졌다. 홈즈가 차갑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내 손목을 움켜쥐더니, 문 위의 어둑한 채광창이 희미하게 보일 때까지 긴 복도를 따

라 나를 이끌었다. 홈즈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우리는 커다란 정사각형 모양의 빈 방에 들어섰다. 방 구석구석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나, 방 중앙은 거리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 덕분에 희미하게 밝았다. 근처에 등불은 없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서로의 형체조차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동행인인 홈즈가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내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나?" 그가 속삭였다.

"분명히 베이커가일 겁니다." 어둑한 창밖을 응시하며 내가 대답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캠든 하우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머물던 숙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온 겁니까?"

"저 그림 같은 건물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당이기 때문이라네. 왓슨, 미안하지만 창가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겠나? 몸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머물던 옛 방들을 한번 올려다보게나. 자네가 쓴 그 수많은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시작된 곳 말일세. 내가 3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네를 놀라게 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나."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익숙한 창문을 건너다보았다. 창문에 시선이 닿는 순간, 나는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다. 블라인드는 내려가 있었고, 방 안에서는 밝은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 한 남자

의 그림자가 창문의 밝은 화면 위로 검고 뚜렷한 윤곽을 그리며 비쳤다. 고개의 각도나 어깨의 너비, 그리고 이목구비의 날카로움은 누가 보아도 틀림없었다. 얼굴이 반쯤 돌려져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즐겨 액자에 넣어 보관하던 검은 실루엣 그림 같았다. 그것은 완벽한 홈즈의 모습이었다.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내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확인하려 손을 뻗었다. 그는 소리 없이 웃느라 몸을 떨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가 물었다.

"세상에!" 내가 외쳤다. "정말 경이롭군요."

"내 끝없는 다채로움이 세월에 시들거나 관습에 무뎌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물을 바라볼 때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에서 그 감정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정말 나랑 꽤 닮지 않았나?"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맹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그르노블 출신의 오스카 뮤니에 씨 덕분입니다. 그분이 며칠 동안 공을 들여 틀을 잡아주셨거든요. 이건 밀랍으로 만든 흉상입니다. 나머지는 오늘 오후에 베이커가에 들러 제가 직접 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입니까?"

"그건 말일세, 친애하는 왓슨. 내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특정 인물들에게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믿게 만들어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네."

"그 방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네."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내 옛 원수들이야, 왓슨. 라이헨바흐 폭포에 우두머리가 처박힌 그 매력적인 집단 말일세.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건 오직 그들뿐이었네. 그래서 그들은 조만간 내가 내 방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지. 그들은 내 방을 쉼 없이 감시해 왔고, 오늘 아침 내가 도착하는 모습까지 지켜본 거야."

"어떻게 아셨습니까?"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들의 파수꾼을 알아봤기 때문이라네. 파커라는 이름의 그 친구는 딱히 해를 끼칠 인물은 아니야. 직업은 목을 졸라 강도질하는 자지만, 구금(口琴)을 꽤 훌륭하게 연주하거든. 난 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훨씬 더 위협적인 인물에게는 아주 큰 관심이 있었지. 모리아티의 심복이자, 절벽 아래로 바위를 떨어뜨린 자, 그리고 런던에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범죄자 말일세. 왓슨, 오늘 밤 나를 노리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쫓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자도 바로 그 사람이지."

내 친구의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은밀하고 편리한 은신처에서, 감시자들은 역으로 감시를 당했고 추적자들은 도리어 추적을 당했다. 저 멀리 보이는 각진 그림자는 미끼였고, 사냥꾼은 바로 우리였다. 우리는 어둠 속에 나란히 서서, 우리 앞을 바쁘게 지나치고 다시 되돌아오는 인물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홈즈는 미동도 없이 침묵을 지켰지만, 그가 신경을 곤두세운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쫓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었다.

황량하고 거친 밤이었다. 긴 거리를 따라 바람이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며 몰아쳤다. 사람들은 저마다 코트와 넥타이를 여민 채 분주히 오갔다. 한두 번쯤은 아까 본 것 같은 인물이 다시 지나가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특히 저 멀리 길가 어느 집 문간에서 바람을 피하고 있는 듯한 사내 두 명에게 눈길이 갔다. 나는 동료에게 그들을 보라고 눈짓을 해보았으나, 홈즈는 짜증 섞인 신음만 내뱉을 뿐 계속해서 거리 쪽을 응시했다. 그는 발을 가만두지 못하거나 벽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두드리는 등 몇 번이나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홈즈가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계획이 생각만큼 매끄럽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분명히 느껴졌다.

마침내 자정이 가까워지고 거리의 인적이 점차 드물어지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에게 말을 걸려던 찰나, 불이 켜진 창가로 눈을 돌렸다가 아까와 맞먹

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나는 홈즈의 팔을 붙잡고 창밖 위쪽을 가리켰다.

"그림자가 움직였어!" 내가 외쳤다.

우리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옆얼굴이 아니라, 분명히 뒷모습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의 성격은 여전히 거칠었다. 자신만큼 명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려 주는 인내심 또한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연히 움직였지." 홈즈가 말했다. "왓슨, 내가 그렇게 어설픈 멍청이라서, 누구나 알아챌 만한 가짜를 세워두고 유럽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자들이 속아 넘어가길 바랐겠나?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온 지 두 시간 동안, 허드슨 부인은 저 인형을 여덟 번이나 옮겼네. 대략 15분마다 한 번꼴이지. 부인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도록 앞쪽에서 인형을 움직이고 있어. 아!"

홈즈가 날카롭고 흥분된 숨을 들이켰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그가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채, 온몸을 빳빳하게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두 남자가 여전히 문가에 몸을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은 형상이 그려진 눈부시게 노란 스크린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 주변은 온통 정적과 어둠뿐이었다.

적막을 깨고, 억눌린 격렬한 흥분을 드러내는 가늘고 쉿쉿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잠시 후, 홈즈는 나를 방 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끌어당겼다. 내 입술에 그의 경고하는 손길이 닿았다. 나를 붙잡은 그의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친구가 이토록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어두운 거리는 여전히 외롭고 정지된 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홈즈의 예민한 감각이 이미 포착했을 법한 기척이 내 귀에도 느껴졌다. 베이커가 쪽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숨기고 있는 바로 이 집 뒤편에서 낮고 은밀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곧이어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듯했으나, 빈 집 안에는 그 발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홈즈는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고, 나 역시 리볼버 손잡이를 움켜쥐며 똑같이 몸을 낮췄다. 어둠 속을 살피니, 열린 문 사이로 새어 나오는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 같은 남자의 윤곽이 보였다. 그는 잠시 멈춰 서 있더니, 이내 몸을 굽힌 채 위협적인 기세로 방 안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왔다. 불길한 형체의 남자가 우리로부터 채 3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다가왔다. 나는 그가 달려들 것에 대비해 몸을 긴장시켰으나, 곧 그가 우리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 창가로 다가가더니,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창문을 반 피트 정도 들어 올렸다. 그가 창틀 높이까지 몸을 낮추자, 먼지 쌓인 유리창에 가려지지 않은 거리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남자는 흥분으로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다. 두 눈은 별처럼 빛났고, 얼굴 근육은 경련하듯 실룩거렸다. 그는 마르고 툭 튀어나온 코, 높고

벗겨진 이마, 그리고 거대한 희끗희끗한 콧수염을 가진 노인이었다. 머리 뒤쪽으로는 오페라 햇이 밀려나 있었고, 풀어헤친 오버코트 사이로 연회용 셔츠 앞자락이 번뜩였다. 수척하고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에는 깊고 거친 주름이 패어 있었다. 손에는 지팡이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으나, 그가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자 금속성의 챙그랑 소리가 났다. 이어 그는 오버코트 주머니에서 부피가 큰 물건을 꺼내더니 무언가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스프링이나 걸쇠가 맞물리는 듯한 날카로운 클릭 소리가 들렸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앞으로 숙여 어떤 레버에 온 힘을 실어 눌렀다. 그러자 길게 회전하며 갈리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한번 묵직한 클릭 소리와 함께 멈췄다.

그가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그가 손에 든 것이 기묘하게 뒤틀린 개머리판을 가진 일종의 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약실을 열어 무언가를 집어넣고는 약실 잠금장치를 닫았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총구 끝을 열린 창틀에 올려놓았다. 그의 긴 콧수염이 총의 개머리판 위로 늘어졌고, 조준경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총을 어깨에 밀착시키자 만족스러운 듯 작은 한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의 가늠쇠 끝에 노란 바탕 위 검은 남자가 그려진 그 경이로운 표적이 선명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잠시 동안 뻣뻣하게 굳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강하게 당겼다. 기묘하고 커다란 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깨진 유리 조각들이 은빛으로 길게 흩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순간, 홈즈가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사수의 등을 덮쳤고 그를 바닥에 처박았다. 남자는 순식간에 다시 일어나 경련하듯 힘을 쓰며 홈즈

의 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리볼버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는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다. 내가 그를 눌러 제압하는 동안, 내 동료는 호루라기로 날카로운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보도 위로 급히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 두 명과 사복 형사 한 명이 정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레스트레이드 경위님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네, 홈즈 씨. 제가 직접 맡은 일입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신 걸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비공식적인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모양이군요. 레스트레이드 경위, 1년 사이에 미해결 살인 사건이 세 건이나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몰지(Molesey) 사건은 평소보다 조금 못 미치긴 했어도, 아니, 제 말은 꽤 잘 처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양옆에는 건장한 순경들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거리에는 벌써 구경꾼들이 몇 명 모여들기 시작했다. 홈즈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까지 내려버렸다. 레스트레이드가 양초 두 개를 꺼내 들자, 경찰들도 랜턴의 덮개를 벗겼다. 그제야 나는 죄수의 얼굴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 쪽을 향한 그 남자의 얼굴에서는 엄청난 활력과 동시에 불길한 기운이 동시에 느껴졌다. 위쪽은 철학자처럼 깊은 이마를 가졌으나, 아래쪽은 쾌락주의자처럼 강인한 턱선을 지닌 그 사내는 선이나 악, 어

느 쪽으로든 거대한 능력을 발휘할 법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처진 눈꺼풀 아래로 깔린 잔인한 푸른 눈동자나, 사납고 공격적인 코, 그리고 위협적으로 깊게 파인 미간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를 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다만 증오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홈즈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이 악마 같은 놈!" 그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이 영악하고, 영악한 악마 같으니!"

“아, 대령님!”

홈즈가 흐트러진 깃을 정리하며 말했다.

“옛 연극의 대사처럼, ‘여정의 끝은 연인들의 만남’이라더니 딱 그 꼴이군요. 제가 라이헨바흐 폭포 위 절벽에 쓰러져 있을 때 대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극진한 보살핌 이후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령은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내 친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간신히 내뱉을 수 있었던 말은 이것뿐이었다. “이 교활하고도 사악한 악마 같으니!”

“아직 소개를 안 했군요.” 홈즈가 말했다. “신사 여러분, 이분은 세바스찬 모런 대령입니다. 한때 여왕 폐하의 인도군 소속이셨죠. 우리 동양 제국이 배출한 사냥꾼 중 대형 사냥감을 맞히는 실력만큼은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대령님, 제가 알기로는 대령님이 잡은 호랑이의 수가 여전히 독보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사나운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동료를 여전히 매섭게 노려보았다. 짐승 같은 눈매와 빳빳하게 선 콧수염을 한 그의 모습은 마치 호랑이 그 자체처럼 보였다.

"내 아주 단순한 계략이 그토록 노련한 샤카리(shikari)를 속이다니 놀랍군." 홈즈가 말했다. "자네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식일 테지. 나무 아래에 어린 염소를 묶어두고, 그 위에서 소총을 든 채 호랑이가 미끼를 물러 오기를 기다려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이 빈집은 내가 올라탄 나무이고, 자네는 내가 노리는 호랑이라네. 아마 자네는 호랑이가 여러 마리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거나, 혹은 만에 하나 조준이 빗나갈 상황을 대비해 예비용 총을 준비해 두었겠지. 여기 이 물건들이," 그는 주변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내가 준비한 예비용 총들이라네. 자네의 방식과 아주 똑같지 않은가."

모런 대령은 분노 섞인 으르렁거림과 함께 앞으로 달려들었으나, 순경들이 그를 뒤로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에 서린 격분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자네가 나에게 작은 놀라움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홈즈가 말했다. "자네가 이 빈집과 앞쪽의 편리한 창문을 직접 이용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네. 나는 자네가 거리에서 활동할 줄 알았거든. 내 친구와 레스트레이드 경위, 그리고 그 수하들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 점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 흘러갔네."

모런 대령이 담당 경위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나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조롱을 참아줄 이유는 없네. 내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야."

"그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홈즈 씨?"

홈즈는 바닥에 떨어진 강력한 공기총을 집어 들고는 그 구조를 살피기 시작했다.

"정말 놀랍고도 독특한 무기군요." 홈즈가 말했다. "소리도 나지 않으면서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고인이 된 모리아티 교수의 의뢰를 받아 이 무기를 만든 독일인 맹인 정비공, 폰 헤르더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다뤄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이 무기와 여기에 딱 맞는 탄환들을 각별히 주목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 일은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홈즈 씨." 일행이 모두 문을 향해 움직일 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저 어떤 혐의로 고소할 계획인지 물으려는 것뿐인가요?"

"무슨 혐의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셜록 홈즈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지요."

"그렇지 않네, 레스트레이드. 나는 이번 사건에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네. 자네가 해낸 이 놀라운 체포의 공로는 오직 자네의 것이네. 그래, 레스트레이드, 진심으로 축하하네! 자네 특유의 그 영리함과 대담함을 아주 적절히 잘 버무려서, 결국 그를 잡아냈군."

"잡았다고요! 누구를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홈즈 씨?"

"경찰 전체가 헛되이 찾아 헤매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네. 지난달 30일, 파크 레인 427번지 2층 앞쪽 열린 창문을 통해 공기총의 확장탄으로 로널드 어데어 경을 사살한 세바스찬 모런 대령이지. 레스트레이드, 바로 이 혐의라네. 자, 왓슨.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외풍만 견딜 수 있다면, 내 서재에서 시가나 한 대 피우며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게 자네에게 꽤 유익한 즐거움이 될 것 같군."

마이크로프트 홈즈의 감독과 허드슨 부인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우리의 옛 거처는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였다. 내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평소보다 유난히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의 흔적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화학 실험을 하던 구석 자리와 산성 액체가 얼룩진 소나무 상판 탁자도 그대로였다. 선반 위에는 우리 이웃들이 본다면 당장이라도 불태워 버리고 싶어 할 법한, 위압적인 스크랩북과 참고 서적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도해들과 바이올린 케이스, 파이프 거치대, 심지어 담배가 담긴 페르시아식 슬리퍼까지 모두 눈에 들어왔다.

방 안에는 두 존재가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들어서자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준 허드슨 부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의 모험에

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묘한 인형이었다. 그것은 내 친구를 밀랍 색으로 본떠 만든 모형이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서 마치 홈즈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했다. 인형은 작은 받침대 탁자 위에 서 있었고, 홈즈의 낡은 가운이 몸을 감싸듯 드리워져 있어 거리에서 바라보면 완벽하게 실제 사람처럼 보였다.

"허드슨 부인, 모든 예방 조치를 다 하셨겠지요?" 홈즈가 물었다.

"말씀하신 대로, 무릎을 꿇고 그것에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훌륭하군. 아주 완벽하게 해냈어. 탄환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확인했나?"

"예, 선생님.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아름다운 흉상을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탄환이 머리를 그대로 관통해서 벽에 부딪히며 납작하게 찌그러졌거든요. 카펫 위에서 주워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홈즈가 그것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보시다시피 부드러운 권총 탄환이라네, 왓슨. 여기엔 아주 기발한 수법이 숨어 있어. 공기총에서 이런 게 발사될 거라고 누가 예상하겠나? 알겠습니다, 허드슨 부인.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왓슨, 자네를 다시 예전 자리로 안내해주게. 함께 논의하고 싶은 점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는 때가 탄 프록코트를 벗어 던졌다. 그러고는 자신의 모형에서 벗겨낸 쥐색 가운을 걸쳤다. 이제야 비로소 예전의 그 셜록 홈즈로 돌아온 모습이었다.

"늙은 사냥꾼의 신경은 여전히 침착하고, 눈매도 여전히 날카롭군."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부서진 흉상의 이마 부분을 살펴보았다.

"뒷통수 정중앙에 박혀서 뇌를 그대로 관통했네. 그는 인도에서 제일가는 명사수였지. 런던에서도 그보다 뛰어난 사수는 거의 없을 걸세.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허, 명성이란 게 참으로 대단하군! 하지만 내 기억이 맞다면, 자네는 제임스 모리아티 교수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걸세. 그는 이번 세기 최고의 두뇌를 가진 인물 중 하나였지. 잠시만 기다리게, 선반에서 전기 목록을 좀 꺼내올 테니."

그는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댄 채, 시가에서 커다란 연기 구름을 내뿜으며 나른하게 책장을 넘겼다.

"내 M으로 시작하는 수집품은 아주 훌륭하지." 홈즈가 말했다. "모리아티 본인만 해도 어떤 글자든 빛나게 만들 정도니까. 여기 독살자 모건이 있고, 끔찍한 기억을 남긴 메리듀도 있네. 채링 크로스 역 대기실에서 내 왼쪽 송곳니를 날려버린 매튜스도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친구가 있군."

그가 책을 건네주었고,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다.

모런, 세바스찬, 대령. 무직. 전직 방갈로르 개척대 제1연대 소속. 1840년 런던 출생. 전직 영국 페르시아 공사 오거스터스 모런 경(C.B.)의 아들. 이튼과 옥스퍼드에서 수학. 조와키 원정, 아프가니스탄 원정, 차라시아브(훈장 수여), 셔푸르 및 카불 전투 참전. 저서로는 『서히말라야의 대형 사냥(Heavy Game of the Western Himalayas)』(1881)과 『정글에서의 석 달(Three Months in the Jungle)』(1884)이 있음. 주소: 컨듀트가. 소속 클럽: 앵글로-인디언, 탱크빌, 바가텔 카드 클럽.

여백에는 홈즈의 정갈한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런던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사내.

"정말 놀랍군요." 내가 책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사람의 경력은 명예로운 군인의 삶 그 자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가 잘해냈지요. 그는 언제나 강철 같은 담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식인 호랑이를 쫓아 배수구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인도에서 전해 내려올 정도니까요. 왓슨, 어떤 나무들은 일정 높이까지는 잘 자라다가 갑자기 보기 흉할 정도로 기묘한 모양으로 뒤틀리곤 합니다. 사람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요. 제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 과정에는 조상들이 걸어온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인이 갑자기 악인이 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가문의 혈통에 강력한 영향이 끼쳤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자기 가문 역사의 요약본이 되는 셈이지요."

“분명히 꽤나 공상적인 이야기군요.”

"글쎄요,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모런 대령은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스캔들은 없었지만, 그는 인도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 문제를 일으켰지요. 결국 인도를 떠나 런던으로 왔고, 그곳에서 다시 악명을 떨쳤습니다. 모리아티 교수가 그를 찾아낸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모런 대령은 한동안 모리아티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지요. 모리아티는 그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일반적인 범죄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아주 수준 높은 일들에만 그를 이용했습니다.

혹시 1887년에 있었던 로더의 스튜어트 부인 사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음, 저는 모런이 그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확신하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이 워낙 교묘하게 몸을 숨긴 덕분에, 모리아티 일당이 소탕되었을 때조차 우리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없었지요.

당시 제가 당신의 방으로 찾아갔을 때, 공기총이 무서워 창문의 덧창을 내렸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분명 당신은 제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한 세계 최고의 사수 중 한 명이 그 총을 겨누고 있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스위스에 있을 때 그는 모리아티와 함께 우리를 뒤쫓아왔고, 라이헨바흐 폭포 절벽에서 저를 그 끔찍한 5분간의 사투로 몰아넣은 이도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그였습니다."

"내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그를 붙잡을 기회를 엿보며 신문을 유심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그가 런던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한, 내 삶은 정말 살 가치가 없었을 테니까. 밤낮으로 그 그림자가 나를 짓누를 것이고, 조만간 그에게 기회가 찾아올 게 분명했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나? 보이는 즉시 그를 쏠 수도 없었네. 그랬다간 내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테니까. 치안 판사에게 호소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었지. 판사들은 그저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개입할 수 없거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하지만 언젠가는 그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범죄 관련 소식을 계속 지켜보았지.

그러다 로널드 어데어의 사망 사건이 터졌네. 마침내 내 기회가 온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모런 대령이 범인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았나? 그는 그 청년과 카드 게임을 했고, 클럽에서 집까지 그를 미행했으며, 열린 창문을 통해 총을 쐈네.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그 총알만으로도 그의 목에 교수형 밧줄을 걸기엔 충분했네.

나는 즉시 건너왔네. 초병에게 내 모습을 보였고, 그 초병이 대령에게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는 나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자신의 범죄와 연관 지어 생각하며 엄청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나는 그가 '즉시' 나를 제거하려 시도할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해 살인 무기를 들고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했네. 나는 그가 노릴 만한 더없이 좋은 표적을 창문에 남겨 두었지. 그리고 경찰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미리 경고해 두었네. 아, 왓슨, 자네가 그 문가에 경찰들이 있는 걸 정확히 찾아냈던 건 정말 대단했네. 그 후 나는 관찰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리를 잡고 기다렸지. 그가 공격을 위해 선택할 장소가 바로 그곳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야.

자, 친애하는 왓슨, 이제 내가 더 설명해야 할 것이 남아 있나?"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모런 대령이 왜 로널드 어데어 경을 살해했는지,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친애하는 왓슨! 이제 우리는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군. 이곳은 아무리 논리적인 정신이라 해도 실수할 수 있는 곳이라네. 현재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사람마다 저마다의 가설을 세울 수 있지. 자네의 가설이 내 것만큼이나 맞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네.”

“그럼, 이미 하나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군요. 모런 대령과 젊은 어데어 두 사람이 함께 상당한 액수의 돈을 땄다는 사실이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모런이 분명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제 생각에 어데어는 살인이 일어난 당일, 모런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아마 어데어는 모런에게 따로 말을 걸어, 자진해서 클럽 회원직을 사퇴하고 다시는 카드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을 겁니다. 어데어 같은 젊은이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유명 인사를 폭로해서 끔찍한 스캔들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아마 제가 추측한 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모런은 부정한 카드 게임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기에, 클럽에서 퇴출당하는 건 곧 파멸을 의미했겠지요. 그래서 모런은 어데어를 살해한 겁니다. 당시 어데어는 파트너의 부정행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돌려줘야 할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던 참이었을 겁니다. 모런은 부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신이 이 이름들과 동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캐묻는 상황을 피하려고 문을 잠갔던 것이고요. 이 정도면 납득이 가십니까?"

"자네가 진실을 찾아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네."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지겠지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런 대령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폰 헤더의 그 유명한 공기총은 스코틀랜드 야드 박물관의 전시물이 될 것이고요. 이제 셜록 홈즈 씨는 다시금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런던의 복잡한 삶이 끊임없이 던져주는 흥미롭고도 작은 문제들을 파헤치는 데 온 삶을 바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우드의 건축업자

노우드 건축가 사건

"범죄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셜록 홈즈가 말했다. "모리아티 교수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런던은 유난히 흥미가 떨어지는 도시가 되어버렸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만한 제대로 된 시민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군요." 내가 대답했다.

"자, 자,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탁에서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다.

"사회 전체로 보면 분명 이득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없을 거야. 직업을 잃은 불쌍한 전문가 한 명을 제외하고 말이지. 그가 현역에 있을 때면 아침 신문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지곤 했네, 왓슨. 아주 미세한 흔적이나 희미한 조짐만 보여도 충분했지. 거미줄 가장자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만 보고도, 그 중심에 도사린 사악한 거미

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았으니까. 좀도둑질, 무분별한 폭행, 목적 없는 난동까지도, 단서를 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된 전체로 보였네. 고도의 범죄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당시 런던만큼 유리한 조건을 갖춘 유럽의 도시는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현재의 상황이 못내 아쉽다는 듯, 익살스럽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시점에 홈즈는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상태였다. 나 또한 그의 요청에 따라 운영하던 진료소를 정리하고, 다시 베이커가에 있는 옛 거처로 돌아와 그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버너라는 이름의 젊은 의사가 내가 켄싱턴에서 운영하던 작은 진료소를 인수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내가 제시한 최고 가격을 별다른 망설임 없이 흔쾌히 수락했다. 이 일의 내막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버너는 홈즈의 먼 친척이었고, 실제로 그 막대한 돈을 마련해 준 사람은 바로 내 친구 홈즈였다.

우리가 함께 일했던 그 몇 달간의 시간이 그가 말한 것처럼 그저 평온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내 노트를 다시 살펴보니, 그 시기에는 전직 대통령 무리요의 기밀문서 사건도 있었고, 우리 둘 모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네덜란드 증기선 프리슬란트호의 충격적인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홈즈는 차갑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 탓에 대중의 찬사를 받는 것을 늘 꺼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보나 수사 방식, 혹은 성공 사례에 대해 결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내게 엄중히 경고했다. 이미 설명했듯이, 그 금기는 이제서야 비로소 풀린 것이다.

셜록 홈즈는 기묘한 항의를 마친 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느긋한 태도로 아침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그때 벨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곧이어 누군가 바깥문을 주먹으로 거칠게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우리의 주의를 단번에 끌 만큼 소란스러운 소리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뒤를 이었다. 잠시 후, 눈이 뒤집힐 듯 광기에 찬 젊은이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는 창백한 안색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온몸을 가늘게 떨며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우리의 의아한 시선을 느끼고서야 예의 없이 들이닥친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죄송합니다, 홈즈 씨!” 그가 외쳤다.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제정신이 아닙니다. 홈즈 씨, 제가 바로 불행한 존 헥터 맥팔레인입니다.”

그는 마치 이름 하나만으로 자신의 방문 목적과 방식이 모두 설명될 것처럼 선언하듯 말했다. 하지만 동행한 홈즈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니, 그 이름이 나만큼이나 그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맥팔레인 씨, 담배 한 대 피우시지요."

홈즈가 담배 케이스를 밀어 건네며 말했다.

"그쪽 증상을 보니, 제 친구인 왓슨 박사라면 분명 진정제를 처방했을 겁니다. 요 며칠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으니까요. 자, 이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셨다면 저 의자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누구

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성함을 말씀하실 때 마치 제가 아는 사람인 양 대하셨지만, 단언컨대 저는 당신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미혼이고, 변호사이며, 프리메이슨 단원이고, 천식 환자라는 명백한 사실 외에는 말입니다."

친구의 수사 방식에 익숙했던 나로서는 그의 추론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나는 홈즈가 무엇을 보고 결론을 내렸는지 그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흐트러진 옷차림, 한 뭉치 들려 있는 법률 서류, 시계에 매달린 장식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유추하게 만든 특유의 호흡까지 말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의뢰인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맞습니다, 홈즈 씨.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 이 순간 런던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발 부탁이니 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홈즈 씨! 만약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들이 저를 체포하러 온다면, 제발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당신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밖에서 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체포하겠다고!" 홈즈가 말했다. "이거 정말 아주 만족스럽—아니, 아주 흥미롭군. 대체 무슨 혐의로 체포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로워 노우드의 조나스 올드에이커 씨를 살해한 혐의로."

내 동료의 표정에는 공감이 서려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만족감이 아주 없지는 않은 듯 보였다.

"이런, 세상에." 그가 말했다. "방금 아침 식사를 하면서 친구인 왓슨 박사에게 신문에서 자극적인 사건들이 사라졌다고 말하던 참이었는데 말입니다."

방문객은 떨리는 손을 뻗어 홈즈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를 집어 들었다.

"선생님께서 그것을 보셨더라면, 제가 오늘 아침 어떤 용건으로 찾아왔는지 단번에 알아보셨을 겁니다. 제 이름과 불행한 처지가 온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가운데 페이지가 보이도록 신문을 뒤집었다.

"여기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직접 읽어 드리지요. 잘 들어 보십시오, 홈즈 씨.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로워 노우드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 유명 건설업자의 실종. 살인 및 방화 의심. 범인을 잡을 결정적 단서.' 홈즈 씨, 저들이 이미 쫓고 있는 단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서가 결국 저를 가리키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런던 브리지 역에서부터 누군가 저를 미행했습니다. 저를 체포할 영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상심하실지…… 어머니의 심장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두 손을 꽉 움켜쥐었고,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앞뒤로 흔들며 괴로워했다.

나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된 이 남자를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금발에 미남이었으나, 마치 색이 바랜 사진처럼 창백한 인상이었다. 겁에 질린 푸른 눈동자와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그리고 연약하고 예민해 보이는 입술이 눈에 띄었다. 나이는 스물일곱 살쯤 되어 보였으며, 옷차림과 태도에서는 신사의 품격이 느껴졌다. 가벼운 여름용 오버코트 주머니에는 배서된 서류 뭉치가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직업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네." 홈즈가 말했다. "왓슨, 자네가 수고스럽겠지만 이 종이를 가져가서 문제가 되는 단락을 좀 읽어주겠나?"

의뢰인이 인용한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암시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젯밤 늦게 혹은 오늘 새벽, 로워 노우드에서 중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나스 올드에이커 씨는 그 지역의 유명 인사로, 오랫동안 그곳에서 건축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드에이커 씨는 52세의 독신이며, 시든햄 끝자락에 위치한 딥 데인 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기이한 습관을 지녔으며, 비밀스럽고 은둔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뗐으나, 그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집 뒤편에는 여전히 작은 목재 적치장이 남아 있는데, 어젯밤 12시경 적치된 목재 더미 중 하나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차가 즉시 현장에 도착했으나, 마른 나무에 불이 붙어 기세가 워낙 거셌

던 탓에 목재 더미가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화재를 잡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으나, 최근 드러난 정황들은 심각한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집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제기되었고, 뒤이어 진행된 조사 결과 그가 집에서 사라졌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방을 조사한 결과,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없었으며 방 안에 있던 금고는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서류들이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결정적으로 살인 사건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약간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손잡이에 피가 묻은 오크나무 지팡이도 함께 찾아냈습니다.

조사 결과, 조나스 올드에이커 씨는 사건 당일 밤 침실로 손님을 맞이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견된 지팡이는 그 손님의 소유로 밝혀졌는데, 그는 그레셤 빌딩 426번지에 있는 그레이엄 앤 맥팔레인의 하급 동업자인 런던의 젊은 변호사, 존 헥터 맥팔레인입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입증할 매우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할 전개로 이어질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가 소식) — 인쇄 직전 들어온 소문에 따르면, 존 헥터 맥팔레인이 조나스 올드에이커 씨를 살해한 혐의로 실제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노우드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서는 더욱 불길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운한 건축업자의 방에서 발견된 격투 흔적 외에도, 1층에 있는 그의 침실 프

랑스식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체를 목재 더미 쪽으로 끌고 간 듯한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결정적으로 화재로 남은 숯 재 사이에서 타버린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매우 충격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인 뒤, 서류를 뒤지고, 시신을 목재 더미까지 끌고 가서 범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번 범죄 수사는 스코틀랜드 야드의 숙련된 경위 레스트레이드가 맡았으며, 그는 특유의 에너지와 명석함을 발휘하여 단서들을 쫓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는 눈을 감고 양 손끝을 맞댄 채, 이 놀라운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 사건은 분명 흥미로운 구석이 있군요."

홈즈가 특유의 나른한 말투로 말했다.

"맥팔레인 씨,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을 체포할 만한 증거가 충분해 보이는데, 어째서 아직 자유로운 몸으로 이곳에 있는 겁니까?"

"홈즈 씨, 저는 블랙히스의 토링턴 로지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조나스 올드에이커 씨와 아주 늦게까지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우드의 한 호텔에서 묵으며 그곳에서 업무를 보러 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을 기차 안에서 읽기 전까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자마자 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고, 서둘러 이 사건을 당신께 맡기러 온 것입니다. 시내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저는 분명 체포되었을 겁니다. 런던 브리지 역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저를 미행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놈이—맙소사! 저게 대체 뭡니까?"

종소리가 울리더니, 곧이어 계단을 오르는 무거운 발소리가 뒤따랐다. 잠시 후, 우리의 오랜 친구인 레스트레이드가 문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깨 너머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두 명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존 헥터 맥팔레인 씨입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불운한 의뢰인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워 노우드의 조나스 올드에이커 씨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맥팔레인은 절망 섞인 몸짓으로 우리를 돌아보더니, 마치 모든 기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만 기다리게, 레스트레이드 경위." 홈즈가 말했다. "자네에게는 30분 정도의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걸세. 게다가 이 신사께서 지금 막 아주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려던 참이었거든. 그 이야기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야."

"사건을 해결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으시다면 그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꼭 들어보고 싶군요."

"글쎄요, 홈즈 씨.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참 어렵군요. 과거에 당신이 경찰에 한두 번 도움을 준 적도 있고, 스코틀랜드 야드 입장에서도 당신에게 빚진 게 있으니까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죄수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고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말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제 말을 듣고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진실을 알아차려 주는 것뿐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시계를 확인했다. "30분만 드리지요." 그가 말했다.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맥팔레인이 말했다. "저는 조나스 올드에이커 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희 부모님과 아는 사이였다는 이름 정도만 들어봤을 뿐, 그 뒤로는 서로 소식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 세 시쯤, 그가 시내에 있는 제 사무실로 불쑥 찾아왔을 때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방문 목적을 듣고 나니 놀라움은 경악으로 바뀌더군요. 그는 낙서 같은 글씨가 가득 적힌 공책 몇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여기 있습니다—그러고는 그것들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제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맥팔레인 씨, 이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도록 제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시는 동안 저는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긴 했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겼더군요. 그는 흰 속눈썹을 가진, 마치 작은 페럿처럼 기이하게 생긴 사내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날카로운 회색 눈빛을 제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조항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미혼이고 가까운 친척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 제 부모님을 알았으며, 제가 매우 성실한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기에 자신의 돈이 믿을 만한 사람의 손에 맡겨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말을 더듬으며 감사 인사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적법하게 완성되었고, 제 사무원 앞에서 서명과 증인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여기 파란 종이에 적힌 것이 완성본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쪽지들은 초안입니다.

그 후 조나스 올데이크 씨는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할 서류들이 아주 많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증서, 저당권 설정 서류, 유가 증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며, 그날 밤 유언장을 지참하여 노우드의 자기 집으로 와서 일을 정리하자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얘야, 명심하거라.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부모님

께는 이 일에 대해 단 한 마디도 꺼내선 안 된다. 부모님께 깜짝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며, 제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홈즈 씨, 제 처지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거절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은인이었고, 저는 그저 그분의 뜻을 하나하나 다 받들고 싶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 전보를 보내, 중요한 일이 생겨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올드에이커 씨는 그 시간 전에는 집에 없을지도 모르니, 9시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저택을 찾는 데 애를 좀 먹는 바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9시 반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잠깐만요!" 홈즈가 말했다. "누가 문을 열었습니까?"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아마도 그의 가정부였을 것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당신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바로 그분인 것 같군요?"

"정확합니다." 맥팔레인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맥팔레인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내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여자가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조나스 올드에이커 씨는 저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침실 안에는 묵직한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그는 금고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고,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마쳤을 때는 11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그는 가정부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내내 열어두었던 자신의 프랑스식 창문을 통해 저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나?" 홈즈가 물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블라인드는 절반쯤만 내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가 창문을 열려고 블라인드를 위로 끌어올리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 제 지팡이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 말게, 젊은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으니, 자네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이 지팡이는 내가 잘 보관해 두겠네.' 저는 금고가 열린 채로, 서류들이 탁자 위에 꾸러미로 정리된 상태로 그를 두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블랙히스까지 돌아갈 수가 없었기에 애널리 암즈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 이 끔찍한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 홈즈 씨?"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이 놀라운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눈썹은 한두 번이나 치켜 올라가 있었다.

"블랙히스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노우드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분명 제가 그런 뜻으로 말했을 겁니다."

홈즈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는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홈즈의 저 명석한 두뇌라면 자신은 도저히 뚫어볼 수 없는 난제도 단번에 해결해 낸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레스트레이드가 내 동료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셜록 홈즈 씨, 잠시 대화를 좀 나누고 싶군요." 그가 말했다. "맥팔레인 씨, 지금 문 앞에 경관 두 명이 대기 중이고, 밖에는 사륜 마차가 와 있습니다." 불쌍한 젊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는 방을 나갔다. 경찰관들이 그를 마차로 안내했지만, 레스트레이드는 그 자리에 남았다.

홈즈는 유언장의 초안이 된 종이들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흥미롭다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종이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그 서류에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홈즈가 서류를 밀어 건네며 말했다.

그 경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첫 몇 줄과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한두 줄은 읽을 수 있습니다. 인쇄된 글자처럼 아주 또렷하거든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글씨는 형편없이 엉망이라,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곳이 세 군데나 됩니다."

"저건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물었다.

"자,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유언장은 기차 안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글씨가 정갈하면 역에 멈춰 서 있는 것이고, 글씨가 흐트러지면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며, 글씨가 아주 엉망이라면 선로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증거지요. 과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교외 노선에서 작성되었다고 즉시 판단할 겁니다. 대도시 인근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전환점이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그가 여정 내내 유언장을 쓰는 데 매달렸다고 가정한다면, 이 열차는 노우드와 런던 브리지 사이에서 단 한 번만 정차하는 급행열차였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 씨, 당신이 이론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군요." 그가 말했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음, 조나스 올드에이커가 어제 여행 중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점에서는 그 청년의 말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는군.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이토록 허술하게 작성하다니 말이야. 이건 그가 이 유언장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하네. 만약 어떤 사람이 결코 효력을 발휘할 의도가 없는 유언장을 만든다면, 분명 이런 식으로 작성했을 테니까."

"글쎄요, 그는 제 발로 죽음의 문턱을 향해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아직 사건의 전말이 명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불분명하다고요? 아니,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노인이 죽기만 하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날 밤 어떤 핑계를 대고 의뢰인을 만나러 가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는 집 안에 남은 사람이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노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작 더미에 넣어 태워버리고는 근처 호텔로 떠납니다. 방 안과 지팡이에 남은 혈흔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마 범인은 피 한 방울 묻지 않는 깔끔한 범죄를 꿈꿨을 겁니다. 시신을 태워 없애면 사인에 대한 흔적을 모두 감출 수 있으리라 믿었겠지요. 분명 그 흔적은 어떤 이유에서든 범인을 가리키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 모든 게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레스트레이드 경위, 내 생각에는 이 모든 게 지나치게 뻔한 것 같군." 홈즈가 말했다. "자네는 다른 훌륭한 자질들에 비하면 상상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만약 잠시라도 이 젊은이의 처지가 되어본다면 어떨까? 유언장이 작성된 바로 그날 밤을 범행 시간으로 택하겠나? 두 사건 사이에 너무나 밀접한 연관성이 생기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게다가 하인이 문을 열어주어 자신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을 굳이 범행 기회로 삼겠느냐 말일세. 마지막으로, 시신을 숨기려고 그토록 공을 들여놓고서, 정작 본인이 범인이라는 증거인 지팡이를 남겨두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나? 자, 인정하게, 레스트레이드. 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홈즈 씨, 지팡이에 대해서라면 당신도 나만큼 잘 알지 않습니까? 범죄자란 흔히 당황하기 마련이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실수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 자도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는 게 몹시 두려웠을 겁니다. 자, 이 사실들에 부합하는 다른 가설을 내놓아 보시죠."

"아주 쉽게도 대여섯 가지는 대줄 수 있네." 홈즈가 말했다. "여기 예를 들어보지. 아주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건이야. 이건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게. 나이 든 남자가 가치가 분명해 보이는 서류들을 보여주고 있어. 마침 창문의 블라인드가 절반쯤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지나가던 부랑자가 그 서류들을 보게 되지. 변호사가 퇴장하면, 부랑자가 들어오네! 그는 그곳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 들고 올드에이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태워버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야."

"부랑자가 왜 시신을 태우려 했겠나?"

"그 문제라면, 왜 하필 맥팔레인이어야 하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겠지."

"어쩌면 그 부랑자는 살인 사건 자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랑자는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서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스트레이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이전만큼 확신에 차 보이지 않았다.

"좋습니다, 셜록 홈즈 씨. 당신은 그 부랑자를 찾아보십시오. 그를 찾는 동안 우리는 우리 용의자를 붙잡아 두겠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요. 홈즈 씨, 이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 어떤 서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그 서류들을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법적 상속인이기에, 설령 서류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것들을 물려받게 될 처지였으니까요."

내 친구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보였다.

"증거들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이론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다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짚어두고 싶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미

래가 답을 내려주겠지요. 그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중으로 노우드에 들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탐정이 떠나자, 내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딱 맞는 흥미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 기민한 태도로 그날의 업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왓슨, 내가 말했듯이 내 첫 번째 행보는 블랙히스 쪽으로 향하는 것이 될 거네." 홈즈가 프록코트를 서둘러 챙겨 입으며 말했다.

"왜 노우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번 사건에는 기이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라네. 경찰은 두 번째 사건에만 온 신경을 쏟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 그 사건이 실제로 범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사건에 접근하는 논리적인 방법은 첫 번째 사건부터 파헤치는 것이라네. 갑작스럽게 작성된 기묘한 유언장,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속인이 나타난 그 사건 말일세. 그 부분을 먼저 밝혀낸다면 뒤이어 터진 일들을 훨씬 단순하게 풀 수 있을 걸세.

아니, 여보게. 자네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네. 위험한 상황이라면 자네 없이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 저녁에 자네를 다시 만날 때쯤이면, 내 보호를 요청해 온 이 불행한 청년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해냈다고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네."

내 친구가 돌아온 것은 이미 늦은 밤이었다. 초췌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슬쩍 보니, 처음에 품었던 높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

았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한 시간 동안이나 바이올린을 켜며 단조로운 선율을 흘려보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달래보려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바이올린을 내팽개치듯 내려놓더니, 그동안 겪었던 불운한 일들을 상세히 늘어놓기 시작했다.

"모든 게 잘못되고 있어, 왓슨. 아주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레스트레이드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정말이지 이번만큼은 그 친구가 제대로 짚은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틀린 것 같단 말이지. 내 직감은 온통 한쪽을 가리키는데, 모든 사실은 정반대만을 말하고 있어. 영국의 배심원들이 내 이론을 레스트레이드가 제시한 사실보다 우선시할 만큼 지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 무척 두렵군."

"블랙히스에 다녀왔소?"

"맞네, 왓슨. 나도 그곳에 가봤지. 그리고 고인이 된 올드에이커가 아주 지독한 악당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냈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떠난 상태였고, 어머니는 집에 있었지. 공포와 분노로 몸을 떨고 있는, 작고 가냘픈 푸른 눈의 여인이었네. 물론 그녀는 아들이 범인일 가능성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 하지만 올드에이커의 죽음에 대해 놀라거나 슬퍼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네. 오히려 그녀는 올드에이커를 너무나도 비통하게 비난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에게 유리한 증거를 보태고 있었던 셈이지. 만약 아들이 어머니가 그 남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분명 증오와 폭력적인 성향을 품게 되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녀는 이렇게 말했네. '그 사람은 인간이라기보다 악

의적이고 교활한 유인원에 가까웠어요. 젊었을 때부터 늘 그랬답니다.'"

"그때 그를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네, 잘 알아요. 사실 그는 제 옛 구혼자였죠. 그를 멀리하고, 비록 가난할지언정 훨씬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한 건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홈즈 씨, 그와 약혼했던 시절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가 새장 안에 고양이를 풀어놓았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동에 너무나 경악한 나머지, 저는 그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녀는 서랍장을 뒤적거리더니, 곧 칼로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짓이겨진 여인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았다.

"이건 제 사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제 결혼식 날 아침, 그가 저주를 퍼부으며 이 상태로 사진을 보냈답니다."

"그래도 다행이군요." 내가 말했다. "그가 모든 재산을 부인의 아드님에게 남겼으니, 적어도 이제는 그가 부인을 용서한 모양입니다."

"조나스 올드에이커가 살아 있든 죽었든, 내 아들이나 나나 그 사람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기운차게 외쳤다. "홈즈 씨, 하늘에는 신이 계십니다. 그 사악한 자를 벌하신 신께서, 머지않은 때에 내 아들의 손에 그의 피가 묻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겁니다."

"음, 단서 몇 가지를 쫓아보긴 했네만,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오히려 가설에 반하는 정황만 몇 가지 발견했을 뿐이지. 결국 단념하고 노우드로 떠났네."

"이곳 딥 딘 하우스는 붉은 벽돌로 지은 거대한 현대식 저택입니다. 넓은 부지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 집 앞에는 월계수 덤불이 어우러진 잔디밭이 펼쳐져 있지요.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오른쪽 뒤편에는 화재가 발생했던 목재 적치장이 있습니다. 여기 제 수첩 한 페이지에 대략적인 도면을 그려 왔습니다. 왼쪽의 이 창문이 올드에이커의 방과 연결된 창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로에서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지요. 오늘 제가 얻은 위안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오지 않았지만, 그의 수석 경사가 대신 안내해 주더군요. 그들은 방금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참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타버린 장작더미의 재를 뒤지며 조사했는데, 그을린 유기물 잔해 외에도 변색된 금속 원반 몇 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니 그것들은 틀림없는 바지 단추였습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에는 올드에이커의 재단사 이름인 '하임스'라는 글자까지 새겨져 있더군요. 그 후 저는 흔적을 찾으려 잔디밭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가뭄 때문에 땅이 철처럼 딱딱하게 굳어 버렸습니다. 목재 적치장과 일직선으로 놓인 낮은 쥐똥나무 울타리 너머로 누군가 혹은 어떤 뭉치를 끌고 지나간 듯한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경찰의 공식적인 이론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뜨거운 8월의 햇살을 등지고 잔디밭을 기어 다니며 조사했지만, 한 시간이 지나 일어났을 때 제가 알아낸 것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이 엉망진창인 상황이 끝난 뒤에 나는 침실로 들어가 그곳도 조사했네. 혈흔은 아주 미미했어. 그저 약간 번지고 변색된 정도였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최근에 생긴 것이었지. 지팡이는 치워진 상태였지만, 그곳 역시 흔적은 희미했네. 그 지팡이가 우리 의뢰인의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의뢰인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카펫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제삼자의 흔적은 전혀 없었네. 이것 역시 상대편에게 유리한 점이지. 그렇게 그들은 줄곧 점수를 쌓아 올리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이었던 거야."

"희망의 불씨라고는 단 하나뿐이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저는 금고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은 이미 꺼내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봉투에 담겨 밀봉되어 있었고, 그중 한두 개는 경찰이 이미 열어본 상태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서류들은 그리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잔액을 봐도 올드에이커 씨가 아주 유복한 형편은 아니더군요. 하지만 서류가 전부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권리증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일 텐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레스트레이드 경위의 논리는 스스로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조만간 물려받을 것이 분명한 물건을 대체 누가 훔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덮개들을 전부 들춰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자, 나는 가사도우미에게 가서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렉싱턴 부인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작고 어두운 분위기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곁눈질을 하는 침묵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음만

먹는다면 분명 무언가 말해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맥팔레인 씨를 들여보낸 시각은 9시 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방이 저택 반대편 끝에 있었기에 그사이 벌어진 일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맥팔레인 씨는 현관에 모자를 남겨두었고, 그녀가 알기로는 지팡이도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화재 경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가여운 주인님이 분명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에게 원수가 있었느냐고요? 글쎄요, 원수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올드에이커 씨는 워낙 은둔하며 지냈고, 오직 사업적인 일로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단추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분명 주인님이 어젯밤에 입었던 옷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장작 더미는 매우 말라 있었습니다. 장작은 불쏘시개처럼 타올랐고,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소방관들은 불길 속에서 살이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대해서도, 올드에이커 씨의 개인적인 사정에도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자, 친애하는 왓슨, 이게 나의 실패 보고서라네. 하지만, 하지만 말이야." 홈즈는 확신에 찬 격정으로 가느다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뼛속 깊이 느껴진다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고, 그 가정부도 그걸 알고 있어. 그 여자의 눈빛에는

일종의 뾰루퉁한 반항심이 서려 있었는데, 그건 죄를 지은 자만이 보이는 눈빛이라네. 어쨌든 왓슨, 이제 더 말해봐야 소용없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운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한, 노우드 실종 사건은 우리가 거둔 성공의 기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 같군. 인내심 있는 대중이 머지않아 견뎌내야 할 그 성공의 기록 말일세."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의 인상만으로도 배심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위험한 논리네, 왓슨. 1887년에 우리가 무죄를 입증해 주길 바랐던 그 끔찍한 살인마, 버트 스티븐스를 기억하나? 그보다 더 온순하고 주일학교 학생처럼 선량해 보이는 청년이 또 있었던가?"

"사실입니다."

"다른 가설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끝장이야. 지금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빈틈이 거의 없고, 조사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증거만 더 단단해지고 있어. 아, 그런데 그 서류들 중에서 조사의 실마리가 될 만한 아주 기묘한 점을 하나 발견했네. 통장을 훑어보니 잔액이 바닥난 주된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코넬리우스 씨에게 발행한 거액의 수표들 때문이더군. 은퇴한 건설업자가 코넬리우스라는 인물과 이토록 막대한 거래를 했다니, 그가 대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지는군. 혹시 그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코넬리우스가 중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 거액의 지급액과 일치하는 유가증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다른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이 수표들을 현금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인지 은행을 통해 조사해 볼 생각이라네. 하지만

여보게,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우리 의뢰인을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사건은 아주 허망하게 끝나고 말 거야. 물론 스코틀랜드 야드에게는 분명한 승리가 되겠지만 말이야."

그날 밤 셜록 홈즈가 잠을 얼마나 잤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마주한 홈즈의 안색은 창백하고 초췌했다. 눈가에 짙게 내려앉은 그림자 때문에 오히려 그의 형형한 눈빛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의자 주변 카펫 위에는 담배꽁초와 아침 신문 초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펼쳐진 전보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홈즈가 물으며 그것을 던졌다.

그것은 노우드에서 온 것이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중요한 새 증거를 확보했음. 맥팔레인의 유죄는 확실함. 사건을 종결할 것을 권고함.—레스트레이드.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군요." 내가 말했다.

"레스트레이드가 승전보를 울리며 닭 울음소리를 내는 격이지요." 홈즈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벌써 사건을 포기하기에는 이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새로운 증거라는 건 양날의 검과 같아서, 레스트레이드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왓슨, 우선 아침 식사부터 하게. 그러고 나서 같이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 오늘은 자네의 동행과 정신적인 지지가 꼭 필요할 것 같군."

내 친구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정신이 극도로 몰입되는 순간에는 음식 섭취를 아예 거부하는 것이 그의 독특한 습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가 그 철 같은 의지력만 믿고 버티다가, 결국 영양 부족으로 기절하는 모습도 나는 본 적이 있다. 의사로서 내가 만류할 때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지금은 소화에 쓸 에너지와 신경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네." 그러니 오늘 아침, 그가 손도 대지 않은 식사를 남겨둔 채 나와 함께 노우드로 향했을 때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딥 디인 저택 주변에는 기괴한 구경거리를 찾는 구경꾼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다. 저택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의 교외 별장이었다. 저택 대문 안쪽에서는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승리감에 도취한 듯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태도 또한 매우 의기양양했다.

"자, 홈즈 씨,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셨습니까? 그 부랑자를 찾아내긴 하셨나요?" 그가 외쳤다.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았네." 내 동료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희는 어제 이미 결론을 내렸고, 지금 보니 그게 맞았더군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저희가 홈즈 씨보다 한발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분명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모양이군." 홈즈가 말했다.

레스트레이드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패배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잖습니까." 그가 말했다. "사람이 언제나 자기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왓슨 박사? 신사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바로 존 맥팔레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통로로 안내하더니, 그 너머에 있는 어두운 홀로 이끌었다.

"범행을 마친 젊은 맥팔레인이 모자를 챙기러 나왔던 곳이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자, 이것 좀 보십시오." 레스트레이드는 갑자기 극적인 동작으로 성냥을 그었다. 성냥불이 밝아지자 회칠한 벽 위에 묻은 혈흔이 드러났다. 그가 성냥을 벽 가까이 가져가자, 그것이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엄지손가락이 선명하게 찍힌 혈흔이었다.

"홈즈 씨, 돋보기를 가져와서 저걸 좀 자세히 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과 내가 오늘 아침 명령해서 채취한 젊은 맥팔레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왁스 본을 서로 대조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밀랍 인장을 혈흔 가까이 가져다 대자,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두 흔적이 분명 같은 엄지손가락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불운한 의뢰인의 운명이 다했다는 사실이 내게도 명백히 다가왔다.

"그걸로 끝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래, 그게 마지막이야."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 했다.

"결정된 사항이야." 홈즈가 말했다.

그의 말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홈즈의 얼굴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상태였다. 그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즐거움을 참지 못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두 눈은 별처럼 번뜩였다. 마치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마침내 그가 외쳤다. "허, 참나.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나? 겉모습이라는 게 정말이지 사람을 속이는 법이군! 보기에는 아주 점잖고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말이야. 레스트레이드 경위,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군, 안 그런가?"

"맞습니다, 홈즈 씨. 우리 중 몇몇은 지나치게 자만하는 경향이 있지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의 무례함은 화가 치밀 정도로 불쾌했지만, 우리는 딱히 나무랄 수도 없었다.

"이 젊은이가 모자를 걸이에서 꺼내면서 벽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다니, 이 얼마나 천운인가요! 생각해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동작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홈즈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으나, 말을 내뱉는 그의 온몸은 억누를 수 없는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나저나 레스트레이드 경위, 이 놀라운 발견은 누가 한 건가?"

"그것을 발견하고 야간 순경의 주의를 끈 사람은 바로 가정부인 렉싱턴 부인이었습니다."

"밤번 순경은 어디에 있었나?"

"그는 범행이 일어난 침실에 남아,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어제 이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까?"

"글쎄요, 현관을 굳이 샅샅이 조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그곳은 눈에 잘 띄는 장소도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럼 그 자국이 어제는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레스트레이드는 마치 홈즈가 미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 역시 홈즈의 유쾌한 태도와 다소 엉뚱한 관찰력에 내심 놀랐음을 고백한다.

"맥팔레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보태려는 속셈으로 한밤중에 몰래 감옥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것이 그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맞는지 아닌지는 세상의 어떤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겨도 좋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엄지손가락 자국입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 씨, 난 실무적인 사람입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결론을 내리죠.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난 거실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테니 그때 오시든가요."

홈즈는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즐거움이 서린 기색이 언뜻 비쳤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전개군, 왓슨. 그렇지 않은가?"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희망을 줄 만한 아주 기묘한 점들이 몇 가지 있네."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군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사람이 이제 끝난 줄로만 알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네, 여보게 왓슨. 사실 우리 친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증거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네."

"정말입니까, 홈즈! 대체 무엇인가요?"

"단지 이것만은 확실하네. 어제 복도를 조사했을 때는 분명 저 자국이 없었어. 자, 이제 왓슨,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세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의 온기가 다시금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기분으로 친구를 따라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홈즈는 집의 외벽을 면마다 차례로 살피며 무척 흥미롭다는 듯 관찰했다. 그러고는 앞장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건물 전체를 샅샅이 훑었다. 방 대부분은 가구가 비어 있었으나, 홈즈는 그 모든 곳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마침내 비어 있는 침실 세 개가 늘어선 꼭대기 복도에 이르자, 그는 다시 한번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다.

"왓슨, 이 사건에는 정말이지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네." 홈즈가 말했다. "이제는 우리 친구인 레스트레이드를 끌어들여 정보를 공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네. 그동안 우리를 상대로 실없이 웃어댔으니, 내 추리가 맞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에게 똑같이 되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 그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제 알 것 같군."

홈즈가 말을 가로채기 전까지, 스코틀랜드 야드의 경위는 여전히 응접실에서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쓰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

"조금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당신이 제시한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레스트레이드는 내 친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홈즈 씨?"

"아직 만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증인이 한 명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를 데려올 수 있겠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경은 몇 명이나 데리고 계십니까?"

"부르면 곧 올 수 있는 거리에 세 명이 있습니다."

"훌륭하군!" 홈즈가 말했다. "혹시 그들이 모두 목소리가 우렁차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내들인지 물어봐도 되겠나?"

"분명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군요."

"어쩌면 제가 그 점과 다른 한두 가지를 더 파악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부하들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시도해 보지요."

5분 뒤, 세 명의 경찰관이 홀에 모여들었다.

"뒷마당 창고에 가면 짚이 꽤 쌓여 있을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중 두 묶음만 안으로 가져다주시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증인을 불러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왓슨, 당신 주머니에 성냥이 좀 있는 것 같군요. 자,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모두 저를 따라 위층 계단참으로 가시죠."

앞서 말했듯이, 그곳에는 넓은 복도가 있었고 그 복도를 따라 빈 침실 세 개가 늘어서 있었다. 셜록 홈즈는 복도 한쪽 끝으로 우리를 모두 불러 모았다. 순경들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레스트레이드 경위는 경악과 기대, 그리고 비웃음이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내 친구를 빤히 바라보았다. 홈즈는 마치 마술을 선보이는 마술사 같은 태도로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순경 한 명을 보내 물 두 양동이만 가져다주시겠습니까? 여기 바닥에 짚을 깔아 두세요. 양옆의 벽과는 떨어지게 말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셜록 홈즈 씨, 지금 우리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무언가 알고 있다면, 이런 쓸데없는 장난질은 그만두고 당장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장담컨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네. 자네도 기억하겠지? 몇 시간 전, 햇살이 자네 쪽을 비추고 있을 때 자네가 나를 조금 놀렸던 것을 말이야. 그러니 지금 내가

조금 거창하게 구는 것을 너무 나무라지는 말게나. 왓슨, 부탁하네. 저 창문을 좀 열어주고, 그다음 저 짚단 끝에 성냥불을 붙여주겠나?"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닥치며 회색 연기 한 줄기가 복도를 따라 소용돌이치며 내려왔고, 마른 짚단은 바스락거리며 불길에 휩싸였다.

"자,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위해 그 목격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다 함께 '불이야!'라고 외쳐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 둘, 셋——"

"불이야!" 우리 모두가 소리쳤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번거롭게 해 드려야겠군요."

"불이야!"

"신사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다 함께 합시다."

"불이야!" 그 외침은 노우드 전역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복도 끝, 분명히 벽으로 막혀 있어야 할 곳에서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작고 쭈글쭈글한 체구의 사내가 마치 굴속에서 튀어나오는 토끼처럼 그곳에서 쏜살같이 달려 나왔다.

"훌륭하군!"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왓슨, 짚단 위에 물 한 양동이만 부어주게. 그럼 됐네! 레스트레이드 경위, 당신이 그토록 찾던 핵심 증인, 조나스 올데이크 씨를 소개하지."

탐정은 멍한 표정으로 새로 나타난 이를 응시했다. 그는 복도의 밝은 빛에 눈을 깜빡이며, 우리와 연기를 피우며 사그라드는 불을 번갈아 살폈다. 참으로 혐오스러운 얼굴이었다. 교활하고 사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인상이었고, 눈동자는 옅은 회색빛을 띤 채 불안하게 흔들렸으며 속눈썹은 희었다.

"대체 이게 다 뭡니까?" 마침내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응?"

올데이크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경위를 보고는, 불안한 듯 웃으며 뒤로 움츠러들었다.

"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요?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이 신사분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계획이 성공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가련한 생물은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정말입니다, 선생님. 그저 농담을 좀 해본 것뿐입니다."

"오, 농담이었다고? 장담컨대 그 농담 때문에 웃게 될 일은 없을 거요. 일단 저자를 끌어내서 내가 갈 때까지 거실에 가둬 두시오."

사람들이 물러가자 그는 말을 이었다.

"홈즈 씨, 순경들 앞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왓슨 박사님이 계신 자리이니 이 말은 해도 되겠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해낸 일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내 제 명성을 완전히 망쳐놓았을 아주 중대한 스캔들도 막아냈으니까요."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레스트레이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선생님, 명예가 실추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높아지실 겁니다. 지금 쓰고 계신 보고서 내용을 조금만 수정하십시오. 그러면 레스트레이드 경위의 눈을 속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성함이 드러나는 건 원치 않으시는 거군요?"

"전혀 아닙니다. 일 그 자체가 보상이지요. 언젠가 먼 훗날, 열성적인 기록가에게 다시 한번 백지를 내어줄 때, 그때 가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안 그렇습니까, 왓슨? 자, 이제 이 쥐새끼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복도 끝에서 6피트 떨어진 지점에는 나무 판자와 석고로 만든 칸막이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문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처마 밑

에 낸 틈새를 통해 칸막이 안쪽으로 빛이 들어왔다. 그 안에는 가구 몇 점과 식수 및 식량, 그리고 여러 권의 책과 서류들이 갖춰져 있었다.

"건축업자라는 직업이 가진 장점이 바로 저런 거지." 우리가 밖으로 나오자 홈즈가 말했다. "공범자도 필요 없었을 거야. 자기만의 작은 은신처를 직접 만들 수 있었으니까. 물론 저 귀하신 가정부도 공범이겠지만 말이야. 레스트레이드 경위, 저 여자를 당신이 잡아야 할 범인 명단에 얼른 추가하는 게 좋겠어."

"조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 이 장소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놈이 집 안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네. 복도 한 곳을 걸어보니 아래층의 같은 복도보다 6피트나 짧더군. 그 순간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아주 명확해졌지. 화재 경보가 울리기 전까지는 감히 숨죽이고 있지 못할 거라 생각했네. 물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놈을 잡아낼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 게다가 레스트레이드, 자네가 오늘 아침에 나를 놀려댄 것에 대해 약간의 수수께끼로 갚아줄 필요도 있었고 말이야."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와 대등한 실력이시군요. 그런데 도대체 그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그 엄지손가락 자국 말입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당신은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죠. 아주 다른 의미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분명 전날에는 그 자국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

만,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꽤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현관 홀을 조사했을 때 벽면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했거든요. 그러니 그 자국은 밤사이 새로 생긴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봉투를 봉인할 때, 조나스 올데이크는 맥팔레인에게 부드러운 밀랍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 봉인 중 하나를 고정하게 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아마 맥팔레인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지도 모르고, 올데이크 역시 그 지문을 어디에 써먹을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은신처에서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 그 엄지 지문이 맥팔레인을 몰아넣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것이지요. 봉인에서 밀랍 인장을 떼어내고, 바늘로 찌른 듯한 작은 상처에서 얻은 피를 듬뿍 묻혀 밤사이에 벽에 찍어두는 건 그에게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직접 하든, 가사 도우미를 시키든 말입니다. 그가 은신처로 가져간 서류들을 살펴보십시오. 분명 엄지 지문이 찍힌 봉인이 나올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놀랍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홈즈 씨 말대로 모든 게 수정처럼 투명하군요. 그런데 홈즈 씨, 대체 이토록 치밀한 기만술을 부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탐정의 오만하던 태도가 마치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어린아이처럼 돌연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꽤나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다.

"글쎄요, 설명하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사는 아주 심술궂고 악의적이며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전에 맥팔레인의 어머니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겠지요! 제가 블랙히스를 먼저 들렀다가 노우드에 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그 상처가 사악하고 음모로 가득 찬 머릿속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평생 복수할 기회만을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죠. 지난 1, 2년 사이에 상황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밀리에 투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형편이 아주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채권자들을 속여 넘기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코니리우스라는 인물에게 거액의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그 코니리우스라는 사람 역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인물일 겁니다. 아직 그 수표들의 행방을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올드에어가 때때로 이중생활을 했던 어느 지방 도시의 은행에 그 이름으로 입금되었을 겁니다. 그는 아예 이름을 바꾸고 이 돈을 챙겨서, 다른 곳으로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글쎄요, 충분히 그럴 법하군요."

"그는 사라짐으로써 추적자들의 시선을 완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녀의 외동아이에게 살해당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면 옛 연인에게 아주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요. 그야말로 악랄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계획이었고, 그는 거장처럼 그 일을 완수해냈습니다. 범행 동기를 명확히 보여줄 유언장, 부모조차 모르게 몰래 만난 흔적, 그리고 땔감 더미 속에 남겨둔 지

팡이와 혈흔, 동물의 사체와 단추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촘촘한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재능, 즉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완벽한 것을 더 개선하고 싶어 했고, 불행한 희생자의 목을 죄는 밧줄을 한 번 더 조이려다 결국 모든 걸 망치고 말았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그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 악랄한 자는 양옆에 경찰관을 한 명씩 대동한 채, 자신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농담이었습니다, 선생님. 그저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정말로요!" 그는 끊임없이 징징거리며 변명했다. "맹세컨대, 제가 사라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보고 싶어서 잠시 몸을 숨겼던 것뿐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제가 불쌍한 젊은 맥팔레인 씨에게 해라도 끼칠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불공평한 분은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그건 배심원들이 판단할 문제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어쨌든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니더라도, 공모 혐의로는 반드시 당신을 기소할 것이오."

"아마 채권자들이 코니리우스 씨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게 될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 작은 남자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고, 악의가 가득 담긴 눈으로 내 친구를 쏘아보았다.

"신세를 많이 졌군요." 그가 말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홈즈는 너그럽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게 될 것 같군." 그가 말했다. "그나저나, 땔감 더미에 낡은 바지 말고 또 무엇을 집어넣었나? 죽은 개였나, 아니면 토끼였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나? 말해주지 않겠다고? 이런, 정말 너무하군! 뭐, 좋아. 아마 토끼 두 마리 정도면 그 피와 검게 탄 재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 왓슨, 나중에라도 자네가 기록을 남길 일이 생긴다면, 토끼를 적당히 이용해 보게나."

춤추는 인형

춤추는 인형

홈즈는 몇 시간째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길고 마른 등을 굽힌 채, 그는 유독 악취가 심한 물질을 제조하는 화학 용기 앞에 머물러 있었다. 고개를 가슴팍으로 푹 숙인 그의 모습은, 내 관점에서 보자면 칙칙한 회색 깃털에 검은 머리 장식을 얹은 기이하고 수척한 새처럼 보였다.

"그래서, 왓슨,"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남아프리카 증권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는 건가?"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홈즈의 기이한 능력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내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갑작스럽게 파고드는 이 상황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신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험관을 손에 든 채 의자를 돌려 앉았다. 깊게 파인 그의 눈동자에는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자, 왓슨. 자네도 완전히 당황했다는 걸 인정하게나."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담긴 서류에 당신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겠군요."

"왜지?"

"왜냐하면 5분만 지나면, 당신도 이 모든 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하다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 말씀은 결코 드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왓슨."

홈즈는 시험관을 시험관대에 꽂아 두더니, 마치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수처럼 태도를 바꾸어 설명을 시작했다.

"앞선 추론에 따라 다음 추론이 이어지도록, 각각은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인 연쇄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네. 그렇게 만든 추론들 중에서 중간 단계들을 싹 빼버리고, 청중에게는 오직 시작점과 결론만 툭 던져주는 거지. 그러면 비록 겉치레에 불과할지언정,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다네. 자, 방금 자네의 왼손 검지와 엄지 사이의 홈을 살펴본 것만으로도, 자네가 그 적은 자본을 금

광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네."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군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금방 보여드리지요. 아주 단순한 사슬의 끊어진 고리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어젯밤 클럽에서 돌아왔을 때 왼쪽 검지와 엄지 사이에 초크 가루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당구 큐대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초크를 사용합니다.

셋째, 당신은 서스턴과 함께할 때만 당구를 칩니다.

넷째, 당신은 4주 전에 저에게 서스턴이 남아프리카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권리는 한 달 뒤면 만료되는데, 서스턴은 당신이 그 권리를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했지요.

다섯째, 당신의 수표책은 제 서랍 안에 잠겨 있고, 당신은 열쇠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여섯째, 당신은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할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간단하군요!" 내가 외쳤다.

"정말 그렇다니까!" 그가 약간 울컥하며 말했다. "일단 설명을 듣고 나면 모든 문제가 아주 유치하게 느껴지는 법이지. 여기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네. 자, 친구 왓슨, 자네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보겠네." 홈즈는 종이 한 장을 탁자 위로 툭 던져놓고는, 다시 화학 분석 작업에 몰두했다.

나는 종이 위에 적힌 터무니없는 상형문자를 보고 경악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보게, 홈즈! 이건 그냥 어린애 낙서잖아." 내가 외쳤다.

"아, 그게 당신 생각이었군요!"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노퍽주 라이딩 소프 매너의 힐턴 큐빗 씨가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네. 이 작은 수수께끼는 첫 번째 우편물로 도착했지. 그는 다음 열차를 타고 이곳으로 올 예정이라네. 왓슨, 벨이 울리는군. 혹시 그 사람이라면 그리 놀랍지 않을 것 같네."

계단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키가 크고 안색이 붉은, 깔끔하게 면도한 신사가 들어왔다. 맑은 눈동자와 붉은 뺨을 보니, 베이커가의 안개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아온 사람 같았다. 그가 들어서자 마치 동부 해안의 강렬하고 상쾌하며 활기찬 공기를 한 자락 몰고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우리 각자와 악수를 나눈 뒤 막 자리에 앉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내가 방금 살펴보고 탁자 위에 놓아둔, 기묘한 표시가 그려진 종이에 머물렀다.

"자, 홈즈 씨,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외쳤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홈즈 씨는 기묘한 수수께끼를 즐기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것보다 더 기묘한 수수께끼는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살펴보실 수 있도록 그 종이를 먼저 보내 두었습니다."

"확실히 아주 기묘한 물건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언뜻 보기에는 어린애들의 장난처럼 보입니다. 종이 위에서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작은 인형들이 그려져 있을 뿐이니까요. 왜 이렇게 기괴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십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홈즈 씨. 하지만 제 아내는 다릅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아내의 눈에 서린 두려움이 제 눈에는 선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려는 겁니다."

홈즈는 햇빛이 종이 위로 환하게 내리쬐도록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것은 수첩에서 찢어낸 한 페이지였다. 연필로 그려진 표식들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었다.



홈즈는 한참 동안 그것을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접어서 수첩 안에 넣었다.

"아주 흥미롭고도 이례적인 사건이 될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힐턴 큐빗 씨, 보내주신 편지에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적어 주셨지만,

제 친구인 왓슨 박사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이 커다랗고 강한 두 손을 초조하게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하면 무엇이든 물어봐 주십시오. 우선 작년에 결혼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부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가문은 라이딩 소프에 500년 동안 터를 잡아왔습니다. 노퍽주에서 저희보다 이름난 가문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 주빌리 행사를 맞아 런던에 올라왔을 때, 러셀 광장에 있는 하숙집에 머물렀습니다. 저희 교구의 파커 목사님이 그곳에 묵고 계셨거든요. 그곳에서 엘시 패트릭이라는 미국인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어떤 계기로 친구가 되었는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빠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등록소에서 조용히 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어 노퍽으로 돌아왔습니다. 홈즈 씨, 유서 깊은 가문의 남자가 상대의 과거도, 집안 내력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이 무척 미친 짓처럼 보이시겠지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녀를 직접 보고 알게 된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엘시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원했다면, 그녀는 제가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제 인생에는 아주 불쾌한 인연들이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어요. 과거를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힐튼, 당신이 저를 선택한다면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것 하나 없는 여인을 얻게 되는 것이겠지만, 오로지 제 말만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이런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면, 그냥 노퍽으로 돌아가세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외로운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그녀가 제게 이런 말을 한 것은 결혼식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건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었고, 그동안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쯤인 6월 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미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우표가 찍힌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편지를 읽은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곧바로 편지를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아내는 단 한 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늘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며, 또 무언가가 닥칠 것을 예상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아내가 저를 믿어준다면 훨씬 나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아내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저도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홈즈 씨, 명심하십시오. 제 아내는 정직한 여자입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그것은 결코 아내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퍽의 지주일 뿐이지만, 영국에서 저만큼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코 가문의 명예에 흠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 점만큼은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을 말씀드려야겠군요. 일주일 전쯤,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창틀 위에서 이 종이에 그려진 것과 똑같이 생긴, 아주 우스꽝스럽고 작은 인형들이 그려진 낙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분필로 휘갈겨 쓴 모양이었죠. 처음에는 마구간 소년이 장난을 친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결백하다며 맹세하더군요. 어쨌든 그 낙서들은 밤사이 누군가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깨끗이 닦아냈고, 나중에 아내에게만 이 사실을 슬쩍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는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더군요. 혹시라도 비슷한 게 또 나타나면 꼭 보여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아침, 정원 해시계 위에 이 종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엘시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자마자,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눈동자에는 늘 공포가 서려 있고요. 그래서 홈즈 씨에게 이 종이를 적어 보낸 것입니다. 경찰에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 비웃음만 살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지요. 제가 부유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만약 제 작은 아내에

게 어떤 위험이 닥친다면 제 마지막 남은 동전 한 닢까지 다 써서라도 그녀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옛 토양에서 자라난 참된 사내였다. 커다랗고 진실한 푸른 눈과 넓고 보기 좋은 얼굴을 가진, 소박하고 곧으며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났다. 홈즈는 그의 이야기를 지극히 주의 깊게 경청하더니, 이제 한동안 침묵에 잠긴 채 생각에 빠져들었다.

"큐빗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인께 직접 호소하여, 그녀가 간직한 비밀을 당신과 함께 나눠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힐튼 큐빗이 커다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홈즈 씨. 엘시가 제게 말하고 싶다면 말하겠지요. 만약 말하고 싶지 않다면, 제가 억지로 신뢰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하지만 저 역시 제 방식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선, 혹시 동네에서 낯선 사람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오."

"아주 조용한 곳이겠군요. 낯선 얼굴이 나타나기만 해도 금방 소문이 나겠는데요?"

"바로 근처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휴양지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게다가 농가에서도 하숙생을 받곤 하고요."

"이 상형문자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순전히 임의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계적인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지금 가져오신 이 표본은 너무 짧아서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도 너무 막연해서 조사를 시작할 근거가 부족하군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일단 노퍽으로 돌아가셔서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새로운 '춤추는 인형'이 나타나면 반드시 똑같이 베껴 두어야 합니다. 창틀에 분필로 그려졌던 그 문양들의 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정말 천추의 한입니다.

또한 근처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알아보십시오. 그러다 새로운 증거를 좀 더 모으게 되면 그때 다시 저를 찾아오십시오. 힐턴 큐빗 씨,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입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언제든 노퍽에 있는 자택으로 달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면담을 마친 셜록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수첩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그 위에 적힌 기묘한 형상들을 한참 동안 진지하게 들여다보곤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름쯤 지난 어느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내가 막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홈즈가 나를 불러 세웠다.

"여기 머무는 게 좋겠네, 왓슨."

"왜지?"

"오늘 아침 힐튼 큐빗에게서 전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네. '춤추는 인형' 사건의 힐튼 큐빗을 기억하나? 그는 1시 20분에 리버풀 스트리트 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 아마 곧 이곳에 나타날 걸세. 전보 내용을 보니 중요한 사건이 새로 발생한 모양이야."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다. 노퍽의 지주는 한섬 마차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역에서 곧장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낙담이 가득했다. 피로가 맺힌 눈과 깊게 패인 이마가 그의 고단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다.

"홈즈 씨, 이 일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말했다.

"정체도 모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내 아내를 조금씩 죽여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니, 이제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아내는 그 압박에 시달리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말입니다."

"그녀가 뭐라든 말했습니까?"

"아니요, 홈즈 씨,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처녀가 입을 열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결심을 굳히지 못해 망설이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도와보려 애썼지만, 제 방식이 서툴렀던 탓에 오히려 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 가문의 내력이나 우리 가문이 지역 사회에서 쌓아온 명성, 그리고 결점 없는 명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가 곧 본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핵심에 닿기 직전에 늘 화제가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까?"

"꽤 많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검토해야 할 새로운 '춤추는 인형' 그림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놈을 직접 봤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그걸 그리는 사람 말입니까?"

"네,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당신을 뵙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새로 그려진 춤추는 인형들이었습니다. 잔디밭 옆, 앞창문에서 훤히 보이는 도구 창고의 검은 나무 문에 분필로 그려져 있더군요. 제가 똑같이 베껴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쳐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곳에 상형문자를 본뜬 그림이 있었다.

SEGIRE-TA

"훌륭하군!" 홈즈가 말했다. "정말 훌륭해! 어서 계속하게."

"복사본을 가져온 뒤에 표시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아침, 새로운 글자가 다시 나타나더군요. 여기 그 복사본이 있습니다."

엘시, 이리 오렴

홈즈는 기쁜 듯 손을 비비며 껄껄 웃었다.

"단서가 빠르게 모이고 있군." 그가 말했다.

사흘 뒤, 종이 조각에 휘갈겨 쓴 메시지 하나가 해시계 위 조약돌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글자체는 지난번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리볼버를 챙겨 들고 정원과 잔디밭이 내려다보이는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창밖의 달빛을 제외하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창가에 앉아 있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잠옷을 입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발 침대로 가자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장난을 치는 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해야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저 생각 없는 장난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힐튼, 그 일이 정말로 자네를 괴롭힌다면 우리 둘이서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세. 그래서 이 성가신 상황을 피하는 게 어떻겠나?"

"장난꾸러기 한 명 때문에 우리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자, 이제 그만 자러 가요." 그녀가 말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나누기로 해요."

"그녀가 말을 내뱉는 순간, 달빛 아래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내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공구 보관함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어두운 형체가 꿈틀거리며 모퉁이를 돌아 문 앞에 웅크리고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즉시 권총을 쥐고 밖으로 달려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내 팔을 감싸 안으며 경련하듯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었습니다. 아내를 떼어내려 애썼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나에게 매달렸습니다. 겨우 몸을 빼낸 뒤 문을 열고 집까지 달려갔을 때는 이미 그 괴물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머물렀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문에는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났던, 내가 종이에 똑같이 옮겨 적어 두었던 바로 그 '춤추는 인형'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자의 다른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자가 내내 그곳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자가 이미 내가 보았던 줄 아래에 그림을 몇 개 더 휘갈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 그린 그림, 아직 가지고 있나?"

"네, 아주 짧긴 합니다만, 제가 따로 복사해 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다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새로 나타난 춤추는 인형의 형태는 이러했다.

결코.

"말해 보게." 홈즈가 말했다. 그의 눈빛을 보니 무척 흥분한 기색이었다. "이것이 단순히 처음 것에 덧붙여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별개로 나타난 것인가?"

"문짝의 다른 판넬 위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이것이 단연 가장 중요한 단서군요. 덕분에 희망이 생깁니다. 자, 힐턴 큐빗 씨, 계속해서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홈즈 씨,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밤, 그 비겁한 자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도 아내가 저를 말리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다칠까 봐 겁이 났다고 하더군요. 아주 잠시 동안은 아내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이 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놈'이 다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괴한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즈 씨, 아내의 목소리에는, 그리고 그 눈빛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제 안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군요. 제 생각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젊은이 대여섯 명을 관목 숲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그놈이 다시 나타나면 아주 호되게 매질을 해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엔 사안이 너무 깊군요." 홈즈가 말했다. "런던에 얼마나 머무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새 아내를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몹시 불안해하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거든요."

"당신 말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만 멈춰 줄 수 있었다면, 저도 하루 이틀 뒤에 당신을 따라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이 서류들을 저에게 맡겨 두십시오. 조만간 당신을 찾아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군요."

셜록 홈즈는 방문객이 떠날 때까지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를 아주 잘 아는 내 눈에는 그가 몹시 흥분했다는 사실이 쉽게 읽혔다. 힐튼 큐빗의 넓은 등판이 문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내 동료는 서둘러 탁자로 달려갔다. 그는 '춤추는 인형'이 그려진 종이 조각들을 전부 펼쳐 놓더니,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 후 두 시간 동안 나는 홈즈를 지켜보았다. 그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숫자와 글자로 채워 나갔는데, 작업에 너무나 깊이 빠진 나머지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때때로 계산이 잘 풀릴 때는 휘

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지만, 막히는 일이 생기면 미간을 찌푸린 채 멍한 눈으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만족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두 손을 맞비비며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이어서 그는 전보 양식에 긴 전보문을 써 내려갔다.

"왓슨, 내 답이 내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자네 수집 목록에 아주 근사한 사건 하나를 추가하게 될 걸세." 홈즈가 말했다. "내일 당장 노퍽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네. 친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비밀에 대해 아주 확실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지."

호기심이 일어 견딜 수 없었지만, 나는 홈즈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마음을 열고 나를 신뢰해 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하지만 답신 전보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틀 동안 애를 태워야 했다. 그 이틀 동안 홈즈는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며 기다렸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힐턴 큐빗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다. 그는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으나, 그날 아침 해시계 받침대에 긴 문구가 새겨져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그 문구를 사본으로 동봉해 보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엘시여, 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홈즈는 기괴한 부조 위로 몸을 굽힌 채 몇 분 동안이나 그것을 살폈다. 그러다 갑자기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불안감으로 인해 몹시 초췌해져 있었다.

"이 일은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하지." 그가 말했다. "오늘 밤 노스 월섬으로 가는 기차가 있나?"

나는 시간표를 펼쳐 보았다. 방금 막 마지막 열차가 떠난 참이었다.

"그럼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홈즈가 말했다. "우리가 아주 급히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요. 아, 기다리던 전보가 왔군요. 잠시만요, 허드슨 부인. 답장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상했던 대로군요. 이 메시지를 보니 힐턴 큐빗에게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알려야겠습니다. 단 한 시간도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의 평범한 노퍽 지주가 얽혀 있는 이 사건은, 참으로 기이하면서도 위험한 거미줄 같군요."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한때 그저 유치하고 기괴한 이야기로만 여겼던 사건의 어두운 결말에 다다르니, 당시 내가 느꼈던 당혹감과 공포가 다시금 밀려온다. 독자들에게 조금 더 밝은 결말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것은 실제 사건을 기록한 연대기다. 나는 며칠 동안 영국 전역에서 라이딩 소프 저택을 화제로 만들었던 그 기이한 사건의 사슬을, 그 어두운 위기의 순간까지 끝까지 따라가야만 한다.

노스 월섬 역에 내려 목적지를 말하기도 전이었다. 역장이 서둘러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런던에서 오신 탐정분들이시지요?"

역장이 물었다.

홈즈의 얼굴에 짜증 섞인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노리치의 마틴 경위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들이 외과의사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소식까지는 그랬지요. 어쩌면 그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 구원이 교수대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홈즈의 미간이 불안감으로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는 라이딩 소프 저택으로 갈 겁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역장이 말했다. "힐턴 큐빗 씨와 그의 부인, 두 사람 모두 총에 맞았습니다. 하인들 말로는 부인이 남편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사망했고, 부인은 생

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아, 세상에나. 노퍽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홈즈는 아무 말 없이 마차로 서둘러 올라탔다. 7마일에 달하는 긴 여정 동안 그는 단 한 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이토록 깊은 낙담에 빠진 모습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다. 시내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는 내내 불안해 보였다. 아침 신문을 유심히 뒤적이며 초조해하던 모습도 나는 눈여겨보았다. 하지만 이제 최악의 상황을 직감한 탓인지, 그는 망연자실한 슬픔에 잠겨 있었다. 홈즈는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어두운 생각에 빠져들었다.

창밖으로는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는 영국에서도 보기 드문 기묘한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드문드문 흩어진 오두막 몇 채가 오늘날 이곳의 전부인 듯 보였지만, 평탄한 초원 곳곳에는 거대한 사각 탑 모양의 교회들이 솟아 있었다. 그 모습은 과거 이스트 앵글리아 지방이 누렸던 영광과 번영을 증언하는 듯했다.

마침내 노퍽 해안의 초록빛 지평선 너머로 북해의 보랏빛 물결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부가 채찍으로 숲 사이로 툭 튀어나온, 벽돌과 목재로 지은 오래된 박공 지붕 두 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라이딩 소프 저택입니다."

현관 기둥이 늘어선 앞문으로 차를 몰아 들어갔을 때, 테니스장 옆에 놓인 검은색 도구 창고와 받침대가 있는 해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묘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었다. 그때,

왁스로 멋스럽게 다듬은 콧수염에 민첩하고 기민한 태도를 지닌 깔끔한 인상의 작은 남자가 마차에서 막 내렸다. 그는 자신을 노퍽 경찰청의 마틴 경위라고 소개했다. 그러더니 내 동행인의 이름을 듣고는 무척이나 놀란 기색을 보였다.

"아니, 홈즈 씨, 범죄는 오늘 새벽 세 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런던에서 소식을 듣고 저만큼이나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아보려 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분명 있겠군요. 그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화목한 부부라고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내게는 '춤추는 인형'이 남긴 증거뿐이라네." 홈즈가 말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네. 하지만 이미 비극이 벌어진 뒤라 되돌릴 수는 없으니, 지금은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고 싶군. 자네의 수사에 내가 동참하길 바라나, 아니면 나 혼자 알아서 움직이는 게 좋겠나?"

"홈즈 씨,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경위가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지체할 것 없이 즉시 증언을 듣고 현장을 조사하고 싶군요."

마틴 경위는 내 친구가 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현명함을 보였고, 자신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데 만족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인 지역 외과의가 힐튼 커빗 부인의 방에서 막 내려왔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부인의 부상은 심각했지만, 반드시 치명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총알이 뇌 앞부분을 관통했기에 의식을 되찾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인이 총에 맞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도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를 주저했다. 분명한 점은 총알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었다는 사실뿐이었다. 방 안에서 발견된 권총은 단 한 자루였는데, 두 총구의 탄환이 모두 비어 있었다. 힐튼 커빗 씨는 심장에 총을 맞았다. 그가 부인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었고, 반대로 부인이 범인일 가능성도 있었다. 리볼버가 두 사람 사이의 바닥 중간 지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옮겼나?" 홈즈가 물었다.

"부인 외에는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바닥에 부상당한 채 그대로 누워 있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의사 선생?"

"4시부터요."

"다른 사람은요?"

"네, 여기 순경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셨군요. 대체 누가 당신을 불렀습니까?"

"가정부 손더스 말입니다."

"경보를 울린 게 그 여자였나요?"

"그 여자랑 요리사인 킹 부인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방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바로 듣는 게 좋겠군요."

오크나무 판벽으로 마감된 높은 창의 오래된 홀은 어느덧 사건 조사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홈즈는 고풍스럽고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사이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눈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이 구하지 못한 의뢰인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이 추적에 온 삶을 바치겠다는 굳은 결의가 읽혔다. 단정한 차림의 마틴 경위와 백발이 성성한 시골 의사, 나, 그리고 묵직한 인상의 마을 경찰관이 이 기묘한 모임의 나머지 구성원이었다.

두 여인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했다. 폭발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소리가 들리고 1분 뒤에 두 번째 폭발음

이 이어졌다고 했다. 두 사람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기에 킹 부인이 곧장 손더스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왔다. 서재 문은 열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양초가 타오르고 있었다. 주인은 방 한가운데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창가 근처에는 그의 아내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처참하게 다친 상태였으며, 얼굴 한쪽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는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방 안은 물론 복도까지도 연기와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창문은 분명히 안에서 닫혀 잠겨 있었다. 두 여인 모두 이 점을 확신했다. 그들은 즉시 의사와 순경을 불렀다. 그러고 나서 마부와 마구간 소년의 도움을 받아 부상당한 여주인을 그녀의 방으로 옮겼다. 부인과 남편은 모두 침대를 쓰고 있었다. 부인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남편은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차림이었다. 서재 안의 물건들은 아무것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다. 두 여인이 아는 바로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항상 이 부부를 매우 화목한 사이로 알고 있었다.

하인들이 진술한 핵심 내용은 이러했다. 마틴 경위의 질문에 대해, 그들은 모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그 누구도 집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홈즈의 질문에 대해서는, 꼭대기 층에 있는 자신들의 방에서 뛰쳐나온 순간부터 화약 냄새를 맡았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기억해 냈다.

"그 사실을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홈즈가 동료 경위에게 말했다. "이제 방을 철저히 조사할 준비가 된 것 같군요."

서재는 세 면이 책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이었다. 정원이 내다보이는 평범한 창문 앞에는 책상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불운한 지주(squire)의 시신이었다. 거구의 몸이 방 안을 가로질러 길게 뻗어 있었다. 흐트러진 옷차림을 보니 잠결에 급히 깨어난 모양이었다. 총알은 정면에서 날아와 심장을 관통한 뒤 그대로 몸속에 박혀 있었다. 분명 즉사했을 것이며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가운이나 손에는 화약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 마을 의사의 말에 따르면, 부인의 얼굴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으나 손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후자가 없다고 해서 별 의미는 없지만, 만약 있다면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탄피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화약이 뒤로 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여러 발을 쏠 수 있으니까요. 이제 큐빗 씨의 시신을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 그 부인에게 상처를 입힌 총알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지요?"

"그 일을 처리하려면 먼저 중대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리볼버에는 아직 탄환이 네 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두 발을 발사해 두 군데에 상처를 입혔으니, 남은 탄환과 발사된 탄환의 개수를 모두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창틀 가장자리를 분명하게 타격한 저 총알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창문 아래쪽을 가리켰다. 창틀 하단에서 약 1인치 정도 위쪽, 창문 하단 틀을 그대로 관통해 뚫려 있는 구멍이었다.

"세상에!" 경위가 외쳤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제가 찾았으니까요."

"놀랍군요!" 시골 의사가 외쳤다. "선생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총성이 울렸다는 뜻이고, 거기엔 반드시 세 번째 인물이 있었다는 말이군요. 하지만 그게 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현장을 빠져나갔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마틴 경위님, 하인들이 방을 나서자마자 즉시 화약 냄새를 맡았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선생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총성이 울릴 당시, 방의 문과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화약 연기가 집 안 전체로 그렇게 빠르게 퍼져 나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연기를 몰아내려면 방 안에 반드시 맞바람이 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과 창문이 열려 있었던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촛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군!" 경위가 외쳤다. "정말 훌륭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자가 이 창문 밖에서 총을 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만약 범인을 겨냥해 총을 쐈다면, 그 총알이 창틀에 맞았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그곳에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어떻게 닫힌 데다 잠금장치까지 채워진 겁니까?"

"여자의 첫 번째 본능은 창문을 닫고 걸어 잠그는 것이겠지. 그런데,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서재 탁자 위에는 여성용 핸드백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악어 가죽에 은 장식을 더한 작고 깔끔한 모양새였다. 홈즈는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쏟아냈다. 고무줄로 묶인 영란은행 50파운드 지폐 스무 장이 전부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테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홈즈가 내용물이 든 가방을 경위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이 세 번째 총알에 대해 규명해야 합니다. 나무 파편이 튀어나간 모양을 보니, 이 탄환은 분명 방 안쪽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요리사인 킹 부인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군요. 킹 부인, 당신은 아주 '커다란' 폭발음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총성보다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뜻입니까?"

"글쎄요, 선생님. 자다가 깨어난 거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분명 아주 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동시에 두 발의 총성이 울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이지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

"분명 그랬을 겁니다. 마틴 경위님, 이 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다 뽑아낸 것 같군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정원에는 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서재 창문 앞까지 화단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 근처에 다다르자 우리 모두는 동시에 탄성을 내뱉었다. 꽃들은 짓밟혀 있었고, 부드러운 흙 위에는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유독 길고 날카로운 발가락을 가진, 커다란 남성의 것이었다. 홈즈는 마치 부상당한 새를 찾는 사냥개처럼 풀숲과 낙엽 사이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더니 만족스러운 듯 외마디 소리를 내며 몸을 굽히더니, 작은 놋쇠 원통 하나를 집어 들었다.

"내 생각이 맞았군." 홈즈가 말했다. "리볼버에 탄피 배출 장치가 있었어. 여기 세 번째 탄피가 있잖나. 마틴 경위, 내 생각에 이 사건은 거의 해결된 것 같네."

시골에서 올라온 경위의 얼굴에는 홈즈의 조사가 얼마나 빠르고 능숙하게 진행되는지를 목격한 경악이 역력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권위

를 내세우려는 기색도 보였으나, 이제 그는 경탄에 사로잡힌 듯했다. 홈즈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를 기세였다.

"누구를 의심하고 있나?" 그가 물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지. 이 사건에는 아직 자네에게 설명하지 못한 지점들이 몇 군데 더 있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고 나서 모든 의문을 한꺼번에 말끔히 해결해 주겠네."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홈즈 씨. 그놈만 잡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건을 미스터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처럼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 길고 복잡한 설명을 늘어놓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이미 제 손안에 있습니다. 설령 이 부인이 영영 의식을 되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젯밤에 벌어진 일들을 재구성하여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근처에 '엘리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여관이 있는지 알고 싶군요."

하인들을 상대로 낱낱이 추궁해 보았으나, 그들 중 누구도 그런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마구간 소년이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냈다. 그 이름을 가진 농부가 이스트 러스턴 방향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 것이다.

"외딴 농장인가요?"

"무척 외딴 곳입니다, 선생님."

"아마도 어젯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직 전해 듣지 못한 모양이군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얼굴에 기묘한 미소를 띠었다.

"말에 안장 좀 얹어주게, 얘야." 그가 말했다. "엘리지 농장으로 편지를 좀 전해주었으면 하네."

홈즈는 주머니에서 춤추는 인형이 그려진 여러 장의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는 종이들을 앞에 펼쳐 놓고 한동안 서재 책상에 앉아 작업에 몰두했다. 마침내 그는 소년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며, 이 쪽지를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쪽지의 겉면을 슬쩍 보았다. 거기에는 홈즈의 평소 정갈한 필체와는 전혀 딴판인, 제멋대로 휘갈겨 쓴 불규칙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수신인은 노퍽주 이스트 러스턴에 있는 엘리지스 농장의 에이브 슬레이 씨였다.

"경위님," 홈즈가 말했다. "경호원을 요청하는 전보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카운티 교도소로 압송해야 할 죄수가 아주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쪽지를 가져가는 소년이라면 전보를 전달하는 일쯤은 문제없을 겁니다. 왓슨, 오후에 시내로 가는 기차가 있다면 우리도 타는 게 좋겠어. 흥미로운 화학 분석을 마저 끝내야 하기도 하고, 이번 사건도 이제 곧 마무리될 것 같거든."

청년이 쪽지를 들고 떠나자, 셜록 홈즈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만약 힐튼 큐빗 부인을 찾는 방문객이 오면, 부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고 즉시 응접실로 안내하라고 일렀다. 홈즈는 이 점을 매우 엄중하게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응접실로 앞장서 걸음을 옮기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사건은 우리의 손을 떠났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며 최대한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이다. 왓슨 박사는 환자를 돌보러 떠났고, 현장에는 경위와 나만이 남았다.

"한 시간 정도는 흥미롭고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요."

홈즈가 의자를 탁자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그는 탁자 위에 '춤추는 인형'들의 기괴한 움직임이 기록된 여러 장의 종이들을 펼쳐 놓았다.

"왓슨, 자네에게는 그동안 자네의 타고난 호기심을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사죄를 해도 모자랄 걸세. 경위님께는 이 사건 전체가 직업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사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우선, 힐턴 큐빗 씨가 베이커가에서 저와 나누었던 이전 상담들에 얽힌 흥미로운 정황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홈즈는 이미 기록된 사실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했다.

"제 앞에는 이 기묘한 결과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이토록 끔찍한 비극의 전조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저 보고 웃어넘겼

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온갖 형태의 암호에 상당히 정통한 편입니다. 암호에 관한 소논문을 직접 썼을 정도인데, 거기에는 160가지의 서로 다른 암호 체계를 분석해 두었지요. 하지만 이 방식은 저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 체계를 고안한 사람들의 목적은, 이 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무심코 그린 낙서처럼 보이게 하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일단 기호가 문자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모든 형태의 암호문에 적용되는 규칙을 대입하자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히 드러났다. 내게 처음 전달된 메시지는 너무 짧아서, 기호 XXX가 E를 뜻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잘 알다시피 E는 영어 알파벳에서 가장 흔한 글자다. 그 빈도가 워낙 압도적이라 짧은 문장 안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메시지에 담긴 15개의 기호 중 네 개가 동일했기에, 이를 E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기호 옆에 깃발 모양이 붙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붙어 있지 않았지만, 깃발이 배치된 양상을 보아 문장을 단어 단위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듯했다. 나는 이를 가설로 받아들였고, E가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제 수사의 진짜 난관이 찾아왔다. 영어 알파벳은 E 이후의 순서가 결코 명확하지 않다. 인쇄된 지면 전체를 평균 내었을 때 나타나는 빈도 차이라 할지라도, 짧은 문장 하나에서는 그 양상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T, A, O, I, N, S, H, R, D, L 순으로 알파벳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T, A, O, I는 그 빈도

가 거의 비슷해서, 의미가 통할 때까지 모든 조합을 일일이 대입해 보는 것은 끝이 없는 작업이 될 터였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힐턴 큐빗 씨와 두 번째 면담을 가졌을 때, 그는 짧은 문장 두 개와 메시지 하나를 더 건네주었다. 메시지는 깃발이 없었기에 단 한 단어인 것으로 보였다. 여기 그 기호들이 있다.

우선 그 단어의 경우, 이미 다섯 글자 중 두 번째와 네 번째에 E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sever', 'lever', 혹은 'never' 같은 단어일 수 있다. 누군가의 간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never'가 가장 유력하며, 정황상 그 여인이 직접 쓴 답변일 가능성도 높다. 이 가설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각 기호가 N, V, R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N-V-R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꽤 난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떠오른 생각 덕분에 다른 편지 몇 통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만약 이 간절한 호소들이 내 예상대로 그 여인의 젊은 시절을 잘 아는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라면, 세 글자 사이에 두 개의 E가 들어간 조합은 '엘시(ELSIE)'라는 이름일 가능성이 충분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세 번이나 반복된 메시지의 끝부분에 바로 그 조합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 '엘시'에게 보내는 간절한 부름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L, S, I라는 글자를 찾아냈다. 하지만 대체 어떤 부름이

란 말인가? '엘시' 앞에 붙은 단어는 네 글자였고, 마지막 글자는 E로 끝났다. 분명 'COME(오라)'일 것이 틀림없었다. E로 끝나는 다른 네 글자 단어들을 모두 대입해 보았지만, 이 상황에 들어맞는 단어는 없었다.

이제 나는 C, O, M까지 손에 넣었다. 다시 첫 번째 메시지를 공략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나는 메시지를 단어 단위로 나누고, 아직 알 수 없는 기호마다 점을 찍어 정리했다. 그렇게 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입력해주신 텍스트가 불완전하거나 깨져 있어 번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번역할 원문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설정된 규칙에 따라 즉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A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용한 발견이지요. 이 짧은 문장 안에서 A가 무려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게다가 두 번째 단어에서는 H도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A. E. 슬레인이 여기 있다.

아니면, 이름에서 명백히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넣는 식이었다.

에이브 슬레이니가 여기 있다.

이제 내게는 읽어야 할 편지가 아주 많아졌다. 덕분에 나는 꽤 자신만만하게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 ELRI. ES.

"여기서 빠진 글자들을 T와 G라고 가정하고, 필자가 머물고 있는 집이나 여관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야만 겨우 문맥이 통했다."

마틴 경위와 나는 내 친구가 어떻게 그토록 명쾌한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를 옥죄던 난관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경청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위가 물었다.

"에이브 슬레이니라는 인물이 미국인일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는 충분했다. '에이브(Abe)'라는 이름 자체가 미국식 축약형인 데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미국에서 온 편지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뒤에 어떤 범죄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도 충분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거를 암시하며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기를 거부한 점 모두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뉴욕 경찰국의 친구 윌슨 하그리브에게 전보를 보냈다. 그는 이전에도 몇 번이나 나의 런던 범죄 지식을 빌려 간 적이 있는 친구였다. 나는 그에게 에이브 슬레이니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지 물었

다. 그가 보내온 답장은 다음과 같았다. '시카고에서 가장 위험한 악당.'

그의 답장을 받은 바로 그날 저녁, 힐튼 큐빗이 슬레이니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내게 전해 왔다. 이미 확인된 글자들을 대조해 본 결과,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ELSIE .RE.ARE TO MEET THY GO.

P와 D를 덧붙이자 메시지가 완성되었다. 그 내용을 보니 그 악당은 설득을 넘어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시카고의 범죄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나는, 그가 말한 바를 아주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즉시 동료이자 친구인 왓슨 박사와 함께 노퍽으로 향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미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도착하고 말았다.

"사건을 처리하는 데 경위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위가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위님은 스스로에게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저는 상부의 보고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서 말입니다. 만약 엘리지 씨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에이브 슬레이니라는 자가 정말 살인범이 맞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 도망이라도 쳤다면, 저는 분명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네. 그자가 도망치려 들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도망치는 것은 곧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될 걸세."

"그렇다면 가서 그를 체포합시다."

"그가 곧 언제든 이리로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네."

"하지만 그가 왜 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에게 편지를 쓰고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홈즈 씨! 그가 왜 당신의 요청 때문에 오겠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런 부탁을 받으면 의심을 품고 달아나 버리지 않겠습니까?"

"편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는 이제 알 것 같군." 셜록 홈즈가 말했다. "사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기 진입로를 따라 그 신사분이 직접 오고 계시는군."

한 남자가 문으로 이어지는 길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피부가 검게 그을린 사내였다. 회색 플란넬 슈트를 차려입은 그는 파나마 모자를 쓰고 있었고, 덥수룩한 검은 수염에 위압감을 주는 커다란 매부리코를 가졌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팡이를 휘둘렀다. 마치 이곳이 제 집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오더니, 벨을 아주 요란하고 자신만만하게 눌러댔다.

"신사 여러분, 제 생각에는 문 뒤에 자리를 잡는 게 좋겠습니다."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자를 상대할 때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경위님, 수갑을 챙겨 두십시오. 대화는 제가 맡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기다렸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정적이 흐르는 1분이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홈즈는 권총을 그의 머리에 겨누었고, 마틴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모든 일이 너무나 신속하고 능숙하게 이루어진 나머지, 남자는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그는 타오르는 듯한 검은 눈을 번뜩이며 우리를 차례로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이내 비통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 신사 여러분.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저를 이겼군요. 제가 아주 단단한 벽에 부딪힌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힐튼 큐빗 부인의 편지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설마 부인이 이 일에 연루된 건 아니겠지요? 설마 부인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일조했다는 건 아니겠지요?"

"힐튼 큐빗 부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예요."

남자는 집안이 울릴 정도로 거칠고 애처로운 통곡을 내뱉었다.

"미쳤군, 미쳤어!" 그가 격렬하게 외쳤다. "다친 건 그 사람이지, 그녀가 아니란 말일세. 누가 어린 엘시를 해치겠나? 내가 그녀를 협박했을지는 몰라도—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그 예쁜 머리카락 한 올이

라도 건드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일세. 당장 그 말을 취소하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란 말이야!"

"그녀는 죽은 남편의 곁에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신음 소리를 내며 소파 위로 몸을 던지듯 주저앉더니, 수갑을 찬 두 손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5분 동안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에서 비롯된 차갑고도 침착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그를 쐈다면, 그 역시 나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여인에게 해를 끼쳤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저나 그 여인을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 그 여인을 저만큼 사랑한 남자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에 나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대체 어떤 영국인이기에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녀에 대한 우선권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몫을 되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라는 인간의 본모습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당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다." 홈즈가 엄중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피하려고 미국에서 도망쳐 나왔고, 영국에서 품격 있는 신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녀를 끈질기게 뒤쫓으며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을 버리고,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당신과

함께 도망치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결국 당신은 고결한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의 아내를 자살로 내몰았습니다. 에이브 슬레이니 씨, 이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악이며,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엘시가 죽는다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소." 미국인이 말했다. 그는 한쪽 손을 펴서 손바닥 안에 구겨져 있던 쪽지를 꺼내 보았다. 그러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외쳤다. "이보시오, 선생. 혹시 이 일로 나를 겁주려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 여인이 당신 말대로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면, 이 쪽지는 대체 누가 쓴 거란 말이오?" 그는 쪽지를 탁자 위로 휙 던졌다.

"당신을 이곳으로 불러내려고 쓴 겁니다."

"당신이 그걸 썼다고요? 조인트 외에는 세상 그 누구도 '춤추는 인형'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걸 써낸 겁니까?"

"한 사람이 발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법이지요." 홈즈가 말했다. "슬레이니 씨, 노리치로 가실 마차를 곧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차가 오기 전까지,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보상할 시간이 있겠군요. 힐튼 큐빗 부인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무거운 의심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곳에 있었기에, 그리고 마침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있었기에 부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부인에게 최소한으로 해야 할 도리는,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에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결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미국인이 말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호는 오직 가감 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경위는 영국 형법 특유의 그 장엄하고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외쳤다.

슬레이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 해보죠." 그가 말했다. "우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숙녀분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시카고에서 우리 일당은 일곱 명이었는데, 엘시의 아버지가 그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노인 패트릭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죠. 암호를 만든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해독법을 모르면 그저 어린애가 휘갈겨 쓴 낙서처럼 보이게끔 말입니다. 엘시도 우리 방식을 조금 배우긴 했지만, 이런 일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정직하게 모은 돈이 좀 있었기에, 우리를 따돌리고 런던으로 도망치듯 떠났지요. 엘시는 나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아마 나와 결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범죄 세계와는 그 어떤 연관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영국인과 결혼한 뒤에야 나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이곳으로 건너왔습니다. 편지는 소용이 없으니, 그녀가 읽을 수 있는 곳에 메시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글쎄요, 벌써 한 달째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저 농장에 머물렀는데, 아래층에 방을 하나 쓰고 있었죠. 덕분에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엘시를 달래서 데려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읽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메시지 중 하나에 답장을 써 놓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게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제발 떠나 달라고 애원하면서, 만약 남편에게 추문이라도 생기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떠나서 그녀를 평온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약속한다면, 새벽 세 시쯤 남편이 잠든 사이에 내려와 창문 너머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내려왔고, 제게 돈을 건네며 떠나달라고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창문 너머로 끌어당기려 했죠. 바로 그 순간, 남편이 권총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엘시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겁주어 쫓아버리고 도망치려고 총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는 총을 쐈지만 저를 맞히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거의 동시에 몸을 빼냈고, 그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정원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는 와중에 등 뒤로 창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께 맹세코, 신사 여러분, 제가 한 말은 단 한 마디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 후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다가, 방금 그 청년이 쪽지를 들고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쪽지를 보고는 마치 바보처럼 이곳으로 달려와 여러분께 제 발로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인이 말을 이어가는 사이 마차 한 대가 다가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마차 안에 앉아 있었다. 마틴 경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일세.”

“그녀를 먼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식은 없습니다. 셜록 홈즈 씨, 앞으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는 행운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마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죄수가 탁자 위로 내던진 작은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홈즈가 그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쪽지였다.

“왓슨, 자네가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게나.”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안에는 글자라고는 한 마디도 없었다. 오직 이 작은 '춤추는 인형'의 줄만이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당장 이리로 오시오

“내가 설명한 방식대로 암호를 해독해 보면,” 홈즈가 말했다. “그저 ‘당장 이리로 오시오’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될 걸세. 그는 이 메시지가 그 숙녀분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테니, 거절할

수 없는 초대라고 확신했지. 자, 친애하는 왓슨, 우리는 그동안 악의 도구로 쓰였던 '춤추는 인형'을 이번에는 선한 쪽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네. 자네 수첩에 담을 만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을 보여주겠다는 내 약속도 지킨 셈이고 말이야. 우리가 탈 기차는 3시 40분이라네. 저녁 식사 전에는 베이커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군."

에필로그를 위해 단 한 마디만 덧붙이겠다. 미국인 에이브 슬레이는 노리치의 겨울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힐튼 커빗이 첫 발을 쐈다는 사실이 확실했고, 참작할 만한 정황도 있었기에 형량이 강제 노역형으로 감형되었다. 힐튼 커빗 부인에 대해서는, 그녀가 완전히 회복했다는 소식과 여전히 미망인으로 지내며 남편의 유산을 관리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치고 있다는 이야기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외로운 자전거 타는 사람

외로운 자전거 탄 사람의 모험

1894년부터 1901년까지, 셜록 홈즈는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 8년 동안 그가 자문을 맡지 않은 난해한 공적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수백 건의 개인적인 사건들도 있었다. 그중 일부는 매우 복잡하고 기이한 성격을 띠기도 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진 긴 작업 기간의 결과로, 놀라운 성공 사례가 많았고 피할 수 없었던 몇몇 실패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 매우 상세한 기록을 남겨 두었으며, 그중 많은 사건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니 대중에게 공개할 사건을 선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전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범죄의 잔혹함보다는 해결 과정의 기발함과 극적인 요소에서 흥미를 자아내는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제 차링턴의 외로운 자전거 타는 사람인 바이올렛 스미스 양과 관련된 사실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조사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치달았던 그 기묘한 후일담도 함께 전할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이 내 친구의 명성만큼이나 그의 놀라운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이 짧은 이야기들의 소재로 삼는 수많은 범죄 기록 중에서도, 이 사건만큼은 유독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었다.

1895년의 기록을 수첩에서 찾아보니, 바이올렛 스미스 양에 대해 처음 들은 날은 4월 23일 토요일이었다. 당시 홈즈는 유명한 담배 재벌 존 빈센트 하든이 겪고 있던 기묘한 박해 사건에 몰두해 있었기에, 그녀의 방문을 무척이나 반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엇보다 사고의 정확성과 집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 친구는, 당면한 문제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저녁 베이커가를 찾아와 도움과 조언을 간청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우아하며 여왕 같은 기품을 지닌 분이었다. 홈즈는 본래 성격상 모질게 대하는 법이 없었기에,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홈즈가 이미 매우 바쁘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었다. 젊은 숙녀는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찾아왔으며, 이야기를 다 마치기 전에는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서야 그녀를 방에서 내보낼 수 없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홈즈는 체

념한 듯한 표정과 약간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불쑥 찾아온 이 아름다운 손님에게 자리에 앉아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정중히 청했다.

"적어도 건강 문제는 아니겠군요."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이라면 분명 활력이 넘칠 테니까요."

그녀는 깜짝 놀라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페달 가장자리에 쓸린 탓에 발바닥 옆면이 약간 거칠어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네, 홈즈 씨. 저는 자전거를 꽤 자주 타는 편입니다. 오늘 당신을 찾아온 것도 그 일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요."

내 친구는 장갑을 벗은 여인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마치 과학자가 표본을 살피듯,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냉철하고도 세밀한 시선으로 그 손을 관찰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제 업무라 어쩔 수가 없군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하마터면 타자기를 치고 계신 줄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하시는 게 분명하군요. 왓슨, 저 손가락 끝을 보십시오. 주걱 모

양으로 넓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타자수와 음악가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하지만 얼굴에 서린 저 영성(靈性)은 타자수에게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얼굴을 빛 쪽으로 살짝 돌리자 홈즈가 말을 이었다.

"이 숙녀분은 음악가입니다."

"네, 홈즈 씨.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색을 보니 시골에 계셨던 모양이군요."

"예, 선생님. 서리주 경계에 있는 팬햄 근처입니다."

"아름다운 동네군요. 흥미로운 사건들이 참 많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왓슨, 기억나나? 우리가 위조범 아치 스탬퍼드를 붙잡았던 곳이 바로 그 근처였지. 자, 바이올렛 양, 서리 경계에 있는 팬햄 근처에서 당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그 젊은 여성은 매우 명료하고 침착한 태도로 다음과 같은 기묘한 진술을 했다.

"홈즈 씨,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옛 임페리얼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셨던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었죠. 어머니와 저는 세상에 의지할 친척이라곤 랄프 스미스라는 삼촌 한 분뿐이었는데, 그분은 25년 전에 아프리카로 떠나신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는 아주 가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희의 행

방을 찾는 광고를 《더 타임스》지에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했으니, 저희가 얼마나 흥분했었을지는 짐작하시겠지요.

저희는 신문에 적힌 변호사를 즉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잠시 휴가를 나온 커러더스 씨와 우들리 씨라는 두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제 삼촌이 본인들의 친구였는데, 몇 달 전 요하네스버그에서 아주 가난한 상태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삼촌은 숨을 거두기 직전, 친척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살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저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랄프 삼촌이, 돌아가신 뒤에 이렇게 저희를 돌보려 하다니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커러더스 씨는 삼촌이 형님의 부고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저희의 운명을 책임져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례지만," 홈즈가 물었다. "이 면담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지난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이죠."

"어서 말씀하십시오."

"우들리 씨는 제 눈에 정말이지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저를 향해 추잡한 눈길을 보냈죠. 얼굴은 부어오른 데다 투박하고, 콧수염은 붉은 빛이 도는 젊은이였는데, 머리카락은 이마 양옆으로 떡칠하듯 눌러 붙이고 다녔거든요. 정말이지 아주 불쾌한 사람이었

어요. 게다가 시릴이라면 제가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내는 걸 결코 원치 않을 거라는 사실도 분명했고요."

"아, 이름이 시릴이군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 숙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네, 홈즈 씨. 전기 기술자인 시릴 모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올여름이 끝나면 결혼할 예정이고요. 어머나, 제가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하려던 말은 우들리 씨는 정말이지 아주 불쾌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커러더스 씨는 훨씬 상냥했다는 것이었어요.

커러더스 씨는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창백한 데다 수염도 없이 깔끔하게 면도한, 말수가 적은 분이었죠. 하지만 예의가 바르고 미소도 상냥했어요. 그는 저희 형편이 어떤지 물었고, 저희가 아주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게 자신의 열 살짜리 외동딸에게 음악을 가르쳐 달라고 제안했어요.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그는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뵈러 집에 다녀오라고 권하더군요. 게다가 연봉으로 100파운드를 제안했는데, 그건 정말 파격적인 보수였어요.

결국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파넘에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칠턴 그레인지로 내려갔죠. 커러더스 씨는 홀아비였지만, 집안일을 돌봐줄 딕슨 부인이라는 아주 점잖고 연세 지긋한 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해 두었더라고요. 아이도 참 사랑스러웠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커러더스 씨는 매우 친절하고 음악적 식견도 높아서, 우리는 함께

아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저는 매주 주말마다 런던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행복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붉은 콧수염을 기른 우들리 씨가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그는 일주일 동안 머물기로 했지만, 제게는 마치 석 달처럼 길게 느껴졌죠.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위협적인 괴롭힘을 일삼는 정도였지만, 제게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는 저에게 역겨운 구애를 퍼부었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저와 결혼하기만 하면 런던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다고 떠들어댔죠.

결국 제가 그를 상대하지 않으려 하자,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그가 저를 덥석 껴안고 말았어요.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힘이 셌죠. 제가 입을 맞추기 전까지는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어요. 그때 커러더스 씨가 들어와 그를 제게서 떼어놓았는데, 그러자 그가 오히려 주인인 커러더스 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리고 얼굴에 상처를 내고 말았어요. 상상하시겠지만, 그게 그의 방문이 끝난 이유였죠. 다음 날 커러더스 씨는 제게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이후로 우들리 씨는 다시는 보지 못했고요."

"자, 이제 홈즈 씨, 오늘 제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런던으로 가는 12시 22분 열차를 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파넘 역으로 갑니다. 칠턴 그레인지에서 이어지는 길은 매우 한적한데, 특히 한 구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챠링턴 히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챠링턴 홀을 둘러싼 숲이 있어서, 그 사이로 1마일 넘게 길이 이어지거든요. 이보다 더 외진 길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겁니다. 크룩스베리 언덕 근처의 대로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수레 한 대나 농부 한 명 마주치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2주 전, 그곳을 지나던 중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약 200야드쯤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탄 남자가 한 명 보였습니다. 짧고 검은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 같았습니다. 파넘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지요.

하지만 홈즈 씨, 월요일에 돌아오는 길에 똑같은 구간에서 그 남자를 다시 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주 토요일과 월요일에도 이전과 정확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으니까요. 그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저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커러더스 씨에게 말했더니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는 앞으로 제가 동행 없이 이 외진 길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말과 마차를 마련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말과 마차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고 역까지 가야 했죠. 바로 오늘 아침 일이었습니다. 챠링턴 히스에 다다랐을 때 제가 그를 유심히 살폈을 거라는 건 짐작하시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

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정확히 2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는 늘 저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똑똑히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색 정장에 천 모자를 쓰고 있었죠. 얼굴에서 유일하게 선명히 보였던 건 검은 수염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겁이 나기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자전거 속도를 줄이자 그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제가 아예 멈춰 서자 그 역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길에 급커브 구간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곳을 아주 빠르게 페달을 밟아 돌아간 뒤 멈춰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커브를 돌아 나오다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제 옆을 지나치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되돌아가 커브 너머를 살펴보았습니다. 길은 1마일가량 쭉 뻗어 있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 지점 근처에는 그가 빠져나갈 만한 옆길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홈즈는 껄껄 웃으며 두 손을 비볐다. "이 사건은 확실히 독특한 구석이 있군요." 그가 말했다. "길모퉁이를 돌고 나서 길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 3분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길을 따라 후퇴했을 리가 없겠군요. 그런데 옆으로 빠지는 길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가 황무지 쪽에서 나타났다면 분명히 진작에 보았을 겁니다."

"결국 소거법을 써보니 결론은 하나로 모이는군. 그는 챠링턴 홀로 향했다는 사실 말이야. 내가 알기로 그 저택은 도로 한편에 넓은 부지를 끼고 자리 잡고 있지. 더 알아낼 건 없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홈즈 씨. 그저 너무나 당혹스러운 나머지, 당신을 직접 만나 조언을 듣기 전까지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았을 뿐입니다."

홈즈는 한동안 침묵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약혼하신 신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는 코번트리에 있는 미들랜드 전기 회사에 있습니다."

"그가 예고도 없이 당신을 찾아올 리는 없겠지요?"

"오, 홈즈 씨! 제가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구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릴을 알기 전에 이미 몇 명 있었어요."

"그다음은요?"

"우들리라는 끔찍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자를 차마 숭배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나?"

의뢰인은 다소 혼란스러운 기색이었다.

"그가 누구였지?" 홈즈가 물었다.

"아, 그저 제 착각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끔은 고용주인 커러더스 씨가 저에게 아주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우리는 저녁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제가 그의 피아노 반주를 해주니까요. 그분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정말 완벽한 신사분이시죠. 하지만 여자들은 늘 직감으로 알 수 있는 법이잖아요."

"허!" 홈즈가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자입니다."

"마차나 말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적어도 형편이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시내로 나갑니다. 남아프리카의 금광 주식에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스미스 양, 새로운 진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지금은 몹시 바쁘지만, 당신의 사건을 조사할 시간을 반드시 내겠습니다. 그동안은 저

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녀에게 추종자가 따르는 건 자연의 섭리 중 하나지."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파이프를 빨아들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왕이면 인적 드문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다니는 추종자는 아니었으면 좋겠군. 의심할 여지 없이 무언가를 숨기는 연인일 거야. 하지만 왓슨, 이 사건에는 아주 기묘하고도 시사하는 바가 큰 세부 사항들이 있네."

"그가 하필 그 지점에서만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정확해.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챠링턴 홀의 세입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야. 그다음엔 커러더스와 우들리 사이의 관계를 파헤쳐 봐야 해. 두 사람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인물들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왜 하필 그들 '둘 다' 랄프 스미스의 친척을 찾는 데 이토록 열을 올리는 걸까? 한 가지 더 있네. 가정교사 비용으로 시세의 두 배나 치르면서도, 역에서 고작 6마일 떨어진 곳에 살면서 말 한 마리조차 두지 않는 집안이라니. 대체 어떤 식의 살림을 꾸리는 곳일까? 이상해, 왓슨. 아주 이상해!"

"내려가실 겁니까?"

"아니, 이보게. 자네가 내려가야 하네. 이건 그저 사소한 음모일지도 모르는데, 고작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진행 중인 중요한 연구를 중단할

수는 없네. 월요일 일찍 파넘에 도착하게나. 그러고 나서 챠링턴 히스 근처에 몸을 숨기고, 직접 상황을 지켜보며 자네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그 뒤에 저 저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낸 다음, 나에게 돌아와 보고해주게나. 자, 왓슨.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확실한 단서가 몇 개 더 모이기 전까지는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우리는 그 여인에게서 그녀가 월터루 역에서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월요일에 내려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길을 나섰고 9시 13분 열차를 탔다. 파넘 역에 도착하자 차링턴 히스까지 가는 길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곳은 한쪽에는 탁 트인 황야가 펼쳐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즐비한 공원을 둘러싼 오래된 주목 울타리가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덕분에 그 젊은 여인이 겪었던 사건의 현장을 놓칠 염려는 없었다. 이끼가 잔뜩 낀 돌로 만든 커다란 정문이 보였는데, 양쪽 기둥 위에는 풍화된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중앙의 마차 진입로 외에도 울타리 사이로 틈이 나 있고 그 사이로 길이 이어진 곳이 몇 군데 더 눈에 띄었다. 저택은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풍경이 음산함과 퇴락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황금빛으로 피어난 가시덤불이 황무지를 뒤덮고 있었고, 눈부신 봄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나는 그 덤불 중 하나 뒤에 자리를 잡았다. 저택의 정문과 길 양옆으로 길게 뻗은 도로를 모두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위치였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만 해도 길은 한적했으나, 이제는 내가 온 방향과는 반대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남자가 보였다. 그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검은 수염을 기른 것이 눈에 띄

었다. 차링턴 저택의 부지에 다다르자, 그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리더니 울타리 사이의 틈으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15분쯤 지났을까, 두 번째 자전거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역에서 오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가 차링턴 저택의 울타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숨어 있던 남자가 나타나 자전거에 올라타더니 그녀의 뒤를 쫓았다. 탁 트인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형체라고는 오직 그 둘뿐이었다. 자전거 위에서 자세를 곧게 세운 채 우아하게 달리는 소녀와, 핸들을 낮게 잡고 기묘할 정도로 은밀하게 움직이며 그녀를 뒤쫓는 남자뿐이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속도를 줄이자, 남자도 함께 속도를 늦췄다. 그녀가 멈춰 서자 남자 역시 즉시 멈췄으나, 그녀와 200야드 정도 거리를 유지했다. 이어지는 그녀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만큼이나 기운차고 당당했다. 그녀는 갑자기 자전거 방향을 틀더니 그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남자 역시 그녀 못지않게 빨랐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길을 따라 올라왔다. 고개를 오만하게 치켜든 그녀는 뒤따라오는 남자를 더는 신경 쓰지도 않는 기색이었다. 남자 또한 방향을 돌렸으나, 도로의 굽이진 길에 가려져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숨어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되돌아왔다. 그는 저택의 정문으로 들어서더니 자전거에서 내렸다. 한동안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두 손을 들어 넥타이를 매만지는 듯했다. 그러고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 저택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따라 나에게서 멀어지며 달렸다. 나는 황야를 가로질러 달려가 나무 사이로 그를 살폈다. 멀리 뾰족한 튜더식 굴뚝이 솟은 회색빛 고택이 언뜻 보였으나, 진입로가 울창한 관목림 사이로 이어져 있었기에 그 남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오전 내내 꽤 보람차게 일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파넘을 향해 걸어갔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은 차링턴 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기에, 팰 몰에 있는 유명한 부동산 업체로 나를 안내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잠시 들렀는데, 담당 직원은 매우 정중하게 응대해 주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여름에 차링턴 홀을 빌릴 수는 없었다.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한 탓이었다. 그 저택은 이미 한 달 전쯤에 임대가 완료된 상태였다. 세입자의 이름은 윌리엄슨 씨였는데, 품격 있는 노신사라고 했다. 정중했던 중개인은 고객의 개인적인 사정은 함부로 발설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삼갔다.

그날 저녁, 나는 셜록 홈즈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홈즈는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했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혹은 마땅히 듣고 싶었던 짧은 찬사 한마디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가 해낸 일과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평했다. 그 엄격한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다.

"자네의 은신처는 아주 엉망이었네, 왓슨. 울타리 뒤에 숨었어야 했어. 그랬다면 이 흥미로운 인물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을 텐

데 말이야. 지금 상태로는 자네가 수백 야드나 떨어져 있었으니, 스미스 양보다도 아는 게 더 없지 않은가. 스미스 양은 그 남자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남자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녀가 얼굴을 알아볼 만큼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겠나? 자네는 그가 자전거 손잡이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고 묘사했지. 이것 역시 몸을 숨기려 한 행동이라네. 자네는 정말이지 실망스러운 실수를 저질렀어.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할 사람이 런던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오다니 말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단 말입니까?" 나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가장 가까운 선술집에 갔어야지. 그곳이 시골 소문의 중심지니까 말이야. 주인부터 주방 보조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들을 수 있었을 걸세. 윌리엄슨이라? 내 머릿속에는 아무런 단서도 떠오르지 않는군. 만약 그가 노인이라면, 저 젊은 여성의 맹렬한 추격을 따돌리고 그렇게 활기차게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자네의 그 수고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 그 소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점인가? 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네. 자전거 탄 남자가 그 저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말이야. 그것 역시 의심하지 않았지. 저택에 윌리엄슨이 세 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은 또 어떤가?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자, 자, 이보게 친구, 그렇게 낙담한 표정 짓지 말게나.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 그동안은 내가 직접 한두 군데 조사를 해보도록 하지."

다음 날 아침, 스미스 양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에는 내가 목격했던 사건들이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핵심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추신이었다.

"홈즈 씨,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비밀로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용주께서 제게 청혼을 하시는 바람에, 이곳에서의 제 처지가 조금 난처해졌거든요. 그분의 진심은 매우 깊고도 고결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몸입니다. 그분은 제 거절을 아주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정중하게 받아들이셨지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조금은 껄끄러운 상태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양이군."

편지를 다 읽은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요소가 많고,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무궁무진해. 마침 시골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그러니 오늘 오후에 바로 내려가서 내가 세운 가설들을 한두 가지 시험해 볼 생각이라네."

시골에서 보낸 홈즈의 평온한 하루는 기이한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그가 베이커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는데, 입술은 터져

있었고 이마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흐트러진 모습까지 보여,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조사라도 나올 법한 몰골이었다. 하지만 홈즈는 자신의 모험이 무척이나 즐거운 듯,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에 몸을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라네." 그가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영국의 전통 스포츠인 복싱에 제법 능숙하지 않은가. 가끔은 그 실력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네. 예를 들면 오늘처럼 말이야. 복싱을 못 했더라면 아주 수치스러운 비극을 맞이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전에 자네에게 일러두었던 그 시골 선술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정보를 캐물었네. 술집 안에서 수다스러운 주인장이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전부 들려주더군. 윌리엄슨은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인데, 저택에서 적은 수의 하인들과 함께 혼자 지낸다네. 그가 성직자였거나 성직자라는 소문이 돌긴 하지만, 그가 저택에 짧게 머무는 동안 벌어진 몇몇 사건을 보니 도저히 성직자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성직자 알선소에 문의해 보았더니, 그 이름을 가진 성직자가 있긴 했는데 그 경력이 유독 어두운 편이었다고 하더군.

주인장의 말로는 저택에 주말마다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다들 한 가락 하는 거친 패거리'라고 하네. 특히 우들리라는 이름의 붉은 콧수염을 기른 신사가 늘 그곳에 머문다더군.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바로 그 당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겠나. 탭룸에서 맥주를 마시던

그가 우리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던 거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질문을 던지는지 따져 물으면서 말이야. 그는 화려한 언변을 구사했고, 형용사도 아주 거칠게 쓰더군. 그는 한참 동안 욕설을 퍼붓더니 마지막에는 아주 악랄하게 손등으로 후려쳤는데, 나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네.

그 뒤로 이어진 몇 분간은 정말 즐거웠지. 무식하게 달려드는 불한당에게 날린 정교한 왼손 스트레이트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내 모습이 된 걸세. 우들리 씨는 마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나의 시골 여행은 끝이 났네. 솔직히 고백하자면, 서리 경계 지역에서의 하루가 아무리 즐거웠다 한들 자네의 하루만큼이나 별 소득은 없었네."

목요일이 되자 의뢰인으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홈즈 씨, 제가 캐러더스 씨의 고용 관계를 정리하고 떠난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무리 높은 급료를 준다 해도, 지금 제가 처한 이 불편한 상황을 견딜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 토요일에 런던으로 올라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습니다. 캐러더스 씨가 마차를 구했으니, 설령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딴 길을 지날 때 느끼던 공포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떠나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캐러더스 씨와의 긴장된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 혐오스러운 우들리 씨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에도 늘 기괴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해 보입니다. 사고를 당했는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더군요. 창밖으로 그를 보긴 했지만, 다행히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캐러더스 씨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캐러더스 씨는 무척 흥분한 기색이었습니다. 우들리 씨는 근처에 머물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곳에서 잠을 자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도 관목 사이를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언뜻 보았거든요. 차라리 야생 동물이 이곳에 풀어져 있는 편이 낫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가 혐오스럽고 두렵습니다. 캐러더스 씨는 어떻게 그런 괴물을 단 한 순간이라도 견딜 수 있는 걸까요? 어쨌든, 토요일이면 이 모든 고통도 끝이 납니다."

"나도 그렇게 믿네, 왓슨. 정말 그러길 바라네."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다. "저 작은 여인 주변에서 무언가 깊고 은밀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어. 그녀가 마지막 여정을 떠날 때 누구도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네. 왓슨, 이번 토요일 아침에는 시간을 좀 내어 함께 내려가 보세나. 이 기묘하고도 중대한 조사가 불행한 결말로 끝나지 않도록 직접 확인해야겠어."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 눈에는 이 일이 위험하기보다는 그저 기괴하고 별난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미행하며 잠복하는 일이야 드문 일도 아니다. 게다가 그 남자가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여성이 다가오자 도망칠 정도로 겁이 많다면, 결코 위협적인 공격자라고 할 수도 없다. 악당 우들리는 전혀 다른 부류의 인물이었지만,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의뢰인을 괴롭힌 적도 없었다. 게다가 지금은 의뢰인의 면전까지 침범하지는 않고 그저 캐러더스 씨의 집을 방문할 뿐이다. 자전거를 탄 남자는 분명 선술집 주인이 말했던 저택의 주

말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여전히 알 길이 없었다.

나를 긴장시킨 것은 홈즈의 엄숙한 태도였다. 그리고 그가 우리 방을 나서기 전 주머니에 권총을 챙겨 넣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이 기묘한 일련의 사건들 뒤에 비극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비 내리는 밤이 지나고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이 밝았다. 꽃을 피운 가시덤불이 붉게 빛나는 황무지 풍경은, 런던의 칙칙한 회색빛과 흐릿한 빛깔들에 지쳐 있던 우리 눈에 더욱 아름답게 다가왔다. 홈즈와 나는 넓고 모래가 깔린 길을 따라 걸으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새들의 지저귐과 싱그러운 봄의 숨결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크룩스베리 언덕 기슭의 완만한 오르막에 올라서자, 고목들 사이로 험상궂은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참나무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나무들조차 저 건물이 지어진 세월에 비하면 아직 어린 축에 속했다. 홈즈는 갈색 황무지와 싹이 트는 초록빛 숲 사이로 붉은 황토색 띠처럼 굽이쳐 흐르는 긴 길을 가리켰다.

멀리서 검은 점 하나가 우리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마차였다. 홈즈가 초조한 듯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여유 시간을 30분 정도 두었네." 홈즈가 말했다. "만약 저게 그녀의 마차라면, 그녀는 분명 더 이른 시간의 기차를 타려는 것이네. 왓슨,

우리가 그녀를 만나기도 전에 그녀가 이미 샬링턴을 지나쳐 버릴까 봐 걱정되는군."

언덕을 넘어서자마자 마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평소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탓인지 금세 체력이 떨어졌고, 나는 결국 홈즈에게 뒤처지고 말았다. 반면 홈즈는 언제나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 그는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는 무궁무진한 신경 에너지를 품고 있는 듯했다. 탄력 넘치는 그의 발걸음은 속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나보다 백 야드쯤 앞서 가던 홈즈가 멈춰 섰다. 그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 담긴 몸짓으로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와 동시에 길의 굽이진 모퉁이를 돌아 빈 이륜마차 한 대가 나타났다. 말은 경쾌하게 달리고 있었고, 고삐는 바닥에 끌린 채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너무 늦었어, 왓슨, 너무 늦었다고!"

내가 숨을 헐떡이며 홈즈의 곁으로 달려가자, 그가 외쳤다.

"그 기차 시간을 미리 계산에 넣지 않다니, 내가 바보였어! 이건 납치야, 왓슨. 납치라고! 살인일지도 몰라! 하늘만이 아시겠지! 길을 막아! 말을 세워! 그래, 바로 그거야. 자, 어서 올라타게. 내 실수로 벌어진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우리는 서둘러 이륜마차에 올라탔다. 홈즈는 말의 방향을 돌리더니 채찍으로 말을 세게 내리쳤고, 우리는 도로를 따라 쏜살같이 달렸다.

길의 굽이진 곳을 돌아서자 저택과 황무지 사이로 길게 뻗은 도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홈즈의 팔을 꽉 붙잡았다.

"저 사람이야!" 내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자전거를 탄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가진 힘을 모조리 페달에 쏟아붓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둥글게 만 채, 마치 경주 선수처럼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다. 그러다 갑자기 수염 난 얼굴을 치켜든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자전거에서 몸을 날리듯 급히 멈춰 섰다. 칠흑처럼 검은 수염은 창백한 얼굴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고, 눈빛은 마치 열병이라도 앓는 듯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우리와 이륜마차를 번갈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이봐요! 거기 멈춰요!"

그가 자전거를 앞세워 우리의 길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그 이륜마차는 어디서 난 겁니까? 당장 멈춰요, 이 사람아!"

그는 옆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며 악을 썼다.

"멈추라고 했소! 안 그러면 맙소사, 당장 말에게 총알을 박아버릴 테니까!"

홈즈는 내 무릎 위로 고삐를 던져놓고는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바이올렛 스미스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특유의 빠르고 명료한 말투로 물었다.

"그게 바로 내가 묻고 있는 거요. 당신은 그녀의 마차에 타고 있었으니,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소."

"길 위에서 이륜마차를 발견했습니다. 마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저희는 그 젊은 숙녀를 돕기 위해 마차를 돌려 갔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세상에! 이제 난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낯선 이가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그녀를 잡아갔어. 그 지옥의 사냥개 같은 우들리와 그 파렴치한 목사가 그녀를 데려갔다고! 이보게, 이보게! 정말로 그녀의 친구라면 제발 도와주게. 내 몸뚱이가 샬링턴 숲에 버려지게 되더라도 좋으니, 내 곁에 서서 그녀를 구해주게나!"

그는 권총을 손에 쥔 채 정신없이 울타리 사이의 틈을 향해 달려갔다. 홈즈가 그 뒤를 쫓았고, 나는 길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은 그대로 둔 채 홈즈를 따라갔다.

"이쪽으로 지나갔군요."

그는 진흙투성이 길 위에 찍힌 여러 개의 발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봐요! 잠깐 멈춰요! 수풀 속에 있는 건 누구쇼?"

열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다. 가죽 끈과 각반을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마구간지기 같았다. 그는 무릎을 세운 채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머리에는 끔찍한 자상이 나 있었다.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는 있었다. 상처를 슬쩍 살펴보니 다행히 뼈까지 파고들지는 않은 듯했다.

"저 사람은 마부 피터예요!" 낯선 이가 외쳤다. "그가 마차를 몰았는데, 짐승들이 그를 쳐서 떨어뜨리고는 몽둥이로 내리친 모양입니다. 피터는 그냥 두십시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여인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비극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저택을 둘러싼 관목림에 다다랐을 무렵, 홈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어. 여기 왼쪽을 봐, 월계수 덤불 옆에 흔적이 남아 있잖아. 아! 내 말이 맞았지."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우리 앞의 울창하고 푸른 덤불 속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떨리는 비명이었다. 비명은 가장 높은 음역에 이르렀을 때, 무언가 목이 막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끊겼다.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볼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이가 덤불을 헤치며 달려 나오며 외쳤다. "아, 비겁한 놈들! 신사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세상에, 맙소사!"

우리는 갑자기 고목들이 둘러싼 푸른 잔디밭의 아름다운 빈터로 들어섰다. 그 너머 거대한 참나무 그림자 아래에는 기묘한 세 사람이 모

여 있었다. 한 명은 우리의 의뢰인인 여인이었는데, 입에 손수건을 댄 채 기운 없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붉은 콧수염을 기른, 험상궂고 얼굴이 두툼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각반을 찬 다리를 넓게 벌리고 한쪽 손은 허리에 얹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승마용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 태도에서는 승리에 도취한 듯한 허세가 역력히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연한 트위드 정장 위에 짧은 흰 중백의를 걸친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우리가 나타나자마자 그는 기도서를 주머니에 넣으며, 방금 혼인 예식을 마친 듯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신랑의 등을 유쾌하게 두드리며 축하를 건넸다.

"두 사람이 결혼했다니!" 나는 숨을 들이켜며 외쳤다.

"어서 갑시다!" 안내인이 외쳤다. "어서요!" 그는 숲의 빈터를 가로질러 달려 나갔고, 홈즈와 나는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여인이 몸을 지탱하려는 듯 나무 줄기에 기대어 비틀거렸다. 전직 성직자인 윌리엄슨은 가식적인 예의를 갖춰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고, 불량배 우들리는 야만적이고도 환호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턱수염은 이제 치워도 되네, 밥." 그가 말했다. "자네를 모를 리가 있나. 마침 잘 왔군. 자네와 친구들이 온 덕분에 우들리 부인에게 자네들을 소개할 수 있겠어."

안내인의 대답은 기이했다. 그는 자신을 변장시켰던 검은 수염을 홱 잡아채 바닥에 내팽개쳤다. 수염이 사라지자 길쭉하고 창백한, 면도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러고는 권총을 들어 올려 젊은 불량배를 겨누었

다. 불량배는 위험한 승마용 채찍을 손에 휘두르며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소." 우리의 조력자가 말했다. "내가 바로 밥 캐러더스요. 설령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여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겠소. 당신이 그녀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소? 맹세컨대, 나는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오!"

"너무 늦었군. 그녀는 내 아내야."

"아니, 그녀는 당신의 미망인이지."

권총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우들리의 조끼 앞부분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이 보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홱 돌리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흉측하게 붉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시무시할 정도로 얼룩덜룩하게 창백해졌다. 여전히 제의를 입고 있던 노인은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총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노인은 이미 홈즈의 총구 앞에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었다.

"이제 그만해!" 내 친구가 차갑게 말했다. "그 권총 내려놔! 왓슨, 어서 집어 들어! 그놈 머리에 겨눠. 고맙네. 캐러더스, 그 리볼버를 나에게 넘기게. 더 이상의 폭력은 용납하지 않겠네. 자, 어서 넘기게!"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셜록 홈즈입니다."

"세상에!"

"내 이름을 들어본 모양이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임시로 그들을 대신하겠네. 이보게, 거기!"

그는 숲 가장자리에 나타난 겁에 질린 마부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오게. 이 쪽지를 들고 최대한 빨리 팬햄까지 달려가게나."

그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찢어 몇 마디를 휘갈겨 썼다.

"경찰서의 경감에게 이 쪽지를 전달하게. 그가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여러분 모두를 개인적으로 구금하겠네."

비극적인 현장을 압도한 것은 홈즈의 강인하고 주도적인 성격이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마치 그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같았다. 윌리엄슨과 커러더스는 부상당한 우들리를 부축해 집 안으로 옮겼고, 나는 겁에 질린 소녀에게 팔을 내밀어 부축했다. 부상자는 침대에 눕혀졌고, 홈즈의 요청에 따라 내가 상태를 살폈다. 검진을 마친 뒤, 나는 보고 내용을 들고 홈즈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오래된 태피스트리가 걸린 식당에 앉아 두 명의 죄수를 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살 거예요." 내가 말했다.

"뭐라고요!" 캐러더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놈을 먼저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설마 그 천사 같은

여인이 평생토록 '포효하는 잭' 우들리와 엮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점은 걱정할 필요 없네." 홈즈가 말했다.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될 아주 타당한 이유가 두 가지나 있으니까. 우선, 윌리엄슨 씨가 결혼식을 집례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네."

"나 이제 성직자가 되었네!" 그 노회한 악당이 외쳤다.

"그리고 성직자직도 박탈당했지."

"한 번 성직자는 영원한 성직자라지요."

"그렇지 않을 것 같군요. 면허는 어떻습니까?"

"혼인 허가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여기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지요."

"속임수를 써서 얻어낸 것이겠지. 하지만 어찌 됐든 강요된 결혼은 결혼이라 할 수 없네. 오히려 아주 중대한 범죄일 뿐이지. 자네가 이 일을 다 마치기도 전에 곧 깨닫게 될 걸세.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그 점을 곱씹으며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겠군. 그리고 커러더스, 자네는 차라리 권총을 주머니 속에 그대로 넣어 두는 게 나았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홈즈 씨. 하지만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제가 얼마나 많은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떠올리면 말입니다. 홈즈 씨,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던 유일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 같은 자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킴벌리에서 요하네스버그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자 말입니다.

홈즈 씨,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아이가 제 밑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 불한당들이 숨어 있을 게 분명한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반드시 자전거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저 아이에게 아무런 해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물론 아이가 저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었고 수염도 길렀습니다. 그 아이는 착하고 기가 센 아이라, 만약 제가 시골길을 따라 계속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 밑에서 오래 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왜 그녀에게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소?"

"그랬다면 그녀는 저를 떠났을 겁니다. 저는 차마 그 사실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설령 그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그 가녀린 모습이 집안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으니까요."

"글쎄요," 내가 말했다. "캐러더스 씨,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이기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된 일일 겁니다. 어쨌든 그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으니, 누군가 곁에서 그녀를 돌봐주는 편이 나았을 테니까요. 그러던 차에 전보가 도착했으니, 그들이 분명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전보 말씀이십니까?"

커러더스는 주머니에서 전보 한 통을 꺼냈다.

"바로 그거야." 그가 말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노인이 죽었다.

"흠!" 홈즈가 말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것 같군. 자네 말대로 이 메시지가 어떻게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는지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자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나에게 말해 줄 수 있겠나?"

제의를 입은 그 늙은 망나니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댔다.

"제기랄!" 그가 내뱉었다. "밥 캐러더스, 만약 네놈이 우리를 밀고한다면, 네가 잭 우들리에게 했던 짓 그대로 갚아주마. 그 계집애에 대해서는 네 마음껏 떠들어대도 좋다. 그건 네 개인적인 문제니까. 하지만

만약 네 동료들을 배신하고 이 사복 형사에게 고자질한다면, 네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 알아라."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홈즈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당신에게 불리한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으니까요. 제가 묻는 건 그저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당신이 비밀을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당신들 세 명입니다. 윌리엄슨, 커루더스, 그리고 우들리 씨, 맞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이군." 노인이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두 달 전까지는 본 적도 없고, 내 평생 아프리카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소. 그러니 헛소리 집어치우시오, 참견쟁이 홈즈 씨!"

"그의 말이 맞습니다." 캐러더스가 말했다.

"허, 허어, 두 분이 함께 오셨군. 저 신부님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가짜라네. 당신들은 남아프리카에서 랄프 스미스를 알고 있었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 믿을 만한 이유도 있었고 말이야. 그러다 그의 조카딸이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어때, 내 말이 맞나?"

캐러더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윌리엄슨은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가 당연히 직계 가족이었을 테고, 그 노인이 유언장조차 남기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었겠지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캐러더스가 말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이곳으로 와서 그 여자를 찾아냈다는 거군요. 한 명은 그녀와 결혼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전리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우들리가 남편감으로 선택되었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항해 중에 그녀를 걸고 카드 내기를 했지. 그가 이겼어."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 젊은 여성을 고용해 곁에 두었고, 우들리가 그녀에게 구애하도록 계획했군요. 하지만 그녀는 우들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짐승 같은 사내라는 걸 알아차렸고, 그와는 엮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이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계획이 뒤틀리고 말았고요. 그런 무뢰한이 그녀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맙소사, 그럴 수는 없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군요.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신을 떠났고, 그때부터 당신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슨, 이 신사분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군!" 커러더스가 비통한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그래요, 우린 싸웠

고 그자가 나를 때려눕혔지.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그놈과 비긴 셈이오. 그러고 나서 그자를 놓쳤지. 그자가 여기 있는 저 버림받은 신부와 손을 잡은 게 바로 그때였소. 알고 보니 그들은 그녀가 역으로 가려면 지나야 하는 길목의 이 집에서 함께 살림을 차렸더군. 나는 그 뒤로 그녀를 계속 지켜봤소. 분명 무슨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으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싶어서 때때로 그들을 지켜보기도 했지. 이틀 전에는 우들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랄프 스미스가 죽었다는 전보를 가져왔소. 그러고는 내게 원래의 계약을 지킬 거냐고 묻더군. 나는 못 하겠다고 했소. 그러자 그는 내가 직접 그 여자와 결혼해서 자기에게 지분을 나눠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지. 나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답했소. 그랬더니 그자가 말하더군. '일단 결혼부터 시켜놓고 봅시다. 한두 주 지나면 그녀도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나는 폭력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소. 그러자 그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는, 반드시 그녀를 차지하고 말겠다며 악담을 퍼붓고 떠나갔지. 그녀는 이번 주말에 나를 떠날 예정이었고, 나는 그녀를 역까지 데려다줄 마차를 준비해 두었소. 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녀의 뒤를 쫓아갔지. 하지만 그녀가 먼저 출발해 버렸고, 내가 따라잡기도 전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소. 내가 이 일을 처음 알게 된 건, 바로 당신들 두 신사분이 그녀의 이륜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였소."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꽁초를 벽난로 안으로 던져 넣었다.

"내가 너무 둔했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자네 보고서에, 자네가 본 자전거 탄 남자가 덤불 속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것 같았다고 적었을 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어. 어쨌든, 우리는 기묘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축하해도 좋겠네."

홈즈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진입로에 주 경찰 세 명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군. 저 작은 마부 녀석이 경찰들의 속도를 따라잡고 있는 걸 보니 다행이야. 덕분에 마부나 그 흥미로운 신랑감 모두 오늘 아침의 소동으로 영구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을 것 같군. 왓슨, 자네는 의사로서 스미스 양을 찾아가 보게나. 몸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그녀를 어머니 댁까지 기꺼이 모셔다드리겠다고 전해주게. 만약 아직 회복 중이라면, 우리가 미들랜즈에 있는 젊은 전기 기술자에게 전보를 보내려 한다는 힌트를 슬쩍 던져주게나. 아마 그 말 한마디면 치료가 완벽해질 걸세."

홈즈는 이어 캐러더스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캐러더스 씨, 당신은 악한 음모에 가담했던 잘못을 씻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만약 제 증언이 당신의 재판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쉼 없이 이어지는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자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야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일은 내게 늘 어려운 과제였다. 사건이 종결될 때마다 마지막 세부 사항을 덧붙여 궁금증을 풀어

주고 싶었으나, 매번 새로운 사건이 곧바로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위기가 지나가면 사건 속 인물들은 우리의 분주한 삶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곤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다룬 원고 끝에 짧은 메모를 남겨두었기에,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해 두려 한다. 바이올렛 스미스 양은 실제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으며, 현재는 웨스트민스터의 유명한 전기 기술 업체인 '모턴 앤 케네디'의 선임 파트너, 시릴 모턴의 아내가 되었다. 윌리엄슨과 우들리는 납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윌리엄슨은 7년, 우들리는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캐러더스의 운명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법원이 그의 폭행 행위를 그리 무겁게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들리가 매우 위험한 불량배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기에, 몇 달 정도의 형량만으로도 정의를 실현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라이어리 학교

프라이어리 학교의 모험

베이커가라는 우리의 작은 무대 위에서 그동안 극적인 등장과 퇴장이 꽤 있었지만, 석사 및 박사 학위를 가진 쏜크로프트 헉스태블의 첫 등장만큼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의 학문적 성취를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는 명함이 그보다 몇 초 먼저 도착했다. 뒤이어 그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는데, 체구도 당당하고 태도도 거만하며 품위가 넘쳐서, 마치 침착함과 견고함 그 자체를 형상화한 사람 같았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한 첫 행동은 테이블에 부딪히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방금 전까지 위엄을 떨치던 그 거구는 우리 집 벽난로 앞 곰 가죽 깔개 위에 정신을 잃은 채 대자로 뻗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한동안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앞에 놓인 이 거대한 잔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마주한, 갑작스럽고도 치명적인 폭풍을 증명하는 파편 같았

다. 이윽고 홈즈는 머리에 받칠 쿠션을 서둘러 가져왔고, 나는 홈즈의 입술에 적실 브랜디를 챙겼다.

창백하고 무거운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다. 감긴 눈 아래로 처진 눈밑 지방은 납빛으로 변해 있었고, 힘없이 벌어진 입술 끝은 슬프게 늘어져 있었다. 겹쳐진 턱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다. 깃과 셔츠에는 긴 여정의 때가 묻어 있었으며, 잘생긴 머리칼은 헝클어진 채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우리 앞에 누워 있는 이는 참혹한 시련을 겪은 사내였다.

"무슨 일인가, 왓슨?" 홈즈가 물었다.

"완전한 탈진 상태입니다. 아마 단순히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군요."

나는 생명의 흐름이 가늘고 미약하게 이어지는 환자의 맥박을 짚으며 말했다. 맥박은 실낱같이 가늘게 뛰고 있었다.

"잉글랜드 북부 맥클턴에서 온 왕복 승차권이군." 홈즈가 회중시계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며 말했다. "아직 열두 시도 안 됐어. 분명히 아주 일찍 출발한 모양이야."

주름진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초점 없는 회색 눈동자 한 쌍이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남자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홈즈 씨,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한 상태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유 한 잔과 비스킷을 좀 먹을 수 있다면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즈 씨, 제가 직접 찾아온 이유는 당신이 반드시 저와 함께 가야 한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보만으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절박한지 당신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거든요."

"기운을 완전히 차리고 나면——"

"이제 몸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기력이 쇠했는지 저조차 모르겠군요. 홈즈 씨, 다음 열차를 타고 저와 함께 맥클턴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내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제 동료인 왓슨 박사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 무척 바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페러스 문서 사건을 맡고 있고, 애버가베니 살인 사건도 곧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니까요. 지금 당장 런던을 떠나 당신을 만나려면, 정말 중대한 문제가 터져야만 할 겁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방문객이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홀더니스 공작의 외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소식,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뭐라고요! 얼마 전까지 내각 장관을 지내신 그분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애를 썼지만, 어젯밤 《글로브》지에 관련 소문이 실렸더군요. 아마 그 소식을 이미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즈가 길고 가느다란 팔을 뻗더니, 백과사전에서 'H'로 시작하는 권을 집어 들었다.

"'홀더니스, 6대 공작, K.G., P.C.' — 알파벳의 절반은 다 썼군! '베벌리 남작, 카스턴 백작' — 세상에, 목록이 끝도 없네! '1900년부터 핼러머셔의 주지사 역임. 1888년 찰스 애플도어 경의 딸 에디스와 결혼. 유일한 후계자이자 자녀인 솔테어 경. 약 25만 에이커의 토지 소유. 랭커셔와 웨일스에 광산 보유. 주소: 칼턴 하우스 테라스, 핼러머셔 홀더니스 홀, 웨일스 뱅거 카스턴 성. 1872년부터 해군 장관 역임. —— 국무장관……' 허, 참나. 이 사람은 분명 국왕 폐하의 가장 위대한 신하 중 한 명임이 틀림없겠어!"

"가장 위대하고, 아마도 가장 부유한 분일 겁니다. 홈즈 씨, 당신이 직업적 윤리를 매우 엄격하게 지키며, 오로지 사건 그 자체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말씀드려야겠군요. 공작 전하께서는 이미 뜻을 밝히셨습니다. 아드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사람에게는 5,000파운드의 수표를, 아드님을 납치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사람에게는 1,000파운드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왓슨, 내 생각엔 우리가 헉스태블 박사님을 따라 영국 북부로 동행해야 할 것 같네. 자, 헉스

태블 박사님, 우유를 다 드시고 나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지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클턴 근처 프라이어리 학교의 쏜크로프트 헉스태블 박사라는 분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지나서—박사님의 턱 상태를 보니 날짜는 짐작이 가는군요—제 미천한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건지도 꼭 들려주십시오."

방문객은 우유와 비스킷을 다 먹었다. 그러자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고 뺨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활기차고 명료한 태도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신사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야겠군요. 이곳 프라이어리는 제가 설립하고 교장으로 있는 예비 학교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헉스태블의 호라티우스 해설》을 읽으셨다면 제 이름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라이어리는 예외 없이 영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엄선된 학생들만 모이는 예비 학교입니다. 레버스토크 경, 블랙워터 백작, 캐스카트 솜스 경까지, 모두가 자신의 아들을 제게 맡겼지요. 하지만 제 학교가 정점에 달했다고 느낀 것은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홀더니스 공작이 자신의 비서인 제임스 와일더 씨를 보내, 외아들이자 후계자인 열 살 된 어린 솔테어 경을 제게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불행의 서막이 될 줄은요."

"여름 학기가 시작되는 5월 1일에 그 소년이 왔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청년이었고, 곧 우리 생활 방식에 잘 적응했지요. 실례가 되지 않는

다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비밀을 지키는 게 오히려 우스운 일일 테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년은 집에서 그리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공작 부부의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결국 서로 합의하에 별거하게 되어 공작 부인은 프랑스 남부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소년은 어머니 편을 강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홀더니스 홀을 떠난 어머니 때문에 소년은 무척 낙담해 있었고, 공작이 소년을 제 학교로 보내려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자 소년은 우리와 아주 편안하게 지냈고,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 5월 13일 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방은 2층에 있었는데, 소년 두 명이 잠을 자고 있던 더 큰 방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젊은 솔테어가 그 길로 나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의 방 창문은 열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지면까지 뻗어 있는 굵은 담쟁이덩굴이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에서 발자국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이곳이 유일한 탈출로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화요일 아침 7시에야 밝혀졌다. 침대는 누군가 잠을 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외출하기 전, 평소 학교 갈 때 입던 검은색 이튼 재킷과 짙은 회색 바지로 옷을 갖춰 입은 상태였다. 방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비명이나 몸싸움 같은 소리

가 났다면 분명히 들렸을 것이 확실하다. 안쪽 방에 있던 형 카운터가 워낙 잠귀가 밝았기 때문이다.

"솔테어 경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저는 소속된 모든 인원, 즉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하인들까지 전부 모아 인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솔테어 경이 혼자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독일인 교사인 하이데거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의 방은 건물 2층 가장 끝에 있었는데, 솔테어 경의 방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 역시 누군가 잠을 잔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셔츠와 양말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급히 떠난 듯했습니다. 하이데거는 분명 담쟁이덩굴을 타고 내려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잔디밭에 내려앉을 때 남긴 발자국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잔디밭 옆 작은 창고에 보관하던 그의 자전거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추천서도 아주 훌륭했지요. 하지만 워낙 말수가 적고 침울한 성격이라, 다른 교사들이나 학생들 모두 그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친 자들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목요일 아침인 지금도 우리는 화요일과 다를 바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홀더네스 홀에도 즉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이라, 그가 갑작스러운 향수병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에 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작님은 몹시 동요하고 계시며, 저 또한 이 불확실한 상황과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신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라는 걸 여러분도 직접 보셨을 겁니다. 홈즈 씨,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온 힘을 다하실 때가 있다면 부디 지금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 이보다 더 그럴 가치가 있는 사건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셜록 홈즈는 불행한 교사가 하는 이야기를 온 신경을 집중해 경청했다.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과 잔뜩 찌푸린 눈썹을 보니, 그가 이 사건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막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기이한 것을 즐기는 홈즈의 취향을 정면으로 자극하는 문제였다. 홈즈는 수첩을 꺼내더니 한두 가지 사항을 짧게 메모했다.

"나를 더 빨리 찾아왔어야지, 정말 무책임하군." 그가 엄하게 말했다. "자네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아주 큰 장애물을 떠안게 되었어. 예를 들어, 전문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담쟁이덩굴과 잔디밭에서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 잘못이 아닙니다, 홈즈 씨. 공작 전하께서는 세간의 스캔들이 터지는 것을 무엇보다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족의 불행이 세상에 떠벌려지는 걸 두려워하신 겁니다. 전하께서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면 질색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경찰 측에서 조사를 진행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곧바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시간 열차를 타고 인근 역을 떠나

는 소년과 청년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리버풀에서 그 두 사람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다가, 오늘 아침 이른 열차를 타고 곧장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잘못된 단서를 쫓는 동안, 현지 조사는 소홀해졌던 모양이군요?"

"그 일은 완전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흘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군요. 이번 사건은 정말이지 형편없는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그 사실을 저도 느끼고 있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결국에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꺼이 조사해 보죠. 혹시 사라진 소년과 그 독일인 스승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라도 찾아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가 그 교사의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는 그와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건 참으로 기이한 일이군요. 그 소년에게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아니오."

"다른 자전거도 없어진 게 있었습니까?"

"아니오."

"확실합니까?"

"그렇고말고요."

"이보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그 독일인이 한밤중에 소년을 품에 안고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는 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 머릿속에는 어떤 가설이 들어 있습니까?"

"자전거는 눈속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전거를 어딘가에 숨겨두고, 두 사람은 걸어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눈가림 아닌가요? 이 창고에 다른 자전거가 더 있었습니까?"

"몇 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들이 도망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면, 적어도 두어 개 정도는 숨겨두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지."

“당연히 그러겠지. 맹목적인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사를 시작하기에 아주 훌륭한 실마리가 될 거야. 결국 자전거라는 건 숨기거나 없애기가 그리 쉬운 물건이 아니거든. 아, 질문이 하나 더 있네. 그 소년이 사라지기 전날, 혹시 소년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나?”

“아니오.”

“그에게 온 편지는 없었나요?”

“네, 편지 한 통입니다.”

“누구로부터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아이들의 편지를 뜯어보십니까?”

“아니오.”

“그게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봉투에는 가문의 문장이 찍혀 있었고, 공작 특유의 딱딱하고 경직된 필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네. 게다가 공작 본인도 직접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군."

“그 이전에 그가 편지를 받은 적이 언제였던가?”

“며칠 동안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프랑스에서 온 편지가 온 적이 있었나?"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소년은 강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제 발로 나갔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만약 후자라면, 그 어린 소년이 그런 일을 저지르도록 누군가 밖에서 부추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에게 찾아온 방문객이 없었다면, 그 부추김은 분명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이 누구와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알아내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지만, 별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와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그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소년이 사라진 그날 편지를 보낸 사람이군요. 부자 사이는 아주 돈독했습니까?"

"공작 전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리 살갑게 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통 거대한 공적 현안에만 몰두해 계셔서, 일반적인 감정에는 다소 무심한 편이지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만큼은 전하만의 방식으로 늘 다정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마음은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 있었단 말입니까?"

"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오."

"그럼, 공작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아신 겁니까?"

"공작가의 비서인 제임스 와일더 씨와 비밀리에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솔테어 경의 심경에 관한 정보를 제게 알려준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작이 보낸 마지막 편지 말입니다. 그 소년이 사라진 뒤에, 소년의 방에서 그 편지를 찾아낸 건가요?"

"아니요, 그가 가져갔습니다. 홈즈 씨, 이제 유스턴 역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인 것 같군요."

"사륜마차를 한 대 부르겠습니다. 15분 뒤면 도착할 겁니다. 헉스태블 씨, 만약 본가에 전보를 보내실 생각이라면, 리버풀이나 혹은 그 붉은 청어 같은 미끼가 당신의 사냥개들을 이끌었던 다른 곳에서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웃들에게 믿게 만드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동안 저는 당신의 집 문앞에서 조용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쩌면 아직 단서가 완전히 식지 않았을지도 모르니, 저와 왓슨이라는 두 마리의 늙은 사냥개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날 저녁, 우리는 헉스태블 박사의 유명한 학교가 자리 잡은 피크 지방의 차갑고 상쾌한 공기 속에 있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뒤였다. 현관 탁자 위에는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집사는 주인에게 무언가를 낮게 속삭였고, 주인은 묵직한 얼굴에 초조한 기색을 가득 띤 채 우리를 돌아보았다.

"공작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공작 전하와 와일더 씨가 서재에 계십니다. 자, 신사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지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는 그 유명한 정치가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실물은 그림 속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키가 크고 위엄 있는 풍채를 지녔으며, 옷차림 또한 아주 정갈했다. 얼굴은 수척하고 말랐으며, 코는 기괴할 정도로 길고 굽어 있었다. 안색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는데, 그 창백함은 선명한 붉은빛을 띠며 길게 내려온 수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더욱 눈에 띄었다. 붉은 수염은 흰 조끼 위로 흘러내렸고, 수염 사이로는 시계 줄이 번뜩였다. 헉스태블 박사의 벽난로 앞 카펫 중앙에 서서 우리를 무표정하게 응시하던 이가 바로 이런 위엄 있는 모습의 사내였다.

그의 곁에는 아주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개인 비서인 와일더였다. 그는 체구가 작고 신경질적인 기색이 있었으나, 지적인 빛을 띠는 하늘색 눈동자와 민첩한 표정만큼은 매우 기민해 보였다. 대화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였다. 그는 단호하고 명쾌한 어조로 곧장 말을 꺼냈다.

"헉스태블 박사님, 오늘 아침에 찾아뵈었습니다만, 이미 런던으로 떠나신 뒤라 너무 늦었더군요. 박사님께서 셜록 홈즈 씨를 이 사건의 담당자로 초빙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홈즈 씨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셨다니 공작 전하께서 무척 놀라셨습니다."

"경찰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공작 전하께서는 경찰이 실패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와일더 씨——"

"헉스태블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작 전하께서는 대중의 스캔들이 터지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으로만 곁에 두려 하시지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가 죽은 듯한 목소리로 의사가 말했다. "셜록 홈즈 씨는 내일 아침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홈즈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북부의 공기는 활력이 넘치고 상쾌하군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곳 황무지에서 머물며 최대한 정신을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박사님 댁에 머물지, 아니면 마을 여관에 묵을지는 물론 박사님이 결정하실 일이고요."

불행한 의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때 붉은 수염을 기른 공작이 저녁 식사 종소리처럼 웅장하고 깊은 목소리를 내뱉으며 나타났고, 덕분에 그는 간신히 망설임을 멈출 수 있었다.

"헉스태블 박사님, 와일더 씨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다면 참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홈즈 씨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으셨으니, 그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홈즈 씨, 여관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 홀더니스 홀로 오셔서 머무르신다면 저로서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하. 하지만 제 수사를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편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홈즈 씨. 와일더 씨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제공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직접 저택으로 찾아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혹시 스스로 내린 결론이나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운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달리 방법이 없군요. 혹시 공작부인이 이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위 관료는 눈에 띄게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가장 명백한 다른 가능성은 아이가 몸값을 노린 납치범에게 끌려갔을 경우입니다. 혹시 그와 관련된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공작 전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아드님께 편지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니요, 그 전날에 썼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날 그것을 받았단 말씀입니까?"

"네."

"당신이 보낸 편지에 그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부추길 만한 내용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로 아닙니다."

"그 편지, 직접 부치셨습니까?"

귀족이 대답을 이어가려던 찰나, 비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끼어들며 말을 가로막았다.

"공작 전하께서는 직접 편지를 부치는 일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가 말했다. "이 편지는 서재 탁자 위에 다른 편지들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우편물 가방에 넣었고요."

"이것이 분명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저도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작 전하께서는 그날 편지를 몇 통이나 쓰셨습니까?"

"스무 통이나 서른 통쯤 됩니다. 주고받는 편지가 워낙 많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건과는 별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공작이 말을 이었다. "경찰이 프랑스 남부 쪽을 조사해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작부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부추겼을 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 이 독일인 놈의 도움을 받아 공작부인에게 도망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헉스태블 박사, 이제 그만 저택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홈즈가 더 묻고 싶어 할 질문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귀족의 태도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단호하여, 면담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 지극히 귀족적인 성품을 지닌 그에게 낯선 이와 사적인 가족사를 논하는 일은 무엇보다 혐오스러운 일임이 분명했다. 그는 질문이 거듭될수록, 공들여 숨겨온 공작 가문의 어두운 비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귀족과 그의 비서가 떠나자마자, 내 친구는 특유의 열의를 불태우며 곧장 사건 조사에 뛰어들었다.

소년의 방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소년이 창문을 통해서만 탈출할 수 있었다는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독일인 스승의 방과 소지품에서도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소년이 도망칠 때 담을 타고 올라가던 담쟁이덩굴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고, 우리는 랜턴 불빛에 의지해 잔디밭에 남은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의 뒤꿈치가 찍힌 그 자국만이, 이 불가해한 야간 탈출의 유일하고도 실질적인 목격자였다.

셜록 홈즈는 홀로 집을 나섰고,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인근 지역의 커다란 군용 지도를 구해왔는데, 내 방으로 들어온 그는 그 지도를 침대 위에 펼쳐 놓았다. 그러고는 지도 중앙에 램프를 세워 빛을 맞춘 뒤,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지도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씩 연기가 자욱한 파이프 끝으로 지도의 흥미로운 지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왓슨, 이 사건이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홈즈가 말했다. "분명 눈여겨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지형적 특징들을 자네도 미리 파악해 두었으면 하네."

홈즈의 지도

학교 주변 지형도: 홈즈의 지도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어두운 사각형이 프라이어 학교입니다. 여기에 핀을 꽂아 두죠. 자, 이 선은 대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길은 학교

를 지나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방향으로든 1마일 안에는 옆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만약 이 두 사람이 길을 따라 빠져나갔다면, 분명히 바로 이 길이었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기막히게 운이 좋게도, 문제의 밤에 이 길을 지나간 흔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네. 지금 내 파이프를 올려둔 바로 이 지점에, 카운티 경관 한 명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섰다네. 보다시피 이곳은 동쪽 방향의 첫 번째 교차로라네. 이 경관의 말에 따르면, 그는 단 한 순간도 근무지를 비운 적이 없으며, 어떤 소년이나 성인이라도 이 길을 지나갔다면 분명히 목격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네. 오늘 밤 이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쪽 끝은 이렇게 막혔으니, 이제 반대편을 살펴봐야 하네. 여기 '레드 불'이라는 여관이 하나 있는데, 여관 여주인이 몸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맥클턴으로 사람을 보내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다른 왕진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탓에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네. 여관 사람들은 의사가 오기를 기다리며 밤새 깨어 있었고, 그들 중 누군가는 계속해서 길을 주시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들의 말에 따르면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네. 만약 이들의 증언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서쪽 길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되는 셈이지. 게다가 도망자들이 이 길을 아예 이용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야."

"하지만 자전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반문했다.

"맞습니다. 자전거 이야기는 곧 다시 하도록 하죠. 추리를 계속해 봅시다. 만약 이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집 북쪽이나 남쪽의 들판을 가로질러 갔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죠. 이제 두 방향을 비교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집 남쪽에는 돌담으로 구획된 작은 논밭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은 자전거로 지나가기 불가능한 지형이라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남쪽은 후보에서 제외하죠. 이제 북쪽 지형을 살펴봅시다.

이곳에는 '래기드 쇼'라고 불리는 작은 숲이 있고, 그 너머로는 로워길 무어가 거대한 구릉지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황무지는 10마일에 걸쳐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솟아 있습니다. 이 황량한 지역의 한쪽 끝에는 홀더니스 홀이 자리 잡고 있는데, 도로를 따라가면 10마일이나 걸리지만 무어를 가로지르면 6마일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독특할 정도로 황량한 평원이지요.

무어 근처의 농부 몇몇이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양과 소를 기르고 있을 뿐입니다. 체스터필드 대로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물떼새와 도요새가 이 땅의 유일한 거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로에 이르면 교회와 오두막 몇 채, 그리고 여관이 하나 나옵니다. 그 너머로는 언덕이 가파르게 솟아오르죠. 우리의 단서는 분명 이 북쪽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전거는요?" 내가 다시 물었다.

“이런, 이런!” 홈즈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라면 굳이 큰길로 다닐 필요가 없네. 황야 곳곳에 길이 나 있고, 달도 아주 밝았으니까. 아니, 이게 대체 뭐지?”

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헉스태블 박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챙에 흰색 V자 무늬가 새겨진 파란색 크리켓 모자가 들려 있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 그가 외쳤다. “천만다행이야! 드디어 그 가여운 친구의 흔적을 쫓게 되었군! 바로 이 모자야.”

“그건 어디서 발견되었습니까?”

"황무지에 캠프를 쳤던 집시들의 마차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화요일에 떠났더군요. 오늘 경찰이 그들의 행적을 추적해 마차를 조사했고, 그 안에서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놈들은 말을 더듬으며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화요일 아침에 황무지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악당 놈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다행히도 놈들은 모두 감옥에 갇혀 신변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법의 심판이 두려워서든, 아니면 공작님이 내건 거액의 사례금 때문이든, 놈들은 분명 알고 있는 걸 전부 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군.”

마침내 왓슨 박사가 방을 나간 뒤, 홈즈가 말했다.

"적어도 우리가 결과를 기대하려면 로워 길 무어 쪽을 살펴봐야 한다는 가설이 뒷받침되는 셈이야. 경찰은 이 집시들을 체포한 것 말고는 현지에서 정말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어. 이것 좀 보게, 왓슨! 무어를 가로지르는 물길이 있네. 여기 지도에 표시된 게 보이지? 어떤 구간은 늪지대로 넓게 퍼져 있어. 특히 홀더니스 홀과 학교 사이 지역이 그렇다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다른 곳에서 흔적을 찾는 건 헛수고지만, 바로 저 지점이라면 분명히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자네를 부르겠네.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이 수수께끼를 조금이라도 밝혀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날이 막 밝아올 무렵, 잠에서 깨어난 나는 홈즈의 길고 마른 형체가 내 침대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옷을 완전히 갖춰 입은 상태였고, 이미 밖을 한 바퀴 돌고 온 모양이었다.

"잔디밭이랑 자전거 보관소 정리는 다 끝냈네." 그가 말했다. "래기드 쇼를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기도 했고 말이야. 자, 왓슨, 옆방에 코코아를 타 두었으니 어서 오게. 서둘러야 하네. 오늘 우리 앞에 아주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홈즈의 눈은 빛나고 있었으며, 마치 완성된 작품을 눈앞에 마주한 숙련된 장인처럼 그의 뺨에는 흥분이 서린 홍조가 감돌았다. 베이커가의 내성적이고 창백한 몽상가였던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활기차고 기민한 모습이었다. 신경질적인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그 탄탄한 체

구를 바라보며, 나는 오늘 우리 앞에 아주 고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결과는 뼈아픈 실망뿐이었다. 우리는 큰 기대를 품고 이끼 낀 적갈색 황무지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수천 갈래로 얽힌 양들의 길을 지나, 마침내 홀더네스와 우리 사이를 가르는 넓고 연한 초록빛의 늪지대를 마주했다. 만약 그 소년이 집을 향해 갔다면 분명 이곳을 지나야만 했을 것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도, 그 독일인도 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내 친구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끼 낀 지표면에 남은 진흙 얼룩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부라리며 늪의 가장자리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양들이 지나간 자국은 도처에 널려 있었고,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소들이 남긴 발자국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첫 번째 좌절이군."

홈즈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침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아래에 늪지대가 하나 더 있고, 그 사이로 좁은 길목이 이어져 있군. 어라! 이보게! 이보게! 이게 대체 뭔가?"

우리는 검은색 리본처럼 가늘게 이어진 오솔길에 들어섰다. 젖은 흙 위에는 자전거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만세!" 내가 외쳤다. "드디어 찾아냈어."

하지만 홈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당혹감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자전거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자전거는 아니군요." 그가 말했다. "나는 타이어가 남긴 마흔두 가지의 서로 다른 흔적을 꿰고 있습니다. 당신도 보시다시피 이건 던롭 타이어입니다. 겉면에는 패치도 붙어 있군요. 하이데거의 타이어는 팔머 제품이었는데, 그건 세로 줄무늬를 남깁니다. 수학 교사인 에블링은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러니 이건 하이데거의 자전거 자국이 아닙니다."

"그럼, 그 소년의 것이라는 말인가요?"

"그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전거 자국은 학교 쪽에서 달려온 사람이 남긴 것입니다."

"아니면 그쪽을 향해서인가요?"

"아니, 아니네, 왓슨. 당연히 무게가 실리는 뒷바퀴가 더 깊게 눌린 자국이지. 자, 보게나. 뒷바퀴가 지나가면서 앞바퀴가 남긴 얕은 자국을 여러 군데 뭉개버린 게 보이지? 이 자전거는 틀림없이 학교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네. 이것이 우리가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일단 이 자국을 따라 역으로 추적해 보세나."

우리는 그대로 발자국을 따라갔다. 하지만 수백 야드를 더 나아가 황무지의 습지대를 벗어나자 발자국은 끊기고 말았다. 우리는 왔던 길을 되짚어 올라가다가, 길을 가로질러 샘물이 졸졸 흐르는 또 다른 지점을 찾아냈다. 그곳에서도 자전거 바퀴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소들의 발굽에 짓밟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말이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길은 학교 뒤편에 맞닿은 래기드 쇼 숲으로 곧장 이어져 있었다. 자전거는 분명 이 숲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홈즈는 바위 위에 주저앉아 두 손에 턱을 괴었다. 그가 움직이기 전까지 나는 담배를 두 대나 피웠다.

"허, 이거 참."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물론 교활한 자라면 낯선 흔적을 남기려고 일부러 자전거 타이어를 갈아 끼웠을 가능성도 있겠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치밀한 범죄자라면, 나라도 기꺼이 상대해 보고 싶을 정도군. 일단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로 두기로 하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세. 아직 조사해야 할 내용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젖어 있는 황무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끈기 있는 노력은 눈부신 결실을 보았다. 늪지 아래쪽을 가로질러 진흙투성이 길이 하나 나타난 것이다. 홈즈는 그 길에 다가서며 기쁨에 찬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길 한가운데에는 마치 가느다란 전신선 뭉치가 지나간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팔머 타이어의 흔적이었다.

"정말 하이데거 씨가 맞군!" 홈즈가 환호하며 외쳤다. "내 추리가 꽤 정확했던 모양이야, 왓슨."

"축하하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이제 흔적을 따라가 봅시다. 이 흔적이 그리 멀리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걱정이군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황무지의 이 구역에는 곳곳에 질척이는 땅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길을 놓치는 일도 잦았지만, 우리는 매번 다시 길을 찾아내며 나아갔다.

"자네도 보이나?" 홈즈가 말했다. "기수가 확실히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군. 여기 타이어 자국이 둘 다 선명하게 남은 부분을 보게. 한쪽이 다른 쪽만큼이나 깊게 파여 있지 않나. 이건 기수가 전력 질주를 할 때처럼 핸들바 쪽으로 몸을 잔뜩 기울였다는 뜻이야. 세상에! 사고가 났군."

길 위에는 몇 야드에 걸쳐 넓고 불규칙한 얼룩이 번져 있었다. 이어 몇 개의 발자국이 나타나더니, 다시 타이어 자국이 모습을 드러냈다.

"옆으로 비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안했다.

홈즈가 구겨진 가시덤불 가지 하나를 들어 올렸다. 나는 그 노란 꽃송이들이 온통 진홍빛으로 얼룩진 것을 보고 경악했다. 길 위에도, 그

리고 헤더 꽃 사이에도 검붉게 엉겨 붙은 핏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나쁘군!" 홈즈가 말했다. "나빠! 왓슨, 물러나 있게! 불필요한 발자국을 남겨선 안 되네! 여기서 무엇이 읽히는가? 그는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 계속 나아갔군. 하지만 다른 발자국은 전혀 없어. 이 측면 경로에는 가축들이 있군. 설마 황소에게 받힌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군. 계속 가야 하네, 왓슨. 발자국뿐만 아니라 혈흔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으니, 이제 그가 도망치기는 틀렸네."

수색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젖어서 번들거리는 길 위로 자전거 타이어 자국이 기괴하게 휘어지며 이어졌다. 앞을 살피던 중, 갑자기 무성한 가시덤불 사이에서 금속의 광채가 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덤불 속에서 자전거 한 대를 끌어냈다. 팔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었고 페달 하나는 휘어져 있었으며, 자전거 앞부분 전체는 피로 끔찍하게 범벅이 되어 있었다.

덤불 반대편에는 신발 한 짝이 삐져나와 있었다. 우리가 달려가 보니 그곳에 불운한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이었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알 하나는 빠져 있었다.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끔찍한 타격이었다. 그 충격으로 두개골 일부가 함몰되어 있었다. 이런 부상을 입고도 계속 나아갔다는 사실은 이 남성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

었다. 그는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양말은 신지 않았고, 풀어헤친 코트 안으로는 잠옷 차림이 드러났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독일인 교사였다.

홈즈는 경건한 태도로 시신을 뒤집어 아주 세밀하게 살폈다. 그러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간을 찌푸린 그의 표정을 보니, 홈즈의 판단으로는 이 참혹한 발견이 우리의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주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렵군, 왓슨."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 마음은 이 조사를 계속 밀고 나가고 싶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니, 단 한 시간도 더 낭비할 여유가 없거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발견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하고, 이 가여운 사람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네."

"메모를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행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기서 탄을 자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이쪽으로 데려오면, 경찰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농부를 데려왔고, 홈즈는 겁에 질린 그에게 헉스태블 박사에게 전할 쪽지를 써주며 상황을 정리했다.

"자, 왓슨." 홈즈가 말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두 가지 단서를 찾아냈네. 하나는 팔머 타이어를 장착한 자전거인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이미 확인했지. 다른 하나는 던롭 타이어를 덧댄 자전거라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세. 그래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을 테니까."

"무엇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아이가 분명 스스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창문 밖으로 내려가서 혼자 갔든 누군가와 함께 갔든, 어쨌든 제 발로 나간 것만은 확실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이 불운한 독일인 스승에 대해 살펴봅시다. 소년은 도망칠 때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어요. 즉, 소년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독일인은 양말조차 신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분명 아주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을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군."

"그는 왜 떠났을까요? 침실 창밖으로 소년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을 붙잡아 데려오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전거를 움켜쥐고 소년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다 소년을 추격하던 중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이제 제 논증의 결정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린 소년을 뒤쫓는다면 당연히 달려가겠지요. 달려가야만 소년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걸 알 테니까요. 하지만 그 독일인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전거로 향했죠. 듣기로는 자전거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그 소년에게 아주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자전거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자전거 말입니다."

"자, 재구성을 계속해 봅시다. 그는 학교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총탄에 맞은 게 아닙니다—총탄이라면 어린 소년이라도 쏠 수 있었겠지만 말입니다—그는 힘이 넘치는 팔이 휘두른 잔혹한 일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년에게는 도망칠 때 함께한 일행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도망치는 속도 또한 매우 빨랐습니다. 숙련된 자전거 운전자조차 그들을 따라잡는 데 5마일이나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비극이 일어난 현장 주변을 살펴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가축이 지나다닌 흔적 몇 개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주변을 넓게 훑어보았지만 50야드 이내에는 길조차 없습니다.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실제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없으며, 사람의 발자국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홈즈," 내가 외쳤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훌륭하군!" 그가 말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적이야. 내가 말한 대로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 내가 어느 부분에서든 잘못 말한 게 분명해. 하지만 자네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어디서 오류를 범했는지 짚어줄 수 있겠나?"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늪에 빠졌다고, 왓슨?"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쯧쯧, 이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도 해결해 왔지 않나.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재료는 아주 충분하네. 자, 그럼 이 팔머(Palmer)를 다 마셨으니, 표지가 덧대어진 던롭(Dunlop)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세나."

우리는 발자국을 따라 한동안 계속 나아갔다. 하지만 곧 황무지가 길게 솟아오르며 진달래꽃이 덤불을 이룬 곡선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어느덧 물길을 뒤로하고 멀어졌다. 더 이상 발자국을 통해 단서를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던롭 타이어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한 지점에서, 길은 왼쪽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엄 있는 탑을 세운 홀더니스 홀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정면에 놓인 채 체스터필드 대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낮고 회색빛이 도는 마을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다.

문 위에 수탉 그림이 그려진, 으스스하고 지저분한 여관에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홈즈가 갑자기 신음하며 내 어깨를 꽉 붙잡았다. 넘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발목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온 모양인데,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격렬한 통증이었다. 홈즈는 간신히 절뚝거리며 문 앞까지 다가갔다. 그곳에는 검은 진흙 파이프를 물고 담배를 피우는, 체구가 작고 피부가 검은 노인이 서 있었다.

"루벤 헤이즈 씨, 별거 없으셨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길래 내 이름을 그렇게 척척 알고 있소?" 시골 사람이 대답했다. 교활한 눈빛이 의심스럽게 번뜩였다.

"글쎄요, 당신 머리 위 간판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마구간에는 마차 같은 건 없나 보군요?"

"아니요, 마차 같은 건 없소."

"발을 땅에 제대로 디디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바닥에 내려놓지 마세요."

"하지만 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한 발로 깡충깡충 뛰어가든가."

루벤 헤이스 씨의 태도는 전혀 정중하지 않았으나, 홈즈는 놀라울 정도로 너그럽게 그를 받아주었다.

"이보게, 친구." 그가 말했다. "이건 정말이지 나로서도 꽤 난처한 상황이라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지만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요." 시무룩한 표정의 집주인이 말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전거를 빌려주신다면 사례로 1소버린을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귀를 쫑긋 세웠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홀더니스 홀로 가주게."

"공작님 친구들이라도 되나 보군?" 주인장이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옷차림을 비꼬는 눈빛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홈즈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쨌든, 그분도 우리를 보면 반가워할 걸세."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드리러 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눈에 띄게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뭐라고, 그자의 뒤를 쫓고 있다고?"

"리버풀에서 그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매시간 곧 그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이 난 그의 무거운 얼굴 위로 다시금 감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아주 상냥하게 변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그 공작을 더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한때 제가 마부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아주 모질게 대하셨거든요. 거짓말쟁이 곡물 상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추천서도 못 받고 해고당한 것도 바로 그분 때문이었죠. 그래도 젊은 경

이 리버풀에서 발견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저택까지 소식을 전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고맙소." 홈즈가 말했다. "우선 음식부터 좀 먹읍시다. 그러고 나서 자전거를 가져오시오."

"전 자전거 같은 건 없어요."

홈즈가 소버린 금화 한 닢을 들어 보였다.

"이보게, 말했잖나, 자전거는 한 대도 없다고. 저 저택까지는 말 두 마리를 빌려주겠네."

"허허, 이거 참." 홈즈가 말했다. "일단 뭐 좀 먹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지."

돌바닥이 깔린 주방에 우리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삔 발목의 통증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라앉았다. 어느덧 해가 저물 무렵이었고, 아침 일찍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라 우리는 식사를 하며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홈즈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한두 번 창가로 걸어가더니 밖을 뚫어지게 응시하기도 했다. 창밖으로는 지저분한 안뜰이 내려다보였다. 안뜰 구석 멀리에는 대장간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때가 꼬죄죄한 소년 하나가 일을 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마구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을 살피고 돌아온 홈즈가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왓슨! 드디어 알아냈어!" 홈즈가 외쳤다. "그래, 맞아. 분명이 방법뿐이야. 왓슨, 자네 오늘 소 발자국을 본 적이 있나?"

"네, 몇 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글쎄요, 사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늪지대에서도 나왔고, 길 위에서도 나왔으며, 불쌍한 하이데거가 죽음을 맞이한 곳 근처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정확해. 자, 왓슨. 황무지에서 소를 몇 마리나 봤지?"

"그런 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상하군, 왓슨. 우리가 지나온 길목마다 발자국은 가득한데, 정작이 드넓은 황무지 전체를 통틀어 소 한 마리 보이지 않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 왓슨?"

"그래, 참 이상한 일이군."

"자, 왓슨, 정신을 집중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게. 저 길 위에 남은 발자국들이 보이는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왓슨, 자네도 발자국이 가끔 이런 모양이었던 걸 기억하나?" 홈즈는 빵 부스러기들을 늘어놓으며 말했다. "이런 식이었지. : : : : : "그리

고 때로는 이런 모양이었고.” —: . : . : . : . — “가끔은 또 이런 모양이었네.” —. • . • . • . “자네도 기억하고 있나?”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할 수 있습니다. 맹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다시 가서 확인해 보죠.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다니, 제가 눈먼 딱정벌레처럼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걷고 구보하고 전속력으로 질주까지 하는 대단한 소라는 것뿐이지. 이런! 왓슨, 그런 눈속임을 궁리해 낸 건 시골 주점 주인 따위의 머리가 아니야. 대장간에 있는 저 소년만 빼면 주변은 깨끗한 것 같군. 슬쩍 나가서 무엇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

허물어져 가는 마구간 안에는 털이 거칠고 관리가 안 된 말 두 마리가 있었다. 홈즈는 그중 한 마리의 뒷다리를 들어 올리더니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낡은 신발인데 새로 편자를 박았군. 낡은 신발에 새 못이라니. 이 사건은 정말 고전적인 수수께끼가 될 것 같아. 자, 대장간으로 가보세.”

소년은 우리를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기 일을 계속했다. 나는 홈즈의 눈동자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철제 도구와 나무 파편들 사이를 좌우로 빠르게 훑는 것을 보았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집주인이 나타났다. 거친 눈썹은 사나운 눈매를 짓누르고 있었고, 거무스름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금속 머리가 달린 짧은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주머니 속의 리볼버를 만지며 안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빌어먹을 스파이 놈들!" 남자가 외쳤다.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루벤 헤이즈 씨," 홈즈가 침착하게 말했다. "자칫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낼까 봐 겁이라도 내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 남자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안간힘을 썼다. 그러더니 굳게 다물렸던 입술을 풀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라리 찌푸린 얼굴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내 대장간에서 알아내고 싶은 건 얼마든지 찾아보게나."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보게, 난 허락도 없이 남이 내 구역을 휘젓고 다니는 건 딱 질색이라네. 그러니 계산은 빨리 끝내고 어서 여기서 나가주게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헤이즈 씨. 해를 끼치려던 건 아니니 오해 마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말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냥 걸어가야겠군요.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왼쪽 길로 가면 저택 정문까지 채 2마일도 안 됩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집을 떠날 때까지 침울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길을 따라 그리 멀리 가지 못했다. 길의 굽이진 구간이 나타나 여관 주인의 시야에서 우리가 사라지자마자, 홈즈가 즉시 발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여관 안은 참 따뜻했지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멀어질수록 몸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분명해요." 내가 말했다. "이 루벤 헤이스라는 자가 모든 걸 알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토록 악당이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자는 생전 처음 봅니다."

"오,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단 말입니까? 저기 말들도 보이고, 대장간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파이팅 코크'는 참 흥미로운 곳입니다. 조만간 눈에 띄지 않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우리 뒤편으로는 회색 석회암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길고 완만한 경사의 언덕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길을 벗어나 언덕을 오르는 중이었다. 그때 홀더니스 홀 방향을 바라보던 내 눈에,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려오는 한 사람이 들어왔다.

"엎드려, 왓슨!"

홈즈가 내 어깨를 묵직하게 짓누르며 외쳤다. 우리가 몸을 낮추자마자, 한 남자가 도로 위를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갔다. 자욱하게 일어나는 먼지 구름 사이로 그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창백하고 초조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목구비마다 공포가 서려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눈은 앞을 향해 미친 듯이 부릅뜨고 있었다. 전날 밤 보았던 말쑥한 제임스 와일더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기괴하게 일그러진 캐리커처를 보는 듯했다.

"공작의 비서라니!" 홈즈가 외쳤다. "자, 왓슨.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세."

우리는 바위 사이를 헤치며 기어올랐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여관의 정문이 내려다보이는 지점에 다다랐다. 여관 벽 옆에는 와일더의 자전거가 기대어 있었다. 집 주변에는 움직이는 사람도 없었고, 창문 너머로 사람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홀더니스 홀의 높은 탑 뒤로 해가 저물자, 황혼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여관 마구간 마당에 세워진 마차의 측면 등불 두 개가 켜졌다. 곧이어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마차는 길가로 방향을 틀더니 체스터필드 방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 나갔다.

"저건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홈즈가 나직이 속삭였다.

"도망치는 모양새군요."

"내가 보기엔 이륜마차(도그카트)를 탄 남자 한 명뿐이었네. 뭐, 제임스 와일더 씨는 확실히 아니야. 저기 문 앞에 와 있는 걸 보니 말일세."

어둠 속에서 붉은 사각형의 불빛이 번쩍이며 나타났다. 그 빛의 한가운데에 비서의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밤의 어둠 속을 살피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마침내 길 위로 발소리가 들려왔고, 빛을 등진 두 번째 형체가 찰나의 순간 모습을 드러냈다. 이윽고 문이 닫히자 다시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5분 뒤, 1층의 어느 방에 등불이 켜졌다.

"파이팅 코크(Fighting Cock)가 받는 손님이란 참으로 기이한 부류로군요." 홈즈가 말했다.

"술집 바는 건물 반대편에 있는데 말입니다."

"맞아. 이들은 소위 개인적인 손님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제임스 와일더 씨는 이 야심한 시각에 저 은밀한 방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를 맞이하러 오는 동행은 또 누구지? 자, 왓슨.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일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봐야겠어."

우리는 함께 길 아래로 내려가 살금살금 여관 문 앞까지 다가갔다. 자전거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홈즈가 성냥을 그어 뒷바퀴에 갖다 대었다. 빛이 기운 자국이 선명한 던롭 타이어를 비추자, 홈즈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머리 위로는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다.

"저 너머를 꼭 들여다봐야겠네, 왓슨. 자네가 허리를 숙인 채 벽을 짚고 몸을 지탱해 준다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군."

찰나의 순간, 홈즈의 발이 내 어깨를 딛고 올라섰다. 하지만 그는 채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자, 친구여." 그가 말했다. "오늘 일은 이쯤 하면 충분하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건 다 모은 것 같군. 학교까지는 한참을 걸어가야 하니, 서둘러 출발하는 게 좋겠네."

황량한 무어를 가로지르는 고단한 행군 내내 그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그는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곧장 맥클턴 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전보를 몇 통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늦은 밤, 나는 그가 자신의 교사가 맞은 비극적인 죽음에 망연자실해 있는 헉스태블 박사를 위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내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만큼이나 눈빛은 형형했고 기운도 넘쳐 보였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네, 친구." 그가 말했다. "약속하건대, 내일 저녁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걸세."

다음 날 오전 11시, 내 친구와 나는 홀더니스 홀의 그 유명한 주목 가로수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우리는 웅장한 엘리자베스 양식의 문을 지나 공작의 서재로 안내받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제임스 와일더 씨를 만났다. 그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으나, 전날 밤 겪은 극심한 공포의 흔적이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과 경련하는 얼굴 근육에 남아 있었다.

"공작 전하를 뵈러 오셨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전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십니다. 비극적인 소식 때문에 충격을 크게 받으셨거든요. 어제 오후에 헉스태블 박사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는데, 당신이 발견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와일더 씨, 반드시 공작님을 뵙고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 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방으로 가봐야겠군요."

"그는 침대에 누워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나겠습니다."

홈즈의 냉담하고 단호한 태도를 본 비서는 그와 논쟁해 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좋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여기 와 계신다고 전해 드리지요."

한 시간가량 지체된 끝에 그 고귀한 귀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으며, 어깨는 굽어 있었다. 내 눈에는 그가 전날 아침보다 훨씬 더 늙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품격 있는 예우를 갖춰 우리에게 인사를 건넨 뒤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붉은 수염이 탁자 위로 길게 흘러내렸다.

"자, 홈즈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하지만 내 친구의 시선은 주인 의 의자 곁에 서 있는 비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각하, 와일더 씨가 자리에 없을 때라면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안색이 한층 더 창백해지더니, 홈즈를 향해 악의 어린 눈빛을 던졌다.

"공작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그래요, 그래요. 어서 가보도록 하세요. 자, 홈즈 씨, 이제 당신은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내 친구는 물러가는 비서의 뒷모습을 뒤로하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각하." 그가 말했다. "제 동료인 왓슨 박사와 저는 헉스태블 박사로부터 이번 사건에 포상금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각하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싶군요."

"물론입니다, 홈즈 씨."

"제 정보가 맞다면,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에게 무려 5,000파운드를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금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혹은 누구들인지 밝혀내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천 파운드를 더 주겠다고 하던가요?"

"정확합니다."

"후자의 항목에는 그를 데려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의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공모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겠군요?"

"그렇고말고요, 그렇고말고요!" 공작이 조바심을 내며 외쳤다. "셜록 홈즈 씨, 당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만 해낸다면, 보수가 적다고 불평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내 친구는 얇은 두 손을 비벼댔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던 그였기에, 마치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듯한 그 모습은 내게 꽤나 의외로 다가왔다.

"탁자 위에 공작 전하의 수표책이 놓여 있는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육천 파운드를 적은 수표를 한 장 끊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표에 횡선을 그어 주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옥스퍼드 스트리트 지점에 있는 캐피털 앤 카운티스 은행이 제 대리 은행이니까요."

공작은 의자에 아주 엄격하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내 친구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홈즈 씨? 이건 가볍게 웃어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 제 평생 이토록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말은 제가 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그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적어도 몇 명은 알고 있습니다."

공작의 창백하다 못해 형편없는 안색 위로, 그의 수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붉은빛을 띠며 도드라져 보였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는 당신의 공원 정문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파이팅 코크 여관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곳에 있었고요."

공작은 의자 뒤로 몸을 털썩 기댔다.

"그래서,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겁니까?"

셜록 홈즈의 대답은 경악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성큼 앞으로 걸어가 공작의 어깨를 짚었다.

"내가 바로 당신을 고발하겠소." 그가 말했다. "자, 이제 공작 전하, 그 수표를 내놓으시지요."

공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처럼 손을 허우적대던 그 모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귀족다운 자제력을 발휘하려는 듯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다시 자리에 앉더니,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가 입을 열기까지는 몇 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어디까지 알고 있나?"

그가 마침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어젯밤 당신들이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친구분 말고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펜을 쥐고 수표책을 펼쳤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알아낸 정보가 내게 아무리 불쾌한 것이라 해도, 지금 바로 수표를 써 드리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사건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당신과 당신 친구분은 입이 무거운 분들이시죠?"

"공작 전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즈 씨. 이 사건을 당신들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밖으로 알려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12,000파운드, 맞습니까?"

하지만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공작 전하, 일이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을 듯싶습니다. 우선 이 학교 교사의 죽음부터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임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건 그가 불행하게도 고용하게 된 저 잔인한 불한당이 저지른 짓이니까요."

"각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 범죄에서 파생되는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도덕적으로는 그렇겠지요, 홈즈 씨. 당신 말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은 분명 다를 겁니다. 자기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당신만큼이나 그 살인 사건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인죄로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건 소식을 듣자마자 공포와 자책감에 휩싸여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살인범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고요. 오, 홈즈 씨, 제발 그를 구해주십시오. 반드시 구해주셔야 합니다! 정말이지 그를 구해주셔야만 합니다!"

공작은 마지막 남은 자제력마저 놓아버렸다. 그는 경련이 일어난 얼굴로 주먹을 꽉 쥔 채, 허공에 손을 휘두르며 방 안을 서성였다. 마침내 그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다른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이곳으로 먼저 와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작이 말했다. "적어도 이 끔찍한 추문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지, 함께 의논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공작 전하, 이 일을 해결하려면 우리 사이에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솔직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하를 돕

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파악해야만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제임스 와일더 씨를 염두에 두신 것이며, 그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점도 잘 이해했습니다."

"아니요, 살인범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셜록 홈즈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각하께서는 제가 가진 미미한 명성을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만약 들어보셨다면, 저를 따돌리는 일이 이토록 쉬울 거라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루벤 헤이스 씨는 제 제보를 토대로 어젯밤 11시, 체스터필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학교를 나서기 전, 현지 경찰 책임자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습니다."

공작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내 친구를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능력을 갖춘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그럼 루벤 헤이스를 붙잡았다는 말입니까? 제임스의 운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라면,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비서라고요?"

"아닙니다, 선생. 제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홈즈가 경악한 표정을 지을 차례였다.

"공작 전하, 솔직히 말씀드려 제게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즈 씨, 당신에게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제게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제임스의 어리석음과 질투가 우리를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이상,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홈즈 씨, 제가 아주 젊었을 적에 평생 단 한 번뿐일 법한 뜨거운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청혼했지만, 그녀는 그런 결혼이 제 경력을 망칠 수도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저는 분명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며 아이를 하나 남겼고, 저는 그녀를 기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키워왔습니다. 세상에 아이의 생부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아이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제 곁에 두고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비밀을 눈치챘고, 그 뒤로는 저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며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제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추문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입니다.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끝난 데에는 이 아이의 존재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는 제 적자인 어린 후계자를 처음부터 끈질기게 증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아직도 제임스를 제 집에 머물게 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 이유는 아이의 얼굴에서 죽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고통을 끝없

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예쁜 몸짓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떠올리게 하며 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아이를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아서, 그러니까 솔테어 경에게 해를 끼칠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서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그를 헉스태블 박사의 학교로 보냈던 것입니다."

"제임스가 헤이스라는 자와 알게 된 것은, 그자가 제 세입자였고 제임스가 관리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헤이스는 처음부터 질 나쁜 놈이었지만, 제임스는 어찌 된 영문인지 그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늘 질 낮은 부류와 어울리는 경향이 있었지요. 제임스가 솔테어 경을 납치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가 이용한 것이 바로 이 헤이스의 도움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 마지막 날에 아서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제임스는 그 편지를 열어보고는, 학교 근처에 있는 '래기드 쇼'라는 작은 숲에서 만나자는 쪽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제임스는 공작부인의 이름을 사칭해서 아이를 불러낸 것이지요. 그날 저녁 제임스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건 제임스가 제게 직접 자백한 내용입니다. 숲에서 아서를 만난 제임스는, 어머니가 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며 황무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 다시 숲으로 나오면, 말을 탄 남자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데려다줄 것이라고 속였지요.

불쌍한 아서는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아서는 헤이스라는 자가 조그만 조랑말을 끌고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서가 말에 올라타자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지요. 제임스의 말에 따르면—이 사실은 제임스도 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만—그들은 추격자에게 쫓겼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헤이스가 지팡이로 추격자를 내리쳤고, 그 남자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헤이스는 아서를 자신의 선술집인 '파이팅 콕'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서는 그곳 위층 방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곳에는 헤이스의 아내가 있는데, 참으로 친절한 여인이지만 야만적인 남편의 통제 아래 완전히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자, 홈즈 씨. 이틀 전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은 딱 이랬습니다. 저 역시 당신만큼이나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제임스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를 물으시겠지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제 후계자를 향해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적인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생각에는 본인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야 마땅했는데, 사회적 법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믿으며 깊이 분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속 제한 규정을 깨뜨리기를 간절히 바랐고, 제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와 거래를 하려 했습니다. 제가 상속 제한을 풀어 유언으로 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해준다면, 아서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제가 결코 자발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빌려 자신을 고발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실제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조차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을 무너뜨린 건, 하이데거라는 남자의 시신을 당신이 발견한 덕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소식을 듣고 공포에 휩싸였지요. 어제 우리가 이 서재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헉스태블 박사가 전보를 보낸 것이었죠. 제임스는 슬픔과 동요에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 없던 제 의심을 단숨에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범행을 추궁했고, 그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러고는 비참한 공범에게 죄 있는 제 목숨을 구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딱 사흘만 더 비밀을 지켜달라고 제게 애원하더군요. 저는 늘 그랬듯 그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임스는 즉시 '파이팅 콕'으로 달려가 헤이스에게 경고하고 도망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낮에 그곳에 가면 사람들의 눈총을 살까 봐 갈 수 없었지만, 밤이 되자마자 사랑하는 아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서는 무사히 잘 있었지만,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범행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의지와는 정반대로 저는 아서를 그곳에 사흘간 더 머물게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헤이스 부인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는 아서가 어디 있는지 경찰에 알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범인을 처벌하려면 불행한 제임스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솔직함을 요구했으니 저도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돌려

말하거나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제 당신도 저에게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우선 공작님, 법의 관점에서 볼 때 공작님께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작님은 중죄를 묵인하셨고 살인범의 도주를 도우셨습니다. 제임스 와일더가 공범의 도주 자금으로 챙긴 돈은 분명 공작님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공작은 고개를 숙여 동의를 표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하, 제 생각에는 차남을 대하시는 태도가 훨씬 더 큰 잘못입니다. 아드님을 이런 소굴에 사흘 동안이나 방치해 두시다니요."

"엄숙한 약속을 전제로——"

"그런 자들에게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또다시 어디론가 끌려가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큰아들의 비위를 맞추려다, 아무 죄 없는 작은아들을 눈앞의 불필요한 위험에 내몰았습니다. 이는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홀더니스의 오만한 영주는 자신의 공작 저택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높은 이마까지 붉은 피가 확 몰려 올라왔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돕긴 하겠소. 하지만 조건이 딱 하나 있소. 하인을 불러오게 한 뒤,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을 내리게 해준다는 조건 말이오."

공작은 아무 말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하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젊은 주인님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시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공작님께서는 마차를 즉시 파이팅 코크 여관으로 보내서 솔테어 경을 집으로 모셔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환호하던 하인이 물러가자 홈즈가 입을 열었다. "미래를 확보했으니,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워져도 되겠군요. 저는 공직에 있는 몸이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이유는 없지요. 헤이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는 교수형이 기다리고 있고, 저는 그를 구하기 위해 손을 쓸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가 무엇을 자백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공작님께서 그에게 침묵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찰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몸값을 노리고 소년을 납치한 셈입니다. 경찰이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제가 굳이 그들이 더 넓은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부추길 이유도 없겠지요. 하지만 공작님께 경고 하나는 드리고 싶군요. 제임스 와일더 씨가 계속해서 공작님의 저택에 머무는 것은 불행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 말은 이해했습니다, 홈즈 씨. 그가 저를 영영 떠나 호주로 가서 새 삶을 찾기로 한 건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공작 전하, 그렇다면 전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결혼 생활의 불행은 모두 그자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공작부인에게 전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해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끊어져 버린 두 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 일도 이미 처리해 두었습니다, 홈즈 씨. 오늘 아침에 공작부인께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북부로 짧은 여행을 다녀온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친구와 함께 자축해도 되겠군. 하지만 한 가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소한 점이 있네. 헤이스라는 자는 소의 발자국을 흉내 낸 편자를 말에 박았더군. 그런 기상천외한 수법을 와일더 씨에게 배운 건가?"

공작은 얼굴에 짙은 경악을 띤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문을 열어 우리를 박물관처럼 꾸며놓은 커다란 방으로 안내했다. 그는 방 구석에 있는 유리 진열장으로 우리를 이끌고는, 그곳에 새겨진 글귀를 가리켰다.

"이 편자는 홀더니스 홀의 해자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말에게 신기는 용도이지만, 밑바닥이 갈라진 철제 발굽 모양으로 되어 있어 추격자가 발자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세 시대 홀더니스의 약탈을 일삼던 남작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홈즈는 유리 진열장을 열더니 손가락에 침을 묻혀 편자를 따라 훑었다. 그러자 그의 손가락 끝에 갓 묻은 진흙이 얇게 묻어 나왔다.

“고맙네.” 그가 유리 덮개를 도로 덮으며 말했다. “북부에서 본 물건 중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이군.”

“그럼 첫 번째는요?”

홈즈는 수표를 접어 수첩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그러고는 수첩을 애정 어린 손길로 다독이며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난 참 가난한 사람이라니까." 그가 말했다.

블랙 피터

검은 피터의 모험

1895년만큼 내 친구의 정신과 육체가 모두 최상의 상태였던 적은 없었다.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뢰인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베이커가의 이 초라한 문턱을 넘나든 저 유명한 의뢰인들이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암시한다면, 나는 신의를 저버린 죄를 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지만 홈즈는 모든 위대한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오직 자신의 예술을 위해 살았다. 홀더니스 공작의 사례를 제외하면, 그가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공로에 대해 거액의 보수를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세속적인 일에는 무관심했고, 혹은 변덕스러웠다. 사건이 자신의 흥미를 끌지 않는다면 권력가나 부호들의 도움 요청도 거절하기 일쑤였다. 반면,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지를 시험할 만큼 기묘하고 극적인 요소를 갖춘 사건이라면, 비록 보잘것없는 의뢰인의 일이라 할지라도 몇 주 동안이나 온 정신을 쏟아붓곤 했다.

기억에 남을 1895년 한 해 동안, 홈즈는 기묘하고도 이질적인 사건들을 연이어 해결하며 관심을 쏟았다. 교황 성하의 특별한 요청으로 수행했던 토스카 추기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관한 유명한 조사부터, 런던 이스트 엔드의 악명 높은 골칫거리였던 카나리아 조련사 윌슨을 체포하여 그 지역의 오점을 씻어낸 사건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었다. 이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의 뒤를 이어, 우드먼즈 리에서 벌어진 비극과 피터 캐리 선장의 죽음을 둘러싼 매우 모호한 정황들이 뒤따랐다. 셜록 홈즈가 남긴 업적을 기록함에 있어, 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빠뜨린다면 그 기록은 결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7월 첫째 주 동안, 친구는 우리 숙소에 비우는 일이 잦고 그 기간도 길었다. 나는 그가 무언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 무렵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몇 차례나 찾아와 바질 대위를 찾았다는 사실을 보니, 홈즈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가명과 변장 중 하나를 택해 어딘가에서 조사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런던 곳곳에 최소 다섯 군데의 작은 은신처를 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억지로 속내를 캐묻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가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확실한 징후는 아주 기이한 모습이었다. 그는 아침 식사 전부터 외출해 있었는데, 내가 막 식사를 하려던 참에 그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는 모자를 쓴 채, 커다란 가시 돋친 창을 마치 우산처럼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맙소사, 홈즈!" 내가 외쳤다. "설마 그 물건을 들고 런던 시내를 돌아다녔다는 건 아니겠지?"

"정육점에 마차를 몰고 다녀왔을 뿐이라네."

"정육점 말인가요?"

"게다가 식욕도 아주 좋아졌네. 여보게, 왓슨.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하지만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자네는 절대 맞히지 못할 걸세. 장담하지."

"시도조차 하지 않겠네."

그는 커피를 따르며 껄껄 웃었다.

"만약 자네가 알라다이스의 뒷가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천장에 갈고리로 매달린 돼지 사체와 그 돼지를 이 무기로 미친 듯이 찌르고 있는 셔츠 차림의 신사 한 명을 보았을 걸세. 그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나였지. 덕분에 내가 아무리 힘을 쏟아부어도 단 한 번의 일격으로는 돼지를 꿰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네. 혹시 자네가 직접 한번 해보겠나?"

"절대 사양하겠네.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일을 한 건가?"

"우드먼즈 리의 미스터리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라네. 아, 홉킨스, 어젯밤에 자네가 보낸 전보를 받았네. 그래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지. 어서 이리 와서 합류하게나."

우리를 찾아온 손님은 서른 살 정도로 보이는, 매우 기민한 인상의 사내였다. 차분한 트위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제복을 입는 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꼿꼿한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스탠리 홉킨스라는 젊은 경위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홈즈는 그의 앞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홉킨스 역시 그 유명한 아마추어 탐정의 과학적 수사 방식에 대해 제자가 스승을 대하듯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홉킨스의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그는 깊은 낙담에 빠진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이미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보고를 하러 올라온 터라, 어젯밤은 시내에서 묵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보고하러 오셨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선생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진전도 없단 말인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내가 직접 이 사건을 살펴봐야겠군."

"제발 부탁입니다, 홈즈 씨.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이 걸린 첫 번째 기회인데, 도저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내려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허허, 마침 잘 되었군요. 검시 보고서를 포함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이미 꽤 주의 깊게 읽어 두었습니다. 그나저나,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그 담배 주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엔 아무런 단서도 없었나요?"

홉킨스는 놀란 기색이었다.

"그 남자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생님. 파우치 안쪽에는 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건 물개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물개 사냥꾼이었고요."

"하지만 그에게는 파이프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파이프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 담배를 조금 남겨두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네. 내가 이 사건을 맡았더라면 그 점을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았을 테니, 그냥 한 번 언급해 본 것뿐이라네. 하지만 내 친구 왓슨 박사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도 나쁠 건 없겠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짧게 요약해서 들려주게나."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죽은 피터 캐리 선장의 생애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1845년에 태어났으니 올해로 쉰 살입니다. 아주 대담하

고 성공적인 물개 및 고래잡이 선장이었죠. 1883년에는 던디에서 온 증기 물개잡이 배인 씨 유니콘 호의 선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여러 차례 연속으로 성공적인 항해를 마쳤고, 이듬해인 1884년에 은퇴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여행을 다니다가, 결국 서섹스주 포레스트 로 근처에 있는 우드먼즈 리라는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살았으며, 바로 일주일 전인 오늘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남자에겐 아주 기이한 구석이 몇 가지 있었다. 평소의 그는 엄격한 청교도처럼 말수가 적고 침울한 사람이었다. 집안 식구라고는 아내와 스무 살 된 딸, 그리고 두 명의 하녀뿐이었다. 하녀들은 끊임없이 바뀌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워낙 삭막한 데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곤 했기 때문이다. 그는 간헐적으로 술에 의지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일단 술에 취하면 그야말로 악마로 돌변했다. 한 번은 한밤중에 아내와 딸을 집 밖으로 내쫓고는 공원에서 매질을 한 적도 있었다. 그 비명 소리가 공원 문 밖 마을 전체를 깨울 정도였다."

"그는 예전에 한 노신부에게 야만적인 폭행을 가해 소환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의 행실을 꾸짖으러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지요. 요컨대, 홈즈 씨, 피터 캐리보다 더 위험한 인물을 찾으려면 한참 멀었을 겁니다. 듣기로는 그가 배를 지휘하던 시절에도 성격이 똑같았다고 하더군요. 업계에서는 그를 '블랙 피터'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검게 그을린 안색과 거대한 수염 색깔 때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의 괴팍한 성미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지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웃들은 그를 혐오하며 피했습니다. 그가 비참

한 최후를 맞이했을 때도, 그 죽음을 슬퍼하는 목소리는 단 한 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홈즈 씨, 검시 보고서를 읽으셨다면 그 남자의 오두막에 관한 내용을 보셨겠지요. 하지만 여기 계신 친구분은 아직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집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곳에 나무로 된 별채를 하나 지어 놓았는데, 항상 그것을 '오두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곳에서 잠을 잤지요. 가로 16피트, 세로 10피트 정도 되는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잠자리도 직접 만들고 청소도 스스로 했습니다. 그 누구의 발길도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지요. 양옆에는 작은 창문들이 있었는데, 늘 커튼을 쳐 두어서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중 창문 하나가 큰길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면 사람들은 서로 그곳을 가리키며 블랙 피터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홈즈 씨, 바로 그 창문이 검시 과정에서 밝혀진 몇 안 되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슬레이터라는 이름의 석공이 살인 사건 이틀 전인 새벽 1시쯤 포레스트 로에서 걸어오다가, 저택 부지를 지나며 나무 사이로 여전히 밝게 빛나던 창문을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블라인드에 옆으로 돌린 사람 머리 그림자가 선명하게 비쳤다고 맹세했습니다. 또한 그 그림자는 자신이 잘 아는 피터 캐리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의 그림자였지만, 그 수염은 짧고 빳빳하게 앞으로 뻗어 있어서 선장의 수염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슬레이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술집에서 두 시간이나 머물렀던 상태였고,

도로에서 창문까지는 거리도 꽤 됩니다. 게다가 그가 본 것은 월요일의 일이고, 범죄는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 화요일, 피터 캐리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맹수처럼 사나운 기색을 보이며 최악의 기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집 안을 배회했고, 그가 다가오는 소리만 들려도 집 안의 여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내려갔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창문을 열어두고 자던 그의 딸이 그쪽 방향에서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취하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일은 흔했기에, 아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넘겼다. 아침 7시에 일어난 하녀 중 한 명이 오두막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그 남자가 주는 공포가 워낙 컸던 탓에 정오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러 내려갈 엄두를 냈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을로 도망치듯 달려 나갔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현장에 도착했고, 사건을 넘겨받았다.

"홈즈 씨, 아시다시피 제가 꽤 담력이 센 편이긴 합니다만, 그 작은 오두막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을 때는 정말이지 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파리 떼와 등등에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하모니움 연주처럼 울려 퍼졌고, 바닥과 벽은 마치 도살장 같더군요. 그는 그곳을 선실이라 불렀는데, 정말이지 배 안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쪽 끝에는 침상이 있고, 해상 상자와 지도, 해도, 그리고 '씨 유니콘(Sea Unicorn)' 호의 그림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항해 일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요. 선장의 방에서 볼 법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길 잃은 영혼처럼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거칠고 얼룩진 수염은 괴로움에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철 작살 하나가 그의 넓은 가슴을 꿰뚫어 뒤쪽 벽의 나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카드 위에 핀을 박아 놓은 딱정벌레처럼 그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비명을 내지른 그 순간부터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선생님의 방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대로 따랐지요. 물건을 옮기기 전에 바깥쪽 지면과 방 안의 바닥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발자국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장담하건대, 홈즈 씨, 발자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보게, 홉킨스. 내가 수많은 범죄를 조사해 왔지만, 날아다니는 생물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범인이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한, 과학적인 수사관이라면 반드시 흔적을 찾아낼 수밖에 없지. 발자국이든, 긁힌 자국이든, 혹은 아주 미세하게 흐트러진 흔적이든 말일세. 피가 낭자한 이 방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하나도 없었다니 믿기지 않는군. 하지만 검시 보고를 들어보니, 자네가 놓치지 않고 찾아낸 물건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던데?"

젊은 경위는 내 동료의 냉소적인 말투에 움찔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홈즈 씨, 그때 바로 당신을 불렀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네, 방 안에는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물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범행에 사용된 작살이 하나 있었죠. 벽에 걸린 거치대에서 급히 낚아챈 듯했습니다. 거치대에는 두 개의 작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세 번째 작살이 있어야 할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작살의 개머리 부분에는 'SS. 시유니콘 호, 던디'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무기를 집어 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행 시각이 새벽 2시였음에도 피터 캐리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범인과 미리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탁자 위에 놓인 럼주 한 병과 지저분한 잔 두 개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두 가지 추론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 안에 럼주 말고 다른 술은 없었습니까?"

"네, 바다 상자 위에는 브랜디와 위스키가 담긴 디캔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디캔터가 가득 차 있었으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일단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자네 눈에 띄는 물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세."

"탁자 위에 담배 주머니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의 어느 부분 말입니까?"

그것은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거친 물개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였는데, 털이 곧게 선 가죽에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가죽 끈이 달려 있었다. 덮개 안쪽에는 'P.C.'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주머니 안에는 독한 선박용 담배가 반 온스 정도 들어 있었다.

"훌륭하군! 더 없나?"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갈색 표지의 수첩을 꺼냈다. 겉표지는 거칠고 닳아 있었으며, 속지는 빛이 바래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J.H.N.'이라는 이니셜과 '1883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홈즈는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특유의 세밀한 방식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홉킨스와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수첩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C.P.R.'이라는 활자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숫자가 적힌 종이들이 여러 장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상파울루' 같은 항목들이 차례로 나타났으며, 각 항목 아래에는 기호와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물었다.

"증권 거래소의 유가증권 목록인 것 같습니다. 저는 'J.H.N.'이 중개인의 이름 이니셜이고, 'C.P.R.'은 그 고객의 이니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디안 퍼시픽 철도 쪽을 알아보게." 홈즈가 말했다.

스탠리 홉킨스는 이를 악물고 욕설을 내뱉더니, 주먹을 쥔 손으로 제 허벅지를 내리쳤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군요!” 그가 외쳤다. “당연히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유일한 단서는 ‘J.H.N.’이라는 이니셜뿐이겠군요. 이미 옛 증권거래소 명부를 조사해 보았지만, 1883년 당시 거래소 내부 직원이나 외부 중개인 중 이 이니셜과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서가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홈즈 씨, 이 이니셜이 현장에 있었던 두 번째 인물, 즉 살인범의 것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시겠지요? 또한, 막대한 양의 가치 있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문서가 이번 사건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범행 동기를 짐작게 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자, 셜록 홈즈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히 드러났다.

"두 분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검시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 수첩을 보니, 제가 세웠던 가설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 수첩의 존재를 고려하면 제가 내린 범죄 이론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 적힌 유가증권들을 추적해 보려고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남미 기업들의 주주 명부 전체가 남미 현지에 있는 모양입니다. 주식의 행방을 추적하려면 몇 주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 걱정이군요.”

홈즈는 돋보기를 들고 수첩 표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분명히 여기에 변색된 흔적이 있군요." 그가 말했다.

"네, 손님. 혈흔이 맞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그 책을 집어 올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혈흔이 위쪽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있었습니까?"

"판자 옆쪽 말입니다."

"결국 범행을 저지른 뒤에 책을 떨어뜨렸다는 증거군요."

"정확합니다, 홈즈 씨. 저도 그 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범인이 급히 도망치느라 떨어뜨린 것이라고 짐작했지요. 그것은 문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이의 유품 중에는 이 유가증권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선생님."

"강도 사건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건드린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군요. 그럼 칼도 있었던 거죠?"

"칼집에 꽂힌 채로 발견된 단검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이의 발치에 놓여 있었죠. 캐리 부인은 그 칼이 남편의 물건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홈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군요."

스탠리 홉킨스가 기쁨에 겨워 환성을 내질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이지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홈즈는 경위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꾸짖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훨씬 수월한 일이었을 걸세."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방문이 아주 헛되지만은 않을 거야. 왓슨, 자네 시간이 괜찮다면 함께 가주었으면 좋겠네. 홉킨스, 사륜마차를 불러주게. 15분 뒤면 바로 포레스트 로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네."

우리는 작은 간이역에서 내려 몇 마일을 더 달렸다. 한때는 색슨족 침략자들을 오랫동안 막아냈던 거대한 숲의 일부였던, 이제는 드문드문 남은 숲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었다. 그 숲은 60년 동안 영국을 지켜온 난공불락의 요새, 즉 '월드(weald)'라 불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영국 최초의 제철소가 들어선 곳이라, 광석을 제련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면서 숲의 넓은 구역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북부의 더

비옥한 지역들이 그 산업을 흡수해 버렸고, 과거의 흔적이라고는 황폐해진 숲과 땅에 남은 거대한 상처들뿐이다.

언덕의 푸른 경사면 위, 숲이 트인 곳에 낮고 긴 석조 건물이 서 있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 굽이진 진입로가 그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도로와 더 가까운 곳에는 세 면이 덤불로 둘러싸인 작은 부속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 건물의 창문 하나와 문은 우리가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곳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었다.

스탠리 홉킨스는 우리를 먼저 그 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해당한 남자의 미망인을 만났다. 초췌하고 백발이 성성한 여인이었다. 움푹 팬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충혈된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은밀한 공포는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모진 고난과 학대를 견뎌왔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딸이 함께 있었다. 창백한 피부에 금발을 가진 소녀는 우리를 향해 반항적인 눈빛을 쏘아붙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죽어서 기쁘며, 아버지를 쓰러뜨린 그 손에 축복을 보낸다고 말이다. 블랙 피터 캐리가 일궈놓은 가정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다시 햇살 아래로 나와, 죽은 남자의 발길에 닳아 생긴 들판의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그 외딴 오두막은 아주 소박한 주거지였다. 나무 벽에 너와를 얹은 지붕을 얹었으며, 문 옆에 창문이 하나, 건너편에 창문이 하나 있었다.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맞추려 몸을 숙였다. 그러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얼굴에 주의와 놀라움이 서린 표정으로 동작을 멈추었다.

"누군가 손을 댔군요." 그가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나무틀은 잘려 있었고, 긁힌 자국 사이로 페인트 아래의 흰 속살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방금 막 생긴 상처처럼 말이다. 홈즈는 창문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곳도 누군가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군. 범인이 누구든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실패했어. 아주 형편없는 빈집털이범이었나 보군."

"이건 정말이지 기이한 일이군요." 경위가 말했다. "맹세컨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런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마을에서 온 기이한 사람일지도 모르겠군요." 내가 제안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들 중 감히 이곳 부지에 발을 들여놓을 자는 거의 없을 테고, 하물며 오두막 안으로 억지로 침입하려 들 자는 더더욱 없을 겁니다. 홈즈 씨,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이 우리에게 아주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군."

"그 사람이 다시 올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문이 열려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겠지요. 아주 작은 펜나이프 날을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군요. 그렇다면 그는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 밤에 좀 더 쓸모 있는 도구를 챙겨서 다시 오겠지요."

"그렇게 말해야겠군요. 우리가 그를 맞이하러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될 겁니다. 그동안 저는 선실 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극의 흔적은 모두 치워졌으나, 작은 방 안의 가구들은 범행이 일어난 그날 밤의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 홈즈는 두 시간 동안 극도로 집중하며 물건 하나하나를 차례로 조사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으로 보아 수색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듯했다. 인내심 있게 조사를 이어가던 그가 멈춰 선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홉킨스, 이 선반에서 뭘 가져간 적이 있나?"

"아니요,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치워졌군. 선반 이 구석에는 다른 곳보다 먼지가 적게 쌓여 있어. 옆으로 뉘어 놓았던 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자였을지도 모르지. 자, 자,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군. 왓슨, 이 아름다운 숲길을 좀 걷세나. 몇 시간 동안은 새와 꽃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자고. 홉킨스, 나중에 여기서 다시 만나세. 밤중에 이곳을 다녀간 그 신사라는 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지."

우리가 작은 매복 지점을 마련했을 때는 이미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홉킨스는 오두막 문을 열어두자고 했지만, 홈즈는 그러면 낯선 이의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물쇠는 아주 단순한 구조라 날카로운 칼날만 있으면 충분히 밀어낼 수 있었다. 홈즈는 오두막 안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창가 주변에 자란 덤불 속에 숨어서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침입자가 불을 켰을 때 그를 지켜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밀한 밤중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터였다.

길고도 우울한 밤샘 경계였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사냥꾼이 물가에 몸을 숨긴 채, 목을 축이러 다가올 굶주린 포식자를 기다릴 때 느끼는 특유의 전율이 섞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올 야수는 대체 어떤 잔혹한 존재일까? 번뜩이는 송곳니와 발톱을 휘두르며 처절하게 맞서 싸워야만 잡을 수 있는 흉포한 범죄의 호랑이일까, 아니면 그저 약하고 방심한 이들에게만 위험한, 비겁하게 숨어 다니는 자칼 같은 존재일까?

우리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덤불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다. 처음에는 뒤늦게 움직이는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나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덕분에 긴장된 기다림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소란도 하나둘씩 잦아들었고, 이내 완전한 정적이 우리를 감쌌다.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이 밤이 깊어감을 알려줄 뿐이었다. 그 외에는 우리 머리 위를 덮은 나뭇잎 사이로 가늘게 내리는 비가 바스락거리며 속삭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시계가 두 시 반을 알렸다. 동트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때 대문 쪽에서 낮지만 날카로운 클릭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누군가 진입로로 들어선 것이었다.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그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겁이 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오두막 반대편에서 은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금

속이 긁히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누군가 자물쇠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기술이 더 좋았는지, 아니면 도구가 더 뛰어났는지, 갑자기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성냥을 긋는 소리가 나더니, 다음 순간 촛불의 일정한 불빛이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망사 커튼 너머로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은 검은 콧수염을 기른, 가냘프고 마른 체격의 젊은이였다. 그 수염 때문에 얼굴의 창백함은 더욱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나이는 스무 살을 겨우 넘겼을 것 같았다. 나는 살면서 그토록 가련할 정도로 겁에 질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눈에 보일 정도로 이가 딱딱 맞부딪히고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옷차림은 노퍽 재킷에 니커보커스 바지를 입은 신사 차림이었으며, 머리에는 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타다 남은 양초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그는 선반에 줄지어 꽂혀 있는 항해 일지 중 한 권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탁자에 몸을 기댄 채, 찾고 있는 기록이 나올 때까지 책장을 빠르게 넘겼다. 마침내 원하는 항목을 찾아낸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화가 난 듯한 몸짓으로 책을 덮었다. 그러고는 책을 다시 구석에 갖다 놓은 뒤 불을 껐다. 그가 오두막을 나가려던 찰나, 홉킨스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붙잡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청년이 공포에 질려 숨을 헉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양초에 불을 붙이자, 형사에게 붙들린 채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는 불쌍한 포로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바다 상자 위에 주저앉아, 속수무책이라는 듯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자, 이 친구야." 스탠리 홉킨스가 말했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지?"

그 남자는 마음을 가다듬더니,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우리를 마주보았다.

"탐정들이시겠군요?" 그가 말했다. "제가 피터 캐리 선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지요." 홉킨스가 말했다. "우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존 호플리 넬리건입니다."

홈즈와 홉킨스가 서로 짧게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나는 보았다.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말해야 하죠?"

"만약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젊은이는 움찔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좋습니다, 말씀드리죠." 그가 말했다.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오래된 스캔들이 다시금 세상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정말이지 질색입니다. 혹시 도슨과 넬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홉킨스의 표정을 보니 그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듯했으나, 홈즈는 무척이나 흥미롭다는 눈치였다.

"웨스트 컨트리 은행가들을 말씀하시는군요." 그가 말했다. "그 은행들이 백만 파운드 규모의 부도를 내면서 콘월 지역 명문가 절반을 파산시켰고, 그 와중에 넬리건은 자취를 감췄지요."

"정확합니다. 넬리건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마침내 확실한 단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망친 은행가와, 자신의 작살에 찔려 벽에 박힌 피터 캐리 선장 사이에는 여전히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는 듯했다. 우리 모두는 그 젊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은 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도슨은 이미 은퇴한 상태였죠. 당시 제 나이는 겨우 열 살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이 주는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아버

지가 유가증권을 전부 훔쳐 달아났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유가증권을 현금화할 시간만 주어진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채권자들에게도 전액을 상환할 수 있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아버지는 작은 요트를 타고 노르웨이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건네던 그 마지막 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가져가시는 유가증권 목록을 남겨 주셨고, 명예를 회복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 중 누구도 피해를 입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버지로부터는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트와 아버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와 요트, 그리고 가져가신 유가증권들이 모두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사업가인 충직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가져갔던 유가증권 중 일부가 런던 시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놀랐을지는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저는 그 증권들의 행방을 쫓는 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의구심과 난관을 겪은 끝에, 마침내 처음 판매한 사람이 바로 이 오두막의 주인인 피터 캐리 대령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포경선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배는 마침 저희 아버지가 노르웨이로 건너가던 바로 그 시기에 북극해에서 돌아올 예정이었더군요. 그해 가을은 폭풍우가 심했고, 남풍을 동반한 강풍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타시던 요트가 북쪽으로 떠밀려 갔다가, 마침 그곳에서

피터 캐리 선장의 배와 마주쳤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걸까요? 어찌 됐든, 피터 캐리의 증언을 통해 이 유가증권들이 어떤 경위로 시장에 나오게 되었는지 증명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이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이 증권을 취득할 당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장을 뵙고자 서섹스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분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요. 검시 보고서에서 선실에 대한 설명을 읽었는데, 그곳에 선박의 오래된 항해 일지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1883년 8월 한 달 동안 '씨 유니콘'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운명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어젯밤에 그 항해 일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시 시도해 문을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달의 기록이 담긴 페이지들이 통째로 뜯겨 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당신의 손에 붙잡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 호프킨스가 물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가 대답하며 눈동자를 굴렸다.

"더 말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그는 주춤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젯밤 전에는 이곳에 온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홉킨스 경위가 소리쳤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첩을 들어 올렸다. 수첩의 첫 장에는 우리 용의자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고, 표지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불쌍한 남자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온몸을 떨었다.

"그걸 어디서 구했나?" 그가 신음하듯 물었다. "난 전혀 몰랐네. 호텔에 두고 온 줄로만 알았단 말일세."

"그만하면 됐습니다." 홉킨스가 엄하게 말을 잘랐다.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자, 홈즈 씨, 저를 도와주러 와주신 홈즈 씨와 친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당신이 굳이 오실 필요는 없었군요. 당신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브램블티 호텔에 방을 예약해 두었으니, 다 함께 마을로 걸어 내려가시지요."

"자,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다음 날 아침, 돌아가는 길에 홈즈가 내게 물었다.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이군요."

"아, 그래요, 왓슨. 나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탠리 홉킨스의 수사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수사관이라면 언제나 발생 가능한 대안을 염두에 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 수사의 제1원칙이니까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추적해 온 수사 방향이 있네. 아무런 소득이 없을지도 모르지. 확신할 수는 없네만, 적어도 끝까지 가보긴 할 생각이라네."

베이커가에는 홈즈가 읽어야 할 편지 몇 통이 놓여 있었다. 홈즈는 그중 하나를 낚아채듯 집어 들고는 봉투를 뜯었다. 그러더니 이내 승리감에 도취한 듯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해, 왓슨! 다른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어. 혹시 전보 양식 가지고 있나? 나 대신 메시지 두 개만 작성해 주게. '랫클리프 하이웨이의 해운 대리인 섬너에게. 내일 아침 10시에 도착하도록 사람 세 명을 보내줄 것. —베이질.' 그쪽 동네에서는 내 이름을 그렇게 쓰네. 다른 하나는 이거야. '브릭스턴 로드 스트리트 46번지의 스탠리 홉킨스 경위에게.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러 오게. 중요한 건일세. 만약 못 오게 된다면 전보를 보내주게. —셜록 홈즈.' 자, 왓슨. 이 지긋지긋한 사건이 열흘 동안이나 나를 괴롭혔군. 이제 이 사건을 내 머

릿속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네. 내일이면 이 사건의 마지막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믿네. 영원히 말이야."

약속한 시간이 되자 스탠리 홉킨스 경위가 정확히 나타났다. 우리는 허드슨 부인이 정성껏 준비한 훌륭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젊은 경위는 최근의 성과 덕분에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자네의 추론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하나?" 홈즈가 물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사건은 상상조차 할 수 없군."

"그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홈즈 씨. 이보다 더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설명에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 젊은 넬리건은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브램블티 호텔에 도착했더군요. 골프를 치러 왔다는 핑계를 댔지만 말입니다. 그의 객실은 1층이라 원할 때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밤 우드먼스 리로 내려가 오두막에 있던 피터 캐리를 만났고, 그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작살로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다음 자신이 저지른 일에 경악한 넬리건은 오두막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터 캐리에게 여러 유가증권에 대해 캐

묻기 위해 가져왔던 수첩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아마 수첩을 보시면 어떤 항목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대다수에는 표시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체크 표시가 된 증권들은 이미 런던 시장에서 추적이 완료되었지만, 나머지 증권들은 여전히 캐리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넬리건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 그 증권들을 되찾으려 무척 애를 썼다고 하더군요.

도주한 뒤 한동안은 겁이 나서 오두막 근처에도 가지 못했지만, 결국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다시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홉킨스 경위, 내가 보기엔 이 가설에는 단 한 가지 결함이 있네. 바로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지. 자네, 시신에 작살을 박아 넣어 본 적이 있나? 없다고? 이런, 이런, 경위. 이런 세세한 부분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네. 내 친구 왓슨 박사라면 내가 그 작업을 하느라 오전 내내 시간을 다 보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을 걸세.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아주 강하고 숙련된 팔 힘이 필요하다네. 하지만 이번 타격은 워낙 격렬해서 무기 끝이 벽 깊숙이 박힐 정도였어. 자네는 이 빈혈 기운이 있는 청년이 그런 무시무시한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이자가 한밤중에 블랙 피터와 럼주에 물을 탄 술을 나눠 마시며 어울리던 인물인가? 이틀 전 밤 창문 블라인드에 비친 옆모습이 이

자의 것이었단 말인가? 아니야, 아니야, 홉킨스 경위.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따로 있네. 훨씬 더 위협적인 인물 말일세."

홈즈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형사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희망과 야망이 눈앞에서 모조리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 했다.

"넬리건이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홈즈 씨. 책을 확인해 보면 증명될 테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허점을 찾아내려 애써도, 배심원단을 설득하기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부합니다. 게다가 홈즈 씨, 나는 내 사람을 직접 잡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던 그 끔찍한 인물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계단에 있는 것 같군."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왓슨, 리볼버를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게 좋겠어."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 탁자 위에 쪽지를 내려놓았다. "이제 준비는 끝났네." 그가 말했다.

밖에서 거친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허드슨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질 대령을 찾는 남자가 세 명 있다고 전했다.

"한 명씩 차례대로 들여보내게." 홈즈가 말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발그레한 뺨에 솜털 같은 흰 구레나룻을 기른, 마치 작은 리브스턴 피핀 사과처럼 작고 단단한 체구의 사내였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가 물었다.

"제임스 랜카스터입니다."

"미안하네, 랭카스터. 하지만 빈 침대가 없군. 수고비로 여기 반 소버린을 주겠네. 일단 이 방으로 들어와서 몇 분만 기다려 주게."

두 번째 남자는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뺨이 누르스름한, 마르고 메마른 체구의 사내였다. 그의 이름은 휴 패틴스였다. 그 역시 해고 통보와 함께 반 소버린 동전을 받았으며,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 번째 지원자는 인상이 아주 독특한 사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 사이로 사나운 불독 같은 얼굴이 드러났다. 짙고 숱이 많은 눈썹이 눈가를 덮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형형하게 빛나는 검은 눈동자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모자를 손에 쥐고 돌리며, 마치 수병처럼 절도 있게 경례를 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패트릭 케언스입니다."

"작살잡이요?"

"예, 그렇습니다. 스물여섯 번 항해했습니다."

"던디에서 오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탐사선을 띄울 준비까지 마쳤단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급료가 얼마라는 말입니까?"

"한 달에 8파운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비만 챙기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서류는 챙겨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낡고 기름때가 묻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홈즈는 서류를 훑어본 뒤 다시 돌려주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보조 탁자 위에 계약서를 두었습니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선원은 방을 가로질러 비틀거리며 다가가더니 펜을 집어 들었다.

"여기에 서명하면 될까요?" 그가 테이블 쪽으로 몸을 굽히며 물었다.

홈즈가 그의 어깨 너머로 몸을 숙이더니, 양손을 그의 목 위로 가져갔다.

"이 정도면 됐어." 그가 말했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와 함께 분노한 황소 같은 포효가 들려왔다. 그다음 순간, 홈즈와 그 선원은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그 선원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내였다. 홈즈가 손목에 수갑을 능숙하게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홉킨스 경위와 내가 달려들어 돕지 않았더라면 그는 순식간에 내 친구를 제압했을 것이다. 내가 차가운 권총 총구를 그의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나서야, 그는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밧줄로 그의 발목을 묶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미안하게 됐네, 홉킨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스크램블 에그가 식어버린 것 같군. 하지만 자네가 맡은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생각에, 남은 아침 식사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걸세. 안 그런가?"

스탠리 홉킨스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홈즈 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마침내 말을 내뱉었다.

"처음부터 제가 바보짓을 해온 것 같군요. 제가 제자이고 당신이 스승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됐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이거 참." 홈즈가 기분 좋다는 듯 말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법이지요. 이번에 당신이 얻은 교훈은 다른 가능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젊은 넬리건에게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피터 캐리의 진짜 살인범인 패트릭 케언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선원의 쉰 목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가로막고 끼어들었다.

"이보시오, 선생." 그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거칠게 다뤄지는 것에 불평할 생각은 없소. 하지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부르길 바라오. 당신은 내가 피터 캐리를 살해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를 죽였다고 말하겠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단 말이오. 어쩌면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 내가 그저 지어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말이오."

"전혀 아닙니다." 홈즈가 말했다. "자, 하려던 말씀을 계속해 보시지요."

"금방 끝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맹세코 그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난 블랙 피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자가 칼을 꺼내 들었을 때, 난 작살을 휘둘러 단숨에 찔러버렸습니다. 내가 죽거나 그자가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그자는 죽었습니다. 살인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난 블랙 피터의 칼에 심장이 뚫려 죽느니, 차라리 목에 교수형 밧줄이 걸려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간 건가?" 홈즈가 물었다.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죠. 우선 편히 말할 수 있게 몸 좀 일으켜 주십시오. 사건은 83년, 그해 8월에 일어났습니다. 피터 캐리가 '씨 유니콘호'의 선장이었고, 저는 보조 작살잡이였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

가던 중이었는데, 맞바람과 일주일째 이어지는 남풍의 강풍을 뚫고 빙벽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북쪽으로 떠밀려 온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했죠. 배에는 육지 사람인 듯한 사내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가 침몰할 거라 생각하고 구명보트를 타고 노르웨이 해안으로 향했었나 봅니다. 아마 모두 익사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사내를 배에 태웠고, 그는 선장과 선실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짐이라고는 양철 상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사내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이틀째 되는 밤에 그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거친 날씨 때문에 그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거나 배 밖으로 떨어졌다고 발표되었죠. 하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셰틀랜드 등대를 보기 이틀 전, 칠흑 같은 밤의 중간 당직 시간에 선장이 발꿈치를 들고 그를 난간 너머로 밀어버리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가슴에 묻어둔 채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습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뒤 사건은 쉽게 은폐되었고,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가 사고로 죽은 것이니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얼마 후 피터 캐리는 바다를 떠났고,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가 양철 상자 안에 든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짐작했고, 이제는 제 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돈을 지불할 여력이 생겼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 그를 만난 선원을 통해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고, 돈을 뜯어내려 그를 찾아갔습니다. 첫날 밤 그는 꽤 이성적이었고, 제가 평생 바다 일을 그만두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술에 취

해 아주 괴팍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술을 마시며 옛날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작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일을 끝내기 전에 그 작살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마침내 그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눈에는 살기를 띠고 침을 튀기며 욕설을 퍼부었는데, 손에는 커다란 잭나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살로 그를 꿰뚫어 버린 것은 그가 칼을 칼집에서 뽑기도 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가 내지른 비명은 정말이지!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방으로 피가 튀는 가운데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선반 위에 그 양철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피터 캐리만큼이나 그 상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상자를 챙겨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담배 주머니를 탁자 위에 두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이한 부분을 말씀드리죠. 오두막 밖으로 나오자마자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얼른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더니 한 남자가 살금살금 다가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더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력 질주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저로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10마일을 걸어 턴브리지 웰스에서 기차를 탔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글쎄요, 상자를 조사해 보니 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감히 팔 엄두조차 나지 않는 서류들뿐이었죠. 블랙 피터에 대한 영향력을 잃은 저는 단 한 실링도 없이 런던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제게 남은 건 제 기술뿐이었죠. 그러다 작살잡이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임금이 높다는 말에 해운 대리점을 찾아갔고, 그들이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제가 아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가 블랙 피터를 죽인 것이라면 법은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해야 할 겁니다. 삼베 밧줄 값은 아껴줬으니까요."

"아주 명확한 진술이군요."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홉킨스 경위님, 지체하지 말고 죄수를 안전한 곳으로 압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은 유치장으로 쓰기엔 적당하지 않군요. 게다가 패트릭 케언스 씨가 우리 집 카펫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즈 씨," 홉킨스가 말했다.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처음부터 올바른 단서를 얻는 행운을 누렸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이 수첩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당신처럼 생각의 방향이 빗나갔을 가능성도 충분했겠지요. 하지만 제가 들은 모든 정보는 단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이로운 힘, 작살을 다루는 숙련된 솜씨, 럼과 물, 그리고 거친 담배가 담긴 물개 가죽 담배 주머니까지. 이 모든 것이

범인이 선원이며, 그중에서도 포경선 승무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새겨진 'P.C.'라는 이니셜은 우연일 뿐, 피터 캐리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는 데다, 그의 선실에서는 파이프조차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선실에 위스키와 브랜디가 있는지 물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있다고 대답했지요. 위스키나 브랜디를 마실 수 있는데 굳이 럼을 마실 육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인이 선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선생님, 문제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만약 범인이 선원이라면, 그와 함께 '씨 유니콘호'에 탔던 선원 중 한 명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가 다른 배를 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던디로 전보를 보내며 조사했고, 마침내 1883년 당시 '씨 유니콘호'에 탔던 선원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작살잡이 명단에서 패트릭 케언스를 찾아냈을 때, 제 조사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자가 아마 런던에 있을 것이며, 당분간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스트 엔드 지역을 뒤졌습니다. 북극 탐험 계획을 세우고, 바질 선장의 지휘 아래 일할 작살잡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었죠. 그리고 보십시오,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놀랍군요!" 호프킨스가 외쳤다. "정말 놀랍습니다!"

"젊은 넬리건을 가능한 한 빨리 석방시켜야 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이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철 상자는 그에게 돌려주어야겠지만, 피터 캐리가 팔아치운 유가증권은 당연히 영영 되찾을 수 없겠지요. 홉킨스 씨, 저기 마차가 왔으니 이제 부하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만약 재판에 제가 필요하다면, 저와 왓슨 박사의 주소는 노르웨이 어딘가가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지요."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의 모험

내가 말하려는 사건이 일어난 지는 이미 수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오랫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말을 아낀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인간의 법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으니, 적절히 내용을 절제하며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셜록 홈즈와 나, 우리 두 사람의 경력에 있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험을 담고 있다. 독자들께서 실제 사건의 발생 시기나 그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내가 숨기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홈즈와 나는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춥고 서리가 내린 어느 겨울 저녁 6시쯤 되어 돌아왔다. 홈즈가 등불을 켜자,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 한 장이 빛 아래 드러났다. 그는 카드를 힐끗 보더니, 혐오스럽다는 듯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내팽개쳤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집어 들어 읽어 내려갔다.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햄프스테드 애플도어 타워즈. _대리인_.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물었다.

"런던에서 가장 악랄한 자지."

홈즈가 벽난로 앞에 앉아 다리를 쭉 뻗으며 대답했다.

"카드 뒷면에 뭐 적힌 건 없나?"

나는 그것을 뒤집어 보았다.

"6시 30분에 방문하겠음—C.A.M." 나는 카드를 읽었다.

"흠! 올 때가 되었군. 왓슨, 자네는 동물원의 뱀 앞에 섰을 때 몸이 움츠러들며 소름이 끼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 그 미끄럽고 매끄럽게 움직이는 독사들 말이야. 치명적인 눈빛과 사악하게 납작한 얼굴을 한 그놈들 말이지. 밀버턴을 대할 때면 딱 그런 기분이 드네. 내 경력 동안 쉰 명 정도의 살인범을 상대해 봤지만, 그중 최악이었던 자들도 이 친구만큼 혐오감을 주지는 않았어. 그런데도 나는 이 자와 일을 끊지 못하고 있군. 아니, 사실은 내가 직접 이 자를 이곳으로 불렀네."

"하지만 그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말해주겠네, 왓슨. 그는 모든 협박꾼 중의 왕이라네. 밀버턴의 손에 비밀과 명성이 넘어간 남자, 아니 그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하늘의 도움을 빌어야 할 정도지! 그는 웃는 얼굴을 하고 대리석 같은 심장을 품은 채, 상대의 진을 다 빼놓을 때까지 끝없이 쥐어짤 걸세. 그자는 그 나름대로 천재적인 재주가 있는데, 조금 더 건전한 직업을 가졌더라면 이름을 떨쳤을지도 모르지.

그의 수법은 이렇다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들의 약점이 담긴 편지를 아주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퍼뜨리지. 그는 배신을 일삼는 하인이나 하녀들에게서만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네. 신뢰를 받는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믿음을 얻어낸, 겉만 번지르르한 악당들에게서도 자주 물건을 넘겨받곤 하지.

그는 돈을 아끼는 법이 없다네. 내가 알기로는, 고작 두 줄짜리 쪽지 한 장을 얻으려고 하인에게 700파운드나 지불한 적도 있었지. 그 결과 한 귀족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어. 시장에 나온 모든 약점은 밀버턴에게 흘러 들어가고, 이 거대한 도시에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된다네.

그의 손길이 어디로 뻗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네. 그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부유하고 교활하니까. 그는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몇 년 동안이나 카드를 아껴두고 기다릴 인물이라네.

내가 그를 런던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말했지? 자네에게 묻고 싶군. 홧김에 배우자를 때려눕히는 무뢰한과, 이미 가득 찬 돈주머니를 더 불

리려고 여유를 부리며 체계적으로 타인의 영혼을 고문하고 신경을 갉아먹는 이 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나?"

내 친구가 이토록 격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며 말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말했다. "그놈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 그렇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이 그를 몇 달 동안 감옥에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대가로 여인 자신의 삶이 즉시 파멸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의 희생자들은 감히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만약 그가 결백한 사람을 협박하기라도 한다면 정말로 그를 잡아넣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는 악마만큼이나 교활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와 맞서 싸우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왜 온 겁니까?"

"아주 유명한 의뢰인이 자신의 비참한 사정을 내게 맡겼기 때문이라네. 지난 시즌 가장 아름다운 데뷔탕트였던 에바 블랙웰 레이디라네. 그녀는 2주 뒤에 도버코트 백작과 결혼할 예정이지.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자가 부주의하게 쓴 편지 몇 통을 가지고 있더군. 부주의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편지들이라네, 왓슨. 시골에 사는 가난한 젊은 지주에게 보낸 편지들이지. 하지만 그 편지들만으로도 혼담을 깨뜨리기엔 충분하네. 밀버턴은 거액의 돈을 내놓지 않으면 그 편지들을

백작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라는 의뢰를 받은 것이라네."

그 순간, 아래쪽 거리에서 요란한 마차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품격 있는 마차 한 대와 두 마리의 말이 보였다. 윤기 흐르는 밤색 말들의 엉덩이 위로 마차의 밝은 등불이 번쩍였다. 하인이 문을 열자, 털이 복슬복슬한 아스트라칸 코트를 입은 작고 통통한 체구의 남자가 내렸다. 그리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은 쉰 살의 사내였다. 그는 지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커다란 머리에, 털 한 올 없이 매끄럽고 통통한 둥근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얼굴에는 늘 굳어 있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넓은 금테 안경 너머로는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가 번뜩였다. 겉모습만 보면 픽윅 씨처럼 인자해 보이기도 했으나, 가식적인 미소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 예리하고 형형한 눈빛이 그 인상을 망치고 있었다. 그는 통통하고 작은 손을 내밀며, 첫 방문 때 우리를 만나지 못해 유감이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그 얼굴만큼이나 부드럽고 매끄러웠다. 홈즈는 내밀어진 손을 무시한 채, 화강암처럼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밀버턴은 미소를 더 짙게 띠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아주 신중하게 걸쳐두고는 자리에 앉았다.

"이 신사분 말인가요?" 그가 나를 향해 손짓하며 물었다.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신중한 처사인가요?"

"왓슨 박사는 나의 친구이자 동료라네."

"좋습니다, 홈즈 씨. 제가 반대한 건 오로지 의뢰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입니다——"

"왓슨 박사는 이미 그 소식을 들었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에바 레이디를 대신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녀가 제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권한을 주었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7,000파운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요?"

"친애하는 선생님,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 참으로 괴롭습니다만, 만약 14일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신다면 18일에 예정된 결혼식은 결코 치를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여느 때보다도 자만심이 가득한,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결국 당신은 모든 일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론 이 편지들에 담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분명 제가 조언하는 대로 행동할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 결혼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그의 너그러운 마음을 믿어보라고 조언할 생각입니다."

밀버턴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당신은 분명 백작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요." 그가 말했다.

홈즈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니, 그가 사실은 백작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 편지들이 무슨 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가 물었다.

"아주 활기차더군요. 아주 생기 넘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밀버턴이 대답했다. "그 숙녀분은 참으로 매력적인 필자였죠. 하지만 도버코트 백작은 그 편지들의 진가를 결코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뭐, 당신 생각은 다르니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죠. 이건 순전히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만약 이 편지들을 백작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편지를 되찾기 위해 그토록 거액을 지불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 될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스트라칸 코트를 움켜쥐었다.

홈즈는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여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잠시만 기다리게." 그가 말했다. "자네는 너무 성급하군. 이토록 민감한 사안일수록 스캔들이 터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조심해야 하네."

밀버턴은 다시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당신이라면 분명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동시에," 홈즈가 말을 이었다. "에바 영애는 부유한 여성이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2,000파운드만 해도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당신이 말한 금액은 그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니 부디 요구 사항을 낮추어 주십시오. 대신 제가 제시하는 가격에 편지들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건대, 그 금액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가격일 것입니다."

밀버턴의 미소가 짙어지더니, 그의 눈에 장난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그 부인이 가진 재산에 관한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인이 결혼할 때라면, 친구나 친척들이 그녀를 위해 작은 성의라도 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떤 결혼 선물이 적당할지 몰라 망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편지 꾸러미가 런던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한 촛대나 버터 그릇보다 그녀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군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홈즈가 말했다.

"이런,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밀버턴이 두툼한 수첩을 꺼내며 외쳤다.

"여성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이것 좀 보십시오!"

그는 봉투에 문장(紋章)이 찍힌 작은 쪽지 하나를 들어 보였다.

"이건 누구의 것이냐고요? 글쎄요, 이름을 밝히는 건 내일 아침까지 미루는 게 예의겠지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이 쪽지는 그 부인의 남편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게 그 여인이 다이아몬드를 가짜로 바꾸기만 해도 마련할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액수를 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정말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도킹 대령과 마일스 양의 약혼이 갑작스럽게 파기되었던 사건 말입니다. 결혼식을 단 이틀 앞두고 《모닝 포스트》지에 파혼 소식이 실렸었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고작 1,200파운드라는 터무니없는 금액만 있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겁니다. 참으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을 보니, 의뢰인의 미래와 명예가 걸린 상황에서 고작 조건 따위를 따지며 망설이고 있군요. 홈즈 씨,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제 말은 사실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돈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을 이 여자의 경력을 망치는 것보다, 제가 제안하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받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홈즈 씨, 거기서 착각하셨군요. 한 사람을 폭로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저에게 상당한 이득이 됩니다. 현재 비슷한 사건이 여덟 건에서 열 건 정도 무르익고 있거든요. 제가 에바 영애를 호되게 본보기로 삼았다는 소문이 그들 사이에 퍼진다면, 그들 모두가 훨씬 더 순순히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왓슨, 그놈 뒤를 막으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수첩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봅시다."

밀버턴은 쥐새끼처럼 재빠르게 방 구석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홈즈 씨, 홈즈 씨!"

그는 코트 앞자락을 젖히며 안주머니에 꽂힌 커다란 리볼버의 손잡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이 뭔가 색다른 수를 쓰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미 너무 많이 써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법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됐단 말입니까? 장담컨대 나는 무장을 철저히 마쳤고, 법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을 알기에 무기를 사용할 준비도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편지들을 수첩에 담아 이곳으로 가져올 거라 생각했다면, 당신은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니까요. 자, 신사 여러분, 오늘 저녁엔 만나야 할 사람이 한두 명 더 있고, 햄스테드까지는 마차를 오래 달려야 해서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와 코트를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리볼버 위에 손을 얹은 채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의자를 집어 들었으나, 홈즈가 고개를 가로젓는 바람에 다시 내려놓았다. 밀버턴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고, 눈을 반짝이며 방을 나갔다. 잠시 후, 그가 마

차를 몰고 떠나자 마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는 벽난로 옆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바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고, 턱은 가슴 쪽으로 떨구었으며, 시선은 타오르는 불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30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정지한 듯 앉아 있었다. 그러다 결심을 굳힌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염소수염을 기르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지닌 한 젊은 노동자가 나타났다. 그는 램프 불빛에 흙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거리로 내려갔다.

"조만간 돌아오겠네, 왓슨."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가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을 상대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작전이 앞으로 얼마나 기이한 형태로 전개될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며칠 동안 홈즈는 이런 차림으로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다. 그가 햄프스테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 외에는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창문을 거칠게 흔들며 울부짖는 격정적인 저녁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홈즈는 변장을 벗어 던졌다. 그러

고는 벽난로 앞에 앉아, 특유의 침묵 속에서 혼자 즐거워하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결혼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 왓슨?"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주 흥미로워할 거야."

"이보게, 친구! 정말 축하하—!"

"밀버턴의 집 하녀에게."

"세상에, 홈즈!"

"정보가 필요했을 뿐이라네, 왓슨."

"설마 너무 지나치신 건 아니겠지요?"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스콧이고,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있는 배관공이죠. 매일 저녁 그녀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그 대화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덕분에 원하는 건 다 얻었습니다. 이제 밀버턴의 저택은 제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녀는 어쩌고요, 홈즈?"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어쩔 수 없네, 왓슨. 판돈이 이렇게 크게 걸렸을 때는 자신이 가진 카드를 최선으로 내놓아야 하는 법이라네. 하지만 다행히도 나를 아주 몹시 싫어하는 라이벌이 하나 있지.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그자가 분명히 내 목을 가로챌 걸세. 참으로 멋진 밤이 아닌가!"

"이런 날씨를 좋아하나?"

"내 목적에 딱 맞는군. 왓슨, 오늘 밤 밀버턴의 저택에 침입할 생각이야."

그 말은 한 글자씩, 결연한 의지가 담긴 어조로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고,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이 거친 풍경의 세세한 모습까지 순식간에 드러내듯, 나 역시 그 행동이 불러올 모든 결과를 단번에 꿰뚫어 본 듯했다. 발각과 체포, 그리고 명예로운 경력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치욕으로 끝나는 모습, 그리고 내 친구가 그 가증스러운 밀버턴의 손아귀에 놓여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까지 말이다.

"제발 부탁이야, 홈즈! 지금 자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게!" 내가 외쳤다.

"여보게, 나도 충분히 고민했네. 나는 결코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며,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격렬하고 위험한 방식을 택하지도 않았을 거야. 자, 우리 이 문제를 냉정하고 공정하게 따져보세. 비록 법적으로는 범죄일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정당한 행동이라는 점에는 자네도 동의할 거라고 믿네. 그의 집에 침입하는 건 그저 그

의 지갑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자네도 나를 돕겠다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 일 말일세."

나는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입니다."

"정확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라면, 제가 고려해야 할 것은 오직 개인적인 위험뿐입니다. 여인이 그토록 절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신사로서 그런 위험을 두고 주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은 아주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겁니다."

"글쎄, 그것도 위험부담의 일부라네. 이 편지들을 되찾을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불행한 그 여인은 돈도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척도 없지 않은가. 내일이면 유예 기간이 끝나네. 오늘 밤 편지를 손에 넣지 못한다면, 저 악당은 분명 호언장담한 대로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을 거야. 그러니 의뢰인을 운명에 맡겨두거나, 아니면 이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수밖에 없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왓슨, 이건 밀버턴이라는 자와 나 사이의 정정당당한 결투나 다름없네. 자네도 봤겠지만, 첫 번째 공방에서는 그자가 유리했지. 하지만 내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문제이니,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라네."

"글쎄요,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겠군요." 내가 말했다. "언제 시작하면 됩니까?"

"당신은 오지 않겠군요."

"그럼 안 가시겠다는 거군요." 내가 말했다. "맹세코 약속하죠. 내 평생 약속을 어긴 적은 없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 모험에 동참시켜 주지 않는다면, 곧장 마차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가 당신을 고발하고 말 겁니다."

"당신은 저를 도울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어쨌든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당신 말고도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지켜야 할 명성도 있는 법이니까요."

홈즈는 짜증이 난 듯 보였으나, 이내 미간의 주름을 펴더니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허허, 이보게 친구,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수년 동안 이 방을 함께 써왔으니, 결국 마지막에 감옥 독방까지 같이 쓰게 된다면 그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니겠나. 왓슨, 솔직히 고백하자면 난 내가 아주 유능한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야. 이것 좀 보게!"

홈즈는 서랍에서 깔끔하고 작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더니, 그것을 열어 반짝이는 도구들을 보여주었다.

"이건 최신식 최고급 절도 도구 세트라네. 니켈 도금을 한 지렛대와 다이아몬드가 달린 유리 절단기,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는 열쇠들, 그리

고 문명의 발전에 발맞춘 최신식 개선품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지. 여기 내 암흑 랜턴도 있군. 모든 준비는 끝났어. 자네는 소리 나지 않는 신발을 준비했나?"

"고무 밑창이 달린 테니스화를 신고 있습니다."

"훌륭하군! 가면도 준비되어 있나?"

"검은색 실크로 두 개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일에 타고난 재능이 있군. 아주 좋아. 가면은 자네가 직접 만들게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저녁이라도 먹어 두지. 지금은 9시 30분이야. 11시에 처치 로우까지 마차를 타고 갈 거네. 거기서 애플도어 타워즈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지. 자정 전에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밀버턴은 잠귀가 어두운 데다 밤 10시 30분이면 칼같이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거든. 운이 좋다면 에바 영애의 편지들을 내 주머니에 넣은 채로, 새벽 2시쯤에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걸세."

홈즈와 나는 마치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관객처럼 보이도록 정장을 차려입었다. 옥스퍼드 거리에서 한섬 택시를 잡아탄 우리는 햄프스테드에 있는 한 주소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택시비를 지불한 뒤, 우리는 히스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날씨가 몹시 추운 데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기에, 우리는 코트 단추를 단단히 채웠다.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일이야." 홈즈가 말했다. "서류는 그자의 서재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네. 그런데 그 서재는 침실로 들어가는 전실 역할을 하고 있지. 한편,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이런 작고 뚱뚱한 사내들이 대개 그렇듯, 그도 한번 잠들면 깊이 자는 사람이라네. 내 약혼녀인 아가사가 말하기를, 하인들 사이에서는 주인님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농담처럼 돌 정도라고 하더군. 게다가 그에게는 충직한 비서가 하나 있는데, 그 비서는 하루 종일 서재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움직이려는 거야. 게다가 정원을 돌아다니는 맹수 같은 개도 한 마리 있지. 지난 이틀 동안 저녁 늦게 아가사를 만났는데, 그녀가 내가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짐승을 가두어 두었네. 저 건물이 바로 그 저택이야.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집이지. 정문을 지나서, 이제 오른쪽 월계수 덤불 사이로 가세. 여기서 가면을 쓰면 되겠군. 보게나, 창문마다 불빛 하나 비치지 않는 걸 보니 모든 계획이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네."

검은 실크 가면을 쓴 우리의 모습은 런던에서 가장 험악한 인물들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 위세로 고요하고 음산한 저택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다. 저택 한쪽 면에는 타일이 깔린 베란다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벽을 따라 창문 여러 개와 문 두 개가 나 있었다.

"저곳이 그의 침실입니다." 홈즈가 낮게 속삭였다. "이 문을 열면 서재로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경로지만, 문이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빗장까지 걸려 있습니다. 억지로 들어가려다간 소란만 커질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온실을 통하면 거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홈즈는 유리창의 한 부분을 떼어내고 안쪽에서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그 직후 홈즈가 우리 뒤로 문을 닫는 바람에, 우리는 순식간에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온실의 덥고 습한 공기와 이국적인 식물들이 내뿜는 진하고 숨 막히는 향기가 우리를 덮쳤다. 어둠 속에서 홈즈는 내 손을 움켜쥐고는, 얼굴을 스치는 관목 숲 사이로 나를 빠르게 이끌었다. 홈즈는 꾸준히 연마해 온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한 손으로 내 손을 잡은 채 문 하나를 열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누군가 시가를 피웠던 커다란 방 안으로 들어섰다.

홈즈는 가구들 사이를 더듬으며 나아가더니, 또 다른 문을 열고 우리 뒤로 문을 닫았다. 내가 손을 뻗어 벽을 더듬자 여러 벌의 코트가 걸려 있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우리가 복도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복도를 따라 걷던 홈즈가 오른쪽의 문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때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고 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놀랐지만, 그것이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새로 들어선 방에는 벽난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공기는 다시 담배 연기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홈즈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갔고, 내가 따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살며시 문을 닫았다. 우리는 밀버턴의 서재에 도착했다. 방 저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너머로 그의 침실 입구가 보였다.

벽난로의 불길이 좋아 방 안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문 근처에서 전기 스위치의 빛이 어렴풋이 보였으나, 설령 안전하다 해도 굳이 불을 켤 필요는 없었다. 벽난로 한쪽에는 밖에서 보았던 베이 창문을 가리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반대편에는 베란다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방 중앙에는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윤기가 흐르는 붉은 가죽 회전의자가 있었다. 책상 맞은편에는 커다란 책장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아테나의 대리석 흉상이 놓여 있었다. 책장과 벽 사이 구석에는 키가 큰 초록색 금고가 서 있었다. 금고 앞면에 달린 매끄러운 황동 손잡이 위로 벽난로 불빛이 반사되어 번뜩였다.

홈즈는 살금살금 다가가 금고를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침실 문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여 가더니,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안쪽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사이 나는 바깥쪽 문을 통해 퇴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도, 빗장이 걸려 있지도 않았다. 내가 홈즈의 팔을 살짝 건드리자, 가면을 쓴 그의 얼굴이 그쪽을 향했다. 홈즈는 움찔하며 놀랐는데, 분명 나만큼이나 당황한 기색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가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군. 어쨌든 지체할 시간이 없어."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그래, 문 옆에 서 있게.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게나. 그러면 우리가 들어왔던 길로 다시 빠져나갈 수 있어. 만약 다른 쪽에서 온다면, 일이 끝났을 경우 문을 통해 나가면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창문 커튼 뒤에 숨으면 되네. 내 말 이해했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 옆에 섰다. 처음 느꼈던 공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오히려 법을 수호하던 시절보다 지금 더 날카로운 흥분이 온몸을 휘감았다. 우리의 임무가 지닌 숭고한 목적, 이 일이 이타적이고 기사도적인 일이라는 자각, 그리고 상대가 악랄한 범죄자라는 사실이 이번 모험의 긴장감을 더해주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우리가 처한 위험을 오히려 즐기며 환희에 젖었다. 홈즈가 도구 상자를 펼쳐놓고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처럼 침착하고 과학적인 정확함으로 도구를 고르는 모습을 나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금고를 여는 것이 그의 특별한 취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수많은 귀부인의 명예를 아가리에 물고 있는 이 초록빛과 금빛의 괴물, 즉 용과 마주한 그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을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홈즈는 의자에 코트를 벗어 놓은 채 연미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러고는 드릴 두 개와 지렛대, 그리고 여러 개의 만능열쇠를 늘어놓았다. 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앙 문 곁에 서서 다른 문들을 번갈아 살폈다. 사실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말이다. 홈즈는 30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숙련된 기술자처럼 힘과 섬세함을 조절해가며 도구를 하나 내려놓고 다른 것을 집어 들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넓고 초록빛이 도는 금고 문이 활짝 열렸다. 금고 안에는 매듭을 짓고 봉인한 뒤 글자를 적어 넣은 종이 꾸러미들이 보였다. 홈즈가 그중 하나를 꺼냈으나, 일렁이는 불빛 때문에 글자를 읽기가 쉽지 않았다. 옆방에 밀버턴이 있는 상황에서 전등

을 켜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에, 그는 작은 검은색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그때 갑자기 홈즈가 동작을 멈추더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순식간에 금고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코트를 집어 들고 도구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더니 창가 커튼 뒤로 몸을 날렸다. 그는 나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몸짓을 보냈다.

그와 합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집 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였다. 이어 혼란스럽고 둔탁한 웅성거림이 들리더니, 이내 무거운 발소리가 규칙적인 박자에 맞춰 빠르게 다가왔다. 발소리는 방 밖 복도까지 이르렀다. 그러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전기등을 켜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다시 문이 닫혔고, 곧이어 독한 시가 향이 코끝을 찔렀다. 발소리는 우리로부터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되었다. 마침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발소리가 멎었다. 이어서 열쇠가 자물쇠에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고,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지금까지는 감히 밖을 내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눈앞의 커튼을 살며시 젖히고 틈 사이로 밖을 훔쳐보았다. 어깨에 맞닿은 홈즈의 어깨가 눌러오는 느낌을 통해, 그 역시 나와 함께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밀버턴의 넓고 둥근 뒷모습이 바로 우리 눈앞에,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보였다. 우리는 그의 움직임을 완전히 잘못 짐작했다.

그는 침실로 간 것이 아니었다. 대신 우리가 창문을 보지 못했던 저편 별관의 흡연실이나 당구장에 앉아 있었던 게 분명했다.

정수리 부분이 번들거리는 그의 넓고 희끗희끗한 머리가 시야에 바로 들어왔다. 그는 빨간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다리를 쭉 뻗고 있었고, 입에는 긴 검은색 시가 하나를 비스듬히 물고 있었다. 그는 검은 벨벳 칼라가 달린 진한 자주색의 반군복 스타일 흡연용 재킷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긴 법률 문서를 들고 나른한 태도로 읽어 내려가며,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고리 모양으로 내뿜고 있었다. 그 여유롭고 편안한 자세를 보니, 그가 곧 자리를 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홈즈가 내 손을 슬며시 잡더니 안심시키려는 듯 가볍게 흔들었다. 마치 이 상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 같았다. 내 위치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 있었기에, 홈즈도 그것을 보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금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밀버턴이 언제든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을 마친 상태였다. 만약 홈즈의 굳어진 시선을 보고 그가 금고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즉시 튀어나가 그의 머리 위로 코트를 던지고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나머지는 홈즈에게 맡기기로 말이다.

하지만 밀버턴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느긋하게 살펴보았고, 변호사의 설명을 따라 한 페이지씩 차근차근 넘겨 나갔다. 나는 그가 서류를 다 읽고 시가까지 다 피우고 나면 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서류와 시가를 채 다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놀라운 전개가 일어났다.

밀버턴이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는 것을 나는 눈여겨보았다. 한 번은 그가 조바심이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도 했다. 하지만 이토록 묘한 시간에 약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베란다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 내 머릿속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 소리가 들리자 밀버턴은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더니 의자에 꼿꼿이 몸을 세우고 앉았다.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고, 이어서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밀버턴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글쎄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거의 30분이나 늦으셨군요."

잠겨 있지 않았던 문과 밀버턴이 밤새 잠복했던 이유가 드디어 설명되었다. 여인의 드레스가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밀버턴이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커튼 사이의 틈을 닫아 두었지만, 이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틈을 다시 열어 보았다. 밀버턴은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시가 한 대가 여전히 오만한 각도로 삐져나와 있었다. 전등의 환한 불빛 아래, 그의 앞에는 키가 크고 날씬한 검은 옷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얼굴에 베일을 쓰고 턱까지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여인의 호흡은 가쁘고 빨랐으며, 유연한 몸은 격한 감정으로 인해 온통 떨리고 있었다.

"글쎄," 밀버턴이 말했다. "이보게, 자네 때문에 밤잠을 설쳤잖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를 바라네. 하필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나 보군, 안 그래?"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뭐, 할 수 없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백작 부인이 까다로운 상전이라 해도, 지금이야말로 그녀에게 되갚아 줄 기회 아닌가. 아이고, 얘야, 뭘 그렇게 떨고 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정신 차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자네 말은 알베르 백작 부인을 곤경에 빠뜨릴 만한 편지 다섯 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네는 그걸 팔고 싶어 하고, 나는 그걸 사고 싶어 하고. 여기까지는 문제없군. 이제 가격만 정하면 돼. 물론 편지들을 직접 확인해야겠지. 만약 정말 쓸만한 물건이라면—세상에, 당신입니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베일을 들어 올리고 턱까지 내려온 망토를 걷어냈다. 밀버턴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어둡고 화려하며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었다. 오뚝한 코와 강렬하고 짙은 눈썹 아래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보였고, 얇고 곧은 입술은 위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삶을 망쳐놓은 바로 그 여자라고요."

밀버턴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이지 너무나 완고했소." 그가 말했다. "왜 나를 이토록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단 말이오? 장담컨대 나는 내 의지로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않을 사람이오.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사업이 있는 법인데, 내가 대체 어찌했겠소? 나는 당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했단 말이오. 그런데도 당신은 지불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내 남편에게 그 편지들을 보낸 거군요. 그래서 그 분이—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분이자, 제가 감히 신발 끈조차 묶을 자격이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그 용맹한 심장이 부서진 채 세상을 떠나신 거고요.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당신에게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빌었을 때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처럼 제 얼굴에 대고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비겁한 심장 때문에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군요. 그래요, 당신은 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당신과 단둘이 마주할 방법을 배웠답니다. 자, 찰스 밀버턴, 이제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지?"

"나를 겁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목소리만 높여도 당장 하인들을 불러 당신을 체포하게 할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이 화가 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서 참아주겠소. 들어올 때처럼 즉시 이 방에서 나가시오. 그러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소."

여자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다. 얇은 입술에는 아까와 같은 죽음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것처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 내 심장을 쥐어짜듯, 더 이상 다른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라는 독물을 치워버리겠다. 받아라, 이 악마 같은 놈아! 이것도!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녀는 번뜩이는 작은 리볼버를 꺼내 들더니, 밀버턴의 가슴팍 앞 2피트 거리에서 총구를 들이대고는 총알을 쉴 새 없이 퍼부었다. 밀버턴은 몸을 뒤로 움츠리더니, 격렬하게 기침하며 서류 더미를 헤집는 채로 테이블 위로 고꾸라졌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으나, 다시 총탄을 맞고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당신이 나를 죽였어!" 그는 비명을 지르듯 외치고는 그대로 움직임을 멈췄다. 여자는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뒤집힌 그의 얼굴을 구두 뒷굽으로 짓밟았다. 그녀가 다시 한번 살폈지만,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그때 날카로운 바스락거림이 들리더니 뜨겁게 달아오른 방 안으로 밤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복수를 마친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우리가 개입했더라도 그 남자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가 움츠러드는 밀버턴의 몸에 총알을 연이어 퍼붓기 시작하자, 나는 당장이라도 뛰어 나가려 했다. 그때 홈즈가 내 손목을 차갑고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 단호한 손길에는 명확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며, 정의가 악당을 심판했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여자가 방을 뛰쳐나가자마자 홈즈는 소리 없이 재빠른 발걸음으로 다른 쪽 문으로 향했다. 그는 문에 열쇠를 꽂아 잠갔다. 그와 동시에 집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권총 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모두 깨어난 것이다. 홈즈는 지극히 침착한 태도로 금고 앞으로 다가가 양팔 가득 편지 뭉치를 집어 들더니, 그것들을 모조리 화로 속으로 쏟아부었다. 그는 금고가 비워질 때까지 이 일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누군가 문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두드렸다. 홈즈가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밀버턴에게 죽음의 전령이었던 그 편지가 피로 얼룩진 채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홈즈는 그 편지를 불타는 종이 더미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바깥쪽 문에서 열쇠를 뽑아 내 뒤를 따라 나온 뒤, 문을 밖에서 잠갔다.

"이쪽입니다, 왓슨." 홈즈가 말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정원 담장을 넘을 수 있습니다."

경보가 이토록 빠르게 퍼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나고 보니 그 거대한 저택은 온통 환한 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진입로를 따라 급히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정원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우리가 베란다에서 나와 발걸음을 재촉하자 어떤 사내 하나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 사내는 우리 뒤를 바짝 쫓아왔다. 홈즈는 지형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작은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 사이를 재빨리 헤치며 나아갔고, 나는 그 뒤를 바짝 따랐으며, 우리를 쫓던 선두의 추격자는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6피트 높이의 담장이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홈즈는 단숨에 담 위로 뛰어올라 반대편으로 넘어갔다. 나도 똑같이 담을

넘으려 할 때, 뒤따라오던 사내가 내 발목을 움켜쥐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발길질을 해서 그 손을 뿌리치고는 풀이 깔린 담장 턱을 기어올라 갔다. 덤불 사이로 얼굴부터 고꾸라지듯 떨어졌으나, 홈즈가 즉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함께 햄스테드 히스의 드넓은 벌판을 가로질러 질주했다. 아마 2마일쯤 달렸을까, 홈즈가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뒤쪽은 완벽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우리는 추격자들을 따돌렸고, 마침내 안전해졌다.

내가 기록해 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이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침 파이프를 피우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아주 엄숙하고도 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소박한 거실에 들어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홈즈 씨." 그가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에요. 혹시 지금 많이 바쁘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특별히 맡고 계신 사건이 없으시다면, 어젯밤 햄프스테드에서 발생한 아주 기묘한 사건을 저희와 함께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홈즈가 말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살인 사건입니다. 아주 극적이고도 놀라운 살인 사건이지요. 당신이 이런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애플도어 타워로 내려와 우리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밀버턴이라는 자를 주시해 왔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는 꽤나 악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협박용으로 쓰기 위해 여러 서류를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범인들이 그 서류들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가져간 귀중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사회적 망신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제법 지위가 있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라고요?" 홈즈가 되물었다. "복수입니까?"

"네, 범인은 두 명이었어요. 현장에서 아주 가까스로 붙잡을 뻔했죠. 발자국도 남아 있고 인상착의도 파악했으니, 열에 아홉은 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놈은 워낙 기민하게 움직여서 놓쳤지만, 두 번째 놈은 정원사 보조에게 붙잡혔다가 격렬하게 저항한 끝에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체격은 중간 정도에 건장한 체구였고, 각진 턱에 목이 굵었으며, 콧수염을 기르고 눈 부위에는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막연하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세상에, 왓슨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정말 그렇군요." 경위가 즐겁다는 듯 말했다. "이건 마치 왓슨을 묘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레스트레이드 경위,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겠군." 홈즈가 말했다. "사실 난 밀버턴이라는 자를 알고 있었네. 런던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 법이 손댈 수 없는 범죄가 있고, 그렇기에

어느 정도는 사적인 복수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나는 믿네. 아니, 말해봐야 소용없겠군.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까. 내 마음은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범죄자 쪽을 향하고 있네. 그러니 이 사건은 맡지 않겠어."

우리가 목격했던 그 비극에 대해 홈즈는 내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 내내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멍한 눈빛과 넋을 놓은 듯한 태도를 보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기억해 내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점심을 먹던 도중,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세상에, 왓슨! 알아냈어!" 그가 외쳤다. "모자 챙겨! 어서 따라와!"

그는 베이커가를 지나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우리는 리젠트 서커스 근처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곳 왼쪽에는 당대의 유명 인사와 미인들의 사진으로 가득 찬 상점 쇼윈도가 하나 있었다. 홈즈의 시선이 사진 중 하나에 꽂혔다. 그의 눈길을 따라가 보니, 고귀한 머리 위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쓴, 궁정 예복 차림의 위엄 있고 품격 있는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여인의 섬세하게 굽은 코와 뚜렷한 눈썹, 일직선으로 곧은 입술, 그리고 그 아래의 단단하고 작은 턱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위대한 귀족이자 정치가의 유서 깊은 작위를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와 눈이 마주친 홈즈는 우리가 창가에서 멀어지자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여섯 점의 나폴레옹상

여섯 개의 나폴레옹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저녁 무렵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셜록 홈즈에게 그의 방문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었다. 경위의 방문 덕분에 경찰 본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레스트레이드가 가져오는 소식에 보답하듯, 홈즈는 경위가 맡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항상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러다 때때로 홈즈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쌓아온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실마리나 제안을 건네기도 했다.

그날 저녁, 레스트레이드는 날씨와 신문 이야기로 운을 뗐다. 그러더니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시가에 연기를 내뿜으며 침묵에 빠졌다. 홈즈는 그런 그의 모습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폈다.

"뭐 특별한 사건이라도 들어온 게 있나?" 그가 물었다.

"아니요, 홈즈 씨. 별다른 일은 아닙니다."

"그럼 그 일에 대해 말해 주시오."

레스트레이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요, 홈즈 씨. 제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군요. 하지만 워낙 황당무계한 일이라, 당신을 번거롭게 해드려도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사소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 기묘한 구석이 있거든요. 당신이 평범하지 않은 사건을 즐기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 일은 우리보다는 왓슨 박사의 전문 분야에 더 가까운 것 같군요."

"병이라고요?" 내가 물었다.

"어쨌든 광기예요. 그것도 아주 기묘한 광기죠. 이 시간에 나폴레옹 1세를 그토록 증오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초상화나 조각상을 다 부수고 다닐 사람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할 겁니다."

홈즈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그가 말했다.

"정확합니다.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빈집을 터는 범죄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건 의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경찰이 맡아야 할 일이니까요."

홈즈가 다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빈집털이라니! 이거 흥미롭군. 자세한 내용을 말해 보게."

레스트레이드는 수첩을 꺼내 들고는, 기록된 내용을 살피며 기억을 되짚었다.

"첫 번째로 보고된 사건은 나흘 전의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케닝턴 로드에서 그림과 조각상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모스 허드슨의 가게에서 발생했지요. 점원이 잠시 앞쪽 매장을 비웠을 때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급히 안으로 달려가 보니, 카운터 위에 다른 예술품들과 함께 놓여 있던 나폴레옹의 석고 흉상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점원이 즉시 길거리로 뛰쳐나갔지만,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가게에서 누군가 뛰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을 뿐, 정작 점원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 악당이 누구인지 알아낼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씩 일어나는 몰상식한 기물 파손 사건 중 하나로 보였기에, 순찰 중이던 순경에게도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석고상은 몇 실링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고, 사건 전체가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을 만큼 유치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은 훨씬 더 심각했고, 기이하기까지 했다. 바로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케닝턴 로드에는 모스 허드슨의 가게에서 불과 수백 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니콧 박사라는 유명한 의사가 삽니다. 그는 템스강 남쪽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진료소를 운영하는 인물이지요. 주 거주지와 주요 상담실은 케닝턴 로드에 있지만, 2마일 떨어진 로워 브릭스턴 로드에도 분원과 약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바니콧 박사는 나폴레옹의

열렬한 추종자로, 그의 집은 프랑스 황제와 관련된 책과 그림, 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 그는 모스 허드슨으로부터 프랑스 조각가 드빈이 만든 유명한 나폴레옹 흉상의 석고 복제품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박사는 그중 하나는 케닝턴 로드 저택의 현관에 두었고, 나머지 하나는 로워 브릭스턴 로드 진료실의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두었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바니콧 박사가 내려와 보니 밤사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가져간 것은 현관에 있던 석고 흉상뿐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흉상을 밖으로 들고 나가 정원 담벼락에 사정없이 내동댕이쳤고, 담벼락 아래에서는 산산조각 난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홈즈가 손을 비볐다.

"이거 정말 참신한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니콧 박사는 12시에 진료실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상황이 말이 아니었더군요. 밤사이 창문이 열려 있었고, 두 번째 흉상이 깨진 파편들이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박사가 얼마나 경악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흉상은 제자리에 놓인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범인이나 미치광이가 누구인지 알아낼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홈즈 씨, 이제 사실 관계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 홈즈가 말했다. "바니콧 박사의 방에서 박살 난 흉상 두 개가 모스 허드슨의 가게에서 파손된 것과 완전히 똑같은 복제품인지 물어도 되겠나?"

"같은 틀에서 떠낸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폴레옹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 때문에 누군가 동상을 파괴한다는 가설이 틀렸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런던에 그 위대한 황제의 동상이 수백 개는 넘게 있을 텐데, 아무런 목적 없는 파괴자가 우연히 같은 흉상 세 개를 골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나도 자네와 같은 생각이었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허드슨이라는 사람은 런던 그 지역에서 흉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인이 아닌가. 이 세 점의 흉상은 수년 동안 그의 가게에 머물러 있었던 유일한 물건들이었네. 자네 말대로 런던에 수백 점의 조각상이 있다 해도, 아마 이 근방에서는 이 세 점이 유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렇다면 지역의 광적인 범죄자라면 이 흉상들부터 노리기 시작했을 걸세. 왓슨 박사, 자네 생각은 어떤가?"

"단일한 집착이 불러올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현대 프랑스 심리학자들이 '이데 픽스(idée fixe, 고정 관념)'라고 부르는 상태도 있지요. 그 집착 자체는 사소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해 깊이 파고든 사람이나, 혹은 과거의 전쟁으로 인해 가문에 유전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고정 관념을 품을 수 있

습니다. 그리고 그 관념에 사로잡히면, 어떤 기상천외한 범죄라도 저지를 수 있는 법이지요."

"그건 안 될 말이네, 왓슨."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네가 말하는 그 흥미로운 집착광이 아무리 강박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한들, 이 흉상들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알아낼 수는 없을 테니까."

"자, 그럼 당신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소?"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신사의 기괴한 행동에는 나름의 일관된 방식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니콧 박사의 저택 현관에서는 소리가 나면 가족들이 깰 수도 있었기에, 흉상을 밖으로 옮겨 놓은 뒤에 부쉈습니다. 반면, 경보가 울릴 위험이 적었던 진료실에서는 흉상을 그 자리에 둔 채 그대로 박살을 냈지요.

이 사건 자체는 터무니없이 사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맡았던 가장 전형적인 사건들 중 일부도 시작만큼은 전혀 유망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저는 그 어떤 것도 사소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왓슨, 자네도 기억하겠지? 애버네티 가족의 그 끔찍한 사건이 처음 내 눈에 띈 계기가, 무더운 날 버터 속으로 파슬리가 얼마나 깊이 가라앉았느냐 하는 아주 사소한 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러니 레스트레이드 경위, 당신이 가져온 이 세 건의 흉상 파손 사건을 비웃을 여유는 내게 없습니다. 이 기묘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꼭 들려주길 바랍니다."

내 친구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모습으로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직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홈즈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전보 한 통이 들려 있었다. 홈즈는 전보를 소리 내어 읽었다.

"켄싱턴 피트가 131번지로 즉시 오시오.—레스트레이드."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모르겠군.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엔 그 조각상 사건의 후속편인 것 같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인 그 조각상 파괴범이 런던의 다른 구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겠지. 왓슨, 테이블 위에 커피가 있으니 마시게. 마차는 문 앞에 대기시켜 두었네."

30분쯤 달렸을까, 우리는 피트가에 도착했다. 그곳은 런던의 활기 넘치는 삶이 요동치는 거리 바로 옆에 자리한,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뒷골목이었다. 131번지는 일렬로 늘어선 집들 중 하나였는데, 모두 평범하고 점잖은 모습의, 전혀 낭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물들이었다. 마차를 타고 다가서자 집 앞 울타리를 따라 기묘한 군중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홈즈가 휘파람을 불었다.

"세상에! 이건 최소한 살인 미수야.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저 런던의 심부름 소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렇게 구경하고 서 있겠지. 저 친구의 굽은 어깨와 길게 뺀 목을 보면, 분명 폭력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왓슨, 이것 좀 봐. 위쪽 계단에는 물이 흥건한데 아래쪽

계단은 말라 있잖아. 어쨌든 발자국은 충분히 남았군! 허어, 저기 앞창가에 레스트레이드가 보이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지겠어."

담당 관리가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더니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플란넬 가운 차림의 한 노인이 몹시 초조한 기색으로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머리칼은 몹시 흐트러져 있었고 태도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그는 센트럴 프레스 신디케이트의 호레이스 하커 씨라고 소개받았는데, 바로 이 저택의 주인이었다.

"그 나폴레옹 흉상 사건이 다시 터졌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 씨, 어젯밤에 꽤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으니, 직접 현장에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으로 변했다는 말입니까?"

"살인이라니요. 하커 씨, 이 신사분들께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운을 걸친 남자가 매우 침울한 표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평생 남의 소식만 수집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진짜 뉴스가 제 발로 찾아오니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군요. 만약 제가 기자였다면, 제 자신을 인터뷰해서 매일 저녁 발행되는 신문마다 두 면이나 할애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이야기를 저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느라 귀중한 기사 거리만 낭비하고 있을 뿐, 정작 저 자신에게

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셜록 홈즈 씨, 당신의 이름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묘한 사건을 설명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홈즈는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모든 일은 약 네 달 전쯤 이 방을 위해 구입한 저 나폴레옹 흉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 스트리트 역에서 두 집 건너에 있는 하딩 형제네 가게에서 아주 싸게 샀지요. 저는 기자 일을 주로 밤에 하다 보니 새벽까지 글을 쓸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새벽 3시쯤 집 꼭대기 층 뒤편에 있는 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저 밖에서 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분쯤 뒤에 정말 끔찍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홈즈 씨, 제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귓가에 쟁쟁할 겁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한두 분 동안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화로용 부지깽이를 집어 든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방에 들어서니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벽난로 선반 위에 있던 흉상이 사라진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도둑이 왜 그런 물건을 가져갔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저 석고 모형일 뿐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물건이니까요."

"열려 있는 저 창문으로 나간 사람이라면, 크게 한 걸음 내디뎌 앞문 문턱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건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도둑이 분명

그렇게 했을 테니,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자마자 쓰러져 있는 시신과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급히 불을 밝히러 뛰어갔다 돌아와 보니, 가엾은 그 사람은 목에 깊은 자창을 입은 채 피바다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세운 채 등을 대고 누워 입을 끔찍하게 벌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꿈에 나올 것만 같습니다. 경찰 호루라기를 불 겨우 한 뒤에는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현관에서 제 곁을 지키고 서 있는 경찰관을 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살해된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가 누구인지 알 만한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시신은 영안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검게 그을린, 아주 건장한 체격의 남성입니다. 나이는 서른 살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옷차림은 초라하지만 그렇다고 노동자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신 옆에는 피웅덩이 속에 뿔 손잡이가 달린 접이식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칼이 범행에 쓰인 무기인지, 아니면 죽은 이의 소지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옷에는 이름표가 없었고, 주머니 안에는 사과 한 알과 실 한 뭉치, 1실링짜리 런던 지도 한 장, 그리고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분명 소형 카메라로 찍은 스냅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눈매가 날카롭고 영민해 보이는 유인원 같은 남자가 찍혀 있었다. 그는 짙은 눈썹

을 가졌으며, 하관이 바분(baboon)의 주둥이처럼 아주 기이하게 돌출된 생김새였다.

"그 흉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림을 세심히 살피던 홈즈가 물었다.

"당신이 오기 직전에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캠든 하우스 로드에 있는 빈집 앞마당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막 확인하러 가려던 참인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선 주변을 좀 살펴봐야겠군요." 그는 카펫과 창문을 차례로 살폈다. "범인은 다리가 아주 길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한 사람 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창문 아래에 마당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 창틀까지 올라가 창문을 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내려가는 건 그보다 훨씬 수월했겠지만요. 하커 씨, 당신의 흉상이 처참하게 부서진 현장으로 같이 가시겠습니까?"

낙담한 기자는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어떻게든 기사를 써내야겠어." 그가 말했다. "저녁판 신문에는 이미 상세한 사건 내용이 실려 나왔겠지만 말이야. 정말 내 팔자도 기구하지! 돈카스터에서 관중석이 무너졌을 때 기억나나? 그때 관중석에 있던 유일한 기자였는데, 정작 내 신문만 그 사건을 보도하지 못했었지. 너무 놀라 글을 쓸 정신조차 없었거든. 그런데 이번엔 내 집 바로 앞에서 살인 사건이 터졌는데도 제때 기사를 못 쓰게 생겼군."

방을 나서자, 그가 필기용 종이 위를 날카롭게 긁으며 글을 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흉상이 산산조각 난 채 발견된 장소는 불과 몇 백 야드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위대한 황제의 형상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정체 모를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 형상이 그토록 광기 어린 파괴적 증오를 불러일으켰단 말인가. 부서진 파편들은 잔디 위에 흩어져 있었다. 홈즈는 파편 몇 개를 집어 들더니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홈즈의 진지한 표정과 단호한 몸짓을 보며, 나는 그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음을 확신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갈 길이 멀군."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말이야. 아직은 우리에게 실마리가 될 만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네. 이 기묘한 범인의 눈에는 사람의 목숨보다 이 보잘것없는 흉상이 더 가치 있었던 모양이야. 그건 확실한 사실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만약 흉상을 부수는 게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왜 집 안이나 집 바로 앞에서 그것을 깨뜨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네."

"그는 다른 사내를 마주치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을 테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이 집의 위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 집 정원에서 그 흉상이 파손되었으니까요."

레스트레이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집은 비어 있었다. 덕분에 그는 정원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집으로 오기 전, 길을 따라 더 올라가면 비어 있는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분명 그 집을 지나쳤을 텐데, 왜 거기서 흉상을 부수지 않았을까요? 흉상을 들고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누군가와 마주칠 위험이 커지는 게 분명한데 말입니다."

"난 이제 포기했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가 우리 머리 위로 비치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그는 이곳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지만, 저곳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유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렇군요!" 경위가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바니콧 박사의 흉상이 붉은 램프 근처에서 깨져 있었어요. 자, 홈즈 씨,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둬야 해요. 나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레스트레이드 경위,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제 생각에는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젯밤 피트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호레이스 하커 씨의 집 문턱에서 그를 만나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네. 하지만 내가 이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제 의견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는 마십시오. 각자 맡은 바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로 알아낸 것들을 맞춰보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테니까요."

"아주 좋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피트가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호러스 하커 씨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에게 제 말을 전해 주세요.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의 집에는 나폴레옹 망상에 빠진 위험한 살인광이 분명히 있었다고도 전해 주십시오. 그가 쓸 기사에도 꽤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스트레이드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설마 그걸 정말로 믿는 건 아니겠지?"

홈즈가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다고요?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호레이스 하커 씨와 센트럴 프레스 신디케이트의 구독자들에게는 분명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왓슨, 오늘 우리 앞에는 길고 꽤 복잡한 일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6시에 베이커가에서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까지는 죽은 이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이 사진을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제 추리가 맞다면, 오늘 밤 작은 조사를 위해 경위님의 동행과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이만 작별 인사를 나누죠. 행운을 빕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함께 하이 스트리트로 걸어갔다. 우리는 그 흉상을 구입했던 하딩 형제 상점에 멈춰 섰다. 젊은 점원은 하딩 씨가 오후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자신은 새로 온 직원이라 별다른 정보를 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홈즈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짜증이 역력히 드러났다.

"자, 자, 왓슨.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길 바랄 수는 없지."

마침내 홈즈가 입을 열었다.

"하딩 씨가 그때까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후에 다시 와야 하네. 자네도 이미 짐작했겠지만, 나는 이 흉상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추적하고 있네. 이 흉상들이 겪은 이 기이한 운명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우선 케닝턴 로드에 사는 모스 허드슨 씨에게 가보세. 그라면 이 문제에 대해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시간 동안 마차를 타고 달린 끝에 우리는 그림 상점에 도착했다. 주인은 얼굴이 붉고 체격이 다부진 작은 체구의 사내였는데, 성미가 아주 까칠했다.

"네, 손님. 바로 제 카운터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세금이며 각종 공과금은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한당들이 제멋대로 들어와 물건을 때려 부수는데 말입니다. 네, 손님. 바니콧 박사에게 조각상 두 점을 판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 생각엔 이건 니힐리스트들의 음모입니다. 조각상을 부수고 다니는 건 무정부주의자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붉은 공화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조각상을 어디서 가져왔냐고요?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군요. 뭐, 정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리죠. 스텝니 처치 가에 있는 겔더 상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곳은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운영해 온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건 총 세 점이었습니다. 두 점에 한 점을 더하면 세 점이죠. 바니콧 박사의 것이 두 점이었고, 나머지 한 점은 대낮에 제 카운터 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저 사진 속 인물을 아느냐고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알 것 같군요. 세상에, 베포 아닙니까! 가게 일을 도와주던 이탈리아인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조각도 좀 다룰 줄 알고, 금박을 입히거나 액자를 짜는 등 잡다한 일을 꽤 잘했지요. 그 친구는 지난주에 그만두었는데, 그 뒤로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 친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딱히 문제될 게 없는 친구였거든요. 조각상이 깨지기 이틀 전에 떠났습니다."

"모스 허드슨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네."

가게를 나서며 홈즈가 말했다.

"케닝턴과 켄싱턴 사건 모두에 베포라는 인물이 공통으로 등장하니, 십 마일 정도는 마차를 타고 달려갈 가치가 있어. 자, 왓슨. 이제 스텝니에 있는 겔더 상사로 가세. 그 흉상들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라네. 거기서 어떤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겠군."

우리는 런던의 화려한 거리들을 빠르게 지나쳤다. 호텔이 즐비한 거리, 극장가, 문인들의 거리, 상업 지구를 차례로 통과했다. 마침내 해양 도시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은 십만 명의 인구가 북적이는 강변 도시로, 유럽에서 몰려든 부랑자들로 가득한 공동주택들이 열기와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 한때는 시티의 부유한 상인들이 거주하던 넓은 대로변에서, 우리는 찾고 있던 조각 공장을 발견했다.

공장 밖에는 기념비용 석재들이 가득 쌓인 커다란 마당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쉰 명의 노동자가 조각을 하거나 형틀을 만드는 커다란 작업실이 나타났다. 덩치가 크고 금발인 독일인 관리인은 우리를 정

중하게 맞이했고, 홈즈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다. 장부를 확인해 보니, 디바인의 나폴레옹 두상 대리석 복제품을 바탕으로 수백 개의 캐스트를 제작한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약 1년 전 모스 허드슨에게 보낸 세 개의 캐스트는 총 여섯 개로 구성된 한 세트의 절반이었으며, 나머지 세 개는 켄싱턴의 하딩 형제에게 보내졌다고 했다. 그 여섯 개의 캐스트가 다른 것들과 다를 이유는 전혀 없었다. 관리인은 누군가 그것들을 파괴하려 할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며, 그런 생각 자체를 비웃기까지 했다. 도매가는 6실링이었지만, 소매가는 12실링 혹은 그 이상에 팔린다고 했다. 제작 방식은 얼굴 양쪽에서 각각 하나씩, 두 개의 틀을 떠낸 뒤, 석고로 만든 이 두 측면 형상을 하나로 합쳐 완전한 흉상을 만드는 식이었다. 우리가 있는 작업실의 일은 대개 이탈리아인들이 맡았다. 완성된 흉상은 건조를 위해 통로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가, 다 마르면 창고에 보관했다. 관리인이 말해줄 수 있는 정보는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사진을 보여주자 지배인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붉혔고, 푸른 게르만계 눈매 위로 눈썹을 잔뜩 찌푸렸다.

"아, 그 악당 놈 같으니!" 그가 외쳤다. "그래요, 정말이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줄곧 번듯한 작업장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건 오직 저놈 때문이 처음이었죠. 벌써 1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저놈이 거리에서 다른 이탈리아인을 칼로 찔렀는데, 경찰이 뒤를 바짝 쫓아오는 와중에 작업장으로 도망쳐 들어왔거든요. 결국 여기서 붙잡혔습니다. 이름은 베포였는데, 성은 모르겠습니다. 저런 얼굴을 한 놈을

고용한 제 잘못이지요. 하지만 일솜씨 하나는 좋았습니다. 아주 유능한 인력이었죠."

"그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자는 살아있고, 1년 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금쯤이면 이미 출소했을 거라 확신하지만, 감히 이곳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곳에 그자의 사촌이 한 명 있는데, 아마 그 사촌이라면 그자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돼!" 홈즈가 외쳤다. "사촌에게는 단 한 마디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의 장부에서 그 석고 모형들의 판매 기록을 확인했을 때, 판매 날짜가 작년 6월 3일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혹시 베포가 체포된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급여 명부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대답했다. 그는 페이지를 몇 장 넘기더니 말을 이었다. "네,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일은 5월 20일이군요."

"고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더는 귀한 시간을 뺏거나 인내심을 시험하며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군요." 홈즈는 우리의 조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서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식당에서 서둘러 점심을 먹을 수 있었을 때는 이미 오후가 한참 지나간 뒤였다. 식당 입구에 붙은 게시판에는 '켄싱턴의 참극, 미치광이에 의한 살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붙어 있었다. 신문 내용을 살펴보니 호러스 하커 씨의 이야기가 결국 기사화된 모양이었다. 두 단락에 걸쳐 사건 전체를 매우 자극적이고 미사여구가 난무하는 문체로 서술하고 있었다. 홈즈는 식사를 하며 신문을 양념통 거치대에 기대어 놓은 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읽는 도중 한두 번 픽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 괜찮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이걸 들어보게."

"이 사건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군요. 경찰 측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저명한 상담 전문가인 셜록 홈즈 씨, 두 분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이토록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기괴한 일련의 사건들은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신 착란 외에는 이 사실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왓슨, 언론은 활용법만 제대로 안다면 아주 유용한 도구라네. 자, 이제 다 끝났다면 다시 켄싱턴으로 돌아가 보세나. 하딩 형제사의 매니저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어."

그 거대한 상점의 창립자는 아주 기민하고 명석한 소인이었다. 그는 몸가짐이 매우 깔끔하고 동작이 빨랐으며, 판단력이 명확하고 말솜씨 또한 막힘이 없었다.

"네, 손님. 저녁 신문에서 그 소식을 이미 읽었습니다. 호러스 하커 씨는 저희 단골이십니다. 몇 달 전에 그분께 그 흉상을 납품했지요. 저희는 스텝니에 있는 겔더 사에 그런 종류의 흉상을 세 개 주문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팔렸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냐고요? 아, 판매 장부를 확인해 보면 아주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기록이 있군요. 보시다시피 하커 씨에게 하나, 치즈윅 라버넘 베일의 라버넘 로지에 사는 조사이어 브라운 씨에게 하나, 그리고 레딩의 로어 그로브 로드에 사는 샌더포드 씨에게 하나 팔았습니다. 아니요, 보여주시는 사진 속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손님, 이런 얼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저도 좀처럼 보기 드무니까요. 직원 중에 이탈리아인이 있냐고요? 네, 작업자나 청소부 중에 이탈리아인이 몇 명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들이 판매 장부를 몰래 훔쳐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장부를 특별히 감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글쎄요, 참으로 기묘한 사건이군요. 조사를 진행하시다가 뭐라도 알아내시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딩 씨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홈즈는 몇 가지 메모를 남겼다. 사건이 흘러가는 양상을 지켜보는 홈즈의 표정에는 매우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으면 레스트레이드 경위와의 약속 시간에 늦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말이다.

과연 베이커가에 도착했을 때, 경위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초조한 듯 안절부절못하며 앞뒤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위세 당당한 모습은 오늘 하루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래서요?" 그가 물었다. "운이 좀 따랐습니까, 홈즈 씨?"

"오늘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네. 그렇다고 허송세월한 건 아니야." 내 친구가 설명했다. "소매상부터 도매 제조업자까지 모두 만났으니까. 이제 흉상들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그 경로를 전부 추적할 수 있네."

"흉상 말입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허, 참나. 셜록 홈즈 씨,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건 인정하죠. 내가 감히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늘 하루 일은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 해낸 것 같군요. 나는 죽은 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리고 범행의 동기까지 찾아냈지."

"훌륭하군!"

"사프론 힐과 이탈리아인 거주 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위가 한 명 있습니다. 죽은 남자의 목에는 가톨릭 상징물이 걸려 있었는데, 그 점과 남자의 피부색을 보니 남부 출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힐 경위는 시신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나폴리 출신의 피에트로 베누치라는 자로, 런던에서 손꼽히는 악질 살인범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마피아와 연루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피아는 살인을 통해 명령을 집행하는 비밀 정치 결사체입니다.

자, 이제 사건의 윤곽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이십니까? 상대방 역시 이탈리아인이자 마피아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조직의 규칙을 어긴 것이지요. 그래서 피에트로가 그를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시신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진 속 인물이 바로 그 상대방일 것입니다. 피에트로가 엉뚱한 사람을 찌르지 않도록 사진을 챙겼겠지요. 그는 상대를 미행하다가 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리어 자신이 치명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셜록 홈즈 씨, 제 추리가 어떻습니까?"

홈즈가 만족스러운 듯 손뼉을 쳤다.

"훌륭하군, 레스트레이드 경위, 정말 훌륭해!" 홈즈가 외쳤다. "하지만 흉상들을 파괴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군."

"그 흉상들 말입니다! 그 흉상들은 도무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군요. 하지만 결국 그건 별일 아닙니다. 단순 절도일 뿐이고,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면 끝날 일이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조사해야 할 건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 제 손안에 쥐게 될 겁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힐과 함께 이탈리아인 거주 구역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로 그를 체포할 겁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 같군요. 더 간단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상황에 달려 있으니까요. 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내기에서도 승률이 정확히 두 대 일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가주신다면, 그자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는 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인 거주 구역 말입니까?"

"아니요, 그를 찾으려면 치즈윅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오늘 밤 저와 함께 치즈윅으로 가주신다면 내일은 제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이탈리아 거리에 가겠다고 약속하죠. 하루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모두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자는 게 좋겠습니다. 열한 시 전에는 출발할 생각이 없으니, 아침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출발할 때까지는 편히 소파에서 쉬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왓슨, 미안하지만 급행 전령을 좀 불러주겠나? 당장 보내야 할 중요한 편지가 하나 있어서 말일세."

홈즈는 저녁 내내 창고에 가득 쌓인 옛 신문 뭉치들을 뒤지며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그가 내려왔을 때, 그의 눈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

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무엇을 알아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홈즈가 이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 걸음씩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도달할 결론이 무엇인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었지만, 홈즈가 이 기괴한 범죄자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범인이 남은 두 개의 흉상을 노릴 것이라 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치즈윅에 있다고 기억났다.

우리의 여정은 분명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될 터였다. 저녁 신문에 일부러 잘못된 단서를 흘려, 범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도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준 친구의 교묘한 수법에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홈즈가 내게 리볼버를 챙기라고 권했을 때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이 즐겨 쓰는 무기인 장전된 사냥용 채찍을 집어 들고 있었다.

열한 시에 사륜마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해머스미스 다리 건너편의 어느 지점까지 이동했다. 마차를 모는 마부는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잠시 걸어가자 정원이 딸린 아름다운 저택들이 늘어선 한적한 길이 나타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저택 중 한 곳의 대문 기둥에는 '라버넘 빌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집 안의 사람들은 이미 잠자리에 든 모

양이었다. 현관문 위의 채광창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빛이 정원 길 위로 둥근 원을 그리며 번져 있을 뿐, 집 안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로와 저택의 경계를 나누는 나무 울타리는 안쪽으로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림자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다.

"꽤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군요."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비가 오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습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담배라도 피우는 건 무리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고생을 하면 보답을 받을 확률이 두 대 일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홈즈가 우려했던 것만큼 길지 않았다. 그 기다림은 아주 갑작스럽고도 기이한 방식으로 끝이 났다. 아무런 기척도 없이, 정원 문이 순식간에 벌컥 열리더니 유인원처럼 민첩하고 날렵한 검은 형체가 정원 길을 따라 달려왔다. 그 형체는 문 너머로 새어 나오는 불빛을 스치듯 지나가더니, 이내 집의 짙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한참 동안 정적 속에 머물렀다. 그러다 이윽고 아주 미세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창문을 열고 있었다. 소리가 멎자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자는 집 안으로 침입하고 있었다. 방 안에서 어두운 등불이 번쩍이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가 찾는 것은 분명 그곳에 없었다. 등불의 불빛은 다른 창의 블라인드 너머로, 그리고 또 다른 블라인드 너머로 연달아 번쩍이며 옮겨 다녔다.

"열린 창문 쪽으로 갑시다. 그자가 창밖으로 기어 나올 때 덮쳐야 합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속삭였다.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걸어 나오는 그의 겨드랑이 사이에는 하얀 물건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인적 없는 거리의 정적은 그를 안심시키는 듯했다. 그는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짐을 내려놓았다. 곧이어 무언가 날카롭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달그락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이어졌다. 남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홈즈가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그의 등에 올라탔다. 찰나의 순간,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내가 남자의 양 손목을 붙잡았고 수갑이 채워졌다. 그를 돌려세우자, 분노로 일그러진 흉측하고 창백한 얼굴이 우리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붙잡은 사람이 사진 속의 그 인물이 맞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하지만 홈즈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 앞에 붙잡힌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문턱에 쪼그려 앉아, 그 남자가 집 안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그날 아침에 보았던 것과 같은 나폴레옹 흉상이었는데, 역시 비슷한 조각들로 부서져 있었다. 홈즈는 낱낱의 파편을 하나하나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며 주의 깊게 관찰했으나, 그 어떤 조각도 다른 석고 파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홈즈가 막 조사를 마쳤을 때, 복도의 전등이 환하게 켜지더니 문이 열

렸다. 셔츠와 바지 차림을 한, 유쾌하고 풍채 좋은 집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이어 브라운 씨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당신이 바로 셜록 홈즈 씨이시겠군요? 급행 전령을 통해 보내신 쪽지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조치했습니다. 모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았지요. 허, 그 악당을 붙잡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신사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시지요."

하지만 레스트레이드 경위는 범인을 안전한 곳으로 압송하기를 서둘렀다. 덕분에 몇 분 지나지 않아 마차를 불렀고, 우리 네 사람은 곧장 런던을 향해 출발했다. 붙잡힌 사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단 한 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우리를 매섭게 노려볼 뿐이었다. 한 번은 내 손이 그의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지자, 굶주린 늑대처럼 내 손을 향해 달려들기도 했다. 경찰서에 도착해 상황을 살펴보니, 그의 옷가지에서는 몇 실링의 동전과 긴 칼집이 달린 단검 한 자루가 나온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 단검의 손잡이에는 최근에 묻은 듯한 혈흔이 가득 남아 있었다.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힐은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훤히 꿰뚫고 있으니, 그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낼 겁니다. 마피아 때문이라는 제 이론도 결국 맞아떨어질 거고요. 하지만 홈즈 씨, 그놈을 아주 능숙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게다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한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끝까지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 중 하나거든요. 내일 여섯 시에 다시 한 번 내 방으로 와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아직 이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범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왓슨, 만약 내가 당신에게 내 작은 사건들을 더 기록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의 기록은 이 기묘한 '나폴레옹 흉상 사건'으로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날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레스트레이드 경위는 우리 죄수에 관해 꽤 많은 정보를 가져왔다. 죄수의 이름은 베포였고, 성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탈리아인 공동체 사이에서 악명 높은 건달이었다. 한때는 실력 있는 조각가로서 정직하게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했으나, 나쁜 길에 빠지면서 이미 두 번이나 감옥에 갔다. 한 번은 좀도둑질 때문이었고, 다른 한 번은 이미 들은 대로 동포를 찌른 죄 때문이었다.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가 왜 흉상들을 파괴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경찰은 그가 겔더 사에서 조각 일을 하고 있었기에, 파괴된 흉상들이 그가 직접 만든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홈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 이 정보들을 예의 바르게 경청했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나는 홈즈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평소 그가 쓰고 다니는 가면 같은 표정

아래로,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색이 읽혔다. 마침내 홈즈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고, 그의 눈이 번뜩였다. 벨 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옆머리가 희끗희끗한 붉은 얼굴의 노신사가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그는 오른손에 구식 카펫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셜록 홈즈 씨 계십니까?"

내 친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미소 지었다. "레딩에서 오신 샌더포드 씨겠지요?" 그가 말했다.

"네, 선생님.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기차편이 워낙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흉상에 대해 편지를 보내셨더군요."

"정확합니다."

"여기 당신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데바인의 나폴레옹 복제품을 한 점 소장하고 싶으니, 귀하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10파운드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쓰셨더군요.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당연히 놀라셨겠지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딩 형제의 하딩 씨가 말하길, 그쪽이 마지막 남은 한 권을 사 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제게 당신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 그 일 때문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제가 얼마를 주고 샀는지도 말하던가요?"

"아니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정직한 사람이라는 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흉상은 고작 15실링을 주고 산 것이거든요. 당신에게 10파운드를 받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샌더포드 씨, 그런 양심을 지키시는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가격을 정해두었으니,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홈즈 씨. 요청하신 대로 흉상도 직접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방을 열자, 마침내 테이블 위에 흉상 하나가 놓였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조각난 상태로 보았던 바로 그 흉상의 완전한 형태였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10파운드 지폐 한 장을 올려놓았다.

"샌더포드 씨, 이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지요. 이 서류는 당신이 그 흉상에 대해 가졌던 모든 권리를 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매사에 철저한 사람이라서 말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샌더포드 씨. 여기 돈입니다. 그럼 이만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자, 셜록 홈즈는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서랍에서 깨끗한 흰 천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그러고는 새로 들여온 흉상을 천 한가운데에 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타고 다니던 채찍을 집어 들더니, 나폴레옹의 머리 윗부분을 강하게 내리쳤다. 흉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홈즈는 부서진 잔해 위로 몸을 바짝 숙였다. 잠시 후, 그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크게 외치며 파편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파편 속에는 검고 둥근 물체가 마치 푸딩 속의 자두처럼 박혀 있었다.

"신사 여러분," 그가 외쳤다. "보르자 가문의 그 유명한 검은 진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나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절정 부분에서 관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터뜨리듯, 우리 둘은 충동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홈즈의 창백한 뺨에 발그레한 홍조가 돌았다. 그는 마치 관객의 경의를 받는 거장 극작가처럼 우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홈즈가 이성적인 기계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찬사와 박수를 갈구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였다. 대중

의 명성을 경멸하며 외면하던 그 유별나게 오만하고 과묵한 성정조차, 친구가 건네는 진심 어린 경탄과 찬사 앞에서는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리곤 했다.

"그렇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가 말했다. "이것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입니다. 저는 연쇄적인 귀납적 추론을 통해, 이 진주가 분실된 데이크 호텔의 콜론나 왕자 침실에서부터 스텝니의 겔더 사가 제작한 나폴레옹 흉상 여섯 점 중 마지막 작품인 이 흉상의 내부까지 찾아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이 값비싼 보석이 사라졌을 때 온 도시가 떠들썩했던 일과 이를 되찾으려던 런던 경찰의 헛된 노력을 기억하시겠지요. 저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받았으나,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심을 샀던 인물은 이탈리아 출신의 공주 전속 하녀였습니다. 그녀에게 런던에 사는 오빠가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지는 못했지요. 하녀의 이름은 루크레치아 베누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살해당한 피에트로가 그녀의 오빠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신문사의 옛 기록들을 뒤져 날짜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진주가 사라진 시점은 베포가 폭력 범죄로 체포된 날로부터 정확히 이틀 전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 흉상들이 제작되던 시점에 겔더 사의 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사건의 전말이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제가 파악한 순서와 반대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입니다. 베포가 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에트로에게서 진주를 훔쳤을 수도 있고, 피에트로의 공범이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피에트로와 누이 사이

의 중간 전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사실은 그가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가 진주를 몸에 지니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으로 향했다. 몸수색을 당하면 이 엄청난 가치의 보물을 들킬 게 뻔했기에, 숨길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마침 복도에는 나폴레옹의 석고 흉상 여섯 개가 마르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였다. 숙련된 노동자였던 베포는 순식간에 젖은 석고에 작은 구멍을 냈다. 그러고는 진주를 그 안에 떨어뜨린 뒤, 몇 번의 손길로 구멍을 다시 메워버렸다. 참으로 훌륭한 은신처였다. 누구도 결코 찾아낼 수 없을 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베포는 1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사이 그의 흉상 여섯 개는 런던 전역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그는 어느 흉상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오직 흉상을 깨뜨려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흉상을 흔들어보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석고가 젖어 있었기에 진주가 석고에 달라붙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이다.

베포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상당한 재치와 인내심을 발휘하며 보물을 찾아 나섰다. 겔더와 함께 일하는 사촌을 통해, 그는 흉상을 사들인 소매업체들을 알아냈다. 또한 모스 허드슨 밑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하여, 그 방법으로 흉상 세 개를 추적해냈다. 하지만 진주는 그곳에 없었다.

그 후, 어느 이탈리아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는 나머지 흉상 세 개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첫 번째 흉상은 하커의 집에 있었다. 그곳에서 베포는 공범에게 끈질기게 쫓겼다. 공범은 진주를 잃어버린 책임을 베포에게 돌렸고, 이어진 몸싸움 중에 베포가 그 공범을 칼로 찔렀다.

"그가 공범이라면, 왜 그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가 제삼자에게 행방을 물어보려 할 때,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이유였죠. 살인 사건이 일어난 뒤, 저는 베포가 움직임을 늦추기보다는 서두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챌까 두려워,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서둘러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물론 베포가 하커의 흉상 안에서 진주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조차 그것이 진주인지 확실히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가로등이 비치는 정원에서 흉상을 깨뜨리려고, 다른 집들을 지나쳐 굳이 흉상을 들고 이동했으니까요.

하커의 흉상은 세 개 중 하나였기에, 확률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였습니다. 진주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 확률이 두 대 일로 더 높았죠. 남은 흉상은 두 개였고, 그가 런던의 흉상을 먼저 노릴 것이라는 점은 자명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비극을 막기 위해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쯤이면 저는 우리가 쫓는 것이 보르지아 진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살해된 남자의 이름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흉상은 레딩의 것 하나뿐이었고, 진주는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는 앞에서 주인으로부터 그 흉상을 샀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바로 저기에 있군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글쎄요,"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홈즈 씨, 당신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는 걸 봐왔지만, 이토록 능수능란하게 처리한 사례는 처음 봅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야드 사람들은 당신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당신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요. 그러니 내일 이곳에 오신다면, 연륜 있는 경위부터 갓 임용된 순경에 이르기까지, 당신과 악수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고맙소!" 홈즈가 말했다. "정말 고맙소!" 그가 몸을 돌려 떠날 때, 내 눈에는 그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감정에 북받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냉철하고 실용적인 사고가로 돌아와 있었다. "왓슨, 그 진주를 금고에 넣어두게. 그리고 콩크-싱글턴 위조 사건 서류 좀 꺼내주게나." 홈즈가 말했다. "그럼 이만, 레스트레이드 경위. 혹시라도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한두 개쯤은 기꺼이 알려줌세."

세 학생

세 학생의 모험

1895년이었다. 구체적인 사정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 사건이 겹치는 바람에 셜록 홈즈와 나는 영국의 어느 유명 대학 도시에서 몇 주를 보내게 되었다.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작지만 교훈적인 사건은 바로 그 기간에 일어났다.

독자들이 해당 대학이나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게 돕는 세부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며, 당사자들에게 결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스캔들은 차라리 그대로 잊히게 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중을 기해 사건 자체를 묘사하는 것은 괜찮으리라 생각한다. 이 사건은 내 친구 홈즈가 지닌 탁월한 자질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사건의 장소를 특정하거나 관련 인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만한 표현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시 우리는 셜록 홈즈가 고대 영어 헌장들을 연구하느라 한창인 어느 도서관 근처의 가구 완비된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홈즈가 진행 중이던 그 고된 연구는 매우 놀라운 결과를 낳았는데, 아마도 훗날 내가 쓸 이야기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지인인 힐턴 솜스 씨를 만났다. 그는 세인트 루크 대학의 튜터이자 강사였다. 솜스 씨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신경질적이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평소에도 늘 안절부절못하는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격하게 동요하고 있었다. 분명 아주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홈즈 씨, 귀한 시간을 몇 시간만 내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인트 루크 대학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당신이 이 도시에 계신다는 행운이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을 겁니다."

"지금은 아주 바쁜 상태라 방해받고 싶지 않네." 내 친구가 대답했다. "차라리 경찰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낫겠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방식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일단 법의 힘을 빌리게 되면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 사건은 대학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스캔들을 막아야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선생님의 신중함은 그 명석함만큼이나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홈즈 선생님뿐

입니다. 부디, 홈즈 선생님,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친구의 성미는 베이커가의 정겨운 환경을 떠난 뒤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스크랩북과 화학 약품, 그리고 특유의 소탈하고 어수선한 생활 환경이 사라지자 홈즈는 무척이나 안절부절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방문객이 흥분한 기색으로 몸짓을 크게 섞어가며 다급하게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안, 홈즈는 마지못해 수긍한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홈즈 씨,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포트레스큐 장학금 시험 첫날입니다. 제가 시험관 중 한 명인데, 제 담당 과목은 그리스어입니다. 첫 번째 시험지는 응시자가 미리 본 적 없는 긴 그리스어 번역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지문은 시험지에 인쇄되어 나오는데, 응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엄청난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인쇄소에서 이 시험지의 교정쇄가 도착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저서 중 반 장 정도를 다루는 내용이라, 텍스트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아주 꼼꼼히 읽어야 했습니다. 4시 30분이 되었는데도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방에서 차를 마시기로 약속한 터라, 일단 교정쇄를 책상 위에 두고 나왔습니다. 자리를 비운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었습니다."

"홈즈 씨, 우리 대학의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안쪽에는 초록색 모직 문이 있고, 바깥쪽에는 무거운 참나무 문이 있지요. 제가 바깥쪽 문으로 다가가는데, 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제가 열쇠를 꽂아두고 왔나 싶었지만,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열쇠는 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사된 열쇠는 제 하인인 배니스터가 가진 것뿐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제 방을 관리해 온 사람으로, 정직함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친구지요. 확인해보니 열쇠는 정말로 그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마실지 확인하러 방에 들어왔다가, 나올 때 부주의하게 열쇠를 문에 꽂아둔 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른 시점은 제가 방을 나선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라면 그저 열쇠를 깜빡한 정도의 사소한 실수였겠지만, 하필이면 바로 오늘, 그 실수로 인해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책상을 보자마자 누군가 내 서류들을 뒤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세 장의 긴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원래는 세 장을 한데 모아 두었는데, 확인해 보니 한 장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다른 한 장은 창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으며, 나머지 한 장만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홈즈가 처음으로 몸을 뒤척였다.

"첫 번째 페이지는 바닥에, 두 번째는 창가에, 세 번째는 당신이 둔 그 자리에 있더군." 그가 말했다.

"정확합니다, 홈즈 씨. 정말 놀랍군요. 대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아내신 겁니까?"

"부디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게."

순간 나는 배니스터가 내 서류를 뒤져보는 용납할 수 없는 무례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주 간곡하게 결백을 주장했고,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다른 가능성이라면, 지나가던 누군가가 문에 꽂힌 열쇠를 보고 내가 외출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 서류를 찾아보려고 침입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장학금은 매우 가치가 크기에 막대한 액수의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라면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을 것이다.

"배니스터는 이번 일로 무척 당황했습니다. 서류가 분명히 손을 탄 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죠. 나는 그에게 브랜디를 조금 먹인 뒤 의자에 주저앉혀 두고, 방 안을 아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침입자가 어지럽혀 놓은 서류 외에도 다른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창가 탁자 위에는 연필을 깎고 남은 찌꺼기들이 흩어져 있었고, 부러진 연필심 조각도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그 악당은 서류를 아주 급하게 베껴 쓰다가 연필심이 부러지자, 급히 연필을 다시 깎아야 했던 모양입니다."

"훌륭하군!" 사건에 몰입하기 시작하며 다시 기운을 차린 홈즈가 말했다. "운이 당신 편이었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붉은 가죽을 덧댄 아주 매끄러운 새 필기용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배니스터도 맹세할 수 있을 만큼, 그 표면은 아무런 얼룩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곳에서 3인치 정도 되는 깨끗한 칼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긁힘이 아니라, 분명히 칼로 그은 자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탁자 위에서 검은 반죽이나 진흙 같은 작은 덩어리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톱밥처럼 보이는 알갱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뒤진 범인이 이런 흔적을 남겼다고 확신합니다. 발자국이나 범인의 정체를 알 만한 다른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하던 차에, 마침 홈즈 씨가 이 도시에 와 계시다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곳으로 달려와 이 일을 맡기러 온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홈즈 씨. 제가 처한 곤경이 보이시겠지요? 범인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새 서류를 준비할 때까지 조사를 미뤄야만 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다시 준비하려면 반드시 해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은 물론이고 대학교 전체에 끔찍한 스캔들이 터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일을 조용하고 신중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사건을 살펴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해 드리지요."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사건은 아니군요. 서류를 받은 뒤에 누군가 방으로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까?"

"네, 같은 층에 사는 인도인 유학생 다울라트 라스가 시험에 관해 몇 가지 물어보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가 치르기로 되어 있던 시험 말입니까?"

"네."

"그 서류들은 당신의 탁자 위에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들을 돌돌 말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교정쇄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겠지요?"

"그럴지도 모르죠."

"방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니오."

"이 교정쇄들이 거기 있을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인쇄업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니스터라는 이 남자가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배니스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 정말 안 좋더라고요. 불쌍하게도 말이죠. 의자에 힘없이 쓰러지듯 앉혀두고 급히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문을 열어두고 나갔단 말인가요?"

"서류부터 먼저 잠가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되겠군요, 솜스 씨. 그 인도인 학생이 교정쇄를 교정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교정쇄를 건드린 자는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우연히 마주쳤다는 뜻이 됩니다."

"내 생각도 그렇네."

홈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자," 그가 말했다. "한번 돌아보자고. 왓슨, 이번 건은 자네가 맡았던 사건들과는 전혀 다르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두뇌 싸움이지. 좋네, 원한다면 같이 가세나. 자, 솜스 씨—저는 준비됐으니, 안내해 주시죠!"

의뢰인의 거실에는 길고 낮은 격자창이 있었는데, 그 창 너머로 이끼가 내려앉은 오래된 대학 교정의 안뜰이 보였다. 고딕 양식의 아치형 문을 지나면 닳고 닳은 돌계단이 이어졌다. 1층에는 튜터의 방이 있었고, 그 위층으로는 각 층마다 학생이 한 명씩 머물고 있었다. 우리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황혼이 깔리고 있었다. 홈즈는 걸음을

멈추더니 창문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고는 창가로 다가가 까치발을 들고 목을 길게 뺀 채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문을 통해 들어왔을 겁니다. 유리창 한 칸을 뺀다면 다른 통로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박식한 안내자가 말했다.

"이런!" 홈즈가 외쳤다.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일행을 슬쩍 쳐다보았다. "글쎄, 여기서 더 알아낼 게 없다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군."

강연자가 바깥문을 열고 우리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가 입구에 서 있는 동안, 홈즈는 카펫을 살피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여기엔 아무런 흔적이 없군요." 홈즈가 말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단서가 나오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인분은 완전히 회복된 모양이군요. 그를 의자에 앉혀 두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자였습니까?"

"저기 창가에 있네."

"알겠습니다. 이 작은 탁자 근처군요. 이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카펫 조사는 끝났으니까요. 우선 이 작은 탁자부터 살펴봅시다.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범인은 안으로 들어와 중앙 탁자에 있던 서류들을 한 장씩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창가 쪽 탁자로 옮겨 놓았죠. 그래야만 당신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것을 확인하고 도망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사실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소움즈가 말했다. "제가 옆문을 통해 들어갔거든요."

"아, 다행이군요! 어쨌든 그놈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종이 세 장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문은 없군요. 역시 그렇군요! 자, 보십시오. 이 종이를 먼저 가져가서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주 빠르게 작업한다 해도, 이 정도 분량을 옮기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15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이를 던져두고 다음 종이를 집어 들었겠지요. 그는 두 번째 종이를 작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돌아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아주 급히 도망쳤던 겁니다. 아주 급하게 말이죠. 자신이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들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도망칠 정도로 말입니다.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는 발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랬다고는 말할 수 없군요."

"보세요, 그는 연필이 부러질 정도로 맹렬하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관찰했듯이 연필을 다시 깎아야 했죠. 왓슨,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연필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보통보다 크기가 컸고 심은 부드러웠습니다. 겉면은 짙은 파란색이었고, 제조사 이름은 은색 글자로 인쇄되어 있었죠. 게다가 남은 조각은 고작 1.5인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솜스 씨, 이런 연필을 찾아낸다면 범인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그가 크고 무딘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진다면, 범인을 찾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겠지요."

솜즈 씨는 쏟아지는 정보의 양에 다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다른 점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정말로, 이 길이에 관한 문제만큼은——"

홈즈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NN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나무 면이 이어져 있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순간조차——"

"왓슨, 내가 자네를 항상 과소평가했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이 NN은 대체 뭘까? 단어 끝에 붙어 있군. 요한 파버(Johann Faber)가 가장 흔한 제조사 이름이라는 건 자네도 알고 있겠지. 그렇다면 '요한' 뒤에 평소처럼 연필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닌가?"

홈즈는 작은 탁자를 전기등 쪽으로 비스듬히 돌렸다.

"그가 글을 쓴 종이가 얇다면, 이 매끄러운 표면에 흔적이 남지 않을까 기대했네만, 아니군.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서 더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네. 이제 중앙 탁자로 가세."

"이 작은 덩어리가 자네가 말했던 그 검고 끈적한 물질이겠지. 대략 피라미드 모양인데, 안이 파여 있는 게 보이는군. 자네 말대로 톱밥 알갱이들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말 흥미롭군. 그리고 이 자국은—확실히 찢겨 나갔군. 얇은 긁힘으로 시작해서 들쭉날쭉한 구멍으로

끝났어. 소옴스 씨,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문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제 침실로요."

"그 모험을 겪은 뒤로 그곳에 가본 적이 있나?"

"아니요, 당신을 만나러 곧장 달려왔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싶군요. 참으로 매력적이고 고풍스러운 방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바닥을 좀 살펴볼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군요. 이 커튼은 어떻습니까? 옷을 걸어 두는 곳이지요. 만약 누군가 이 방에서 몸을 숨겨야 한다면 분명 이곳을 택했을 겁니다. 침대는 너무 낮고 옷장은 너무 얕으니까요. 거기에도 아무도 없겠지요?"

홈즈가 커튼을 젖히자, 그의 자세가 평소보다 다소 뻣뻣하고 경계하는 듯한 것을 보고 나는 그가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하지만 막상 커튼을 걷어보니, 옷걸이에 걸린 서너 벌의 옷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바닥을 향해 몸을 숙였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그가 외쳤다.

그것은 검고 찰흙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작은 피라미드 모양이었다. 서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습이었다. 홈즈는 전등의 밝은 빛 아래에서 손바닥을 펼쳐 그 물질을 들어 보였다.

"소움즈 씨, 방문객이 거실뿐만 아니라 침실에도 흔적을 남겨둔 모양이군요."

"그가 거기서 무엇을 원했을까?"

"충분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돌아왔으니, 그는 당신이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만한 것들을 서둘러 챙긴 뒤, 몸을 숨기려고 당신의 침실로 뛰어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홈즈 씨! 그러니까 제가 이 방에서 배니스터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우리가 눈치만 챘더라면 바로 그 범인을 붙잡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홈즈 씨. 제 침실 창문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격자무늬가 있는 납 틀의 창문이 세 개 있었다. 그중 하나는 경첩으로 연결되어 열 수 있는 구조였고, 성인 남자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족히 컸다."

"정확합니다. 게다가 그 창문은 안뜰의 모퉁이를 향하고 있어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지요. 범인은 그곳으로 침입했을 겁니다. 침실

을 가로지르며 흔적을 남긴 뒤, 열려 있는 문을 발견하고는 그 길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홈즈는 참을성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홈즈가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 계단을 이용하는 학생이 세 명이고, 그들이 습관적으로 당신의 방문 앞을 지나간다는 뜻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전부 이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들 중 유독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더 수상쩍게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소엄스는 망설였다.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군요." 그가 말했다.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의심을 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부터 말해 보시오. 증거는 내가 확인하겠소."

"그럼 이 방에 머무는 세 사람의 성격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지요. 세 사람 중 맨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길크리스트입니다. 학업과 운동 모두 뛰어난 인재로, 대학 럭비팀과 크리켓팀에서 활약하고 있지요.

허들과 멀리뛰기에서는 대학 대표(Blue)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아주 건장하고 늠름한 청년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경마로 가산을 탕진한 악명 높은 제이비즈 길크리스트 경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학생은 아주 가난한 처지가 되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친구입니다. 분명 잘 해낼 거예요."

"2층에는 인도인 다울랏 라스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지요. 대개 인도인들이 그렇듯 말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좀 서툴지만, 자기 일에는 아주 능숙합니다. 성격도 침착하고 체계적이고요."

"꼭대기 층은 마일스 맥라렌의 방입니다. 그 친구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명석한 친구예요. 대학에서 손꼽히는 수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멋대로인 데다 방탕하고, 도덕 관념도 전혀 없습니다. 1학년 때는 카드 도박 스캔들 때문에 퇴학당할 뻔하기도 했죠. 이번 학기 내내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낸 터라, 다가올 시험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당신이 의심하는 사람이 바로 그자란 말입니까?"

"그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중에서는 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르겠군요."

"정확합니다. 자, 소옴스 씨, 이제 당신의 하인 배니스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쉰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얼굴이 창백하고 수염을 깔끔하게 깎은 왜소한 체격의 사내였다. 거친 백발이 섞인 머리칼이 특징이었다. 그는 평온하던 일상이 갑작스럽게 뒤흔들린 탓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통통한 얼굴은 초조함으로 경련하듯 떨렸고, 손가락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찔거렸다.

"배니스터, 우리는 이 불행한 사건을 조사 중이라네." 주인님이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듣자하니," 홈즈가 말했다. "열쇠를 문에 꽂아둔 채로 나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류들이 들어있던 바로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이지 너무나 기이한 우연 아닙니까?"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도 예전에 가끔은 똑같은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언제 방에 들어왔습니까?"

"네 시 반쯤 되었을 겁니다. 소옴스 씨가 차를 마시는 시간이죠."

"얼마나 머무셨습니까?"

"그가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즉시 물러났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이 서류들을 보았나?"

"아닙니다, 선생님. 결코 아닙니다."

"어쩌다 열쇠를 문에 꽂아둔 채로 나오셨습니까?"

"찻쟁반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열쇠를 가지러 다시 돌아올까 생각했죠. 그러다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깥문에는 스프링 잠금장치가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그 문은 내내 열려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솜스 씨가 돌아와서 당신을 찾았을 때, 무척 당황하셨던 건가요?"

"네, 선생님. 제가 여기서 일해 온 수많은 세월 동안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어디에 있었죠, 선생님? 아, 여기 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건 참 이상하군요. 저기 구석 쪽 의자에 앉으셨으면서, 왜 다른 의자들은 그냥 지나치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앉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그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홈즈 씨. 안색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정말 창백하다 못해 유령 같았습니다."

"주인이 떠난 뒤에도 여기 남았단 말인가?"

"잠시 동안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문을 잠그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누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학에는 그런 행동을 해서 이득을 볼 만한 신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을 겁니다."

"고맙소, 그 정도면 충분하오." 홈즈가 말했다. "아, 한 가지만 더 묻겠소. 당신이 모시는 세 신사분께는 아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소?"

"아닙니다, 선생님.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보지 못했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그럼 솜스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함께 안뜰을 좀 걷도록 하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위쪽으로 노란 빛을 내뿜는 세 개의 사각형 창문이 보였다.

"세 마리 새가 모두 둥지에 잘 들어앉았군."

홈즈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라, 이게 뭐야? 그중 한 마리가 꽤 안절부절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인도인이었다. 블라인드 너머로 그의 검은 실루엣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방 안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싶군." 홈즈가 말했다. "가능하겠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소옴즈가 대답했다. "이 방들은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라 방문객들이 둘러보는 일이 꽤 잦습니다. 자, 따라오시지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묻지 말게!"

길크리스트의 집 문을 두드리며 홈즈가 말했다. 키가 크고 금발에 날씬한 청년이 문을 열었다. 우리가 온 목적을 알아차린 청년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는 중세 양식의 독특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홈즈는 그중 하나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수첩에 그것을 그려 넣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러다 연필심이 부러지자 주인에게 연필을 빌렸고, 결국 연필을 깎기 위해 칼까지 빌려야 했다.

이런 기묘한 소동은 인도인의 방에서도 반복되었다. 그곳의 주인은 작고 조용한 체구에 매부리코를 가진 사내였다. 그는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는데, 홈즈의 건축물 스케치가 끝나자 눈에 띄게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 방문 모두에서 홈즈가 찾고 있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세 번째 방문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발걸음은 허사가 되었다. 겉문을 두드렸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문 너머에서는 거친 욕설만 쏟아져 나왔다.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어! 당장 꺼져버려!" 화가 난 목소리가 고함을 질렀다. "내일이 시험이란 말이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거야."

"무례한 자로군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안내인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물론 제가 문을 두드린 줄은 몰랐겠지만, 그렇다 해도 태도가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다니, 사실 의심스럽기까지 하군요."

홈즈의 반응은 기묘했다.

"그의 키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정말이지, 홈즈 씨,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인도인보다는 키가 크지만, 길크리스트만큼 크지는 않아요. 제 짐작으로는 5피트 6인치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럼 소옴스 씨, 이만 안녕히 가십시오."

안내인은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소리쳤다. "맙소사, 홈즈 씨! 설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를 버려두고 가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내일이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험 문제 중 하나라도 손을 댄 흔적이 있다면, 시험을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들러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그때쯤이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바꾸지 마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홈즈 씨."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요. 검은 진흙과 연필 깎은 조각들도 제가 챙겨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두운 안뜰로 나온 우리는 다시 한번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인도인은 여전히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자,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대로로 나서자 홈즈가 물었다.

"그저 사소한 거실 놀이 같지 않은가? 일종의 삼장 카드 마술 같은 것 말이야. 여기 세 명의 남자가 있네. 범인은 분명 이들 중 하나겠지. 자, 한번 골라보게. 자네는 누구를 선택하겠나?"

"맨 위층의 그 입 거친 놈 말이야. 전과가 가장 화려한 자가 바로 그 자지. 하지만 그 인도인 역시 만만치 않은 교활한 놈이었어. 그런데 왜 그는 내내 방 안을 서성거렸던 걸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통째로 외우려 할 때라면 많은 사람이 흔히 그러곤 하니까요."

"그는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네."

"다음 날 시험을 앞두고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인데, 웬 낯선 무리가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당신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는 딱히 이

상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연필이나 칼 같은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요. 하지만 그 친구라는 사람만큼은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누구입니까?"

"아니, 배니스터 말이야. 그 하인 말이지. 이 사건에서 그놈의 속셈이 대체 뭐지?"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내게도 그런 인상을 주었지. 바로 그 점이 수수께끼야. 도대체 왜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아, 잠시만. 여기 커다란 문구점이 있군.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지."

그 도시에서 제법 이름 있는 문구점은 네 곳뿐이었다. 홈즈는 그곳들을 하나씩 돌며 연필 조각들을 내보였고, 똑같은 연필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높은 값을 치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구점 주인들은 하나같이 주문을 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흔히 쓰이는 크기가 아니라 평소에는 재고를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 친구는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한 기색은 아니었다. 그저 반쯤은 농담 섞인 체념을 담아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소용없네, 왓슨.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마지막 단서였던 이것이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군. 하지만 이것 없이도 충분한 증거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네. 이런, 여보게! 벌써 9시가 다 되었어. 집주인 아주머니가 7시 반부터 완두콩 이야기를 떠들어대던데 말이야.

자네의 그 끊임없는 흡연과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보니, 조만간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을 것 같군. 나도 자네와 운명을 같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전에, 신경질적인 가정교사와 부주의한 하인, 그리고 야심 찬 세 명의 학생이 얽힌 이 사건부터 해결해야겠지."

그날 홈즈는 그 문제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내가 막 세수를 마치자 홈즈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자, 왓슨," 그가 말했다. "이제 세인트 루크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라네. 아침 식사 없이도 괜찮겠나?"

"물론입니다."

"확실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때까지 소옴스는 안절부절못하며 괴로워할 걸세."

"그에게 전해줄 확실한 사실이 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네, 친애하는 왓슨,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네."

"하지만 대체 어떤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말입니까?"

"아하! 이 이른 새벽 여섯 시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보람이 있군. 두 시간 동안 쉼 없이 몰두한 끝에 적어도 5마일은 움직였고, 마침내 수확도 얻었으니 말이야. 자, 이것 좀 보게!"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 위에는 검고 끈적한 진흙으로 만든 작은 피라미드 세 개가 놓여 있었다.

"아니, 홈즈, 어제는 딱 두 개뿐이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 더 들어왔네. 3번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1번과 2번의 출처도 알 수 있다는 건 타당한 논리야. 안 그런가, 왓슨? 자, 어서 가세나. 소옴스 친구의 고통을 끝내 주어야지."

우리가 그를 방에서 발견했을 때, 불운한 가정교사는 분명 비참할 정도로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뒤면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그는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사실을 세상에 밝힐 것인지, 아니면 범인이 그 값비싼 장학금을 놓고 경쟁하게 내버려 둘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정신적인 동요가 너무나 심했던 탓에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는 간절함을 담아 두 손을 내밀며 홈즈를 향해 달려왔다.

"하늘이 도우셨군요, 와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절망에 빠져 아예 포기해 버리신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이제 전 어쩌면 좋죠?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이 악당이 대체—?"

"그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를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마치 소규모 비공개 군사 재판이라도 열듯 결연히 임해야 하네. 거기 소옴스, 이쪽으로 오게! 왓슨, 자네는 여기 앉게나! 가운데 안락의자는 내가 차지하겠네. 이 정도면 죄를 지은 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히 위엄 있는 모습이 되었을 것 같군. 자, 어서 벨을 울려 주게!"

배니스터가 들어오다가, 마치 재판이라도 열린 듯한 우리의 엄숙한 모습에 눈에 띄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자, 배니스터 씨.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남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질려버렸다.

"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더 보탤 말씀은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야겠군요. 어제 그 의자에 앉으실 때, 혹시 누군가 이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숨기려던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배니스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제 추측일 뿐입니다." 홈즈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솜스 씨가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침실에 숨어 있던 남자를 풀어주었으니까요."

배니스터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 그거 참 안타깝군, 배니스터. 지금까지는 자네가 진실을 말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네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겠네."

남자의 얼굴에는 울컥 치미는 반항심이 서렸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어서, 어서 오게, 배니스터!"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저희에게 알려주실 정보는 없겠군요. 잠시 이 방에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저기 침실 문 근처에 서 계십시오. 자, 소옴스 씨, 번거로우시겠지만 젊은 길크리스트 군의 방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당신의 방으로 내려와 달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가정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돌아왔다. 학생은 키가 크고 날렵하며 민첩한 체격을 가진 건장한 청년이었다. 걸음걸이에는 활기가 넘쳤고, 인상은 시원시원하고 보기 좋았다. 근심 어린 푸른 눈동자가 우리를 차례로 훑더니, 마침내 저편 구석에 서 있는 배니스터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망연자실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 좀 닫아 주게." 홈즈가 말했다. "자, 길크리스트 씨, 이제 여기엔 우리뿐이라네. 우리 사이에 오가는 말은 그 누구도 알 필요가 없지. 그러니 서로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 길크리스트 씨, 당신처럼 명예로운 분이 어째서 어제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네."

불운한 청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고는 공포와 원망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배니스터를 쏘아보았다.

"아닙니다, 길크리스트 씨,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마디도요!" 하인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선생님, 배니스터의 말을 들은 이상 이제 당신의 처지는 절망적이라는 사

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뿐입니다."

길크리스트는 손을 치켜든 채, 일그러지는 얼굴을 억누르려 잠시 애를 썼다. 그러더니 이내 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는 격정적인 흐느낌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자, 자, 진정하세요." 홈즈가 다정하게 말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적어도 당신을 냉혈한 범죄자라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차라리 제가 솜스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설명하는 편이 당신에게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때 바로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제가 당신을 억울하게 몰아세우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솜스 씨, 배니스터를 포함해 그 누구도 서류가 당신의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이 사건의 윤곽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쇄업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인도인 역시 별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정쇄가 돌돌 말려 있었다면, 그가 내용물을 알 방법은 전혀 없었을 테니까요. 반면, 어떤 사람이 감히 그 방에 침입했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날 서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든 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자는 서류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의 방에 다가갔을 때, 나는 창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대낮에 저 건너편 방들의 시선을 피해 누군가 창문으로 침입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믿었더군요. 덕분에 재미있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확인하려 했던 건, 지나가면서 중앙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려면 남자가 어느 정도의 키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내 키는 6피트인데, 나조차도 꽤 애를 써야 가능한 높이였습니다. 그보다 키가 작다면 성공할 가망이 전혀 없지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당신의 제자 세 명 중 유독 키가 큰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는, 옆 탁자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당신에게 내 생각을 털어놓았지요. 중앙 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길크리스트를 설명하며 그가 멀리뛰기 선수였다는 말을 꺼냈을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는 확신을 줄 만한 몇 가지 증거만 필요했을 뿐이고, 그 증거들은 곧바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젊은이는 오후 내내 운동장에서 도약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마친 그는 점프용 신발을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아시다시피 그 신발에는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그는 키가 워낙 커서 당신의 창문을 지나칠 때 탁자 위에 놓인 그 증거물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문을 지나치다 하인이 부주의하게 남겨둔 열쇠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정말

증거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위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들키더라도 그저 질문을 하러 잠시 들렀을 뿐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니까요."

"그가 그것들이 진짜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두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죠. 당신은 창가 근처 의자에 무엇을 올려두었습니까?"

"장갑입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홈즈는 승리감에 도취한 눈빛으로 배니스터를 바라보았다.

"그는 의자 위에 장갑을 벗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교정쇄를 한 장씩 가져가서 베껴 쓰기 시작했죠. 그는 가정교사가 정문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마주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옆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문 바로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장갑은 챙기지 못했지만 신발만큼은 낚아채듯 신고 침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 탁자 위에 난 긁힌 자국을 보십시오. 한쪽은 얕지만 침실 문 방향으로 갈수록 깊어집니다. 이 흔적만으로도 신발이 그 방향으로 끌려갔으며, 범인이 그곳으로 몸을 숨겼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신발 스파이크 둘레에 묻어 있던 흙이 떨어져 있었고, 침실 안에서는 두 번째 흙이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오늘 아침 운동장에 나갔다가 도약 구덩이에 쓰이는 끈적한 검은 진흙

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뿌려둔 고운 탄(tan)이나 톱밥을 함께 챙겨와서 샘플로 가져왔지요.

길크리스트 씨, 제 말이 사실입니까?"

그 학생은 자세를 바로 세웠다.

"네, 선생님. 사실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맙소사!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소옴즈가 외쳤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치욕스러운 사실이 드러난 충격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솜스 씨, 여기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오늘 새벽에 당신께 쓴 것입니다. 제 죄가 탄로 났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디지아 경찰 임관 제의를 받아, 즉시 남아프리카로 떠날 예정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소옴즈가 말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바꾼 겁니까?"

길크리스트가 배니스터를 가리켰다.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라네." 그가 말했다.

"자, 배니스터 씨." 홈즈가 말했다. "내 설명을 들었으니 이제 알겠지. 방 안에 남겨진 사람은 당신뿐이었고, 나갈 때 문을 잠근 것도 당신뿐이었으니, 이 청년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야. 이 미스터리의 마지막 의문점만이라도 좀 풀어줄 수 없겠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말해주게."

"선생님께서 아셨더라면 아주 간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석하신 분이라 해도 도저히 아실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이 젊은 신사분의 부친이신 고(故) 제이비스 길크리스트 경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께서 파산하신 뒤, 저는 이 대학의 하인으로 들어왔지요. 하지만 옛 고용주께서 몰락하신 것이 안타까워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날의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분의 아드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선생님, 어제 제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의자 위에 놓인 길크리스트 씨의 갈색 장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갑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 장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만약 솜스 씨가 그 장갑을 본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판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솜스 씨가 선생님을 모셔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러자 제가 무릎에 앉혀 키우다시피 했던 불쌍한 어린 주인님이 밖으로 나오셨고, 제게 모든 사실을 자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를 구하려 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죽은 아버지가 그랬을 것처럼 그에게 말을 건네며, 그런 짓을 저질러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 한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저를 탓하실 수는 없으시겠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홈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활기차게 말했다.

"자, 솜스 씨. 당신의 그 작은 문제는 이제 해결된 것 같군요. 이제 집에 가면 아침 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세, 왓슨! 그리고 손님, 당신에게는 로디지아에서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한 번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금테 코안경

황금색 코안경의 모험

189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결한 사건들이 담긴 세 권의 방대한 원고 뭉치를 보고 있으면, 나는 솔직히 고민에 빠지곤 한다. 이토록 풍성한 기록 속에서, 사건 그 자체로도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내 친구의 그 독보적인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골라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붉은 거머리에 관한 혐오스러운 이야기나 은행가 크로스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적어둔 내 메모가 눈에 들어온다. 애들턴 가문의 비극과 고대 영국 고분에서 발견된 기묘한 유물들에 관한 기록도 보인다. 유명한 스미스-모티머 상속 사건도 이 시기에 해당하며, 대로(大路)의 암살자 휴렛을 추적해 체포한 사건도 이 기간의 기록에 들어 있다. 이 사건은 홈즈가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서한을 받고 레지옹 도뇌르 훈장까지 받게 해준 눈부신 업적이었다.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요클리 올드 플레이스에서 벌어진 일만큼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사건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사건에는 젊은 윌러비스미스의 안타까운 죽음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를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밝혀낸 이후의 전개 과정까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11월 말엽, 거칠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저녁 내내 홈즈와 나는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홈즈는 강력한 렌즈를 들여다보며 덧쓰인 양피지 위에 남은 원래의 글귀를 해독하는 데 몰두했고, 나는 최근에 나온 외과 수술 논문을 깊이 읽고 있었다. 창밖 베이커가에는 바람이 울부짖었고, 빗줄기는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려댔다. 사방 십 마일이 온통 인간의 손길로 만들어진 이 도심 한복판에서, 대자연의 거대한 위력을 느끼는 것은 기묘한 경험이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런던이라는 거대 도시조차 들판에 흩어진 두더지 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실감 났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텅 빈 거리를 내다보았다. 가끔씩 켜진 가로등 불빛이 진흙탕이 된 도로와 젖은 보도 위로 번져 나갔다. 옥스퍼드 스트리트 쪽에서 마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자, 왓슨. 오늘 밤은 차라리 나가지 않는 게 다행이겠어."

홈즈가 돋보기를 내려놓고 덧쓰인 양피지 두루마리를 말아 올리며 말했다.

"한 번 앉아서 할 만큼 했네. 눈이 빠질 것 같군.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15세기 후반의 어느 수도원 회계 장부보다 더 흥미로운 내용은 아니야. 어라! 어라! 이게 대체 뭐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마차 바퀴가 연석을 긁으며 길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보았던 그 마차가 우리 집 문 앞에 멈춰 선 것이다.

"그가 대체 무엇 때문에 온 거지?" 한 남자가 안에서 걸어 나오자 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필요하다니? 그가 필요한 건 우리야. 그리고 우리, 나의 불쌍한 왓슨, 우리에게 필요한 건 코트와 넥타이, 갤로시, 그리고 인간이 날씨와 맞서 싸우기 위해 발명해 낸 온갖 물건들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게! 저기 마차가 다시 출발하네! 아직 희망이 있어. 만약 그가 정말 우리를 불러들이려 했다면 마차를 세워두었을 테니까. 자, 어서 내려가서 문 좀 열어주게, 친구. 선량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잠자리에 들었을 테니 말이야."

복도 등불이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비추었을 때, 나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촉망받는 젊은 형사 스탠리 홉킨스였다. 홈즈는 그동안 그의 경력에 관심을 두고 여러 차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그가 안에 있습니까?" 그가 간절하게 물었다.

"어서 올라오시게, 선생." 위쪽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밤에 우리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길 바라네."

탐정이 계단을 올라오자, 우리가 든 등불 빛이 그의 번들거리는 방수 코트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내가 그가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홈즈는 벽난로 속의 장작에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자, 이보게 호프킨스, 어서 와서 앉아 발 좀 녹이게나." 홈즈가 말했다. "여기 시가도 있네. 그리고 왓슨 박사가 따뜻한 물에 레몬을 띄운 처방을 준비해 두었으니, 이런 밤에는 그게 아주 좋은 약이 될 거야. 이 거센 폭풍우를 뚫고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라면, 분명 중요한 일이 생긴 모양이군."

"정말 그렇습니다, 홈즈 씨. 오늘 오후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혹시 최근에 나온 신문에서 요슬리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본 것 중에는 15세기 이후의 것이 하나도 없군."

"글쎄요, 겨우 한 단락뿐이었고 내용도 완전히 틀렸으니 놓친 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체할 시간도 없었고요. 사건은 켄트주에 있습니다. 채텀에서 7마일, 철도역에서는 3마일 떨어진 곳이죠. 3시 15분에 전보를 받고 출발해서 5시에 요슬리 올드 플레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 열차를 타고 채링 크로스 역으로 돌아왔고, 곧장 마차를 타고 당신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을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뜻이군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다뤄본 그 어떤 사건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해서 실수할 일조차 없어 보였는데 말입니다. 홈즈 씨, 동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를 괴롭히는군요. 도저히 동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을 해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홈즈는 시가에 불을 붙이고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그 이야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말했다.

"사실관계는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스탠리 홉킨스가 말했다.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모든 정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 이곳 요슬리 올드 플레이스라는 저택에 코람 교수라는 성함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 시간의 절반은 침대에 누워 지냈고, 나머지 절반은 지팡이에 의지해 집 안을 절뚝거리며 다니거나 정원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를 방문하는 이웃들은 몇 안 되었지만 모두 그를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학식이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집안 식구는 노년의 가정부 마커 부인과 하녀 수잔 탈턴, 이렇게 둘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수가 이곳에 온 이후 줄곧 함께 일해

왔으며, 성품도 아주 훌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는 학술 서적을 집필 중인데, 약 1년 전쯤 서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처음 고용한 두 명은 적임자가 아니었지만, 세 번째로 고용한 윌러비 스미스라는 청년은 딱 교수가 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아주 젊은 친구였죠. 스미스의 업무는 오전 내내 교수가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이었고, 저녁에는 보통 다음 날 작업에 필요한 참고 문헌이나 구절을 찾아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윌러비 스미스라는 청년은 업핑엄 학교에 다닐 때나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이나 딱히 문제 될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확인해 보았는데, 처음부터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결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 청년이 오늘 아침, 교수님의 서재에서 살인 사건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으며 창문을 거칠게 때려댔다. 홈즈와 나는 벽난로 가까이 몸을 붙였다. 그사이 젊은 경위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영국 전역을 다 뒤져본다 해도," 그가 말했다. "이보다 더 폐쇄적이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집은 찾기 힘들 겁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정원 문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니까요. 교수는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며 그 외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젊은 스미스도 이웃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고용주와 거의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두 여성 역시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전혀 없었고요. 휠

체어를 미는 정원사 모티머는 군인 연금 수급자로, 크림 전쟁을 겪은 노병인데 성품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는 저택에 살지 않고 정원 반대편 끝에 있는 방 세 개짜리 오두막에 삽니다. 요슬리 올드 플레이스 부지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원 문은 런던에서 채텀으로 이어지는 큰길에서 불과 100야드 거리에 있습니다. 문은 걸쇠로만 잠겨 있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수잔 탈턴의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위층 앞쪽 침실에 커튼을 달고 있었습니다. 코람 교수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정오가 되기 전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사 도우미는 집 뒤편에서 일을 하느라 바빴고요. 윌로비 스미스는 거실로 쓰고 있는 자신의 침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녀의 말에 따르면, 그 순간 그가 복도를 지나 바로 아래층에 있는 서재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녀가 그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빠르고 확신에 찬 그 발소리만큼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듣지 못했으나, 1분 정도 지나자 아래층 방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하고 거친 비명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낡은 저택이 흔들릴 만큼 무거운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녀는 잠시 겁에 질려 굳어 있다가, 용기를 내어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서재 문은 닫혀 있었고, 그녀가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윌로비 스미

스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상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를 일으키려던 하녀는 그의 목 아래쪽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에는 아주 작지만 매우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경동맥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상처를 입힌 흉기는 그의 곁 카펫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식 책상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아 손잡이가 달린 작고 날카로운 인장용 칼이었습니다. 바로 교수의 책상에 비치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녀가 젊은 스미스가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카라프에 담긴 물을 그의 이마에 조금 부어주자, 그는 아주 잠깐 눈을 떴습니다. '교수님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였어.' 하녀는 그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다고 맹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다른 말을 더 하려 애쓰며 오른손을 허공으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다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사이 가정부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청년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순간은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수잔을 시신 곁에 남겨둔 채 서둘러 교수의 방으로 향했다. 교수는 침대에 상체를 일으킨 채 몹시 동요하고 있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만큼 충분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마커 부인은 교수가 여전히 잠옷 차림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실제로 12시에 오기로 되어 있던 모티머의 도움 없이는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교수는 멀리서 비명 소리를 들었을 뿐,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년이 남긴 마지막 말인 “교수님—그 여자였어요”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다. 다만 그 말이 섬망 상태에서 나온 말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그는 윌러비 스미스에게 원한을 살 만한 적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믿으며, 이번 범죄의 동기 또한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교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원사 모티머를 보내 지역 경찰을 불러오게 한 것이었다. 잠시 후 경찰서장이 나를 불렀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의 그 무엇도 옮겨지지 않았으며, 저택으로 이어지는 길로는 누구도 걷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셜록 홈즈 씨, 당신의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 볼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이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현장이었으니까요.

"셜록 홈즈 씨만 빼고 말이지."

동행인이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홈즈 씨, 먼저 이 대략적인 도면을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의 서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요 지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제 수사 내용을 따라오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는 거친 종이로 된 지도를 펼쳐 홈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홈즈의 뒤에 서서, 그의 어깨 너머로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교수의 서재

"물론 아주 거칠게 정리한 것이라, 내가 보기에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만 다루었네.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직접 확인하게 될 거야. 자, 우선 가정해 보세. 살인범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친다면, 대체 어떤 경로로 들어왔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정원 길을 지나 뒷문으로 들어왔을 것이네. 그 문은 서재와 바로 연결되어 있지. 다른 길을 택했다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졌을 테니까. 도주 경로 역시 같은 길이었을 것이네. 서재의 다른 출구 두 곳 중 하나는 수잔이 계단을 뛰어 내려가느라 막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교수의 침실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즉시 정원 길로 시선을 돌렸네. 최근에 내린 비로 땅이 흠뻑 젖어 있었으니, 발자국이 분명히 남아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

"현장을 조사해 보니 상대는 매우 신중하고 노련한 범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길 위에는 발자국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길옆에 깔린 잔디밭을 밟고 지나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뚜렷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으나, 잔디가 짓눌린 상태로 보아 분명 누군가 지나간 것이 틀림없었다. 그 범인은 살인범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아침에는 정원사나 다른 누구도 그곳에 간 적이 없었고, 비는 밤사이에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홈즈가 말했다.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도로로 이어집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백 야드 정도 됩니다.”

"길이 문을 통과하는 지점이라면, 분명히 발자국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 지점은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 길 위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니요, 발길에 짓밟혀 온통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쯧쯧, 그렇다면 잔디 위에 남은 이 발자국들은 들어올 때 생긴 건가, 아니면 나갈 때 생긴 건가?"

"말할 수 없었네. 윤곽조차 전혀 잡히지 않았으니까."

"발이 큰 편인가요, 아니면 작은 편인가요?"

"당신은 구별하지 못했을 겁니다."

홈즈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 짧게 탄식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도 허리케인처럼 몰아치고 있네." 그가 말했다. "이러니 아까 본 그 겹쳐 쓴 양피지보다 글자를 읽기가 더 힘들겠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홉킨스, 아무것도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자네는 대체 뭘 했나?"

"꽤 많은 것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홈즈 씨. 누군가 외부에서 집 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왔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다음

에는 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복도에는 코코넛 매트가 깔려 있었지만, 어떤 발자국이나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서재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재는 가구가 거의 없는 단출한 방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물건은 고정식 서랍장이 달린 커다란 책상이었습니다. 이 서랍장은 두 줄의 서랍이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사이 중앙에 작은 수납장이 하나 있는 형태였습니다.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지만, 수납장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서랍들은 평소에도 항상 열어두는 모양이었고, 그 안에는 딱히 값나가는 물건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납장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몇 장 있었지만,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은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셨고요. 그러니 강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젊은이의 시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신은 서랍장 근처, 정확히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서랍장 바로 왼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창은 목 오른쪽 부위에서 뒤쪽을 향해 앞쪽으로 찔린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자해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칼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게 아니라면 말이지." 홈즈가 말했다.

"정확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이 시신에서 몇 피트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니,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죽어가는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있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이의 오른손에 꽉 쥐여 있던 아주 중요한 증거물도 있었습니다."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냈다. 꾸러미를 펼치자 금색 핀스네(pince-nez)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경 끝에는 끊어진 검은색 실크 끈 두 가닥이 대롱거리고 있었다.

"윌러비 스미스는 시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홉킨스가 덧붙였다. "이 안경은 범인의 얼굴이나 몸에서 낚아챈 것이 분명합니다."

셜록 홈즈는 안경을 손에 들고 지극히 세심하고 흥미롭다는 듯 살펴보았다. 그는 안경을 코에 걸치고 그 너머로 글자를 읽으려 애써 보기도 했고, 안경을 쓴 채 창가로 다가가 거리 쪽을 응시하기도 했다. 또한 램프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안경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껄껄 웃으며 탁자에 앉았다. 그러고는 종이 한 장에 몇 줄을 적어 내려가더니 스탠리 홉킨스 쪽으로 휙 던졌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가 말했다. "아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경악한 경위가 그 쪽지를 소리 내어 읽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품격 있는 옷차림을 한, 교양 있는 여성을 찾습니다. 코가 유난히 뭉툭하고, 눈은 코 양옆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으며, 눈매는 무언가를 살피듯 매서운 인상입니다. 어깨는 아마도 굽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안경점을 적어도 두 번은 방문한 흔적이 있습니다. 안경 도수가 매우 높고 안경점도 그리 많지 않으니, 그녀를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홈즈는 호프킨스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내 얼굴에도 분명 그 놀라움이 그대로 드러났으리라.

"내 추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안경만큼 추론하기 좋은 물건도 드물지요. 특히 이 안경처럼 눈에 띄는 물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경의 모양이 섬세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가는 남자가 남긴 마지막 말로 미루어 보아, 이 안경의 주인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교양 있고 옷차림이 깔끔한 사람이라는 점도 알 수 있지요. 보시다시피 안경테가 순금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경을 쓰는 사람이 다른 면에서 지저분할 리는 만무합니다.

안경 코받침 부분이 당신의 코에 비해 너무 넓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여성의 코 밑부분이 아주 넓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코는 짧고 투박한 형태를 띠지만, 예외도 적지 않으니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이 점을 설명에 꼭 넣지는 않겠습니다. 제 얼굴은 폭이 좁은 편인데도 이 안경의 중심부 근처에도 눈을 맞추기가 어렵더군요. 따라서 이 여성은 눈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울 것입니다.

왓슨, 이 안경이 오목한 형태에 도수도 아주 높다는 사실을 눈치챘겠지요? 평생 시력이 이토록 극도로 나빴던 여성이라면 그 특징이 신체에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마나 눈꺼풀, 그리고 어깨의 형태에서 그런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네, 말씀하신 논리는 하나하나 다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안경점에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결론은 도무지 어떻게 도출하신 건지 모르겠군요."

홈즈는 안경을 손에 쥐었다.

"잘 보면 알겠지만," 홈즈가 말했다. "안경 코받침 부분에 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고 아주 작은 코르크 조각들을 덧대어 놓았군. 그중 하나는 색이 변하고 약간 마모되었지만, 다른 하나는 새것이야. 분명히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새로 교체한 모양이네. 낡은 쪽도 달린 지 몇 달은 채 되지 않았을 것 같군. 두 조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보니, 그 여성이 두 번째 안경을 맞출 때도 같은 가게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

"세상에, 정말 놀랍군요!" 홉킨스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외쳤다. "그 모든 증거가 내 손안에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런던의 안경점들을 전부 돌아다녀 볼 생각이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건 그렇고, 사건에 대해 더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홈즈 씨. 지금은 당신도 저만큼, 아니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시골길이나 기차역에서 낯선 이를 본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이 범죄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동기도 전혀 떠오르지 않거든요."

"아, 안타깝게도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처지가 못 되는군요. 하지만 내일 저희가 그곳으로 가길 바라시는 거죠?"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홈즈 씨. 아침 6시에 채링 크로스에서 채텀으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걸 타면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요클리 올드 플레이스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건을 맡도록 하죠. 의뢰하신 사건은 분명 흥미로운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기꺼이 조사해 보겠어요. 자, 벌써 1시가 다 되었군요.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벽난로 앞 소파라면 괜찮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코올 램프를 켜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지요."

다음 날 강풍은 잦아들었지만, 여정을 시작하는 아침은 몹시도 매서웠다. 우리는 템스강의 황량한 습지 위로 떠오르는 차가운 겨울 해를 보았다. 길게 뻗은 강줄기는 침울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저 강줄기를 볼 때마다 우리 경력 초기에 안다만 제도 출신 섬인을 쫓던 시절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길고 고단한 여정 끝에 우리는 채텀에서 몇 마일 떨어진 작은 역에 내렸다. 근처 여관에서 말에 마차를 연결하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쳤다. 덕분에 요클리 올드 플레이스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는 모든 채비를 끝낸 상태였다. 정원 문 앞에는 순경 한 명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 있었다.

"자, 윌슨, 뭐 좀 새로 들어온 소식 없나?"

"아닙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역 사람들의 말로는 어제 이곳을 오가거나 지나간 낯선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여관이나 숙박업소에 수소문은 해 보셨습니까?"

"예, 대장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글쎄요, 채텀까지는 걸어갈 만한 거리입니다. 누구든 눈에 띄지 않게 그곳에 머물거나 기차를 탈 수 있겠지요. 홈즈 씨, 이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정원 통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풀밭에 남은 자국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이쪽입니다, 선생님. 길과 화단 사이에 있는 이 좁은 잔디밭 말입니다. 지금은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제 눈에 아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맞아. 누군가 지나갔군."

홈즈가 잔디 경계선 쪽으로 몸을 굽히며 말했다.

"그 여인은 발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한쪽에는 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다른 한쪽에는 부드러운 화단 위에 훨씬 더 선명한 발자국을 남겼을 리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침착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홈즈의 얼굴에 무언가에 깊이 몰두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여자가 분명 이 길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선생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좁은 잔디밭 위에서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홈즈 씨."

"흠! 정말 놀라운 범행이었어. 아주 놀라워. 자, 이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살펴본 것 같군. 더 나아가 보세. 이 정원 문은 보통 열어 두는 편이지? 그렇다면 방문객은 그저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됐겠군. 살인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모양이야. 만약 그랬다면 책상 위에 놓인 이 칼을 집어 들 필요 없이, 미리 무기라도 챙겨왔겠지. 그녀는 코코넛 매트 위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이 복도를 따라 걸어왔어. 그러고는 이 서재에 도착했겠지. 그녀가 이곳에 얼마나 머물렀을까? 그건 알 길이 없군."

"불과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군요. 가정부인 마커 부인이 조금 전에 그곳을 정리하러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부인 말로는 한 15분 전쯤이었다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하면 범위를 좁힐 수 있겠군. 여인이 이 방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지? 바로 글 쓰는 책상으로 다가갔어. 왜 그랬을까?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찾으려고 온 게 아니야. 만약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었다면, 분명히 잠금장치를 해두었을 테니까. 아니, 저 나무 서랍장 안에 있는 무언가를 노린 거야. 잠깐, 저기 서랍장 앞면에 난 긁힌 자국은 뭐지? 왓슨, 성냥 좀 켜주게. 호프킨스 경위, 왜 이걸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

그가 조사하던 흔적은 열쇠구멍 오른쪽의 황동 장식에서 시작되었다. 그 흔적은 약 4인치 정도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표면의 니스칠이 긁혀 나가 있었다.

"홈즈 씨, 저도 그 점을 눈여겨보긴 했습니다만, 열쇠구멍 주변에는 늘 긁힌 자국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이건 최근에 생긴 겁니다. 아주 최근에요. 잘린 단면을 보세요, 황동이 이렇게나 반짝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흠집이라면 표면과 색이 같았을 겁니다. 내 렌즈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보세요, 쟁기질한 고랑 양옆에 흙이 쌓인 것처럼 바니시가 묻어 있기도 합니다. 마커 부인은 안에 계십니까?"

슬픈 기색이 역력한 노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제 아침에 이 서랍장을 닦았나?"

"예, 닦았습니다, 선생님."

"이 흠집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먼지떨이를 썼다면 이 바니시 조각들은 이미 다 쓸려 나갔을 테니까요. 이 서랍장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수는 그걸 회중시계 줄에 매달아 두고 다닌다네."

"그저 평범한 열쇠인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처브사의 열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커 부인,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이제야 조금씩 진척이 보이는군요.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 서랍장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서랍을 열거나, 열려고 시도하죠. 여인이 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젊은 윌러비 스미스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인은 서둘러 열쇠를 빼내려다 문에 이런 긁힌 자국을 남깁니다. 남자가 여인을 붙잡자, 여인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낚아챕니다. 마침 그게 이 칼이었고, 여인은 남자가 손을 놓게 하려고 그를 내리칩니다. 그 일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쓰러지고 여인은 도망칩니다. 목적을 달성했든 못 했든 말이죠. 하녀 수잔, 거기 있나? 수잔, 비명을 들은 직후에 누군가 저 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선생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계단을 내려오기 전이었다면 복도에 누군가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열렸다면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요."

"그럼 이쪽은 출구가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부인은 분명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갔을 겁니다. 이 다른 통로는 교수님의 방으로만 연결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쪽으로는 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직접 내려가서 그 교수를 만나보도록 하지. 이봐, 홉킨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교수의 복도에도 코코넛 매트가 깔려 있단 말일세."

"글쎄요, 선생님. 그게 뭐 어쨌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좋습니다. 굳이 우기지는 않겠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꽤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일단 저와 함께 가시죠. 그분을 직접 소개해주십시오."

우리는 정원으로 이어지는 통로와 길이가 같은 복도를 지나 내려갔다. 복도 끝에는 짧은 계단이 있었고, 그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안내인이 문을 두드리더니 우리를 교수의 침실로 안내했다.

방은 매우 넓었다. 벽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책이 꽂혀 있었는데, 책장이 넘쳐흐른 책들은 구석에 더미로 쌓여 있거나 책장 밑동을 따라

층층이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침대 위에는 베개에 몸을 기댄 채 집주인이 누워 있었다. 나는 그토록 인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 우리를 향해 돌아선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매부리코가 돋보였으며, 짙고 날카로운 눈동자는 툭 튀어나온 눈썹 아래 깊게 파인 눈구멍 속에 숨어 있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얗게 샜으나, 수염은 입 주변이 기묘하게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담배 불빛이 번뜩였고, 방 안에는 찌든 담배 연기 냄새가 역하게 진동했다. 그가 홈즈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의 손가락 역시 니코틴으로 노랗게 변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홈즈 씨, 담배 한 대 하시겠습니까?"

그는 정중하게 고른 영어로 말했으나, 묘하게 콧소리가 섞인 듯한 독특한 말투였다.

"부디 담배를 좀 드시지요. 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제가 특별히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이오니데스에게 특별히 주문해 둔 것이거든요. 한 번에 천 개씩 보내주곤 하는데, 안타깝게도 보름마다 새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지요. 아주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만, 노인에게 남은 즐거움이라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담배와 제 일, 이제 제게 남은 건 그것뿐입니다."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인 채, 방 안 여기저기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담배와 내 일, 그게 전부였네. 하지만 이제는 담배뿐이라네." 노인이 외쳤다. "아, 이 얼마나 치명적인 중단이란 말인가! 누가 이런 끔찍한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겠나?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장담컨대, 몇 달간 훈련을 거치고 나니 정말이지 완벽한 조수였다네. 홈즈 씨,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상황에서 빛을 비춰 주신다면, 정말이지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저처럼 가련한 독서광이자 병약한 사람에게 이런 충격은 정신을 마비시킬 정도니까요. 사고 능력마저 모두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행동하는 분이시지요. 실무에 능통한 분이기도 하고요. 당신에게 이런 긴급 상황은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노교수가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홈즈는 방 한쪽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성였다. 나는 그가 유난히 빠른 속도로 담배를 피워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홈즈 역시 우리를 맞이한 주인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산 신선한 담배를 즐기는 모양이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정말 뼈아픈 타격이지요." 노인이 말했다. "저기 옆 탁자 위에 쌓인 서류 더미가 바로 제 역작입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의 콥트교 수도원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물이지요. 이 연구는 계시 종교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대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

수가 떠나버린 지금, 쇠약해진 몸으로 이 일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홈즈 선생님! 세상에, 선생님은 저보다도 담배를 더 빨리 피우시는군요."

홈즈가 미소 지었다.

"나는 담배 애호가거든."

그는 상자에서 네 번째 담배를 꺼내 들며 말했다. 그러고는 방금 다 피운 담배의 남은 불씨로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코람 교수님, 긴 신문으로 번거롭게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범행 당시 교수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없을 테니까요. 다만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그 교수—그건 여자였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수잔은 시골뜨기예요." 그가 말했다. "그 부류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생각엔, 불쌍한 그 사람이 헛소리를 중얼거린 모양인데, 그녀가 그걸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극에 대해 본인으로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으시다는 말씀이군요?"

"어쩌면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우리끼리만 하는 말입니다만—자살일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연애 문제 같은 것 말입니다. 살인보다는 그쪽이 더 가능성 있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안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는 그저 꿈을 좇는 학생일 뿐입니다.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능력이 없지요. 하지만 친구여, 사랑의 징표라는 것이 때로는 기묘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담배를 더 피우십시오. 누군가 이 담배를 이토록 즐겨 주시니 저로서도 기쁩니다. 부채나 장갑, 안경이라니요.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어떤 물건을 증표로 간직하거나 소중히 품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이 신사분께서는 풀밭에서 들린 발소리를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칼 역시 불행한 남자가 쓰러질 때 멀리 튕겨 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제가 아이처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윌러비 스미스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홈즈는 방금 제시된 이론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채 방 안을 서성거렸고, 담배를 연달아 피워 댔다.

"코람 교수님, 이제 말씀해 주시지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서랍장 안에 있는 찬장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도둑질에 도움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들의 서류나 돌아가신 아내의 편지, 그리고 저를 영광스럽게 해 준 대학의 학위증 같은 것들뿐이죠.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홈즈는 열쇠를 집어 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다시 건네주었다.

"아니요, 그게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군요." 그가 말했다. "차라리 당신의 정원으로 조용히 내려가서, 이 사건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기한 자살설도 일리가 있어 보이니까요. 코람 교수님, 갑작스럽게 찾아와 결례를 범한 점 사과드립니다. 점심 식사 전까지는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사이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홈즈는 묘하게 넋이 나간 듯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정원 산책로를 따라 이리저리 걸었다.

"단서라도 찾았나?" 마침내 내가 물었다.

"내가 피운 담배에 달려 있지." 그가 말했다. "내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네. 담배를 피워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보게, 홈즈!" 내가 외쳤다. "도대체 어떻게——"

"자,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만약 확인하지 못한다 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물론 안경사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능할 때마다 지름길을 택하는 편입니다. 아, 여기 친절한 마커 부인

이 오시는군요! 부인과 함께 유익한 대화를 나누며 5분 정도 시간을 보내도록 하죠."

전에도 언급했을지 모르겠지만, 홈즈는 마음만 먹으면 여성의 환심을 사는 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 그는 여성과 금세 친밀한 신뢰 관계를 맺곤 했다. 홈즈가 예상했던 시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이미 가정부의 호감을 샀다. 그리고 마치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녀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네, 홈즈 씨,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분은 정말 지독한 연기를 피워대거든요. 하루 종일, 때로는 밤새도록 말입니다. 아침에 그 방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마치 런던의 안개가 자욱하게 낀 줄 알았다니까요. 불쌍한 젊은 스미스 씨도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교수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건강은…… 글쎄요, 담배 때문에 더 나빠졌는지 아니면 괜찮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입맛을 떨어뜨리거든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교수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 모양이군요?"

"글쎄요, 그 사람은 변덕스럽긴 하죠. 그 점만큼은 인정해야겠군요."

"분명 오늘 아침엔 식사도 거른 모양이야. 내가 본 담배 양을 생각하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걸."

"그게, 마침 그 점은 틀리셨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오늘 아침에 아주 거하게 식사를 하셨거든요. 제가 아는 한 그만큼 잘 드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점심으로는 커틀릿 요리도 넉넉히 주문하셨고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어제 그 방에서 젊은 스미스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본 뒤로는 음식 근처에도 가기 싫었거든요. 뭐, 세상엔 워낙 다양한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교수님은 식욕을 잃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우리는 오전 내내 정원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스탠리 홉킨스는 전날 아침 채텀 로드에서 아이들이 웬 이상한 여자를 보았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마을로 내려간 상태였다. 내 친구 홈즈는 평소의 활력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다. 그가 이토록 의욕 없는 모습으로 사건을 다루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홉킨스가 돌아와 아이들을 만났으며, 그 아이들이 본 여자가 홈즈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조차 홈즈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수잔이 정보를 건넸을 때는 조금 태도가 달라졌다. 그녀는 스미스 씨가 어제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비극이 일어나기 불과 30분 전에야 돌아왔다고 말했다. 나는 이 사실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홈즈가 이 정보를 머릿속에 그려둔 전체적인 계획 속에 끼워 맞추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시계를 확인했다.

"신사 여러분, 두 시군요." 홈즈가 말했다. "이제 올라가서 우리의 친구, 그 교수와 담판을 지어야겠습니다."

노인은 막 점심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 비어 있는 접시를 보니, 집사가 말했던 대로 식욕이 아주 왕성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얀 갈기 같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번뜩이는 눈빛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노인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했다. 입에는 늘 그렇듯 담배 한 개비가 타들어 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옷을 갖춰 입고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 홈즈 씨, 이 수수께끼를 벌써 풀었습니까?" 그는 옆 테이블에 놓인 커다란 담배 통을 내 동료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와 동시에 홈즈도 손을 뻗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담배 통이 테이블 끝 너머로 엎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한두 분 동안이나 무릎을 꿇은 채, 구석진 곳으로 흩어진 담배들을 주워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홈즈의 눈이 번뜩이고 뺨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았다. 그토록 강렬한 승리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오직 결정적인 순간뿐이었다.

"그렇소." 그가 말했다. "내가 해결했소."

스탠리 홉킨스와 나는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노교수의 수척한 얼굴 위로 비웃음 같은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

"정말입니까! 정원에 말입니까?"

"아니, 여기요."

"여기서요! 언제 말입니까?"

"당장요."

"농담하시는 거겠지요, 셜록 홈즈 씨. 이 일은 그렇게 가볍게 다룰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코람 교수님, 나는 내 추리의 사슬을 한 고리 한 고리 직접 두드려 만들고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이 아주 견고하다는 사실 또한 확신합니다. 당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혹은 이 기묘한 사건에서 당신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몇 분 후면 당신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되겠지요. 그동안 당신을 위해 지금까지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당신도 내가 아직 무엇을 더 알아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어제 한 여성이 당신의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서랍장에 들어 있는 특정 서류들을 훔치려는 의도로 말이죠. 그 여성은 직접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열쇠를 조사해 보았는데, 서랍장 니스 칠에 난 긁힌 자국 때문에 생겼어야 할 미세한 변색이 당신의 열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공범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증거로 미루어 볼 때, 그 여성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물건을 훔치러 온 것입니다."

교수는 입술 사이로 연기를 한 차례 내뿜었다.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군." 그가 말했다. "더 보탤 말은 없나? 이 여인의 행적을 여기까지 추적해 왔으니, 그녀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도 분명 말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녀는 비서님에게 붙잡히자 탈출하려고 그를 찌른 것입니다. 저는 이 비극을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

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암살자가 맨손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경악하여 비극적인 현장에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안경을 잃어버렸고, 시력이 매우 나빴기에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던 복도라고 생각되는 곳을 따라 달렸습니다. 두 복도 모두 코코넛 매트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에야 그녀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과, 뒤로 퇴로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계단을 올라 문을 밀고 들어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교수님의 방이었습니다."

노인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홈즈를 미친 듯이 노려보았다. 표정이 풍부한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역력히 새겨져 있었다. 그러다 그는 애써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게 아주 훌륭합니다, 홈즈 씨."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멋진 이론에는 작은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 제 방에 있었고, 낮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방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은, 내가 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여자가 내 방에 들어왔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소.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 그녀와 대화도 나누지 않았나. 그녀를 알아본 것도 당신이고, 그녀가 도망치도록 도운 것도 바로 당신이었소."

교수는 다시 한번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눈동자는 타오르는 잉걸불처럼 번뜩였다.

"미쳤군! 제정신이 아니야!" 그가 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내가 그녀의 탈출을 도왔다고? 대체 그녀가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그녀는 저기 있네." 홈즈가 방 구석에 놓인 높은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노인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험상궂은 얼굴 위로 끔찍한 경련이 스쳐 지나가더니, 그는 의자 뒤로 털썩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홈즈가 가리킨 책장이 경첩을 따라 회전하며 열렸고, 한 여인이 방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다.

"맞아요!" 여인이 낯선 외국어 억양으로 외쳤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은신처 벽에서 묻어 나온 먼지로 온몸이 갈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미줄까지 몸에 걸치고 있었다. 얼굴에는 때가 줄기처럼 묻어 있었으며,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결코 아름다운 인상은 아니었다. 홈즈가 추리해냈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던 데다, 길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고난 시각 장애와 어

둠에서 밝은 곳으로 갑자기 나온 탓에, 그녀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멍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더듬거렸다. 하지만 이러한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태도에는 어떤 고결함이 서려 있었다. 반항적인 턱과 치켜든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존경심과 경외감을 느끼게 했다.

스탠리 홉킨스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죄수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밀쳐냈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품위를 잃지 않았다. 노인은 얼굴을 경련하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침울한 눈빛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네, 선생님. 제가 바로 당신이 찾는 범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서 있던 곳에서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렸어요. 당신이 진실을 알아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전부 자백하겠습니다. 그 젊은이를 죽인 건 바로 저예요. 하지만 사고였다는 당신의 말도 맞습니다. 절 놓아달라고 매달리며 절망에 빠진 나머지, 탁자 위에 있던 무엇이든 움켜쥐고 그를 내리쳤을 뿐이에요. 제 손에 들린 게 칼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부인," 홈즈가 말했다. "분명 사실일 겁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걱정되는군요."

그녀의 안색은 무섭도록 창백해졌다. 얼굴에 묻은 검은 먼지 자국 때문에 그 창백함은 더욱 괴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전부 말씀드리고 싶군요. 저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영국인이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몸을 뒤척였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안나!" 그가 외쳤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녀는 그를 향해 극도의 경멸이 담긴 시선을 던졌다.

"세르기우스, 왜 그 비참한 삶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 삶은 많은 이에게 해를 끼쳤을 뿐, 누구에게도 이로움을 주지 못했어. 당신 자신에게조차 말이야. 하지만 신이 정한 때가 오기도 전에 그 가냘픈 생명의 실을 끊어버리는 건 내 역할이 아니겠지. 이 저주받은 집의 문턱을 넘은 순간부터 내 영혼은 이미 충분히 무거워졌으니까.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거야."

"신사 여러분,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당시 남편은 쉰 살이었고, 저는 철없는 스무 살 소녀였지요. 러시아의 어느 대학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안나!" 노인이 다시 한번 나직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개혁가이자 혁명가였고, 허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와 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살해당했고, 많은 사람이 체포

되었습니다. 증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제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막대한 현상금까지 챙기기 위해, 아내인 저와 동료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자백으로 우리 모두가 체포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교수대로 향했고, 누군가는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했지만, 평생 유배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을 챙겨 영국으로 건너왔고, 그 뒤로 줄곧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 조직이 남편의 행방을 알게 된다면,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담배를 한 대 집어 들었다. "이제 자네만 믿겠네, 안나." 노인이 말했다. "자네는 언제나 내게 친절했지."

"그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결사대의 동료들 중에는 제 마음을 온전히 나누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결하고 이타적이며 다정했지요. 제 남편과는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혐오했습니다. 우리 모두가—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다면—죄를 지었지만,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끊임없이 만류했지요. 만약 그 편지들이 전해졌더라면 그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그에 대한 감정과 우리 각자의 입장을 기록해 둔 일기장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하지만 제 남편이 그 편지들과 일기장을 찾아내어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숨긴 채, 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려 필사적으로 거짓 증언을 해댔지요. 비록 그 계획은 실패했지만, 알렉시스는 죄수로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

간에도 그는 그곳 소금 광산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악당아, 이 악당아! 지금 이 순간, 당신 같은 자가 감히 이름조차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알렉시스가 노예처럼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나는 당신의 목숨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냥 살려두고 있군요."

"자네는 언제나 고결한 여인이었네, 안나." 노인이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며 말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짧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이제 끝을 맺어야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임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일기장과 편지들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들을 러시아 정부에 보내기만 하면 제 친구를 석방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영국에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죠. 남편이 여전히 그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제가 시베리아에 있을 때, 남편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를 비난하며 일기장의 몇 구절을 인용했었죠. 하지만 남편의 복수심 강한 성격상, 제 발로 그것을 내놓을 리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내야만 했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설 탐정 사무소의 요원을 고용했습니다. 그 요원은 남편의 집으로 비서로 잠입했죠. 세르기우스, 당신의 두 번째 비서였던 그 사람 말이에요. 아주 급하게 당신을 떠났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찬장 안에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열쇠 모양도 대략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집 구조도를 건네주며, 오전 시간에는 비서가 위층에서 일하기 때문에 서재가 항상 비어 있다고 알려주었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서류를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결국 성공하긴 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컸답니다!"

"서류를 막 집어 들고 찬장을 잠그려던 참이었는데, 그 젊은이가 갑자기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날 아침에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그가 코람 교수의 고용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어디에 사시는지 좀 알려달라고 물었거든요."

"정확해! 바로 그거야!" 홈즈가 말했다. "비서가 돌아가서 고용주에게 자신이 만난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네. 그러고 나서 비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거야. 바로 그 여인, 방금 자신이 고용주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여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말일세."

"말하게 해 주세요." 여자가 명령조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고통을 참는 듯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쓰러지자마자 나는 방을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잘못 찾는 바람에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남편은 나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만약 당신이 나를 포기한다면,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죠. 당신이 나를 법의 심판대에 넘긴다면, 나는 당신을 결사대에 넘겨버릴 테니까요. 내가 단지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내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고 싶었을 뿐이죠. 남편도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내 운명과 얽혀 있다

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남편은 나를 보호해 준 거예요. 남편만이 알고 있는 옛 흔적인 그 어둡고 은밀한 은신처로 나를 밀어 넣었죠. 남편은 자기 방에서 식사를 했기에, 내게 음식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경찰이 집을 떠나면 내가 밤을 틈타 몰래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약속했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이 우리의 계획을 알아버렸군요."

여자는 드레스 가슴팍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 알렉시스를 구할 꾸러미가 있어요. 당신의 명예와 정의감을 믿고 이것을 맡깁니다. 제발 받아 주세요! 이것을 러시아 대사관에 전달해 주세요. 이제 나는 내 의무를 다했으니, ——"

"그녀를 잡으세요!" 홈즈가 외쳤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단숨에 달려가더니, 그녀의 손에서 작은 약병을 낚아챘다.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침대 위로 쓰러지듯 몸을 던지며 말했다. "너무 늦었다고요! 은신처를 떠나기 전에 이미 독을 마셔 버렸단 말이에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정신이 아득해져요! 선생님, 제발 부탁이니 그 꾸러미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한 사건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었네."

시내로 돌아가는 길에 홈즈가 말했다.

"처음부터 핵심은 그 코안경이었지. 죽어가는 사람이 운 좋게 그 안경을 붙잡아 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네. 안경의 강도를 보고 나는 착용자가 안경 없이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쁘고 무력한 상태라는 걸 알아차렸지. 자네가 그녀가 단 한 번의 발걸음 실수도 없이 좁은 잔디밭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믿어달라고 했을 때, 내가 기억하건대 아주 놀라운 행보라고 말하지 않았나? 내 생각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네. 그녀에게 여분의 안경이 있는 아주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녀가 집 안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가설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지. 두 복도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가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그렇다면 그녀가 교수의 방으로 들어왔음이 자명해졌네.

나는 이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웠고, 숨겨진 공간이 있을 만한 곳을 방 안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네. 카펫은 끊김 없이 깔려 있고 단단히 못 박혀 있는 듯 보여서, 바닥에 비밀문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했지. 대신 책장 뒤에 은밀한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네. 알다시피 오래된 서재에는 그런 장치가 흔하니까 말이야. 나는 다른 곳에는 책들이 바닥에 쌓여 있지만, 유독 책장 하나만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네. 바로 그곳이 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길잡이가 될 만한 표식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히 카펫 색이 황갈색이라 조사하기에 아주 적합했네. 그래서 나는 그 아주 좋은 담배를 잔뜩 피우며 의심스러운 책장 앞 공간에 재를 잔뜩 떨어뜨렸지. 단순한 속임수였지만 아주 효과적이었네.

그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자네가 내 말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확인했지, 왓슨. 코람 교수의 식사량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말이야. 누군가와 함께 생활한다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변화였지. 그러고 나서 다시 방으로 올라가 담배 상자를 일부러 엎어뜨렸네. 덕분에 바닥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었고, 떨어진 담배 재의 흔적을 통해 우리가 없는 사이 죄수가 은신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지.

자, 홉킨스 경위, 드디어 채링 크로스 역에 도착했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네. 의심할 여지 없이 본부로 가겠지? 왓슨, 우리도 같이 마차를 타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세나."

사라진 쓰리쿼터

사라진 쓰리쿼터

베이커가에서는 기묘한 전보를 받는 일이 꽤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7, 8년 전 어느 우울한 2월의 아침, 셜록 홈즈를 15분 동안이나 멍하니 생각에 잠기게 했던 전보 하나는 유독 기억에 남는다. 전보는 홈즈 앞으로 왔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기다려 주십시오. 끔찍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내일 반드시 필요한 라이트 윙 쓰리쿼터가 결장합니다. 오버턴.

"스트랜드 우체국 소인이 찍혔고, 10시 36분에 발송됐군." 홈즈가 전보를 몇 번이고 거듭 읽으며 말했다. "오버턴 씨가 전보를 보낼 당시 꽤 흥분한 상태였던 게 분명해. 그래서 문장도 좀 뒤섞여 있고. 뭐, 괜찮아. 내가 《더 타임스》 지를 다 읽을 때쯤이면 그가 도착할 테니, 그때 모든 걸 알게 되겠지. 요즘처럼 정체된 나날에는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반가운 법이니까."

우리의 생활은 참으로 무료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이런 무기력한 시기가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내 동료의 두뇌는 비정상적일 만큼 활발해서, 다룰 재료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가 한때 놀라운 경력을 가로막을 뻔했던 그 마약 중독으로부터 그를 서서히 벗어나게 했다. 이제 평상시라면 그가 더는 인위적인 자극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악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한가한 시기가 찾아올 때면 홈즈의 금욕적인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서렸고, 깊게 파인 그 불가해한 눈동자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침울해지곤 했다. 나는 그 잠이 얕은 잠이며, 곧 깨어날 징조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오버턴 씨가 누구든 간에 그를 축복하고 싶었다. 그가 가져온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친구의 격정적인 삶에 몰아쳤던 그 어떤 폭풍우보다도 더 위험한 이 평온을 깨뜨려 주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전보를 보낸 이가 곧 도착했다.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의 시릴 오버턴 씨라고 적힌 명함이 전달되더니, 곧이어 거구의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16스톤(약 100kg)에 달하는 단단한 골격과 근육을 가진 그는 넓은 어깨로 문간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다. 청년은 불안으로 초췌해진 수려한 얼굴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셜록 홈즈 씨 되십니까?"

내 동료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홈즈 씨, 스코틀랜드 야드에 다녀왔습니다. 스탠리 홉킨스 경위를 만났지요. 그가 당신을 찾아가 보라고 권하더군요. 경위의 소견으로는, 이 사건이 일반 경찰보다는 당신이 다루는 분야에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앉으시지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홈즈 씨. 그야말로 끔찍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세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고드프리 스턴턴, 당연히 들어보셨겠지요? 그는 우리 팀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축입니다. 차라리 다른 선수 두 명을 포기하더라도, 고드프리를 우리 팀의 쓰리쿼터 라인에 두고 싶을 정도니까요. 패스든, 태클이든, 드리블이든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판단력까지 뛰어나서 팀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도 완벽히 해내죠.

이제 전 어떡해야 합니까? 홈즈 씨,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예비 선수로 무어하우스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하프백 포지션으로 훈련받은 선수라 늘 터치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스크럼 안쪽으로 파고들고 맙니다. 킥 실력은 확실히 좋지만, 판단력이 부족하고 순발력도 형편없어요. 옥스퍼드 출신의 날쌘 선수들인 모턴이나 존슨이라면 무어하우스를 가볍게 따돌릴 수 있을 겁니다. 스티븐슨은 충분히 빠르긴 해도 25야드 라인에서 드롭킥을 할 줄 모릅니다. 펀트나 드

롭킥을 못 하는 쓰리쿼터라면, 단순히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팀에 둘 가치가 없지요.

아, 홈즈 씨. 고드프리 스턴턴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팀은 끝장입니다."

내 친구는 이 긴 연설을 흥미롭다는 듯 놀라워하며 경청했다. 화자는 엄청난 활력과 진지함을 쏟아부었고, 매번 강조하고 싶은 대목마다 근육질의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탁탁 내리치며 논지를 몰아붙였다. 방문객이 말을 멈추자, 홈즈는 손을 뻗어 자신의 수첩에서 'S' 항목을 찾아 펼쳤다. 하지만 평소라면 온갖 정보가 가득했을 그 지식의 보고에서도, 이번만큼은 아무런 단서도 찾아낼 수 없었다.

"떠오르는 신예 위조범인 아서 H. 스턴턴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교수형에 처하도록 도왔던 헨리 스턴턴도 알지요. 하지만 고드프리 스턴턴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군요."

이번에는 방문객이 놀란 차례였다.

"아니, 홈즈 씨, 당신이라면 모르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고드프리 스턴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시니, 시릴 오버턴 역시 모르시겠군요?"

홈즈는 기분 좋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나!" 그 운동선수가 외쳤다. "세상에, 저는 웨일스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후보였고, 올해 내내 대학 대표팀 주장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케임브리지와 블랙히스 소속에, 다섯 번이나 국가대표로 뛰었던 최고의 쓰리쿼터, 고드프리 스턴턴을 모르는 사람이 잉글랜드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맙소사! 홈즈 씨, 도대체 어디서 사셨던 겁니까?"

홈즈는 그 거구의 청년이 보여준 천진난만한 놀라움에 웃음을 터뜨렸다.

"오버턴 씨, 당신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군요. 훨씬 더 달콤하고 건강한 세상 말입니다. 제 영향력은 사회 곳곳에 뻗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영국의 가장 훌륭하고 건전한 활동인 아마추어 스포츠 분야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당신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 것을 보니, 신선한 공기와 공정한 승부가 있는 그 세계에서도 제가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 자, 선생, 우선 자리에 앉으시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차근차근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오버턴의 얼굴에는 머리보다는 몸을 쓰는 데 더 익숙한 사람 특유의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몇 차례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호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 세세한 과정들을 일일이 다 적으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테니 생략하겠지만, 그는 결국 우리 앞에 그 기묘한 사건을 털어놓았다.

"이쪽입니다, 홈즈 씨. 말씀드린 대로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 러그비 팀의 주장입니다. 고드프리 스턴턴은 우리 팀의 핵심 선수고요. 내일

은 옥스퍼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모두 학교로 올라왔고, 벤틀리 개인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팀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훈련과 충분한 수면이 필수라고 믿기에, 밤 10시쯤 돌아다니며 동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고드프리가 잠들기 전, 그와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색이 창백하고 무척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저 두통이 좀 있을 뿐이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호텔 문지기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수염이 난 험상궂은 남자가 고드프리에게 전할 쪽지를 들고 왔다고 말입니다. 고드프리는 아직 자지 않은 상태였기에 쪽지를 그의 방으로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드프리는 쪽지를 읽더니, 마치 도끼에 맞은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문지기는 너무 겁에 질려 저를 부르러 가려 했지만, 고드프리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는 물을 한 잔 마시고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홀에서 기다리던 남자에게 몇 마디 건네더니,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지기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두 사람이 스트랜드 방향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길을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고드프리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소지품도 제가 어젯밤에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 낯선 이와 함께 순식간에 떠나버렸고,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드프리는 뼛속까지 스포츠맨이었던 친구입니다. 도저

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가 생긴 게 아니라면, 훈련을 중단하고 주장인 저를 실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할 아이가 아닙니다. 아니, 제 느낌에는 그가 영영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셜록 홈즈는 이 기묘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극히 집중했다.

"무엇을 했나?" 그가 물었다.

"그가 캠브리지에서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방금 답장이 왔는데,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가 케임브리지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늦게 운행하는 열차가 하나 있습니다. 11시 15분 차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인한 바로는, 그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운트-제임스 경에게 전보를 보냈네."

"왜 하필 마운트 제임스 경입니까?"

"고드프리는 고아입니다. 마운트 제임스 경이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의 숙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이 사실이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주는군요. 마운트 제임스 경은 영국에서 손꼽히는 거부 중 한 분이니까요."

"고드프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친구분과는 친척 관계였습니까?"

"맞아요, 그가 상속인이죠. 노인네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데, 통풍까지 심하게 앓고 있어요. 손가락 관절만으로도 당구 큐대에 분필을 칠 수 있을 정도라더군요. 노인이 워낙 지독한 구두쇠라 고드프리에게 평생 단 한 실링도 내준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 재산은 전부 고드프리 차지가 될 겁니다."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서 소식은 좀 왔습니까?"

"아니오."

"당신의 친구가 마운트 제임스 경을 찾아갈 동기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글쎄요, 전날 밤 그를 괴롭히던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만약 돈 문제였다면, 돈이 아주 많은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갔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제가 듣기로는 그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지만요. 고드프리는 그 노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가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글쎄요, 그 사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만약 당신 친구가 친척인 마운트 제임스 경을 만나러 간 것이라면, 왜 그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내의 등장으로 왜 그렇게 소란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시릴 오버턴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소." 그가 말했다.

“좋습니다, 마침 오늘 일정이 비어 있으니 기꺼이 이 사건을 조사해 보죠.”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경기 준비는 이 젊은 신사분과는 상관없이 따로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이 그런 식으로 자리를 뜨게 된 데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테고, 앞으로도 같은 이유로 계속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함께 호텔로 가서 문지기가 이 일에 대해 새로 알아낼 만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셜록 홈즈는 위축된 증인을 안심시켜 말을 끌어내는 데 가히 달인이었다. 덕분에 고드프리 스턴턴이 비운 방 안에서, 홈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지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전날 밤 찾아온 방문객은 신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노동자도 아니었다. 문지기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저 "평범하게 생긴 사내"였다. 나이는 쉰 살쯤 되어 보였고, 수염은 희끗희끗했으며, 얼굴은 창백한 데다 옷차림은 수수했다. 사내 자신도 무척 초조해 보였다. 문지기는 그가 쪽지를 건넬 때 손을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고드프리 스턴턴은 그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스턴턴은 복도에서 그 사내와 악수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는데, 문지기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단어는 "시간"이라는 말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복도 시계가 가리키던 시간은 정확히 10시 반이었다.

"어디 봅시다." 홈즈가 스턴턴의 침대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낮에 근무하는 문지기 맞지요?"

"예, 손님. 저는 11시에 교대합니다."

"야간 문지기는 아무것도 못 봤겠지요?"

"아닙니다, 손님. 연극 관람을 마치고 늦게 돌아온 일행이 한 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근무 중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님."

"스턴턴 씨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없었습니까?"

"예, 주인님. 전보가 한 통 왔습니다."

"아! 흥미롭군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6시쯤 됐을 겁니다."

"스턴턴 씨는 그것을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가 그것을 열 때, 당신도 같이 있었습니까?"

"네, 손님. 답장이 오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글쎄요, 정말 그랬습니까?"

"네, 선생님. 그가 답장을 썼습니다."

"그걸 가져갔나?"

"아니요, 그가 직접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썼지 않습니까."

"네, 손님. 저는 문 옆에 서 있었고, 그분은 테이블을 등지고 앉아 계셨습니다. 글을 다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알겠네, 문지기. 이건 내가 직접 가져가겠네.'"

"무엇으로 쓴 거지?"

"펜으로 썼습니다, 선생님."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 중에 그 전보 양식이 있었습니까?"

"예, 선생님. 맨 위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류들을 집어 들고 창가로 걸어가더니, 맨 위에 놓인 것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연필로 쓰지 않은 게 아쉽군."

그는 실망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하며 종이들을 다시 내던지며 말했다.

"왓슨, 자네도 자주 보았겠지만, 보통은 자국이 남기 마련이라네. 그 자국 때문에 행복했던 부부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도 허다하지.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군. 그래도 다행인 건, 그가 끝이 굵은 깃펜으로 글을 썼다는 점이야. 이 흡수지에도 분명 자국이 남아 있을 걸세. 아, 그래, 바로 이거야! 틀림없어!"

그는 흡수지를 길게 찢어더니,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은 상형문자를 내보였다.

상형 문자

시릴 오버턴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유리에 바짝 대고 보세요!" 그가 외쳤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종이가 얇아서 뒷면을 보면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여기 있군요." 그가 종이를 뒤집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타났다.

뒷면(역상)

"고드프리 스턴턴이 실종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보낸 전보의 끝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지 중 최소 여섯 단어는 우리가 놓쳤지만, 남은 부분인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는 문구만 보더라도 이 청년이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었음을 보여주죠.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또 다른 인물이 연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스스로도 몹시 초조해 보이던, 창백한 얼굴의 수염 난 남자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드프리 스턴턴과 그 수염 난 남자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절박한 위기 속에서 도움을 구하려 했던 제3의 조력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조사는 이미 그 지점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전보가 누구 앞으로 보내진 것인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내가 제안했다.

"정확합니다, 왓슨. 자네의 통찰은 매우 깊었지만, 나 역시 이미 그 점을 생각하고 있었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전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당국에서 자네의 요청을 들어주길 꺼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네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 믿네. 이런 일에는 번거로운 절차가 너무나 많거든. 하지만 조금만 세심하고 능숙하게 대처한다면 결국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네. 자, 오버턴 씨, 그럼 당신이 보는 앞에서 탁자 위에 놓인 이 서류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편지와 청구서, 수첩들이 여러 권 놓여 있었다. 홈즈는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을 번뜩이며, 빠르고 초조한 손놀림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살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군."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나저나, 자네 친구는 건강한 청년이었겠지? 별다른 이상은 없었나?"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한 번 정강이를 차여 드러누운 적이 있고, 무릎뼈가 빠진 적도 있지만, 그건 별일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당신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남모를 고민이라도 있었겠지요. 괜찮으시다면, 앞으로의 조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이 서류 중 한두 장만 제 주머니에 넣어두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보니 문가에 기묘하게 생긴 작은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몸을 움찔거리며 경련하듯 움직이고 있었다. 낡고 빛바랜 검은 옷차림에 챙이 아주 넓은 실크햇을 썼고, 흰

색 넥타이는 느슨하게 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골의 목사 같기도 했고, 장례식장의 조문객 같기도 했다. 하지만 초라하고 다소 우스꽝스러운 외양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섞여 있었으며 태도 또한 매우 민첩하고 강렬하여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체 무슨 권리로 이 신사의 서류에 손을 대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저는 사립 탐정입니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밝혀내려고 노력 중이지요."

"오, 그러시겠다? 그런데 대체 누가 당신을 고용했단 말입니까, 응?"

"이 신사분은 스턴턴 씨의 친구분인데,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시릴 오버턴입니다."

"그렇다면 전보를 보낸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제 이름은 마운트 제임스 경입니다. 베이스워터행 버스를 타고 최대한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고용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선생님, 제 친구 고드프리가 발견되기만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를 끝내 찾지 못한다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서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가족이——"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 작은 체구의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저한테서 단 한 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 한 푼도요! 탐정 양반, 제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젊은이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친구에게 무슨 유산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지금까지 돈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제가 지금부터 돈을 쓰기 시작할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대로 뒤지고 계신 그 서류들 말입니다만, 혹시라도 그중에 가치 있는 것이라도 나온다면, 당신이 그 서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사이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왜 사라졌는지, 혹시 경께서 세워두신 가설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나이도 먹었습니다. 만약 그가 어리석게도 길을 잃는다면, 저는 그를 찾아 나서는 책임을 결코 맡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홈즈가 눈을 장난스럽게 반짝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입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고드프리 스턴턴은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납치된 것이라면, 그가 가진 무언가 때문은 아닐 겁니다. 마운트 제임스 경, 당신의 막대한 재산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도둑일당이 당신의 조카를 붙잡아 둔 것은, 당신의 저택과 생활 습관, 그리고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던 그 작은 방문객의 얼굴이 목에 두른 스카프만큼이나 하얗게 질려버렸다.

"세상에, 선생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군요! 그런 악랄한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어쩜 저리도 비정한 악당들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고드프리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아주 충직한 아이라고요. 그 아이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노백부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은식기들을 은행으로 옮겨 두겠습니다. 그동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써 주십시오, 탐정님! 부디 백방으로 노력하셔서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걱정 마십시오. 5파운드나 10파운드 정도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비록 그 고결한 구두쇠가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였으나, 조카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전혀 주지 못했다. 유일한 단서는 잘려 나간 전보뿐이었다. 홈즈는 전보 사본을 손에 쥐고, 사건의 연결 고리를 완성할 두 번째 단서를 찾

아 길을 나섰다. 우리는 마운트 제임스 경을 따돌렸고, 오버턴은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 동료들과 상의하러 떠났다.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전신국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 왓슨." 홈즈가 말했다. "물론 영장이 있다면 영수증의 복사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갈 상황은 아니야. 그렇게 북적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한번 모험해 보자고."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창살 너머에 있는 젊은 여인에게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태도로 말을 건넸다.

"어제 보낸 전보에 작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답장이 오지 않길래, 혹시 제가 끝에 이름을 쓰는 걸 깜빡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입니다. 혹시 그랬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여인은 영수증 뭉치를 한 장씩 넘겨 보았다.

"몇 시였나요?" 그녀가 물었다.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네."

"누구에게 온 것이었나?"

홈즈는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나를 슬쩍 쳐다보았다. "마지막 문구는 '제발 부탁이니'였네." 그가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으니 정말 초조하군."

젊은 여인은 서류 한 장을 따로 떼어냈다.

"이거예요. 이름은 없네요." 그녀는 카운터 위에 종이를 펼쳐 놓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한 거군요." 홈즈가 말했다. "세상에, 내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온 홈즈는 껄껄 웃으며 두 손을 맞비벼 문질렀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우리는 진전하고 있네, 왓슨. 아주 잘 되어가고 있어. 그 전보를 훔쳐보기 위해 일곱 가지나 되는 계획을 세워뒀지만, 첫 시도에 바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였지."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 조사의 출발점이야." 그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킹스크로스 역으로 가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럼, 이제 길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요, 우리 함께 케임브리지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군요."

"말해 봐요." 그레이 인 로드를 따라 마차가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 내가 물었다. "그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맡았던 그 어떤 사건을 떠올려 봐도, 이토록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설마 그가 부유한 삼촌에게 불리한 정보를 넘기려 한다는 이유로 납치당했을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왓슨, 나도 그게 아주 가능성 있는 설명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하지만 그 아주 불쾌한 노인네의 관심을 끌기에는 그만한 게 없겠다는 생각은 들더군."

"분명히 그랬지. 하지만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들 수 있겠군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경기를 앞둔 전야에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팀의 승리에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유일한 선수가 연루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기묘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흥미로운 일이지요. 아마추어 스포츠는 도박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중 사이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외부 베팅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러니 경마장의 불량배들이 경주마를 노리는 것처럼, 누군가 이 선수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명백한 가설은, 이 청년이 현재 형편은 비록 미미할지언정 실제로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려는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 이론들은 전보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군."

"맞는 말일세, 왓슨.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확실한 단서는 여전히 이 전보뿐이니, 주의력을 딴 데로 돌려서는 안 되네. 이 전보가 무엇을 목적으로 보내졌는지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케임브리지로 향하는 이유라네. 현재 수사의 방향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불분명하지만, 오늘 저녁이 되기 전까지 실마리를 찾거나 혹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로서도 무척 놀랄 일이 될 걸세."

우리가 그 오래된 대학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린 뒤였다. 역에 도착한 홈즈는 마차를 잡아타고는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의 저택으로 가달라고 기사에게 일렀다. 몇 분 후, 우리는 가장 번화한 대로변에 자리 잡은 커다란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상담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는 박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레슬리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내가 의사라는 직업과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와 알고 보니 그는 대학 의과대학의 수장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분야에서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치는 사상가였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경력을 미리 알지 못했더라도, 그를 처음 마주한 순

간 누구나 압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각진 묵직한 얼굴, 짙은 눈썹 아래로 깊게 가라앉은 눈매, 그리고 결코 굽히지 않을 듯 단단한 턱선이 그러했다. 나는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를 보며 그가 깊은 인품을 지녔으며,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엄격하고 금욕적이며, 자기 절제가 강한 위엄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내 친구의 명함을 손에 든 채, 무뚝뚝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표정에는 그리 반가운 기색이 없었다.

"셜록 홈즈 씨, 당신의 이름은 익히 들었습니다. 하시는 일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직업을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라면, 박사님도 이 나라의 모든 범죄자와 의견이 일치하게 될 겁니다." 내 친구가 차분하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범죄 소탕을 위해 기울이시는 노력만큼은, 이 사회의 상식적인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지할 것입니다. 물론 공권력의 집행 체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은 의심치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직업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의 비밀을 캐고 다니거나, 차라리 묻어두는 편이 나을 가족사를 들춰낼 때,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보다 더 바쁜 사람들의 시간을 본의 아니게 뺏을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대신 논문을 쓰고 있어야 할 판이니까요."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때로는 논문보다 대화가 더 중요한 법이지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박사님이 정당하게

비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정식 경찰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사적인 일들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 노력 중입니다. 저를 그저 국가의 정규군보다 앞서 나가는 비공식적인 선발대 정도로 생각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고드프리 스턴턴 씨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가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를 알고 계시지요?"

"그는 나의 절친한 친구라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 정말 그렇군요!" 암스트롱 박사의 거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어젯밤 호텔을 떠난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네."

"내일은 대학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라네."

"난 그런 유치한 장난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잘 아는 데다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 친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매우 궁금하군요. 하지만 축구 경기 따위는 내 관심 밖입니다."

"그렇다면 스턴턴 씨의 행방을 쫓는 제 조사에 당신의 도움을 좀 받고 싶군요. 혹시 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제 이후로 그를 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스턴턴 씨는 건강한 편이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가 아팠던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홈즈가 종이 한 장을 박사의 눈앞에 쑥 내밀었다. "그렇다면 이것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지난달 고드프리 스턴턴 씨가 케임브리지의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에게 13기니를 지불했다는 영수증입니다. 고드프리 씨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사이에서 제가 직접 골라냈지요."

암스트롱 박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홈즈 씨, 제가 당신에게 구태여 설명을 해 드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홈즈는 영수증을 수첩에 다시 넣었다. "만약 공개적인 해명을 원하신다면,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홈즈가 말했

다. “다른 사람들이 기사로 써 내려갈 내용을 내가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를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는 편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런던에 계신 스턴턴 씨에게서 소식은 좀 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세상에! 또 우체국이군!” 홈즈가 지친 기색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저녁 6시 15분에 고드프리 스턴턴이 런던에서 당신에게 아주 긴급한 전보를 보냈네. 그의 실종 사건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전보인데도 아직 받지 못하다니, 이건 명백한 과실이야. 내가 직접 여기 우체국에 가서 정식으로 항의해야겠군.”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가 책상 뒤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노로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당신의 고용주인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전하십시오. 나는 그와 그의 대리인들 모두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더는 한 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그는 격분하여 벨을 울려댔다. “존, 이 신사들을 밖으로 안내하게!” 거만한 집사가 엄한 태도로 우리를 문밖까지 안내했고, 우리는 거리로 내몰렸다. 그 순간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는 확실히 에너지와 인품을 겸비한 분이더군." 홈즈가 말했다. "그가 재능을 그쪽 방향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위대한 모리아티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에 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본 적이 없네. 자, 이제 우리 처지를 보게나, 왓슨.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도 없는데, 이 낯선 도시에서 우리는 고립된 채 의지할 친구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지. 마침 암스트롱의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작은 여관이 우리 상황에 아주 딱 맞겠어. 자네가 앞방을 하나 잡고 하룻밤 지내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좀 사 온다면, 나는 그사이에 몇 가지 조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홈즈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그가 여관으로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다 되어서였다. 홈즈는 안색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었으며, 온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탁자 위에는 차가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허기를 채우고 파이프에 불을 붙이자, 홈즈는 비로소 특유의 태도를 보였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그는 반쯤은 익살스럽고, 반쯤은 철학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곤 했다.

그때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스등 불빛 아래, 회색마 두 마리가 끄는 브루엄 마차 한 대가 암스트롱 박사의 집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나간 지 세 시간이나 지났군." 홈즈가 말했다. "여섯 시 반에 출발했는데 벌써 돌아왔어. 이 정도면 반경 10마일에서 12마일 정도를 도는 셈이지. 그는 하루에 한 번, 많게는 두 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진료 중인 의사에게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암스트롱은 실제로 진료를 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강사이자 자문 의사일 뿐이지요. 그는 자신의 저술 활동에 방해가 되는 일반 진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토록 번거롭고 귀찮은 장거리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대체 누구를 만나러 다니는 것입니까?"

"그의 마부 말입니다——"

"여보게, 왓슨. 내가 처음 찾아간 사람이 그였다는 사실을 설마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본성에서 우러나온 악함인지, 아니면 주인에게 부추김을 받은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나에게 개를 풀어 공격할 만큼 무례했네. 하지만 개도 사람도 내 지팡이를 보고는 겁을 먹었는지, 결국 일은 수포로 돌아갔지. 그 일 이후로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했네. 내가 알아낸 정보라고는 우리 여관 마당에 있는 친절한 현지인에게서 얻은 게 전부라네. 그 친구가 의사의 습관과 매일 이동하는 경로를 알려주었지. 바로 그 순간, 마치 내 말이 맞다는 듯 마차가 문 앞으로 들어왔다네."

"따라갈 수 없었단 말인가요?"

"훌륭해, 왓슨! 오늘 저녁 자네의 통찰력이 아주 빛을 발하는군. 나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네. 자네도 보았겠지만, 우리 숙소 바로 옆에 자전거 가게가 하나 있더군.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 자전거를 빌렸네. 덕분에 마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출발할 수 있었지. 나는 빠르게 마차를 따라잡았고, 백 야드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차의 후미등을 쫓아 마을을 벗어났네.

시골길로 한참 들어섰을 때, 조금 민망한 일이 하나 있었네. 마차가 멈춰 서더니, 의사가 내린 거야. 그는 내가 멈춰 서 있던 곳까지 빠르게 걸어오더니, 아주 능청스럽고 조롱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 길이 좁아서 걱정이라며, 혹시 마차가 자네의 자전거 길을 막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그 표현 방식은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네.

나는 즉시 마차를 지나쳐 큰길을 따라 몇 마일을 더 달렸네. 그러고 나서 마차가 지나가는지 확인하려고 적당한 곳에 멈춰 섰지. 하지만 마차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네. 내가 미리 눈여겨보았던 여러 갈래의 옆길 중 하나로 들어갔음이 분명해졌지. 나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되돌아갔지만, 역시 마차는 보이지 않았네. 그리고 이제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마차는 나를 뒤쫓아 다시 돌아온 것이네.

물론 처음에는 이 여정들이 고드프리 스턴턴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네. 그저 암스트롱 박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금 우리에게 흥미로운 주제라는 일반적인 판단하에 조사해 보려 했을 뿐이었지. 하지만 그가 이런 외출을 할 때마다 자

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주 예리하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은 훨씬 더 중요해 보이네. 나는 이 일을 명확히 밝혀내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걸세."

"내일 그를 뒤쫓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나? 자네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야. 자네는 캠브리지셔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지 않은가? 이곳은 무언가를 숨기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야. 오늘 밤 내가 지나온 이 지역은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탁 트여 있네. 게다가 오늘 밤 우리가 쫓던 그 남자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었지.

나는 오버턴에 전보를 보내 두었네. 런던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이 주소로 알려달라고 말이야. 그동안 우리는 암스트롱 박사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네. 사무실의 친절한 아가씨 덕분에 스턴턴이 보낸 긴급 메시지의 전표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지.

그는 그 젊은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네. 그 사실만큼은 내가 장담하지. 만약 그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잘못일세. 현재로서는 그가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네.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게임이 이대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는 성격이 아니지 않나."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마칠 무렵 쪽지 하나가 전달되었고,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그 쪽지를 내게 건넸다.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내 뒤를 쫓으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어젯밤 당신이 알아냈듯이, 내 브룸(brougham) 뒷부분에는 창문이 하나 있다. 만약 당신이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20마일짜리 마차 여행을 원한다면, 그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한편, 나를 감시하는 일은 고드프리 스턴턴 씨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두겠다. 그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방법은, 즉시 런던으로 돌아가 당신의 고용주에게 그를 추적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케임브리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분명히 헛수고가 될 것이다."

레슬리 암스트롱 올림.

"거침없고 정직한 적수라니, 바로 그 의사 말이군." 홈즈가 말했다. "허, 이거 흥미로운걸. 그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야겠어."

"마차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군요." 내가 말했다. "저기 마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라타면서 우리 창문을 슬쩍 올려다보기도 했고요. 자전거를 타고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아니, 아니네, 친애하는 왓슨! 자네의 타고난 통찰력을 존중하네만, 이번만큼은 자네가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군. 아마도 나 혼자만의 탐색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네. 미안하지만 자네는 자네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게 두어야겠어.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수상쩍은 낯선 이가 '두 명'이나 나타나면, 내가 감당하

기 힘들 정도로 소문이 퍼질까 걱정되는군. 이 유서 깊은 도시에서 분명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을 테니, 나는 저녁이 되기 전에 자네에게 더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네."

하지만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밤늦게 지친 기색으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돌아왔다.

"오늘은 아무런 수확도 없었네, 왓슨. 의사가 알려준 대략적인 방향을 따라 케임브리지 그쪽 마을들을 전부 돌아다녔지. 선술집 주인들이나 현지 소식통들을 만나며 정보를 대조해 보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도 꽤 많은 곳을 훑었네. 체스터턴, 히스턴, 워터비치, 그리고 오킹턴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망스러웠어. 그렇게 한적한 마을에서 매일 브룸(brougham) 한 대와 말 두 마리가 지나가는 걸 못 보고 지나쳤을 리가 없거든. 의사가 또 한 번 점수를 딴 셈이지. 나에게 온 전보라도 있나?"

"네, 제가 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의 제레미 딕슨에게 폼피를 청하게."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 아주 명확하네. 우리 친구 오버턴이 보낸 걸세. 내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지. 제레미 딕슨 씨에게 바로 답장을 보내야겠네. 그러면 분명히 운이 트일 걸세. 그나저나, 경기 소식은 좀 없나?"

"네, 지역 저녁 신문의 지난 호에 아주 상세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옥스퍼드가 골 하나와 트라이 두 개 차이로 승리했더군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이트 블루스 팀의 패배는 전적으로 불운하게도 경기에 결장한 최고의 국제급 선수, 고드프리 스턴턴의 부재 탓이라 할 수 있다. 경기 내내 그의 빈자리가 뼈아프게 느껴졌다. 쓰리쿼터 라인의 조직력 부족과 공격 및 수비 양면에서의 취약함은, 묵직하고 성실하게 움직여 준 포워드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 오버턴의 예감이 적중한 셈이군." 홈즈가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암스트롱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네. 축구 경기는 내 관심 밖이라 말이야. 왓슨,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게나. 내일은 꽤나 다사다난한 하루가 될 것 같으니 말일세."

다음 날 아침, 홈즈를 처음 마주한 순간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그는 벽난로 옆에 앉아 아주 작은 주사기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도구를 보며 그의 유일한 약점을 떠올렸고, 손안에서 번뜩이는 주사기를 보자 최악의 상황이 닥쳤음을 직감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홈즈는 나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주사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아니, 아니, 이보게 친구. 그렇게 놀랄 것 없네. 이번에는 이 물건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가 될 테니까. 나는 이 주사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네. 방금 가볍게 현장 답사를 다녀왔는데, 모든 상황이 아주 유리해. 왓슨, 아침 식사 든든히 하게

나. 오늘 바로 암스트롱 박사의 흔적을 쫓을 생각이니까. 일단 덜미를 잡기만 하면, 그놈의 은신처까지 몰아붙일 때까지 휴식도 음식도 잊고 달릴 작정이네."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챙겨서 나가는 게 좋겠군요." 내가 말했다. "그가 벌써 서두르고 있으니까요. 마차가 벌써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상관없네. 그냥 가게 두게. 내가 뒤쫓지 못할 곳으로 마차를 몰고 간다면, 그놈도 제법 영리한 셈이니까. 일이 끝나면 나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오게나. 우리가 마주할 일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인 탐정 한 명을 소개해 주겠네."

우리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나는 홈즈를 따라 마구간 마당으로 향했다. 홈즈는 마구간의 한 칸을 열더니, 비글과 폭스하운드를 섞어 놓은 듯한 작고 통통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 그 개는 귀가 축 늘어진 흰색과 갈색 무늬의 털을 가지고 있었다.

"폼피를 소개하겠네." 그가 말했다. "폼피는 이 지역 사냥개의 자랑이라네. 체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빠르게 달리는 녀석은 아니지만, 냄새를 쫓는 능력만큼은 아주 충직하지. 자, 폼피!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아도 런던에서 온 중년 신사 두 명쯤은 충분히 따돌릴 수 있겠지? 그러니 실례를 무릅쓰고 이 가죽 목줄을 네 목줄에 채우마. 자, 이리 오렴! 네 실력을 보여주렴."

그는 개를 데리고 그 의사(암스트롱 박사)의 집 문 앞까지 갔다. 개는 잠시 주변의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더니, 흥분해서 날카롭게 낑낑거

리는 소리를 내며 거리 아래쪽으로 달려 나갔다. 개는 더 빨리 가려고 목줄을 잡아당기며 힘차게 나아갔다. 삼십 분이 지나자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 시골길을 따라 속도를 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 홈즈?" 내가 물었다.

"낡고 오래된 수법이긴 하지만, 가끔은 쓸모가 있지. 오늘 아침에 의사 양반의 마당에 들어가서 뒷바퀴에 아니스 씨앗을 가득 뿌려 두었네. 사냥개라면 여기서부터 존 오 그로트까지라도 아니스 향을 쫓아갈 테니까. 우리 친구 암스트롱이 폼피를 따돌리려면 캠 강을 가로질러 달아나야 할 걸세. 오, 그 교활한 악당 같으니! 지난밤에 그놈이 나를 이렇게 따돌렸던 거야."

개는 갑자기 큰길을 벗어나 풀이 무성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반 마일쯤 더 가자 골목은 다시 넓은 도로로 이어졌고, 자취는 우리가 막 떠나온 마을 방향인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였다. 도로는 마을 남쪽을 크게 돌아, 우리가 출발했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 우회로를 택한 게 전부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말이군?" 홈즈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게 당연했어. 의사가 아주 작정하고 판을 짠 모양이야.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속임수를 썼는지 정말 궁금하군.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 트럼핑턴일 거야. 세상에! 저기 모퉁이를 돌아 브룸(brougham) 한 대가 오고 있어. 서둘러, 왓슨! 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놓치고 말 거야!"

그는 문을 박차고 들판으로 뛰어들었고, 뒤처지려는 폼피를 억지로 끌고 나갔다. 우리가 울타리 아래로 몸을 숨기기가 무섭게 마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나는 마차 안의 암스트롱 박사를 언뜻 보았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고뇌에 찬 모습이었다. 곁에 있던 동행의 안색이 더욱 어두워진 것을 보니, 그 역시 같은 장면을 목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탐색이 어두운 결말로 끝날까 봐 두렵군." 그가 말했다. "머지않아 진상을 알게 되겠지. 자, 폼피! 아, 저기 들판에 있는 오두막이로군!"

우리의 여정이 끝에 다다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브룸 마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는 대문 밖에서, 폼피는 안달이 난 듯 낑낑거리며 주위를 뛰어다녔다. 그곳에서 외딴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보였다. 홈즈는 개를 울타리에 묶어두고 우리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내 친구는 소박한 나무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다시 한번 두드렸다. 하지만 오두막은 비어 있지 않았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비탄과 절망이 섞인 듯한 낮은 신음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왔기 때문이다. 홈즈는 망설이며 멈춰 섰다. 그러더니 방금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그 길을 따라 브룸 마차 한 대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회색 말들은 누가 보아도 틀림없는 그것들이었다.

"세상에, 의사가 돌아오고 있어!" 홈즈가 외쳤다. "이제 결정됐군. 그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해."

그가 문을 열자 우리는 현관으로 들어섰다. 웅웅거리던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고통에 찬 길고 깊은 통곡 소리로 변해 우리 귓가를 울렸다. 소리는 위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홈즈는 곧장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홈즈가 반쯤 닫힌 문을 밀치고 열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우리는 둘 다 경악하며 얼어붙고 말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침대 위에 죽은 채 누워 있었다. 금빛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흩어진 사이로, 희미하게 뜬 푸른 눈을 한 그녀의 창백하고 평온한 얼굴이 위를 향하고 있었다. 침대 발치에는 한 젊은 남자가 반쯤 앉은 채 반쯤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옷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며 몸을 떨고 있었다. 남자는 비통한 슬픔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홈즈가 어깨에 손을 얹기 전까지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고드프리 스턴턴 씨입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신이 너무나 혼미한 나머지, 우리가 자신을 도우러 온 의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홈즈는 그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다.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인해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설명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가에는 암스트롱 박사가 엄격하고도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 신사 여러분." 그가 말했다. "목적을 달성하신 모양이군요. 침입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골라 오셨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죠. 내가 만약 젊은 사람이었다면, 당신들의 그 몰상식한 행태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실례합니다, 암스트롱 박사님.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내 친구가 품위 있게 말했다. "저희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참한 사건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엄숙한 표정의 의사와 우리는 아래층 거실에 모였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우선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귀족에게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사람이 실종되면 그 행방을 확인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만, 일단 확인을 마치고 나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게다가 범죄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저는 사적인 스캔들을 세상에 알리기보다 차라리 조용히 덮어두는 쪽을 훨씬 선호합니다. 제 짐작대로 이번 일이 법을 어긴 사건이 아니라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입을 다물고 협조할 테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암스트롱 박사가 성큼 앞으로 나서며 홈즈의 손을 힘차게 맞잡았다.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군." 그가 말했다. "내가 자네를 잘못 보았네. 가여운 스턴턴을 이 비참한 상황에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마차를 돌린 덕분에 자네를 알게 되었으니,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야. 자네처럼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1년 전, 고드프리 스턴턴은 잠시 런던에 머물렀는데, 그때 집주인의 딸에게 열렬히 반해 그녀와 결혼했다네.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성품도 훌륭했고, 선할 뿐만 아니라 총명하기까지 했지. 그런 아내를 두었다면 그 어떤 남자라도 자랑스러워했을 걸세. 하지만 고드프리는 이 까다로운 노귀족의 상속자였고, 결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상속권이 박탈될 것이 자명했네. 나는 그 청년을 잘 알았고, 그의 훌륭한 인품을 아꼈기에 일이 잘 풀리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왔다네. 소문이라는 게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 세상이 알게 되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지. 다행히 이 외딴 오두막과 고드프리 본인의 신중함 덕분에 지금까지는 비밀을 지켜올 수 있었네. 그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 아주 유능한 하인 한 명뿐이었는데, 그 하인은 지금 도움을 구하러 트럼핑턴으로 떠난 상태라네. 하지만 결국 아내가 위험한 병에 걸리면서 끔찍한 타격이 찾아왔네. 아주 지독한 폐결핵이었지. 불쌍한 청년은 슬픔에 미칠 지경이었지만, 비밀을 폭로할 수밖에 없는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는 이 경기를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결국 런던으로 와야만 했다네. 나는 전보를 보내 그를 위로하려 했고, 그는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는 답장을 보내왔지. 자네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보았는지 알 수 없으나, 바로 그 전보가 문제였네. 나는 그가 여기 있어 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위험이 얼마나 급박한지는 말하지 않았네. 하지만 나는 사실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그 아버지가 경솔하게도 고드프리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말았지. 그 결과 고드프리는 광기에 가까운 상태로 곧장 이곳으로 달려왔고, 오늘 아침 죽음이 그녀의 고통을 끝내줄 때까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네. 이게 전부라네, 홈즈 씨. 자네와 자네 친구의 신중함이라면 이 일을 비밀로 지켜줄 거라 믿네."

홈즈가 암스트롱 박사의 손을 꽉 잡았다.

"자, 왓슨."

그가 말했다. 우리는 슬픔이 가득한 그 집을 나서서, 겨울날의 창백한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다.

애비 그랜지

애비 그레인지의 모험

1897년 겨울의 끝자락, 몹시도 춥고 서리가 내린 어느 아침이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아끄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다. 홈즈였다. 그가 든 양초 불빛이 잔뜩 긴장한 채 몸을 굽힌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모습만 보고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서, 왓슨, 어서!" 홈즈가 외쳤다. "사건이 시작됐어. 토 달지 말고! 어서 옷 챙겨 입고 따라와!"

10분 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차링 크로스 역을 향해 고요한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겨울의 희미한 새벽빛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백색으로 흐릿한 런던의 공기 속에서, 이른 아침 일터로 나서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가끔씩 형체도 없이 스쳐 지나갔다. 홈즈는 두꺼운 코트 깃에 몸을 파묻은 채 침묵을 지켰다. 나 역시 그를 따라 몸을 움츠렸다.

공기가 무척이나 차가웠던 데다, 우리 둘 다 아직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역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켄트행 열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몸을 녹일 수 있었다. 그제야 홈즈가 입을 열었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소리 내어 읽었다.

애비 그랜지, 마샴, 켄트, 오전 3시 30분.

친애하는 홈즈 씨에게.

매우 놀라운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즉시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전문 분야와도 아주 잘 맞는 일입니다. 그 여성을 풀어주는 것 외에는, 제가 발견한 현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스터스 경을 그곳에 그대로 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군요.

스탠리 홉킨스 올림.

"홉킨스 경위가 나를 일곱 번이나 찾아왔는데, 매번 그 부름은 충분히 타당했네." 홈즈가 말했다. "그가 맡은 사건 하나하나가 자네 수집품에 다 들어있는 것 같군. 왓슨, 자네의 안목이 꽤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해야겠어. 그 덕분에 자네 글에서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되니까 말이야. 모든 사건을 과학적인 탐구 과정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보려는 자네의 치명적인 습관 때문에, 교육적이고 심지어 고전적인 가치까지 지녔을 법한 일련의 사례들이 망가져 버렸어. 자네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는 있어도 아무런 교훈도 줄 수 없

는 자극적인 세부 사항에만 매달리느라,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들은 대충 훑고 지나가 버리곤 하지."

"직접 쓰면 되잖아요?" 나는 약간의 비통함을 담아 물었다.

"물론 그러고말고, 왓슨. 기꺼이 그러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은 꽤 바쁘지만, 내 남은 인생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쏟을 생각이라네. 수사 기법의 모든 정수를 단 한 권의 책에 담아낼 작정이지.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사 중인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인 것 같네."

"그렇다면 유스터스 경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홉킨스의 필체에서 상당한 동요가 느껴지는군.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말이지. 그래, 폭력 사태가 있었던 모양이고 시신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고 들었네. 단순한 자살 사건이었다면 그가 나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은 비극이 일어나는 동안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 왓슨, 우리는 지금 상류층의 삶을 파헤치고 있어. 바스락거리는 편지지에 'E.B.'라는 모노그램, 가문의 문장, 그리고 근사한 주소까지 말이야. 내 친구 홉킨스가 명성만큼이나 제 역할을 해줄 것 같으니, 아주 흥미로운 아침이 되겠군. 범행은 어젯밤 12시 이전에 일어났네."

"대체 어떻게 아셨습니까?"

"열차 시간표를 살펴보고 시간을 계산해 본 덕분이지. 현지 경찰을 불러야 했고, 스코틀랜드 야드와 연락도 취해야 했네. 홉킨스 경위가 현장으로 출동한 뒤, 결국 나를 부르기까지 했으니 말이야. 이 정도면

꽤나 분주한 밤이었지. 자, 드디어 치즐허스트 역에 도착했으니, 이제 곧 의구심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걸세."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몇 마일쯤 차를 타고 달렸을까, 마침내 공원 정문에 도착했다. 늙은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초췌한 그의 얼굴에는 마치 커다란 재앙이라도 겪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원 길은 고목인 느릅나무들이 늘어선 웅장한 공원을 가로질러 이어졌고, 그 끝에는 팔라디오 양식의 기둥이 세워진 낮고 넓은 저택이 나타났다. 저택의 중앙부는 분명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담쟁이덩굴이 뒤덮여 있었지만, 커다란 창문들을 보니 근래에 개축을 거친 듯했다. 저택의 한쪽 날개채는 아예 새로 지은 것처럼 보였다. 열린 문틈 사이로 스탠리 홉킨스 경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젊고 활기 넘치는 모습에, 눈빛은 예리하고 의욕에 찬 얼굴이었다.

"홈즈 씨, 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왓슨 박사님도요. 하지만 정말이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두 분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인이 정신을 차린 뒤에 사건 경위를 워낙 명확하게 설명해 준 덕분에,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남지 않았거든요. 혹시 루이샴의 좀도둑 일당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랜드럴 가 세 사람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바로 그놈들 짓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보름 전 시드넘에서 한 건을 저질렀을 때 목격자들에게 인상착의까지 찍혔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가까운 곳에서 또 범행을 저지르다니 배짱이 두둑하긴 합니다만, 틀림없이 그놈

들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걸렸으니, 사형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스터스 경이 사망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본인이 쓰던 벽난로 부지깽이로 머리를 맞아 함몰되었습니다.

"운전사가 말하기를, 유스터스 브래컨스톨 경이라고 합니다."

"정확합니다. 켄트주에서 손꼽히는 부자 중 한 분이시죠. 브래컨스톨 부인께서는 지금 아침 식사 방에 계십니다. 가여운 분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처음 뵈었을 때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선 부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 방을 함께 살펴보시지요."

브래컨스톨 부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토록 우아한 자태와 여성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지닌 이를 나는 좀처럼 보기 드물다. 그녀는 금발에 푸른 눈을 지닌 미인이었다. 최근 겪은 일로 인해 안색이 수척하고 초췌해지지만 않았어도, 그 눈부신 외모에 걸맞은 완벽한 피부를 가졌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기도 했다. 한쪽 눈 위로는 자줏빛의 흉측한 부종이 솟아올라 있었는데, 키가 크고 엄격한 인상의 하녀가 식초를 섞은 물로 그 부위를 정성껏 닦아내고 있었다. 부인은 기운이 다한 듯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날카롭고 관찰력 있는 눈빛과 아름다운 이목구비에 서린 기민

한 표정이 드러났다. 그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그녀의 총명함과 용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청색과 은색이 어우러진 헐거운 가운을 걸치고 있었으나, 소파 위 그녀의 곁에는 검은색 스팽글이 박힌 저녁 예복이 놓여 있었다.

"홉킨스 씨, 일어난 일은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녀가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당신이 저 대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 신사분들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분들은 식당에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부인께서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어 조치가 취해지면 정말 좋겠어요. 그가 아직도 그곳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그녀는 몸을 떨더니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헐렁한 가운이 팔뚝 뒤로 흘러내렸다. 그 순간 홈즈가 나직이 탄성을 내뱉었다.

"다른 곳에도 상처가 있군요, 부인! 이건 뭡니까?" 하얗고 둥근 팔 하나에 선명한 붉은 점 두 개가 눈에 띄었다. 여인은 황급히 그곳을 가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분 모두 일단 자리에 앉으시지요. 제가 아는 대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스터스 브래컨스톨 경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지요.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겨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설령 제가 부정하려 애쓴다 해도, 이웃 사람들이 모두 당신에게 그 사실을 말해버릴 것 같아 두렵군요. 어쩌면 제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남호주에서 자랐거든요. 예의와 격식을 따지는 이곳 영국의 삶은 제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유스터스 경이 지독한 술꾼이라는 점이지요. 그런 남자와 단 한 시간만 함께 있어도 불쾌해 죽겠는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기개가 높은 여인이 밤낮으로 그에게 묶여 지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결혼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자 범죄이며, 악행입니다. 당신네의 이 괴물 같은 법들이 이 땅에 저주를 불러올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신께서 이런 사악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뺨을 붉게 물들인 채 몸을 일으켜 앉았다. 이마에 새겨진 끔찍한 낙인 위로 눈동자가 이글거렸다. 그때 엄격한 하녀가 강하면서도 달래는 듯한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쿠션 위로 부드럽게 눌러 내렸고, 거친 분노는 격정적인 흐느낌으로 변해 잦아들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저택의 하인들은 모두 신축된 별관에서 잠을 잡니다. 중앙 건물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고, 그 위층에는 저희 부부의 침실이 있습니다. 제 하녀인 테레사는 제 방 바로 위층에서 자고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별관에 있는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깨어날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

다. 강도들도 분명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유스터스 경은 10시 반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숙소로 물러간 상태였지요. 제 하녀만 깨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제가 부를 때까지 집 위층에 있는 자기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책에 몰두한 채 이 방에서 11시가 넘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려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이미 설명해 드렸듯이 유스터스 경을 항상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방과 집사 대기실, 총기 보관실, 당구실, 응접실을 거쳐 마지막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창가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얼굴에 바람이 들이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제가 커튼을 젖히자, 방 안으로 막 들어서던 어깨가 넓은 노신사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창문은 긴 프랑스식 창문이라 사실상 잔디밭으로 이어지는 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손에 침실용 양초를 들고 있었는데, 그 불빛에 비친 첫 번째 남자 뒤로 다른 두 남자가 막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자는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제 손목을 낚아채더니 이어서 목을 졸랐습니다.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린 찰나, 그가 주먹으로 제 눈 위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들은 벨 끈을 뜯어내 식탁 머리에 놓인 오크 나무 의자에 저

를 단단히 묶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묶여 있었고, 입에 물린 손수건 때문에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불행하게도 제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명 수상한 소리를 듣고 대비를 한 듯했습니다. 그는 잠옷 셔츠에 바지 차림으로, 평소 아끼던 검은 가시나무 몽둥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도둑들에게 달려들었지만, 다른 한 명—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이 몸을 숙여 화로에서 부지깽이를 집어 들더니, 지나가며 남편을 무참히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신음하며 쓰러졌고, 다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의식을 잃었을 뿐입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이미 찬장에서 은식기들을 챙겼고 거기 있던 와인 한 병도 꺼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손에 유리잔을 하나씩 들고 있었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명은 수염이 난 노인이었고 나머지 둘은 머리카락이 없는 젊은 녀석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두 아들 같더군요.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 제가 단단히 묶여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창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입을 자유롭게 하기까지 꼬박 15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겨우 입을 풀고 비명을 지르자 하녀가 달려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곧 다른 하인들도 놀라 달려왔고, 우리는 즉시 지역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런던에 이 사실을 알렸지요. 신사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

는 건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홈즈 씨?" 홉킨스가 물었다.

"브래컨스톨 부인의 인내심과 시간을 더 이상 뺏고 싶지는 않군요." 홈즈가 말했다. "식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겪은 일을 듣고 싶습니다." 홈즈는 하녀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침실 창가에 앉아 있는데, 저기 별채 대문 근처에서 달빛을 받고 있는 남자 셋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별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로부터 한 시간이나 더 지나서야 주인님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급히 내려갔더니, 가엾은 주인님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방 안은 피와 뇌수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묶여 있는 상태에서 옷까지 온통 피로 얼룩졌으니, 여자라면 정신이 나갈 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애들레이드의 메리 프레이저 양은 용기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애비 그랜지의 브래컨스톨 부인께서도 예전과 달라진 모습은 아니시고요. 신사 여러분, 심문은 충분히 하신 것 같군요. 이제 주인님은 늘 곁을 지키던 테레사와 함께 방으로 돌아가서, 간절히 필요한 휴식을 취하셔야겠습니다."

수척한 여인은 어머니 같은 자애로움을 담아 주인 여인의 팔을 감싸 안았고, 그녀를 데리고 방을 나갔다.

"그 하녀는 평생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홉킨스가 말했다. "아기 때부터 돌봐왔고, 18개월 전 두 사람이 처음 호주를 떠나 영국으로 올 때도 함께 왔지요. 이름은 테레사 라이트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성실한 하녀지요. 홈즈 씨, 이쪽으로 오시지요!"

홈즈의 표정에서 날카로운 흥미가 사라진 것을 보고, 나는 미스터리가 풀림과 동시에 이 사건이 지닌 매력도 함께 달아났음을 직감했다. 체포해야 할 범인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고작 그런 흔해 빠진 악당들을 잡으려고 홈즈가 직접 손을 더럽힐 리 없었다. 마치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고작 홍역 환자를 돌봐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느낄 법한 짜증이 내 친구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애비 그랜지의 식당에서 벌어진 광경은 충분히 기이했다. 그 기이함이 홈즈의 주의를 다시 끌었고, 식어가던 그의 흥미를 되살려 놓았다.

방은 천장이 높고 매우 넓었다. 조각을 새긴 참나무 천장과 벽면을 두른 참나무 판벽이 보였고, 벽을 따라 사슴 머리 박제와 고대 무기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문에서 가장 먼 쪽 끝에는 우리가 들었던 그 높은 프랑스식 창문이 있었다. 오른쪽에는 세 개의 작은 창문이 있어, 차가운 겨울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왼쪽에는 거대한 참나무 상판이 돌출된 크고 깊은 벽난로가 자리 잡았다. 벽난로 옆에는 팔걸이가 있고 하단에는 가로지르는 지지대가 달린 묵직한 참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의자의 트인 나무 구조 사이로는 진홍색 밧줄이 안팎으로 엮여 있었는데, 밧줄의 양 끝은 하단 지지대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여인을 풀어줄 때 밧줄을 몸에서 빼내기는 했지만, 밧줄을 고정했던 매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야 눈에 들어왔다. 당시 우리의 정신은 벽난로 앞 호랑이 가죽 깔개 위에 놓인 그 끔찍한 물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시신은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마흔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천장을 향해 얼굴을 든 채 똑바로 누워 있었는데, 짧고 검은 수염 사이로 하얀 치아가 드러나 마치 비웃는 듯한 모습이었다. 두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가시나무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검고 잘생긴 매부리코의 이목구비는 원한에 찬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그 때문에 죽은 얼굴에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악마 같은 표정이 서려 있었다. 자수 장식이 달린 화려한 잠옷 차림인 데다 바지 아래로 맨발이 삐져나온 것으로 보아, 그는 소동이 일어났을 당시 분명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머리는 끔찍하게 다쳐 있었고, 방 안의 모든 흔적은 그를 쓰러뜨린 타격이 얼마나 잔혹하고 격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옆에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 휘어져 버린 무거운 부지깽이가 놓여 있었다. 홈즈는 그 부지깽이와, 그것이 남긴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흔적을 차례로 살폈다.

"이 랜들이라는 연장자는 분명 대단한 인물임이 틀림없군."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홉킨스가 말했다. "그놈에 관한 기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주 거친 놈이더군요."

"그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걸세."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그를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도망쳤을 거라는 짐작도 있었고요. 하지만 범죄 일당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도망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모든 항구에 수배 소식을 전달해 두었고, 오늘 저녁이 되기 전에 현상금도 걸릴 예정이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건, 피해 여성이 그들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설명을 듣는 즉시 범인을 알아챌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느냐 하는 점입니다."

"정확합니다. 브래컨스톨 부인까지 입을 막아버릴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녀가 기절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제안하듯 말했다.

"충분히 그럴 법한 이야기군. 그녀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면, 설마 목숨까지 앗아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 가엾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나, 홉킨스? 그에 대해 뭔가 기묘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군."

"술이 깼을 때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지만,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악마로 변하곤 했지요. 정확히는 만취 상태라기보다 반쯤 취했을 때 그

랬습니다.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는 일은 드물었으니까요. 술기운이 돌 때면 마치 악마라도 씐 사람처럼 무슨 짓이든 저질렀습니다. 듣기로는 그 막대한 재산과 작위가 무색하게도, 한두 번은 정말 큰 사고를 칠 뻔한 적도 있었다더군요. 개에게 석유를 뿌려 불을 붙였다는 추문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개가 부인의 반려견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겨우겨우 입을 막아야 했지요. 게다가 테레사 라이트라는 하녀에게 디켄터를 집어 던져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없어야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홈즈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여성을 묶었던 붉은 밧줄의 매듭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러고는 도둑이 줄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끊어져 버린, 해지고 너덜너덜해진 끝부분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이걸 끌어내릴 때 주방에 있는 벨이 아주 크게 울렸겠군요." 그가 말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주방이 집 맨 뒤쪽에 있으니까요."

"도둑이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무모하게 벨 줄을 잡아당긴 겁니까?"

"정확합니다, 홈즈 씨. 정확해요. 제가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을 하셨군요. 그자가 이 집의 구조와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토록 이른 시간에 하인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것이라는 점, 그리고 주방에서 벨이 울려도 아

무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자는 분명 하인 중 한 명과 긴밀히 결탁했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하인은 여덟 명이나 되고, 모두 품행이 단정한 이들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홈즈가 말했다. "주인이 디캔터를 집어던진 상대, 즉 그 머리를 겨냥당했던 사람을 의심하는 게 당연하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이 그토록 충성을 다하는 듯 보이는 안주인을 배신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음, 아무튼 이건 사소한 문제야. 랜달을 잡고 나면 공범을 찾아내는 건 아마 어렵지 않을 걸세. 설령 이 여인의 이야기에 증명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정황이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군."

그는 프랑스식 창문으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여기엔 아무런 흔적도 없네. 하지만 땅이 철처럼 딱딱하니 흔적이 남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지. 그나저나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이 양초들이 켜져 있었군."

"그렇습니다. 도둑들은 그 불빛과 여인의 침실에 켜둔 촛불을 이용해 길을 찾아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별로 가져간 건 없었습니다. 사이드보드 위에 있던 은식기 몇 점뿐이었죠. 브래컨스톨 부인은 범인들이 유스테이스 경의 죽음에 너무 당

황한 나머지, 평소 같았으면 그랬을 법한 집안 뒤지기는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겠지만, 듣기로는 그들이 와인도 좀 마셨다고 하더군요."

"긴장을 좀 가라앉히려고요."

"정확합니다. 사이드보드 위에 놓인 이 유리잔 세 개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겠지요?"

"그렇습니다. 병은 그들이 남겨둔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뭡니까?"

세 개의 잔이 한데 모여 있었다. 잔에는 모두 와인 빛이 감돌았고, 그중 하나에는 비즈윙(beeswing)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잔 옆에는 와인이 3분의 2 정도 남은 병이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얼룩이 깊게 진 긴 코르크 마개가 놓여 있었다. 코르크의 상태와 병에 쌓인 먼지로 보아, 살인자들이 즐긴 것은 결코 흔한 와인이 아니었다.

홈즈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생기 없이 무기력하던 표정은 사라졌고, 깊게 파인 그의 날카로운 눈동자에는 다시금 흥미로운 사건을 마주한 듯한 기민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코르크 마개를 들어 올려 아주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이 병을 어떻게 땄습니까?" 그가 물었다.

홉킨스가 반쯤 열린 서랍 하나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탁자용 린넨 몇 장과 커다란 코르크 따개가 놓여 있었다.

"브래컨스톨 부인이 그 나사가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병을 열었을 그 순간 그녀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고말고요. 사실 그 나사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아마도 칼에 달린, 길이가 1.5인치도 안 되는 작은 휴대용 나사로 땄을 겁니다. 코르크 윗부분을 살펴보면, 코르크를 뽑아내기 전에 나사가 세 번이나 박혔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사가 코르크를 완전히 관통한 적은 없어요. 만약 이 긴 나사를 썼다면, 단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코르크를 꿰뚫어 통째로 뽑아 올렸을 테니까요. 범인을 잡으면, 그가 이런 다용도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훌륭하군요!" 홉킨스가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유리잔들이 저를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브래컨스톨 부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세 남자를 실제로 '보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녀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군요.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홉킨스 경위, 그 세 개의 유리잔이 아주 기묘하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겁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다고요? 허, 참, 알겠습니다. 넘어

가도록 하죠. 아마도 저처럼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이 눈앞에 있어도 자꾸만 복잡한 이유를 찾으려 드는 경향이 있나 봅니다. 물론, 그 유리잔들은 그저 우연이겠지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홉킨스 경위. 경위님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군요. 사건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신 듯하고요. 랜달이 체포되면 알려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전해주십시오. 조만간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세, 왓슨. 집에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훨씬 낫겠어."

돌아오는 길, 홈즈의 표정을 보니 그가 무언가 목격한 사실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따금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며 마치 모든 의문이 풀린 것처럼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의구심이 그를 짓눌렀고, 미간을 찌푸린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그의 생각이 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의 비극이 벌어졌던 애비 그랜지의 그 거대한 식당 말이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 열차가 교외 역을 느릿느릿 빠져나갈 무렵, 홈즈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이끌린 듯 승강장으로 뛰어내렸고 나를 뒤따라 끌어당겼다.

"미안하네, 여보게."

기차의 뒤쪽 객차들이 곡선 구간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말했다.

"자네를 이런 변덕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왓슨, 내 목숨을 걸고 말하건대 이 사건을 이 상태로 두고 떠날 수는 없네. 내 모든 본능이 이건 아니라고 외치고 있어. 잘못됐어. 모든 게 잘못됐단 말일세. 정말이지 잘못됐어. 하지만 부인의 이야기는 완벽했고, 하녀의 증언도 충분했으며, 세부 사항도 꽤 정확했지. 내가 그 사실에 맞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대체 무엇이 있겠나? 고작 와인잔 세 개뿐인데 말이야.

하지만 만약 내가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룬다는 마음가짐으로,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세심히 살폈더라면, 그때는 더 확실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랬겠지.

왓슨, 치즐허스트행 기차가 올 때까지 이 벤치에 앉아 있게. 내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자네에게 설명하겠네. 다만 부탁하건대, 하녀나 그 여주인이 한 말이 반드시 사실일 거라는 생각부터 일단 버려주게나. 부인의 매력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되니까 말이야."

"그녀의 이야기에는 냉정하게 따져보았을 때 의심스러운 구석이 분명히 있네. 보게나, 2주 전 시든엄에서 빈집털이범들이 꽤 큰 건수를 올렸지 않았나. 신문에도 그들의 행적과 인상착의가 실렸으니, 가상의 강도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걸세. 사실 큰돈을 만져본 빈집털이

범들은 대개 또 다른 위험한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번 돈을 즐기며 살고 싶어 하는 법이라네.

게다가 몇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점들이 더 있네. 빈집털이범이 그렇게 이른 시간에 움직이는 일은 드물고, 비명을 막겠다고 부인을 때리는 일도 드무네. 오히려 때리는 게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일 텐데 말이야. 또한, 한 명을 제압할 만큼 인원이 충분한데도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드물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도 겨우 그 정도만 훔치고 만족하는 일도 드물지. 마지막으로, 그런 자들이 술병을 절반이나 남겨두고 가는 일은 정말이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네.

왓슨, 이 모든 수상한 점이 자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이 모든 단서가 합쳐지면 그 영향력은 확실히 상당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단서만 놓고 본다면 모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제가 보기에 가장 기이한 점은, 그 여인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글쎄, 왓슨, 그 부분은 나도 확신할 수 없네. 그들이 그녀를 죽이려 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하도록 그녀를 어딘가에 가두었음이 분명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내가 증명해 보이지 않았나? 그 여인의 이야기에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인잔 사건까지 터졌군."

"와인잔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릿속으로 그 모습이 그려집니까?"

"분명히 보입니다."

"세 남자가 거기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왜 안 된다는 거죠? 잔마다 와인이 들어있었는데요."

"정확해. 하지만 비즈윙(beeswing)은 딱 한 잔에만 있었어. 자네도 분명 그 사실을 눈치챘을 거야.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채운 잔에 침전물이 가장 많이 남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 안에는 그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 두 잔은 맑았다가 세 번째 잔에서만 갑자기 그것이 잔뜩 섞여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할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 잔을 채운 뒤에 병을 아주 격렬하게 흔들어서, 세 번째 잔에 침전물이 섞여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군요. 아니, 아닙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된 잔은 단 두 개뿐이었고, 세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두 잔의 찌꺼기를 모두 세 번째 잔에 부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잔에 모든 침전물이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소한 현상에서 진

실을 찾아낸 것이라면, 이 사건은 순식간에 평범한 사건에서 아주 경이로운 사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브래컨스톨 부인과 그녀의 하녀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이 한 말은 단 한 마디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범을 숨겨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건을 재구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임무입니다. 자, 왓슨, 시든엄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애비 그랜지의 저택 사람들은 우리의 귀환에 무척 놀랐다. 하지만 셜록 홈즈는 스탠리 홉킨스가 본부에 보고하러 떠난 것을 확인하고는 곧장 식당을 차지했다. 그는 식당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뒤, 두 시간 동안 정밀하고도 고된 조사에 몰두했다. 그의 눈부신 연역적 추리가 세워지는 견고한 토대는 바로 이런 세밀한 조사에서 비롯된다. 나는 마치 교수의 시연을 관찰하는 열정적인 학생처럼 구석에 앉아, 그 놀라운 탐색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창문, 커튼, 카펫, 의자, 그리고 밧줄까지. 모든 것이 차례로 정밀하게 검사되었고 깊은 고찰의 대상이 되었다. 불운한 준남작의 시신은 이미 옮겨진 상태였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마침내 홈즈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하며 거대한 벽난로 선반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의 머리 위 높은 곳에는 와이어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몇 인치 길이의 붉은 줄이 늘어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줄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더니 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듯, 벽에 달린 나무 받침대에 무릎을 올렸다. 덕분에 그의 손은 끊어진 밧줄 끝부분에 몇 인치 정도 닿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밧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나무 받침대 자체인 듯 보였다. 마침내 그는 만족스러운 감탄사를 내뱉으며 바닥으로 뛰어 내려왔다.

"괜찮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드디어 사건을 잡았어. 우리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주 놀라운 사건이야. 그런데 세상에, 내가 어쩌면 이렇게 둔했을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군. 이제 빠진 고리 몇 가지만 더 채우면, 내 추리의 사슬이 거의 완성될 것 같네."

"범인들을 찾아냈나?"

"범인은 한 사람일세, 왓슨, 한 사람. 단 한 명뿐이지만,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라네. 사자처럼 힘이 세지. 저 부지깽이를 휘어지게 만든 일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키는 6피트 3인치나 되고, 다람쥐처럼 민첩하며, 손놀림도 아주 정교해. 게다가 무엇보다 머리 회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네. 이 모든 기묘한 이야기가 다 그자가 꾸며낸 것이니 말이야. 그래, 왓슨. 우리는 아주 비범한 인물의 솜씨를 마주한 것이네. 하지만 그놈은 저 종 줄에,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았어야 할 결정적인 단서를 남겨두었어."

"단서가 어디에 있었나?"

"자, 왓슨. 만약 자네가 종을 울리려고 벨 로프를 잡아당긴다면, 어느 지점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나? 당연히 와이어와 연결된 부위겠지. 그런데 왜 이 로프는 꼭대기에서 고작 3인치 떨어진 곳이 끊어져 있는 걸까?"

"거기가 해졌기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이쪽 끝은 해져 있죠. 그는 아주 교묘하게 칼을 사용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끝은 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관찰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당신이 벽난로 선반 위에 올라간다면 해진 흔적 하나 없이 매끄럽게 잘려 나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범인은 밧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종이 울려 경보가 울릴까 봐 밧줄을 그냥 잡아당겨 끊어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벽난로 선반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반에 완전히 닿지는 못했기에, 선반 받침대에 무릎을 댔을 겁니다. 먼지 위에 남은 자국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몸을 지탱한 뒤 칼을 가져다 대어 줄을 끊어낸 겁니다.

저는 그곳에 닿으려면 적어도 3인치는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범인은 저보다 키가 적어도 3인치는 더 큰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저 오크 나무 의자 좌석에 남은 자국을 보십시오! 저게 무엇 같습니까?"

"피군."

"의심할 여지 없이 피로군. 이것 하나만으로도 부인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어. 만약 범행이 일어날 당시 그녀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흔적이 남을 수 있겠나? 아니, 아니야. 그녀는 남편이 죽은 _후에_ 의자에 앉혀진 거야. 저 검은 드레스에도 이와 비슷한 흔적

이 남아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왓슨, 우리는 아직 워털루를 만나지는 않았네만, 이번 사건은 우리의 마렝고라네. 패배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싸움이지. 이제 간호사인 테레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려면 당분간은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네."

그 엄격한 호주 출신 간호사는 참으로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과묵하고 의심 많으며 불친절하기까지 한 그녀였기에, 홈즈의 상냥한 태도와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솔직함이 전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그제야 그녀도 비로소 마음을 열고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죽은 고용주에 대한 증오심을 숨기려 들지도 않았다.

"네, 손님. 그분이 제게 디캔터를 던진 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제 주인님께 욕설을 하는 걸 듣고, 만약 주인님의 오라버니께서 여기 계셨다면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게 디캔터를 던지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제 예쁜 주인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수십 개라도 던지셨을 겁니다. 그분은 늘 주인님을 학대하셨지만, 주인님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 불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주인님께 저지른 일들을 저에게조차 다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주인님 팔의 상처들도 제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저는 그것이 모자핀에 찔린 자국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활한 악마 같은 인간을—하느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악마라면 악마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달콤한 사람이었습

니다. 불과 18개월 전의 일인데, 우리 둘은 마치 18년은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인님은 런던에 막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네, 주인님의 첫 여행이었죠. 집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그분은 작위와 재산, 그리고 가식적인 런던식 매너로 주인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인님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언제 만났냐고요? 글쎄요, 도착하자마자 만났습니다. 저희는 6월에 도착했고, 그건 7월의 일이었습니다. 두 분은 작년 1월에 결혼하셨습니다. 네, 주인님은 지금 다시 아침 식사 방에 계십니다. 분명 손님을 만나실 겁니다. 하지만 주인님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님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으니까요."

브래컨스톨 부인은 아까와 같은 소파에 기대어 있었지만, 안색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우리와 함께 들어온 하녀는 부인의 이마에 남은 멍 자국을 다시 정성껏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부디 저를 다시 심문하러 오신 게 아니길 바라요." 여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홈즈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브래켄스톨 부인, 결코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인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 오셨는지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오직 부인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를 친구로 여기고 믿어 주신다면,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홈즈 씨!"

"아니요, 아니요, 브래컨스톨 부인. 소용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진 명성이 아주 미미할지는 몰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 명성을 전부 걸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완전히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주인과 하녀 모두 창백한 얼굴로 겁에 질린 눈을 한 채 홈즈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무례한 놈!" 테레사가 소리쳤다. "지금 우리 주인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요?"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게 해줄 말은 아무것도 없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브래컨스톨 부인.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그러더니 이내 어떤 강한 결심이 선 듯, 표정은 가면을 쓴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제가 아는 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홈즈는 모자를 집어 들고 어깨를 으쓱했다. “유감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와 함께 방과 집을 나섰다. 공원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친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못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외로운 백조 한 마리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구멍 하나만은 뚫려 있었다. 홈즈는 그 구멍을 잠시 응시하더니, 곧장 별장 정문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스탠리 홉킨스에게 전할 짧은 메모를 휘갈겨 쓴 뒤, 별장 관리인에게 건네주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호프킨스 씨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봐야겠네. 벌써 두 번째 방문인데 그냥 돌아가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나.” 그가 말했다. “아직 그를 완전히 믿고 속내를 다 털어놓을 단계는 아니야. 내 기억이 맞다면, 다음 행선지는 팰 말 끝자락에 있는 애들레이드-사우샘프턴 선의 해운 사무소여야 하네. 남호주와 영국을 잇는 증기선 노선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우선은 규모가 더 큰 쪽을 먼저 조사해 보세.”

홈즈가 매니저에게 보낸 명함 덕분에 즉시 관심을 끌 수 있었고, 필요한 정보도 금방 모두 얻어냈다. 1895년 6월 당시, 그들의 선단 중 단 한 척만이 모항에 도착해 있었다. 그 배는 그들의 배 중 가장 크고 훌륭한 '록 오브 지브롤터호'였다. 승객 명단을 확인해 보니, 애들레이드에서 온 프레이저 양이 하녀를 데리고 그 배를 타고 항해 중이었다. 배는 현재 수에즈 운하 남쪽 어딘가에서 호주로 향하는 중이었다. 선원들은 1895년과 동일했으나, 한 명의 예외가 있었다. 일등 항해사였던 잭 크로커 씨가 선장이 되어, 이틀 뒤 사우샘프턴에서 출항할 그들의 새 배 '배스 록호'를 지휘하게 된 것이다. 그는 시드넘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

가 기다려 주기만 한다면 지시 사항을 전달받으러 그날 아침에 이곳으로 올 예정이었다.

아니, 홈즈는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경력과 인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뿐이었다.

그의 경력은 화려했다. 함대 내의 그 어떤 장교도 그와 견줄 만한 자가 없었다. 성격에 대해 말하자면, 근무 중에는 믿음직스러웠으나 함선 갑판을 벗어나면 거칠고 무모한 사내였다. 성미가 급하고 흥분하기 쉬웠지만, 충직하고 정직하며 마음씨 또한 따뜻했다.

홈즈가 애들레이드-사우샘프턴 선사 사무실을 나서며 파악한 정보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홈즈는 스코틀랜드 야드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겨 마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는 차링 크로스 전보국으로 차를 몰아 메시지를 하나 보낸 뒤에야, 비로소 우리를 데리고 다시 베이커가로 향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었네, 왓슨."

우리가 방으로 다시 들어서자 그가 말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세상 그 무엇도 그를 구할 수 없네. 내 경력을 돌이켜보면, 범인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쳤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신중함을 배웠네. 나는 내 양심을 속이느니 차라리 영국의 법을 이

용해 잔꾀를 부리는 쪽을 택하겠네. 행동에 나서기 전에 정보를 조금 더 수집해 보세."

저녁이 되기 전, 스탠리 홉킨스 경위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였다.

"홈즈 씨, 당신은 마법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가끔은 당신에게 인간의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닐까 진심으로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도난당한 은식기들이 저 연못 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신 겁니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더러 그걸 조사해 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손에 넣은 건가?"

"네, 받았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오히려 사건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지. 은식기를 훔쳐서 가장 가까운 연못에 던져버리는 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확실히 좀 별난 행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만약 은제품을 가져간 사람들이 그것을 탐내서 가져간 게 아니라, 말하

자면 그저 눈속임용 위장으로 가져간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대체 왜 머릿속을 스친 겁니까?"

"글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프랑스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을 때, 바로 코앞에 얼음 위에 아주 매혹적인 작은 구멍이 뚫린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은신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은닉처였군요. 이제야 말이 됩니다!" 스탠리 홉킨스가 외쳤다. "네, 맞아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각이 이른 아침이었고, 길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은식기를 가지고 있다가 들킬까 봐 겁이 난 나머지, 일단 연못에 가라앉혀 둔 겁니다.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시 찾으러 오려고 말이죠. 훌륭합니다, 홈즈 씨. 당신이 생각했던 눈속임이라는 발상보다 이쪽이 훨씬 설득력 있군요!"

"정말 그렇군요. 아주 훌륭한 이론을 세우셨습니다. 제 생각은 터무니없는 공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덕분에 은을 찾아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전부 당신 덕분이지요. 하지만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차질이라니요?"

"네, 홈즈 씨. 랜달 일당은 오늘 아침 뉴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홉킨스! 어젯밤 켄트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자네 이론과는 확실히 배치되는 결과군."

"이건 치명적입니다, 홈즈 씨. 정말이지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랜달 일당 말고도 세 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은 또 있을 겁니다. 아니면 경찰도 아직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조직일지도 모르고요."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아니, 벌써 가시려는 겁니까?"

"맞습니다, 홈즈 씨.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한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게 들려주실 만한 단서라도 있으신지요?"

"이미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지요?"

"글쎄요, 저는 그것이 눈속임용 위장이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지요."

"하지만 왜입니까, 홈즈 씨. 대체 왜 그런 거죠?"

"아, 물론 그게 핵심이지요. 하지만 일단 염두에 두시길 권합니다. 어쩌면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녁 식사는 안 하십니까?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식탁을 깨끗이 치운 뒤에야 홈즈는 다시 그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인 채, 타오르는 벽난로의 따스한 불길 쪽으로 슬리퍼를 신은 발을 뻗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시계를 확인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겠군, 왓슨."

"언제 말입니까?"

"자, 이제 몇 분만 기다리게. 방금 내가 스탠리 홉킨스에게 다소 무례하게 대했다고 생각하겠지?"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야, 왓슨. 이렇게 생각해야 하네. 내가 아는 것은 비공식적인 정보지만, 그가 아는 것은 공식적인 정보라네. 나에게는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지만, 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지. 그는 모든 것을 밝혀야만 하네.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저버린 배신자가 되는 셈이니까. 만약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나는 그를 그런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고 싶지 않네. 그래서 내 생각이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해질 때까지는 정보를 아껴두려는 것이라네."

"하지만 그게 언제란 말입니까?"

"때가 왔네. 자네는 이제 한 편의 놀라운 작은 드라마, 그 마지막 장면을 목격하게 될 거야."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집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당당한 풍채의 사내가 들어섰다. 그는 키가 아주 큰 청년이었다. 금빛 콧수염에 푸른 눈을 가졌으며, 피부는 열대의 태양에 그을린 듯했다. 탄력 넘치는 발걸음은 그 거대한 체구가 강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활기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는 뒤로 문을 닫고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주먹을 꽉 쥔 채 가슴을 들썩이며 서 있었다.

"앉으시게, 크로커 대위. 내 전보를 받았나?"

방문객은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의아한 눈빛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전보를 받고 당신이 말한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사무실까지 찾아갔다는 소식은 들었고요. 당신을 피할 길은 없더군요. 자, 차라리 최악의 상황을 말해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체포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어서 말해 보란 말입니다! 고양이 앞에 놓인 쥐를 보듯 그렇게 앉아서 나를 애태우지만 말고 말입니다."

"그에게 시가 하나를 주게." 홈즈가 말했다. "크로커 대위, 시가를 한 모금 물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자네가 평범한 범죄자였다면 나는 여기서 자네와 함께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지도 않았을 테니, 그 점은 안심해도 좋네.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나를 속이려 든다면 그때는 자네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젯밤 애비 그랜지에서 벌어진 일을 내게 사실대로 말하시오. 군더더기 하나 더하지 말고, 빼놓는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소.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사실을 왜곡한다면, 나는 당장 창밖으로 경찰 호각을 불어버릴 것이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영영 내 손을 떠나게 될 거요."

선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햇볕에 검게 그을린 커다란 손으로 제 다리를 탁 쳤다.

"운에 맡기겠습니다!" 그가 외쳤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분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죠. 하지만 그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후회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시 그 일을 한다 해도 저는 기꺼이 할 것이며, 그 일을 해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빌어먹을 짐승 같으니라고! 만약 그놈에게 고양이처럼 목숨이 여러 개 있었다 해도, 그 목숨들은 전부 제 덕분에 붙어 있는 셈일 겁니다! 하지만 메리, 메리 프레이저만 생각하면…… 결코 그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녀를 곤경에 빠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미소 한 번 띄우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 저로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사 여러분, 제 이야기를 다 들려드린 뒤에 남자 대 남자로 묻겠습니다. 제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니,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도 이미 알고 계시리

라 믿습니다. 당시 그녀는 승객이었고, 저는 '락 오브 지브롤터'호의 일등 항해사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그날부터 내게 그녀는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항해하는 매일같이 그녀를 향한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밤, 저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며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발이 닿았던 그 갑판에 입을 맞추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저와 약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한 여인이 남성을 대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정중한 태도로 저를 대해주었을 뿐입니다. 불평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쪽에서는 오로지 사랑뿐이었고, 그녀 쪽에서는 오로지 훌륭한 동료애와 우정뿐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헤어질 때 그녀는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저는 다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작위와 재산이라니, 그녀보다 그것들을 더 잘 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기적인 놈은 아니거든요. 그저 그녀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기뻤을 뿐입니다. 돈 한 푼 없는 선원에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메리 프레이저를 사랑한 방식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항해에서 승진을 했고, 새로 배가 진수되기 전이라 시든엄에서 사람들과 함께 몇 달을 기다려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길에서 그녀의 하녀였던 테레사 라이트를 만났습니다. 테레사는 그녀에 관한 일, 그놈에 관한 일, 정말 모든 것을 다 말해주더군요. 여러분, 정말이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술주정뱅이 개만도 못한 놈이,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대다니요! 그 여자의 구두라도 핥을 자격이 없는 놈이 말입니다! 테레사를 다시 만났고, 그다음엔 메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만났지요. 하지만 그 후로는 그녀가 더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일주일 안에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녀를 꼭 한 번만 더 보겠다고 결심했지요. 테레사는 언제나 제 친구였습니다. 테레사 역시 메리를 사랑했고, 저만큼이나 그 악당을 증오했으니까요. 테레사를 통해 그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아래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곤 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 방 근처로 살금살금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추운 밤에 저를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게 큰 앞창문 쪽으로 오라고 속삭였고, 제가 다가가니 식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다시금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 짐승 같은 놈을 다시 한번 저주했지요. 여러분, 하늘이 저를 증언해 주시겠지만, 저는 창가 바로 안쪽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그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미친놈처럼 방 안으로 달려 들어오더니, 여인에게 쓸 수 있는 가장 저질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즉시 벽난로 부지깽이를 집어 들었고, 둘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제 팔을 보십시오. 그놈의 첫 번째 공격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마치 썩은 호박을 치듯 그놈을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후회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요! 그의 목숨이냐 제 목숨이냐의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목숨이냐 그녀의 목숨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미친놈의 손아귀에 그녀를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를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글쎄요, 만약 여러분이 제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가 그녀를 때렸을 때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위층에 있던 노부인 테레사가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찬장에는 와인 한 병이 있었죠. 메리가 충격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기에, 저는 와인을 따서 그녀의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테레사는 얼음처럼 냉정했습니다. 이 일은 제 계획인 동시에 그녀의 계획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는 도둑이 저지른 일처럼 꾸며야만 했습니다. 테레사가 주인에게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동안, 저는 서둘러 올라가 종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의자에 묶은 뒤, 밧줄 끝을 일부러 해지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대체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밧줄을 끊었는지 의심을 살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다음에는 강도 사건처럼 보이려고 은제 접시와 단지 몇 개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며, 제가 15분 정도 여유를 벌면 바로 경보를 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은제품들을 연못에 던져버리고 시드넘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완벽한 밤을 보냈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홈즈 씨, 설령 제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이것이 진실이며, 숨김없는 전부입니다."

홈즈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러고는 방을 가로질러 가 우리 방문객의 손을 맞잡았다.

"내 생각도 그렇네." 그가 말했다. "자네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일 수밖에 없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닌 것이 거의 없으니까 말이야. 저 벽걸이에서 종 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곡예사나 선원뿐이네. 그리고 줄을 의자에 묶은 저 매듭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역시 선원뿐이지. 이 부인이 선원과 접촉했을 기회는 항해 중에 단 한 번뿐이었네. 게다가 상대는 부인과 비슷한 계층의 인물이었을 거야. 부인이 그를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모습에서 그를 향한 사랑이 느껴졌거든. 자, 이제 내가 올바른 단서를 잡고 나니 자네를 찾아내는 일이 얼마나 쉬웠는지 알겠나?"

"경찰이 우리의 속임수를 결코 간파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간파하지 못했고, 제가 믿기로는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크로커 대위님.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위님이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극한의 도발을 당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대위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건 영국

배심원단이 결정할 몫입니다. 우선 저는 대위님께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대위님이 앞으로 24시간 안에 자취를 감추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밝혀지나요?"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선원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메리가 공범으로 몰릴 거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제가 혼자 몰래 빠져나가는 동안, 메리를 홀로 남겨두어 비난을 감수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어떤 가혹한 처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홈즈 씨. 내 가여운 메리만은 어떻게든 법정에 서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홈즈는 다시 한번 그 선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저 시험해 본 것뿐인데, 당신은 매번 진실하게 답하는군요. 좋습니다. 내가 짊어진 책임이 막중하긴 하지만, 홉킨스에게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주었으니 이제 그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크로커 대위,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 봅시다. 당신은 피고인입니다. 왓슨, 당신은 영국 배심원단 역할을 맡아주세요. 당신만큼 배심원을 대변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판사를 맡겠습니다. 자, 배심원 여러분, 증거를 모두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입니다, 재판장님." 내가 말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크로커 대위, 당신은 무죄입니다. 법이 다른 희생자를 찾아내지 않는 한, 당신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1년 뒤에 다시 이 부인 앞에 나타나십시오. 그리하여 그녀의 앞날과 당신의 앞날이, 오늘 밤 우리가 내린 이 판결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얼룩

두 번째 얼룩의 모험

내 친구 셜록 홈즈의 활약상을 대중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애비 그랜지 사건」이 될 계획이었다. 소재가 부족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수백 건의 사건 기록이 내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이 놀라운 인물의 독특한 개성과 비범한 수사 방식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홈즈가 자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출판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가 실제로 탐정 업무를 수행하던 시절에는 성공 사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런던을 떠나 서식스 다운즈에서 학문 연구와 양봉에 전념하며 완전히 은퇴했다. 이제 그는 유명해지는 것을 몹시 싫어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뜻을 엄격히 지켜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해 왔다.

내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는 이러했다. 「두 번째 얼룩 사건」은 때가 되면 반드시 발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이 긴 연작의 대미를 장식하기에는 홈즈가 다루었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국제적 사건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나는 그를 설득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기록한 내용을 마침내 대중 앞에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만약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부 세부 사항을 다소 모호하게 서술한다면, 독자들은 나의 이러한 침묵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해 가을,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 심지어 어느 십 년대인지조차 여기서는 밝히지 않기로 한다. 그날 우리는 베이커가의 소박한 방 안에서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는 두 귀빈을 맞이했다.

한 명은 엄격한 인상에 높은 코, 매서운 눈매를 지닌 지배적인 분위기의 사내였다. 그는 다름 아닌 영국의 수상직을 두 번이나 역임한 저 명한 벨린저 경이었다. 다른 한 명은 아직 중년에도 접어들지 않은 듯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우아한 사내였다. 신체와 정신 모두에 아름다움을 갖춘 그는 유럽 담당 장관이자, 현재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정치가인 트렐로니 호프였다.

두 사람은 서류가 어지럽게 널린 우리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척하고 초조해 보이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용무 때문에 이곳을 찾아왔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수상의 푸른 힘줄이 돋은 마른 손은 우산의 상아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금욕적이고 야윈 그의 얼굴은 홈즈와 나를 번갈아 보며 침울한 기색을 내비

쳤다. 유럽 담당 장관은 초조한 듯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시계줄의 인장을 만지작거렸다.

"홈즈 씨, 오늘 아침 8시쯤 분실 사실을 깨닫자마자 즉시 총리 각하께 보고했습니다. 각하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이곳으로 가보라고 권하셨기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찰에는 알렸습니까?"

"아닙니다." 총리가 특유의 빠르고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찰에 알린다는 것은 결국 대중에게 알리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 문건이 워낙 중대한 것이라, 만약 세상에 공개된다면 유럽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의 확실히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결과에 따라 평화가 유지될 수도, 혹은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건을 되찾는 과정은 반드시 철저한 비밀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보안을 유지할 수 없다면, 차라리 되찾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문건을 훔쳐 간 자들의 목적은 결국 그 내용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렐로니 호프 씨, 이제 이 문서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즈 씨,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편지는 외국 통치자가 보낸 것이었는데, 엿새 전에 받았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서라 금고에 넣어두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화이트홀 테라스에 있는 제 집으로 직접 챙겨갔고, 침실에 있는 잠금장치가 달린 서류함에 보관해 왔습니다. 어젯밤에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면서 서류함을 직접 열어 문서가 들어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서류함은 밤새 화장대 위 유리잔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잠귀가 매우 밝습니다. 밤사이에 아무도 방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우리 둘 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셨습니까?"

"7시 반이군."

"잠자리에 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내가 극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우리가 방으로 돌아간 것은 11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네 시간 동안이나 그 서류함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 방에는 아침에 들어오는 하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제 개인 하인이나 아내의 하녀만 들어가지요.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저희를 모셔온 믿음직한 종들입니다. 게다

가 그들 중 누구도 제 서류함 안에 일반적인 업무용 서류보다 더 귀중한 물건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 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께서도 분명 알고 계셨겠지요?"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그 서류가 없어진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께서 공적인 의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토록 중대한 비밀이 걸린 문제라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그 의무가 앞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럽 담당 장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과찬이십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전까지는 아내에게 이 일에 대해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짐작이라도 했을까?"

"아닙니다, 홈즈 씨. 그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전에도 서류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이 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영국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어제 내각 구성원 모두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각 회의에는 항상 비밀 유지 서약이 따르는 법이지요. 게다가 총리께서 엄중히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제가 직접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줄이야!"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잘생긴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가 본래 얼마나 충동적이고 열정적이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그는 다시 귀족적인 가면을 썼고, 목소리도 다시 차분하게 돌아왔다.

"내각 구성원들 외에도 이 편지의 존재를 아는 부처 관리들이 두 명, 어쩌면 세 명 정도 더 있습니다. 홈즈 씨, 장담컨대 영국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라고요?"

"그걸 쓴 사람 말고는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장관들이나 통상적인 공식 경로를 통해서도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 선생님. 이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라진 것이 왜 이토록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여쭤봐야겠습니다."

두 정객이 짧게 눈빛을 교환했다. 그러자 수상의 덥수룩한 눈썹이 일그러지며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홈즈 씨, 봉투는 길쭉하고 얇은 연하늘색입니다. 붉은 밀랍 인장에는 웅크린 사자 문양이 찍혀 있고요. 받는 사람의 이름은 크고 굵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님, 송구스럽지만," 홈즈가 말했다. "이 세부 사항들이 흥미롭고 참으로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 조사는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_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_"

"그것은 지극히 중요한 국가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게다가 굳이 밝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그 대단한 능력으로 제가 설명한 봉투와 그 안의 내용물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조국에 큰 공을 세운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보상이라도 마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셜록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분은 이 나라에서 가장 바쁜 분들 아닙니까." 그가 말했다. "저 역시 제 나름대로는 처리해야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이번 일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대화를 더 이어가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수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깊게 파인 그의 눈동자에서 번뜩이는 날카롭고 매서운 안광은, 그 앞에서는 내각 전체도 움츠러들게 만들 정도였다. "이런 대우는 익숙하지 않소, 선생." 수상은 말을 내뱉었으나, 이내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우리 모두는 일 분 넘게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노련한 정치가인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다.

"홈즈 씨,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여야겠군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저희가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서 당신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건 무리한 요구겠지요."

"동감입니다." 젊은 정치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왓슨 박사, 당신과 당신 동료의 명예를 전적으로 믿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소. 아울러 당신의 애국심에도 호소하고 싶구려. 만약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우리 조국에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오."

"저희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결국 이 편지는 영국의 최근 식민지 정세 변화에 불만을 품은 어느 외국 통치자가 보낸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서둘러 작성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각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문체가 워낙 부적

절한 데다, 특정 구절들이 지나치게 도발적이라 이 내용을 공개했다가는 분명 이 나라에 매우 위험한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경, 이 편지가 공개되면 사회적 동요가 너무나 커질 것이기에, 감히 말씀드리건대 편지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나라는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홈즈는 종이 조각에 이름을 적어 수상에게 건넸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자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편지 때문입니다. 이 편지 한 통에 수십억 파운드의 자금과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리도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발신인에게는 알렸습니까?"

"예, 선생님. 암호 전보가 발송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군."

"아닙니다, 선생님. 그가 이미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고 혈기 넘쳤음을 깨달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우리보다는 그와 그의 국가에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대체 누가 편지를 훔치거나 공개하고 싶어 하겠느냐 말입니다."

"홈즈 씨, 방금 그 말씀은 저를 국제 정치의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군요. 하지만 유럽의 정세를 살펴보면 동기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거대한 병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두 개의 동맹 체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영국입니다. 만약 영국이 어느 한쪽 동맹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상대편 동맹이 전쟁에 참여하든 안 하든 결국 그쪽이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명확하군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통치자의 적들이 이 편지를 확보해서 세상에 공개하려는 목적은, 그의 국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것이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적의 손에 들어간다면, 대체 누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유럽의 그 어떤 대규모 정부 부처로든 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증기 기관이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트렐로니 호프 씨는 고개를 떨구며 가슴 위로 푹 숙이더니, 신음 섞인 소리를 크게 내뱉었다. 그러자 수상은 그의 어깨에 친절하게 손을 얹었다.

"이건 당신의 불운입니다, 친구여. 누구도 당신을 탓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소홀히 한 대비책이란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홈즈 씨, 이제 모든 사실을 파악하셨으니 어떤 방책을 권하시겠습니까?"

홈즈는 슬픈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께서는 이 서류를 되찾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그건 너무 가혹한 말씀이군요, 홈즈 씨."

"사실을 따져 보십시오. 밤 11시 30분 이후에 가져갔을 리는 만무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호프 씨 부부가 그 시간부터 도난 사실을 알아차릴 때까지 줄곧 방 안에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범행 시간은 어제 저녁 7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입니다. 아마도 더 이른 시간이었을 겁니다. 물건을 가져간 자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니,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려 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생각해보십시오. 이토록 중요한 서류를 그 시간에 가져갔다면, 지금쯤 그 서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미 빠르게 넘어갔겠지요. 이제 우리가 그 행방을 쫓거나 추적할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할까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입니다."

수상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홈즈 씨, 당신의 말은 지극히 논리적이군요. 이 일은 정말이지 우리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논의를 위해 가설을 하나 세워봅시다. 만약 그 서류를 하녀나 하인이 가져갔다고 가정한다면——"

"둘 다 오래전부터 함께해 온, 믿음직한 하인들이라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방이 2층에 있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도 없으며, 내부에서도 누군가 올라오는 걸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범인은 분명 이 집 안에 있는 사람 중 하나일 겁니다. 도둑이 그 문서를 누구에게 가져다주겠습니까? 제가 꽤 잘 아는 국제적인 스파이나 비밀 요원 중 한 명에게 넘기겠지요. 그 분야에서 우두머리 격이라 할 만한 인물이 셋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며 조사를 시작해 보죠. 만약 그중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특히 어젯밤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문서가 어디로 갔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유럽 담당 장관이 물었다. "그렇다면 런던에 있는 대사관으로 편지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군요. 이 요원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데다, 대사관과의 관계도 종종 껄끄러운 편이니까요."

수상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다.

"홈즈 씨,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값진 전리품을 직접 본인이 들고 본부까지 가져가려 하겠지요. 당신이 계획한 방식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맡은 다른 업무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새로운 진전이 있다면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정객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엄숙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다.

명망 높은 손님들이 떠나자, 홈즈는 말없이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나는 아침 신문을 펼쳐 들고 어젯밤 런던에서 일어난 자극적인 범죄 기사에 몰두해 있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탄성을 내뱉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홈즈는 들고 있던 파이프를 벽난로 선반 위에 내려놓았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황이 절박하긴 하지만,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들 중 누가 그것을 가져갔는지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아직 물건이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 자들에게는 돈이 문제일 뿐이고, 제 뒤에는 영국 재무부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만약 그 물건이 시장에 나온다면, 소득세가 단 한 펜스라도 더 오르는 한 제가 직접 사들이겠습니다. 그자가 상대편의 입찰가를 확인해 보려고, 이쪽에서 얼마를 제시하는지 지켜보며 물건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대담한 도박을 벌일 만한 자는 오베르슈타인, 라 로티에르, 그리

고 에두아르도 루카스, 이 세 사람뿐입니다. 한 명씩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아침 신문을 훑어보았다.

"저분이 고돌핀가에 사는 에두아르도 루카스인가요?"

"네."

"그를 만나지는 못할 걸세."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는 어젯밤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우리의 모험이 이어지는 동안 내 친구는 나를 놀라게 한 적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그를 이토록 완벽하게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오히려 짜릿한 쾌감마저 느꼈다. 그는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내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읽고 있던 대목은 바로 이 단락이었다.

웨스트민스터의 살인 사건

어젯밤, 고돌핀가 16번지에서 기이한 성격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곳은 강과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이에 자리 잡은 18세기 양식의 고풍스럽고 한적한 주택가로, 거대한 국회의사당 타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다. 이 작지만 품격 있는 저택에는 에두아르도 루카스 씨가 수년째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매력적인 성품으로 사교계에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아마추어 테너라는 명성 또한 자자한 인물이었다. 루카스 씨는 서른네 살의 미혼 남성으로, 집안에는 노령의 가사도우미 프링글 부인과 그의 하인 미튼이 있었다. 프링글 부인은 일찍 퇴근하여 집 위층에서 잠을 자는 편이었고, 하인 미튼은 저녁에 해머스미스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밤 10시 이후부터 루카스 씨는 저택에 홀로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11시 15분경, 고돌핀가를 지나던 배릿 경관이 16번지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앞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본 경관은 복도로 들어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가구들은 모두 한쪽으로 쓸려 있었고, 의자 하나가 방 한가운데에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그 의자 옆에는 이 집의 불행한 주인인 루카스 씨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의자 다리 하나를 여전히 움켜쥔 채였다. 심장을 찔린 그는 즉사한 것으로 보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벽면을 장식하던 동양 무기 수집품 중 하나인 굽은 형태의 인도식 단검이었다. 방 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가져가려 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도가 범행 동기는 아니었던 듯하다. 에두아르도 루카스 씨는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라, 그의 비극적이고 미스터리한 죽음은 수많은 지인에게 커다란 슬픔과 깊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 왓슨. 자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홈즈가 물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이군요."

"우연이라니요! 우리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던 세 명 중 한 명이 바로 여기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시간은 우리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는 그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요. 아니, 왓슨 박사,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 당국도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돌핀가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들이 보는 대로만 알 뿐입니다. 그들은 화이트홀 테라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우리만이 두 사건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루카스를 의심하게 만든 명백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고돌핀가는 화이트홀 테라스에서 걸어서 불과 몇 분 거리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다른 비밀 요원들은 웨스트엔드 아주 먼 곳에 살고 있고요. 따라서 루카스는 다른 이들보다 유럽 담당 장관의 저택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 집에서 전갈을 받기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사

소해 보일지 몰라도, 사건이 단 몇 시간 사이에 압축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허, 이게 대체 뭡니까?"

허드슨 부인이 쟁반 위에 여성의 명함을 받쳐 들고 나타났다. 홈즈는 명함을 슥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올리며 내게 건네주었다.

"힐다 트렐로니 호프 부인께 앞으로 나와 주시겠느냐고 정중히 여쭈어보게." 그가 말했다.

잠시 후, 그날 아침 이미 충분히 특별했던 우리의 소박한 아파트에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며 더욱 빛이 났다. 벨민스터 공작의 막내딸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그 어떤 묘사도, 생기 없는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지닌 섬세하고도 우아한 매력을 결코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가을 아침, 우리가 마주한 그녀의 모습에서 관찰자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뺨은 고왔으나 감정의 동요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빛나고 있었으나 그것은 열병에 걸린 듯한 번뜩임이었다. 예민한 입술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굳게 다물려 있었다. 열린 문틈 사이로 그 아름다운 방문객이 잠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공포였다.

"제 남편이 여기 왔었나요, 홈즈 씨?"

"네, 부인. 그분은 여기 다녀가셨습니다."

"홈즈 씨, 제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그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홈즈는 차갑게 목례를 하고는, 여인에게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부인께서 저를 매우 난처한 처지에 몰아넣으시는군요. 우선 자리에 앉아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더니 창문을 등지고 앉았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여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 모습은 마치 여왕과도 같았다.

"홈즈 씨," 그녀가 말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흰 장갑을 낀 그녀의 두 손이 깍지를 끼었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당신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 역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모든 일에 있어 완벽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치 문제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라면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사라졌다는 것도요.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철저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정말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홈즈 씨뿐입니다.

그러니 홈즈 씨, 부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홈즈 씨.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하느라 침묵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제발 깨닫기만 한다면,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남편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니까요. 도대체 도난당한 그 서류가 무엇입니까?"

"부인,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신음하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부인, 상황이 이렇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이 일에 대해 부인께 비밀로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라면, 직업적 비밀 유지 서약을 지키며 사실을 알아낸 제가 감히 그 사실을 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분이 숨긴 내용을 저더러 말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물으셔야 할 대상은 바로 남편분입니다."

"그분께도 이미 부탁을 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홈즈 씨,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명확히 짚어 주신다면 제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이번 일로 남편의 정치 경력에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요?"

"부인,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분명 아주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의구심이 풀린 사람처럼 그녀가 숨을 짧게 들이켰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홈즈 씨. 남편이 이 재앙을 처음 맞닥뜨리고 경악하며 내뱉은 말을 듣고 보니, 이 서류를 잃어버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파장을 불러올지도 알 것 같더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로서도 딱히 부정할 수는 없겠군요."

"그것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아닙니다, 부인. 그 질문은 제가 도저히 대답해 드릴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군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홈즈 씨,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다고 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록 남편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 해도, 남편이 겪는 불안을 함께 나누고 싶은 제 마음 때문에 홈즈 씨가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제가 이곳에 방문했다는 사실은 부디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녀는 문가에서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아름다운 얼굴과 놀란 눈, 그리고 굳게 다문 입술이 내 머릿속에 마지막 잔상으로 남았다. 그러고는 그녀가 사라졌다.

"자, 왓슨. 여성 문제는 자네 전문 분야 아닌가."

현관문이 쾅 닫히며 멀어지는 치맛자락의 사락거리는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자,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숙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정말로 원한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직접 진술한 내용도 명확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흠! 그녀의 외양을 떠올려 보게, 왓슨. 태도나 억누르고 있는 흥분, 안절부절못하는 모습, 그리고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던 태도까지 말이야. 그녀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계층 출신이라는 점도 잊지 말게나."

"그녀는 분명히 무척 동요한 상태였다."

"그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실을 자신이 아는 게 최선이라고, 아주 간곡하고도 이상할 만큼 진지하게 강조했던 것도 기억하게나.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그리고 왓슨,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그 여자는 빛을 등지고 앉으려고 아주 교묘하게 움직였네. 우리가 자신의 표정을 읽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지."

"맞아요, 그 방에 의자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하필 그 자리에 앉더군요."

"하지만 여자의 동기라는 건 참으로 속을 알 수 없는 법이라네. 자네도 기억하겠지, 내가 같은 이유로 의심했던 마게이트의 그 여인을 말이야. 코끝에 분가루가 묻어 있지 않았던 것, 결국 그게 정답이었지. 이런 모래성 같은 걸 토대로 어떻게 추리를 쌓아 올릴 수 있겠나? 여자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기이한 행동이 고작 머리핀이나 고데기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네. 그럼, 잘 있게, 왓슨."

"이제 떠나시는 겁니까?"

"그래, 오전에는 고돌핀가에 가서 정규 경찰 쪽 우리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이라네. 에두아르도 루카스가 우리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긴 하지만,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나도 전혀 짐작 가는 바가 없군.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미리 이론을 세우는 건 아주 큰 실수니까 말이야. 왓슨, 자네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새로운 방문객이 오는지 잘 살펴주게. 상황이 허락한다면 점심때 합류하도록 하지."

그날과 그다음 날, 그리고 그다음 날까지 홈즈는 친구들이라면 과묵하다고 말할 법하고, 다른 이들이라면 침울하다고 느낄 법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밖을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댔다. 바이올린을 켜다 말고 갑자기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했으며, 불규칙한 시간에 샌드위치를 허겁지겁 먹어 치우기도 했다. 내가 가볍게 건네는 질문에도 그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홈즈 본인이나 그가 쫓는 사건이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은 내게도 분명히 느껴졌다. 그는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신문을 통해 검시 결과와, 고인의 하인이었던 존 미튼이 체포되었다가 곧 풀려났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다. 검시관 배심원단은 명백한 고의적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범인은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범행 동기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 방 안에는 값나가는 물건들이 가득했지만,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인의 서류들도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없었다.

서류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 고인은 국제 정세에 정통한 학구적인 인물이었으며, 지칠 줄 모르는 정보통이자 여러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나라의 주요 정치인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랍을 가득 채운 문서들 사이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 여성을 만난 듯했으나 관계는 피상적이었다. 아는 여자는 많았지만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며 품행 또한 단정했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미스터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인 존 미튼의 체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그를 상대로는 어떤 혐의도 입증할 수 없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해머스미스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했었다.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그가 집으로 출발한 시각이 범행이 발각된 시각보다 먼저 웨스트민스터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밤공기가 워낙 쾌적했기에 일부 구간을 걸어왔다는 그의 설명은 꽤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실제로 자정쯤 도착했으며, 예상치 못한 비극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는 평소 주인

과도 사이가 좋았다. 고인의 유품 중 몇 가지, 특히 작은 면도기 세트가 미튼의 짐 상자에서 발견되기도 했으나, 그는 그것이 고인이 준 선물이라고 설명했고 가사도우미 역시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미튼은 루카스의 고용인이 된 지 3년이 된 상태였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루카스가 유럽 대륙으로 여행을 갈 때 미튼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루카스는 때때로 파리에서 석 달씩 머물기도 했지만, 그동안 미튼은 고돌핀가 저택을 관리하도록 맡겨졌다. 가사도우미는 사건 당일 밤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만약 주인이 손님을 맞이했다면, 주인이 직접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신문 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한, 그 수수께끼는 사흘 아침 동안 계속되었다. 홈즈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해도 그는 끝내 함구했다. 하지만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홈즈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기에, 나는 홈즈가 사건의 모든 전개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넷째 날, 파리에서 긴 전보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전보가 이 모든 의문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다.

파리 경찰이 최근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했다. 이 발견으로 지난 월요일 밤 웨스트민스터의 고돌핀가에서 폭력적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에두아르도 루카스 씨의 비극적인 운명을 둘러싼 베일이 벗겨졌다. 독자들은 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으며, 하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알리바이 문제로 사건이 미궁에 빠졌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어제, 오스테를리츠가에 있는 작은 빌라에 거주하는 앙리 푸르네 부인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하인들에 의해 당국에 접수되었다. 검사 결과, 그녀는 실제로 위험하고 영구적인 형태의 조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앙리 푸르네 부인은 지난 화요일에야 런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녀와 웨스트민스터 사건 사이를 연결하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사진을 대조해 본 결과, 앙리 푸르네 씨와 에두아르도 루카스는 사실 동일 인물임이 결정적으로 증명되었다. 고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런던과 파리에서 이중생활을 해온 것이다. 크리올 혈통인 푸르네 부인은 성격이 매우 예민하며, 과거에도 광기에 가까운 질투심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런던을 뒤흔든 이 끔찍한 범죄 또한 그녀가 그러한 광기 어린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월요일 밤 그녀의 행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화요일 아침, 차링 크로스 역에서 그녀의 묘사와 일치하는 한 여성이 흐트러진 모습과 격렬한 몸짓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범행은 그녀가 정신 이상 상태일 때 저질러졌거나, 혹은 범행 직후 그 충격으로 불행한 여인이 미쳐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그녀는 과거의 일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그녀가 이성을 되찾을 가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월요일 밤 고돌핀가의 저택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보던 여성이 푸르네 부인일지도 모른다는 증거도 확보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

홈즈가 아침 식사를 마치는 동안, 나는 그에게 사건의 내용을 소리 내어 읽어 주었다.

"나의 친애하는 왓슨," 홈즈가 식탁에서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자네가 참을성이 많긴 하지만, 지난 사흘 동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정말로 말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네. 지금 이 파리에서 온 보고서조차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니 말이야."

"그 남자의 죽음에 관해서라면, 분명히 결론이 난 일일 겁니다."

"그 남자의 죽음은 우리의 진짜 임무에 비하면 사소한 사건일 뿐이라네. 우리의 진짜 임무는 이 문서를 추적해서 유럽의 재앙을 막는 것이지. 지난 사흘 동안 일어난 중요한 일이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뿐이라네. 정부로부터 거의 매시간 보고를 받고 있지만, 유럽 어디에서도 분란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자, 만약 이 편지가 유출되었다면—아니, 유출될 리가 없지—하지만 유출되지 않았다면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숨기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망치질하듯 내 머릿속을 때리고 있다네. 루카스가 편지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편지가 그에게 전달되기는 했을까? 만약 전달되었다면, 왜 그의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지? 그의 미친 아내가 편지를 가지고 달아난 걸까? 그렇다면 파리에 있는 그녀의 저택에 편지가 있을까? 프랑스 경찰의 의심을 사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왓슨, 이 사건은

범죄자들만큼이나 법 집행 기관도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라네. 모든 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걸려 있는 이해관계는 어마어마하지. 만약 내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그것은 내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 분명하네. 아, 여기 최전방에서 온 소식이 있군!"

홈즈는 방금 전달된 쪽지를 급히 훑어보았다.

"이런! 레스트레이드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모양이야. 왓슨, 모자 쓰게. 같이 웨스트민스터까지 걸어가 보세나."

범죄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곳은 높고 칙칙하며 폭이 좁은 집이었다. 그 집은 마치 그것이 지어진 세기처럼, 단정하고 격식 있으며 견고한 느낌을 주었다. 앞창 너머로 레스트레이드의 불독 같은 얼굴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덩치 큰 순경이 문을 열어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자, 레스트레이드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가 안내받은 방은 바로 범죄가 일어났던 곳이었다. 하지만 카펫 위에 남은 흉측하고 불규칙한 얼룩을 제외하면, 이제 그곳에 범죄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방 중앙에는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드러깃 카펫이 깔려 있었고, 그 주변은 반짝이게 닦인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나무 블록 바닥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벽난로 위에는 화려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비극적인 그날 밤에 사용되었다. 창가에는 호화로운 서재용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림과 카펫, 커튼에 이르기까지 방 안의 모든 세세한 요소는, 지나치게 화려하여 자칫 여성스럽게 보일 정도의 사치스러운 취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파리에서 온 소식 들었나?"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스 친구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짚은 모양이군.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말이 맞을 거야. 여자가 문을 두드렸겠지. 남자가 워낙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며 살아왔으니, 아마 예고 없는 방문이었을 테고. 남자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을 거야. 여자를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테니까.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이야기하며 그를 비난했겠지. 그러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고, 마침 근처에 있던 단검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거야.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어. 저쪽 의자들이 전부 쓰러져 있는 걸 보니 말이야. 게다가 남자가 손에 의자를 쥐고 있는 걸 보면, 의자로 여자를 막아보려 했던 것 같군. 마치 우리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모든 정황이 명확해."

홈즈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런데도 저를 부르신 겁니까?"

"아, 맞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당신이 흥미를 가질 만한 종류의 일입니다. 기묘하면서도, 말하자면 아주 괴상한 일이죠. 하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글쎄요, 아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범죄가 발생하면 우리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지요. 담당 경관이 밤낮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고인의 장례를 마치고—적어도 이 방에 관한 한—조사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제 좀 정리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카펫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 고정된 게 아니라 그냥 깔려 있을 뿐이지요. 카펫을 들어 올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네? 그걸 찾아내셨다고요——"

홈즈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글쎄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냈는지는 백 년을 골똘히 생각하셔도 절대 짐작조차 못 하실 겁니다. 저기 카펫에 남은 얼룩이 보이십니까? 저 정도면 액체가 아주 많이 스며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래야만 하겠지."

"글쎄요, 하얀 목재 가구에 그에 걸맞은 얼룩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룩이 없다니! 하지만 분명히 있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카펫 모서리를 손으로 집어 들더니, 그것을 뒤집어 보였다. 과연 그의 말대로였다.

"하지만 뒷면도 앞면만큼이나 얼룩져 있습니다. 분명히 자국이 남았을 겁니다."

레스트레이드는 그 유명한 전문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껄껄 웃었다.

"자, 이제 설명해 드리지요. 얼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얼룩과는 모양이 맞지 않아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홈즈는 말을 하며 카펫의 다른 부분을 들춰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된 바닥의 하얀 사각형 테두리 위에 붉은 액체가 크게 쏟아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홈즈 씨, 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얼룩 두 개가 서로 일치하긴 했지만, 카펫을 돌려놓은 것이었죠. 카펫이 정사각형인 데다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서 돌려놓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홈즈 씨, 카펫을 돌려놓은 게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경찰이 당신을 부른 건 아닙니다. 이쪽 방향으로 카펫을 놓아보면 얼룩이 서로 겹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누가, 그리고 왜 카펫을 옮겼느냐 하는 겁니다."

홈즈의 굳은 표정만 보아도 그가 내면에서 얼마나 격렬한 흥분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봐요, 레스트레이드 경위," 홈즈가 말했다. "복도에 있는 그 순경이 내내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자, 내 조언을 잘 듣게. 그자를 면밀히 조사하게나. 하지만 우리 앞에서 하지는 말게.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자네가 그자를 뒷방으로 데려가게. 단둘이 있을 때가 자백을 받아내기에 훨씬 유리할 걸세. 어떻게 감히 사람들을 들여보내 놓고 이 방에 혼자 남겨둘 수 있었느냐고 추궁하게나. 범인이냐고 묻지는 말게. 이미 범인인 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몰아붙여야 하네. 누군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게. 압박을 가하게나.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하게!"

"맙소사, 그자가 뭔가 알고 있다면 내가 기어코 알아내고 말겠어!" 레스트레이드가 외쳤다. 그는 복도로 쏜살같이 달려 나갔고, 잠시 후 뒤쪽 방에서 그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왓슨, 어서!"

홈즈가 광적인 열의를 담아 외쳤다. 무기력해 보이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악마 같은 힘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그는 바닥에 깔린 깔개를 거칠게 걷어내더니, 곧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무 판자들을 하나하나 손톱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판자 하나를 손톱으로 움켜쥐자 그것이 옆으로 비틀렸다. 마치 상자 뚜껑처럼 경첩을 따라 들려 올려진 것이다. 그 아래로 작은 검은 구멍이 나타났다. 홈즈는 갈구하듯 손을 그 안으로 찔러 넣었으나, 이내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낮은 신음 소리를 내며 손을 빼냈다.

안은 비어 있었다.

"서둘러, 왓슨, 서둘러! 다시 덮어!"

나무 뚜껑을 다시 덮고 깔개를 막 가지런히 끌어당겼을 때, 복도에서 레스트레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벽난로 선반에 나른하게 기대어 있는 홈즈를 발견했다. 홈즈는 참으려 해도 자꾸 터져 나오는 하품을 숨기려 애쓰며, 체념한 듯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홈즈 씨. 이 사건 때문에 아주 지루해 죽으실 지경인 것 같군요. 네, 드디어 자백했습니다. 맥퍼슨, 이리로 들어오게. 자네의 그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이 신사분들께 직접 들려드려야겠어."

덩치 큰 경관이 몹시 쑥스러운 듯, 죄송한 기색을 가득 띤 채 방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다.

"결코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입니다. 어제저녁에 한 젊은 여성이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집을 잘못 찾아온 모양이더군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서 근무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는 범죄가 일어난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다더군요. 아주 품위 있고 말씨도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잠시 구경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카펫에 남은 흔적을 보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뒤편으로 달려가 물을 떠 왔지만, 여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디를 구하러 모퉁이에 있는 아이비 플랜트 식당까지 다녀왔지요.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그 아가씨는 이미 정신을 차리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스로가 부끄러워 차마 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깔개를 옮긴 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게 말입니다, 손님. 제가 돌아왔을 때 확실히 좀 구겨져 있긴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분이 그 위로 넘어지셨거든요. 게다가 바닥이 매끄러운 광택이 나는 재질이라, 딱 붙잡아 줄 만한 게 없다 보니 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잘 펴 두었습니다."

"맥퍼슨 순경,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네." 레스트레이드가 위엄 있는 태도로 말했다. "자네의 직무 유기를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겠지. 하지만 저 깔개를 슬쩍 보기만 해도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네. 자네 운이 좋은 줄 알게. 사라진 물건이 없으니 망정이지, 만약 하나라도 없어졌다면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테니까."

레스트레이드가 홈즈를 향해 말을 이었다. "홈즈 씨, 이런 사소한 일로 당신을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얼룩이 첫 번째 얼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당신의 흥미를 끌 것 같아서 말입니다."

"분명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었네. 순경, 이 여자는 이곳에 딱 한 번만 왔었나?"

"예, 선생님.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성함은 모릅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타자수 광고를 보고 응하려다 번지를 잘못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주 상냥하고 품위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요?"

"네, 나으리. 아주 건장한 처자였습니다. 미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 어떤 이들은 아주 빼어난 미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유, 경관님, 저도 좀 슬쩍 보게 해주세요!'라며 애교를 떨더군요. 아주 예쁘고 달콤하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라, 문틈으로 머리만 살짝 들이밀게 해주는 것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옷차림이었습니까?"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선생님—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망토를 걸치고 있었지요."

"몇 시였지?"

"그때는 막 황혼이 지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브랜디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막 등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아주 좋군." 홈즈가 말했다. "가세, 왓슨. 다른 곳에서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레스트레이드는 앞방에 남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한 순경이 문을 열어 우리를 배웅했다. 계단에 올라선 홈즈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손에 든 무언가를 들어 보였다. 순경은 그 물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세상에, 선생님!" 그가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다. 홈즈는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그를 제지하더니, 다시 손을 가슴 포켓에 넣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따라 꺾어 들어갈 때 홈즈는 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해!" 홈즈가 말했다. "자, 왓슨 친구, 이제 마지막 막을 위해 막이 오르려 하네. 자네도 안심하게 될 거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존경받는 트렐로니 호프 경의 화려한 경력에도 아무런 차질이 없을 테니까. 경솔했던 국왕 폐하께서도 그 실수에 대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며, 총리 역시 유럽의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일은 없을 걸세. 우리가 약간의 재치와 수완만 발휘한다면, 자칫 끔찍한 사건으로 번질 뻔했던 이 일로 인해 그 누구도 단 한 펜스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될 테니 말이야."

이 비범한 인물에 대한 경외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풀어내셨군요!" 내가 외쳤다.

"그렇지는 않네, 왓슨. 여전히 안갯속처럼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 하지만 이미 알아낸 사실이 워낙 많으니, 나머지 단서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잘못일 뿐이야. 곧장 화이트홀 테라스로 가서 이 사건을 매듭지어 버리세."

유럽 담당 장관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셜록 홈즈가 찾은 사람은 레이디 힐다 트렐로니 호프였다. 우리는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홈즈 씨!" 여인이 외쳤다. 분노로 인해 그녀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 불공평하고 무례한 처사예요. 이미 설명했듯이, 저는 남편이 제가 자신의 일에 참견한다고 오해할까 봐 당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 우리 사이에 업무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결국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유감스럽게도 부인, 제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매우 중요한 서류를 되찾으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 부인,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서류를 제게 넘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인은 벌떡 일어섰다. 아름다운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으며, 몸은 비틀거렸다. 나는 그녀가 그대로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충격을 이겨내려 온 힘을 다해 정신을 차렸다. 이내 그녀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서렸고, 그 감정들은 다른 어떤 표정도 남기지 않은 채 얼굴 전체를 뒤덮었다.

"홈즈 씨,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자, 자, 부인.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 편지를 내놓으시지요."

그녀는 벨을 누르러 급히 달려갔다.

"집사가 배웅해 드릴 겁니다."

"벨을 누르지 마세요, 힐다 부인. 만약 벨을 누른다면 스캔들을 막으려 했던 나의 모든 간절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그 편지를 포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나와 협조한다면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을 거스른다면, 나도 당신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여왕과도 같은 위엄을 갖춘 채 당당히 맞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벨 위에 놓여 있었으나, 차마 벨을 누르지는 못하고 있었다.

"겁을 주려는 모양이군요. 홈즈 씨,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건 그리 사나이다운 행동은 아닙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고 하셨죠? 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자, 앉으시지요, 부인. 거기 계속 서 계시다간 넘어지기라도 해서 다치실 겁니다. 앉으실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홈즈 씨."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힐다 부인. 당신이 에두아르도 루카스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그에게 이 문서를 건네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그 방으로 기발하게 다시 돌아간 것도, 카펫 아래 숨겨진 곳에서 편지를 어떻게 가져갔는지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잿빛이 된 얼굴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을 내뱉기도 전에 마른침을 두 번이나 꿀꺽 삼켰다.

"홈즈 씨, 당신은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마침내 그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판지 조각 하나를 꺼냈다. 초상화에서 여성의 얼굴 부분만 오려낸 것이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경찰관이 이것을 알아봤더군요."

그녀는 숨을 헉 하고 들이켜더니, 의자 등받이 위로 고개를 툭 떨구었다.

"자, 힐다 부인. 편지는 이미 손에 넣으셨지 않습니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께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임무는 잃어버린 편지를 부인의 남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 조언을 듣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녀의 용기는 감탄스러울 정도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결코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즈 씨, 당신은 지금 터무니없는 착각에 빠져 계신 겁니다."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힐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군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국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벨을 눌렀다. 그러자 집사가 들어왔다.

"트렐로니 호프 씨 계십니까?"

"그분은 1시 15분 전에는 집에 도착하실 겁니다, 선생님."

홈즈가 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아직 15분은 더 남았군요." 그가 말했다. "좋습니다. 기다리도록 하죠."

집사가 문을 닫기가 무섭게 힐다 부인은 홈즈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두 손을 내밀고 있었고, 아름다운 얼굴은 눈물로 젖은 채 위를 향하고 있었다.

"오, 제발요, 홈즈 씨! 제발요!" 그녀는 정신없이 매달리며 애원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에게 말하지 말아 주세요! 전 그를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의 삶에 그 어떤 그림자도 드리우고 싶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고결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홈즈가 부인을 일으켜 세웠다. "부인, 마지막 순간에라도 제정신을 차려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 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책상으로 급히 달려가더니, 자물쇠를 열고 길쭉한 파란색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홈즈 씨. 차라리 이걸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이지 괴롭군요!"

"어떻게 돌려주지?" 홈즈가 중얼거렸다. "서둘러야 해, 서둘러!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서류함은 어디 있지?"

"여전히 침실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어서요, 부인,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시오!"

잠시 후, 그녀가 손에 붉은색 납작한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전에는 어떻게 열었습니까? 여분 열쇠라도 있는 건가요? 그래요, 당연히 있겠지요. 어서 열어 보세요!"

힐다 부인은 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상자가 덜컥 열렸다. 그 안은 서류로 가득 차 있었다. 홈즈는 파란 봉투를 다른 서류들 사이, 그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상자는 다시 닫혀 잠겼고, 침실로 되돌아갔다.

"이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직 10분의 여유가 있군요. 힐다 부인, 제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 그 대신, 남은 시간 동안 이 기이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홈즈 씨, 전부 말씀드릴게요!" 여인이 외쳤다. "오, 홈즈 씨, 그가 조금이라도 슬퍼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제 오른손을 잘라버리겠어요! 런던의 그 어떤 여인도 저만큼 남편을 사랑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가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행동해야만 했는지 알게 된다면, 그는 절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에, 타인의 실수라면 결코 잊지도 용서하지도 못할 테니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홈즈 씨! 제 행복과 그의 행복,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목숨까지도 모두 달려 있어요!"

"서두르십시오, 부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즈 씨, 그건 제 편지였어요. 결혼 전에 철없이 쓴 편지였죠. 사랑에 눈이 멀어 충동적으로 써 내려간 어리석은 편지였어요.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남편은 그것을 범죄처럼 여길지도 몰라요. 만약 남편이 그 편지를 읽었다면, 저에 대한 신뢰는 영영 깨져버렸을 거예요.

편지를 쓴 지는 벌써 몇 년이나 지났어요. 저는 그 일이 다 잊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침내 루카스라는 남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 편지가 자기 손에 들어갔으며, 남편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제 남편의 서류함에 들어 있는 어떤 문서를 가져다주면 편지를 돌려주겠다고 말이에요. 사무실에 심어둔 첩자가 그 문서의 존재를 알려주었다더군요. 그는 남편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어요.

홈즈 씨, 제 처지가 되어 보세요!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남편분께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홈즈 씨,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한쪽에는 확실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남편의 서류를 가져간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있었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사랑과 신뢰의 문제라면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저질렀고 말았어요, 홈즈 씨! 제가 남편의 열쇠를 본떠서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루카스라는 남자가 그 복사

본을 만들어 주었죠. 저는 남편의 서류함을 열어 서류를 꺼낸 뒤, 그걸 고돌핀가로 가져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인?"

"약속한 대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루카스가 문을 열더군요. 저는 그를 따라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와 단둘이 남게 될까 두려워 복도 문은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들어설 때 문밖에 여자가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건은 금방 끝났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는 제게 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루카스는 재빨리 깔개를 들추더니, 그곳에 숨겨둔 곳에 서류를 밀어 넣고는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마치 끔찍한 악몽 같습니다. 어둡고 광기 어린 얼굴, 그리고 프랑스어로 비명을 지르던 한 여인의 목소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드디어, 드디어 그녀와 함께 있는 당신을 찾아냈어!'라고 말이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나는 그 끔찍한 현장에서 뛰쳐나와 집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신문을 통해 그 비극적인 결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만 해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편지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때의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나는 내가 겨우 한 가지 문제를 다른 문제로 맞바꿨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서를 잃어버린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제가 저지른 일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과거의 잘못까지 모두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깨달은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의 문서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문서를 숨겨두었으니, 분명 루카스가 두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남편의 은닉처가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틀 동안 그곳을 지켜보았지만, 문은 단 한 번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이미 들으셨겠지요. 저는 문서를 되찾아 돌아왔지만, 그것을 없애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문서를 돌려줄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계단을 올라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들려요!"

유럽 담당 장관이 흥분한 기색으로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소식은 좀 있습니까, 홈즈 씨? 뭐 좀 들은 게 있나요?" 그가 외쳤다.

"기대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아, 다행이군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마침 총리께서 나와 함께 점심을 드시기로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함께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강철 같은 담력을 가진 분이지만,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뒤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제이콥스, 총리께 위층으로 올라오시라고 전해주겠나? 그리고 부인, 미안하지만 이 일은 정치적인 문제인 듯하군요. 잠시 후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총리의 태도는 차분했으나, 번뜩이는 눈빛과 마른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을 보니 그 역시 젊은 동료와 마찬가지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홈즈 씨, 보고할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아직은 전혀 아무런 징후가 없네." 내 친구가 대답했다. "가능성 있는 곳은 전부 조사해 보았으니, 걱정할 만한 위험은 없다고 확신하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홈즈 씨. 이런 화산 위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편지를 꼭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편지는 결코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홈즈 씨!"

"만약 사실이라면, 벌써 세상에 다 알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 왜, 그걸 집에 보관하려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그것을 가져갔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이 어떻게 서류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이 서류함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는지 의문이군요."

"홈즈 씨, 이런 농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화요일 아침 이후로 그 상자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텐데요."

"하지만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분명 그곳에 다른 서류들도 더 있을 텐데, 아마 그 서류들 사이에 섞여 들어간 게 아닐까요?"

"맨 위에 놓여 있었네."

"누군가 상자를 흔드는 바람에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전부 다 꺼내 놓은 상태였습니다."

"호프, 그건 아주 쉽게 결정될 문제라네." 수상(Premier)이 말했다. "어서 서류함(despatch-box)을 가져오게."

비서가 벨을 눌렀다.

"제이콥스, 내 서류함을 가져오게. 정말이지 시간 낭비일 뿐이지만, 자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해줘야겠군. 고맙네, 제이콥스. 여기 두게나. 열쇠는 항상 내 시계줄에 걸어두었지. 자, 서류들이 여기 있네. 메로우 경의 편지, 찰스 하디 경의 보고서, 베오그라드에서 온 각서, 러시아와 독일의 곡물세에 관한 메모, 마드리드에서 온 편지, 플라워스 경의 쪽지…… 세상에! 이게 대체 뭔가? 벨린저 경! 벨린저 경이라니!"

수상은 그의 손에서 파란색 봉투를 낚아챘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편지도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군요. 축하드립니다, 호프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군요. 하지만 이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홈즈 씨, 당신은 마법사요, 마술사가 따로 없군요! 그게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곳 말고는 다른 데에 있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그는 미친 듯이 문을 향해 달려갔다. "내 아내는 어디 있나? 모든 게 잘 해결됐다고 꼭 전해야 해. 힐다! 힐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상은 눈을 반짝이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자, 이리 오시지요." 그가 말했다. "이 일에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편지가 어떻게 다시 상자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홈즈는 그 경이로운 눈동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뒤로한 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우리에게도 외교적 비밀은 있는 법이라네."

그가 그렇게 말하며 모자를 집어 들더니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끝